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한민국 고독사의 현주소와 미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대학생취재팀

정책자료집을 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홀로 이 세상에 나와 홀로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지만, 그 누구도 외로운 삶의 끝자락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독사(孤獨死)는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 내에서 생활하다가 돌발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발병 직후 타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고립사, 무연고사 등의 '외로운 죽음'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평균수명 증가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구성 비율은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사회안전망,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혼인율 감소 및 이혼율 증가, 원자화된 개개인간의 사회관계망 해체 등 각종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며, 고독사를 맞게 되는 인구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대학생취재팀은 본 위원장실의 협조를 통해, 지난 2개월 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206명의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한 때는 꿈과 희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었다.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에, 이들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을 결코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생취재팀이 맘 흘러 취재한 고인들의 안타까운 살아생전 이야기들 중 일부를 함께 소개하며, 대한민국 고독사의 현주소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아울러 단 2회 분량의 방송으로 방영된 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대학생취재팀의 열정이 담긴 이 결과물이 언젠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 및 정책 마련에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쪼록 본 정책자료집이 고독사 현황 분석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정책자료집이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 유경선 보좌관, 최성희 비서, 성우석 비서, 양윤정 인턴, 윤혜원 인턴, 장재명 인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현장에서 고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되짚어준 김훈석 PD, 김미지 작가, 천혜진 작가와 67명의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대학생취재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목 차

I. 들어가며

II.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 실태

1. 무연고 시체의 정의

2. 무연고 시체 처리의 법적근거 및 절차

3. 무연고 사망자 현황

(1) 최근 3년간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2) 2013 서울시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III. 무연고 사망자 사례 분석

1.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2. 무연고 사망자 사례

(1) 자존심 강했던 월남전 참전 팔각모 사나이

(2) 세상의 끝에서 나눔을 외친 붕어빵 아저씨

(3) 장애가 두렵지 않았던 의지의 사나이

(4) 사람이 그리웠던 외로운 멋쟁이

(5)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한 여자

(6) 불우했지만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던 인쇄공

(7) 자유를 갈망하던 공사장 근로자

(8) 장애를 가진 동생을 끔찍이 아꼈던 형

(9) 폐암말기,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남자

(10) 안 해본 일 없는 성실한 택시기사

(11) 알코올중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남자

(12) 실패한 사업가에서 노숙인으로 생을 마감한 교사

(13) 동거남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한 40대 여인

(14) 가족 친지 사이에서 입양인으로 평생 외로웠던 선박전문가

3. 무연고 사망자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IV. 나가며

I. 머리말

고독사(孤獨死)란 말 그대로 홀로 외롭게 지켜보는 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고독사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합의된 용어가 아니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사용하는 용어는 더더구나 아니다. 따라서 고독사에 대한 국가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고독사에 가장 근접한 용어는 ‘무연고사’이다. 고독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계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사망통계정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변사자 현황자료,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현황자료를 취합했다. 통상 무연고사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기초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만큼, 시군구 자치단체의 무연고사 처리현황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2조는 무연고 시체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로 정의하고, 해당 시체를 발견한 시장 군수는 무연고 시체를 일정기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연고사는 실제 연고자가 없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가족이 있어도 무연고 시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다.

고독사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할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해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질수록 고독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정책자료집은 사회적 용어인 고독사가 정부 정책의 용어로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벌써 4년 전 고독사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바 있으나, 고독사는 여전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실태를 분석하였다. 무연고 시체에 대한 정의와 법적근거, 무연고 시체 처리 절차,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과 2013년 한 해 동안의 서울시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대학생취재팀이 취재한 14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취재팀의 취재 사례는 저명한 주간지 르포 기사 이상의 수준이다. 대학생이라는 공식적인지 않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라는 불편한 진실에 관여했던 주변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취재해나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제4장에서는 무연고사 통계와 고독사 사례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자살자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백골 형식으로 발견되어 성별 불상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셋째, 고독사는 노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넷째, 고독사 유품정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비 미지급으로 인한 무연고사 처리 및 시체포기각서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장에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담았다.

II.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 실태

1. 무연고 시체의 정의

‘무연고 시체’를 정의하기에 앞서 ‘연고자’의 정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고자는 「장사법」 제2조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망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 「장사법」 제2조제16호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상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그리고 ‘무연고 시체’란 다음 세 가지를 가리킨다.

첫째, 「장사법」 제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시체

둘째,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

셋째,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자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수를 거부한 시체

그러나 연고자가 있어도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장애인 또는 고연령층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그 외 시장 등이 무연고 시체 처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체로 보고 무연고 시체처리절차를 따른다.

2. 무연고 시체 처리의 법적근거 및 절차

「장사법」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무연고 시체를 매장 또는 봉안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즉시 공고해야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연고 시체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10년이다.

무연고 시체의 처리는 「장사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의료법」, 「외국인 보호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실제로 무연고 시체는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및 연구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장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구자에 대한 탐문 및 조사를 통해 사망의 연고자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사망자의 연고자가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연고자에게 시체 없이 시체를 인도해야하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해 연고자가 시체의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연고자로부터 ‘시체처리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시체로 처리한다.

만약 지자체장이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시체 인수를 통보하였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하고, ‘시체처리위임’도 하지 않은 경우 시체의 손상, 부패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시체인수 또는 시체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체인수 또는 시체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체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무연고 시체로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연고자에게 통보한다.

외국인 무연고 시체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및 자국 내 연고자 파악 또는 시체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무연고 사망자 현황

(1) 최근 3년간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최근 3년간 정부예산을 투입해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무연고 사망자는 총 2,279명으로 남성이 79.2%(1,850명), 여성이 18.2%(415명),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미상이 2.6%(59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682명, 2012년에는 719명, 2013년에는 878명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에는 남성이 542명, 여성이 120명, 미상이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남성이 562명, 여성이 135명, 미상자가 22명이었다. 2013년에는 남성이 702명, 여성이 159명, 미상자가 17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2,279명의 사망자 중 서울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801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35.1%에 달했다. 다음은 경기도로 무연고 사망자는 총 343명으로 남성이 233명, 여성이 89명, 미상자가 21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무연고 시체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로 총 22명으로 나타났다.

* 세종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6명으로 가장 적으나 제외

특히 대구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57명 중 남성이 40명, 여성이 17명으로 여성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29.8%에 달해, 전체 시도 중 여성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골 등으로 발견되어 성별을 알 수 없는 불상시체는 최근 3년간 59로 나타났는데, 경기도가 21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8구, 전라남도가 9구, 경상북도가 5구로 나타났다.

<2011년~2013년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 구, %)

시도	무연고 사망자 현황																															
	2011								2012								2013								합계							
	남		여		미상		계		남		여		미상		계		남		여		미상		계		남		여		미상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서울	237	88.1	32	11.9	0	0.0	269	100	217	87.9	30	12.1	0	0.0	247	100	255	89.5	30	10.5	0	0.0	285	100	709	88.5	92	11.5	0	0.0	801	100
대전	10	90.9	1	9.1	0	0.0	11	100	14	73.7	5	26.3	0	0.0	19	100	20	76.9	6	23.1	0	0.0	26	100	44	78.6	12	21.4	0	0.0	56	100
대구	23	71.9	9	28.1	0	0.0	32	100	6	66.7	3	33.3	0	0.0	9	100	11	68.8	5	31.3	0	0.0	16	100	40	70.2	17	29.8	0	0.0	57	100
부산	31	63.3	15	30.6	3	6.1	49	100	37	71.2	15	28.8	0	0.0	52	100	41	71.9	16	28.1	0	0.0	57	100	109	69.0	46	29.1	3	1.9	158	100
인천	22	88.1	7	11.9	8	0.0	37	100	29	72.5	6	15.0	5	12.5	40	100	40	71.4	11	19.6	5	8.9	56	100	90	88.5	24	11.5	18	0.0	132	100
울산	5	71.4	2	28.6	0	0.0	7	100	10	58.8	6	35.3	1	5.9	17	100	16	94.1	1	5.9	0	0.0	17	100	32	76.2	9	21.4	1	2.4	42	100
광주	3	60.0	2	40.0	0	0.0	5	100	1	33.3	1	33.3	1	33.3	3	100	13	92.9	1	7.1	0	0.0	14	100	17	77.3	4	18.2	1	4.5	22	100
충청	0	0.0	1	50.0	1	50.0	2	100	1	100.0	0	0.0	0	0.0	1	100	3	100.0	0	0.0	0	0.0	3	100	4	66.7	1	16.7	1	16.7	6	100
경기	59	88.1	22	11.9	7	0.0	88	100	71	87.9	35	12.1	6	0.0	112	100	103	72.0	32	22.4	8	5.6	143	100	233	67.9	89	25.9	21	6.1	343	100
강원	11	64.7	6	35.3	0	0.0	17	100	22	78.6	6	21.4	0	0.0	28	100	25	75.8	8	24.2	0	0.0	33	100	58	74.4	20	25.6	0	0.0	78	100
충청	28	96.6	1	3.4	0	0.0	29	100	30	90.9	3	9.1	0	0.0	33	100	39	78.0	11	22.0	0	0.0	50	100	97	86.6	15	13.4	0	0.0	112	100
충청	18	78.3	5	21.7	0	0.0	23	100	21	91.3	2	8.7	0	0.0	23	100	16	72.7	6	27.3	0	0.0	22	100	55	80.9	13	19.1	0	0.0	68	100
전라	15	75.0	4	20.0	1	5.0	20	100	16	69.6	1	4.3	6	26.1	23	100	19	76.0	4	16.0	2	8.0	25	100	50	73.5	9	13.2	9	13.2	68	100
전라	17	81.0	4	19.0	0	0.0	21	100	7	77.8	2	22.2	0	0.0	9	100	22	84.6	4	15.4	0	0.0	26	100	46	82.1	10	17.9	0	0.0	56	100
전라	17	85.0	3	15.0	0	0.0	20	100	21	72.4	5	17.2	3	10.3	29	100	27	64.3	13	31.0	2	4.8	42	100	65	71.4	21	23.1	5	5.5	91	100
전라	23	85.2	4	14.8	0	0.0	27	100	37	78.7	10	21.3	0	0.0	47	100	30	78.9	8	21.1	0	0.0	38	100	89	79.5	23	20.5	0	0.0	112	100
제주	23	92.0	2	8.0	0	0.0	25	100	22	81.5	5	18.5	0	0.0	27	100	22	88.0	3	12.0	0	0.0	25	100	67	87.0	10	13.0	0	0.0	77	100
합계	542	79.5	120	17.6	20	2.9	682	100	562	78.2	135	18.8	22	3.1	719	100	702	80.0	159	18.1	17	1.9	878	100	1,805	79.2	415	18.2	59	2.6	2,279	100

(2) 2013 서울시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2013년 한해에 대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255명의 사망 연령을 분석한 결과 51세부터 60세 이하가 34%(8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연고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고, 61세부터 64세미만은 46명으로 전체의 18%, 50세 미만도 48명이나 되었다.

우리는 보통 무연고사 또는 고독사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사건 또는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대의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 서울시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40세 이하	41세-50세	51세-60세	61세-64세	65세 이상	기타	합계
인원	10	38	87	46	66	8	255
비율	4	15	34	18	26	3	100

III. 무연고 사망자 사례 분석

1.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지난 4월부터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제작팀과 3월 31일, 4월 11일, 8월 12일 총 3차례 실무미팅을 가졌다. 1차 미팅 이후 4월 8일에 보건복지부에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당시 정보 및 연고자 파악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3년간 시도 및 시군구별 정부예산이 투입된 무연고시체처리현황>과 <2013년 시군구 별 무연고시체처리대장>자료를 의뢰하였고, 5월 9일 자료를 수신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해당 무연고 사망자 개개인의 기본인적정보 및 사망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 현황이 통합된 통계자료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무연고시체관리대장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지, 연고자 유무, 무연고 사망자 시체처리 방법 등의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연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 현황자료를 요청하여 무연고자의 의료급여수급여부, 건보가입현황(직장인지/지역인지)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심층취재가 필요한 대상을 확보했다.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제작팀은 상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취재대상을 선별하였으며, 총 67명(전국 27개 팀)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대학생취재팀이 6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206명의 무연고 사망자들의 살아생전 이야기를 취재했다.

대학생취재팀은 고인이 살아생전 살던 지역을 탐문하며, 고인의 지인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찾아 인터뷰하고, 경찰서,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 관계망을 확장해나갔다. 취재는 사례마다 다른데 총 1차부터 최대 14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취재시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취재장소, 취재내용, 느낀 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2. 고독사 사례

(1) 자존심 강했던 월남전 참전 팔각모 사나이

- 시체처리구: 서울특별시 OO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45
- 등록기준지: 경기도
- 주소지: 서울특별시
- 혼인사항: -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4
- 사망지: 서울특별시
- 주거형태: 주택
- 발견일시: -
- 발견자: ○○집 아저씨
- 안치장소: 서울특별시
- 사망원인: 폐암
- 기타: -

1차 취재일	2014년 6월 30일 월요일	1차 취재장소	고인의 생전 주소지 일대 (OO역 주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앞집 내외(서울시 OO구) 2. ○○집 아저씨 3. 옆집 아주머니(○○번지 집 안쪽 방 거주) 4. OO 전우회(OO동) - P 5.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 6. 그 외(○○ 목욕탕, ○○다방, ○○다방, 과일가게, ○○약국 등)		
1차 취재 내용	<p>고 P 씨가 사셨던 곳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OO동이였다. 남OO역에서 내려 고인의 생전 주소지로 찾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와 중국어 간판들로 인해 마치 서울이 아니라 중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p> <p>P 씨가 사시던 집은 큰 길에서 가까운 골목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지나쳐 버렸을 정도로 작고 허름했다. 집안 안쪽으로 들어가니 쪽방 6칸 정도가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햇볕이 쨍쨍한 오전 11시 경이었는데도 내부가 어두웠다.</p> <p>A. 앞집 내외(서울시 OO구) 1) OO동 쪽방에 십 수 년 거주 집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으니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셔서, 혹시 P 씨에 대해 아시는지 여쭙았다. 아주머니는 P 씨 앞집(○○번지)에 30년 간 사신 분으로, P 씨와 친분은 없지만,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나눠보신 적이 있다고</p>		

하셨다. P 씨는 OO번지 집에 있는 쪽방들 중 가장 바깥쪽(길과 가까운 쪽)에 있는 방에서 17-8년간 사셨다고 하였다(정확한 거주 햇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기억의 차이는 있었다.). 우리는 아주머니와 몇 마디 나눈 후 이어서 길에 나와 계시던 아주머니의 남편 분과 대화를 하였다.

2) OO 출신, 키가 아주 작았음

아저씨 역시 P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은 아니셨지만, 오랜 세월 이웃으로 살면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다고 하셨다. 아저씨는 P 씨가 OO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P 씨를 기억하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먼저 언급하는 점이었다. 아저씨는 P 씨가 키가 아주 작고 왜소한 편이어서 '어떻게 OO를 갖을까' 생각하셨다고 했다.

3) 남OO역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 가끔 동료들이 집에 놀러오기도

고 P 씨는 생전에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셨고, 일을 구하러 남OO역에 있는 인력시장에 나가셨다고 한다. 아저씨의 기억에 따르면, 처음 OO동 집에 살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막노동꾼이었다고 했다. 가끔씩 함께 노동을 하는 동료들이 고인의 댁에 놀러오기도 하였으며, 남OO역 근처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하셨다.

4) 꼼꼼하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아저씨는 P 씨를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셨다. "꼼꼼하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다.

5) 십 년 전 쯤 새 부인이 온다고 들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와

아저씨께서는 P 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십 년 전 쯤에 새 부인이 올 거라고 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6) 5-6년 전부터 앓기 시작, 일 그만두고 기초수급 받음

아저씨의 기억으로 P 씨는 5-6년 전부터 앓기 시작했다고 한다.(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기억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셨지만, 안색이 아파보이고 점점 말라가더니, 예전에는 잘 하고 다니던 면도도 안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저씨는 P 씨가 병을 얻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기초수급을 받았다고 하셨다.

7) 가끔 길에 나와서 '형님'하면서 인사, 하지만 커피 한 잔 한 적 없다.

OO번지 내외분과 P 씨는 특별히 친한 것은 아니었지만, 맞은 편 집에 살면서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였다. 아저씨가 자주 길에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P 씨가 길을 지나면서 아저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오늘 어디로 일 나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기

때문에 고인과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이야기하거나 술을 마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셨다.

아저씨는 P 씨가 돌아가실 즈음에 지방에 다녀오셔서 뒤늦게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하셨다.

B. ○○집 아저씨

1) 안에 사는 아주머니가 말해줘서 가봤다니 반듯이 누워서 죽어있었다

○○번지 옆에 있는 '○○집'에서 집 관리, 방세 걷는 일 등을 한다고 하여(그러나 ○○집 아저씨가 세를 놓는 집주인은 아니며, 집주인은 마포에 산다고 함), 두 번째로는 ○○집 아저씨를 만나 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집 아저씨는 P 씨가 돌아가신 후 고인의 방문을 처음으로 열고 들어간 분이였다. 아저씨는 ○○번지 집 안쪽 쪽방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느낌이 이상하니까 한 번 가보라고 하여 P 씨 댁 방문을 열어보게 됐다고 했다(오후 2시 쯤). 방 안에 들어가니 P 씨가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사망해 계셨다고 했다.

2) 방 안이 쓰레기장. 다 갖다버렸다

아저씨는 P 씨의 방이 청소를 안 해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했다. ("쓰레기장이지 뭐") 유품은 어떤 게 있었냐고 여쭙보니 거의 다 쓰레기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으니까 아저씨께서 갖다버리셨다고 했다. 경찰이 와서 과학수사를 한다고 방을 한 차례 뒤지고 갔는데, 나중에 고인의 유품을 가져가라고 경찰에 다시 전화했더니 안 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아저씨가 방을 치우는 데 몇 만 원 드셨다고 했다.

아직 P 씨가 사시던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저씨의 허락 하에 방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방 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었는데, 크기는 한 평쯤 되는 것 같았다(겨우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크기). 방문을 여니 쉰내 냄새가 났고, 천장에 있는 거미줄이 내 코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다. 이미 한 차례 청소를 마친 상태라서 방 안에 고인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P 씨가 생전에 어떤 곳에서 생활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으셨을 지에 대해 잠시 상상해볼 수 있었다.

3) 작고 ○○ 나온 사람. 자세한 건 몰라

집 아저씨도 P 씨의 성함을 듣고 가장 먼저 '그 사람은 ○○ 나온 사람'이란 말씀을 하셨다. 가족이나 지인, 그 외 P 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른다고 하셨다. 고인에게서 막노동을 하셨는데 근처에 같이 일 다니던 분은 없느냐고 여쭙더니, 이 동네에는 100명 중 80~90명은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랑 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 목욕탕 쪽에서 친구들을 만났던 것도 같으니 한 번 가보라고 하셨다.

4) 방세 일 년 이상 밀렸다.

집 아저씨는 P 씨가 방세를 1년 이상 밀렸다고 하셨다. 가끔씩 방세를 독촉하러 찾아가면 '나중에 준다'고 해서 '그래, 그럼'하고 오신 적이 몇 번 있다고 했다. 명부를

보니 P 씨가 사시던 방의 방세는 월 10만원이었다.

C. 옆집 아주머니(○○번지 집 안쪽 방 거주)

1) 며칠 간 방문이 열려 있어서 이상하게 여겨, 돌아가신 지 2-3일 지나 발견

이후 P 씨가 사시던 방의 옆집(옆방)에 사시는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아주머니는 스스로 이 동네 사람들 중에 P 씨와 가장 많이 대화한 분이라고 하셨다.

P 씨가 암을 앓고 계시던 것도 알고 계셨으며, 공용으로 쓰는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마주칠 때 종종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주로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동사무소에 받은 로 밥을 지어 김치랑 같이 물 말아 드셨음. 아주머니가 고추장을 드린 적 있음).

아주머니는 P 씨 방 문이 며칠 동안 열려있어 이상한 느낌에 집 아저씨를 부르셨다고 한다. 아저씨가 문을 열어보니 P 씨가 사망해 있어서 경찰을 불렀고, 그 때는 돌아가신 지 2-3일 정도 지난 상태라고 들었다고 하셨다.

2) O남매. 형제자매들은 잘 사는데 자기만 못 산다고 교류 안 해

아주머니는 P 씨의 형제자매들이 살아있으며, O남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형제자매 중에는 OOO에서 OO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가족들은 P 씨의 집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P 씨도 형제자매들은 잘 사는데 자기만 못 살다보니 교류하기를 꺼렸다고 했다.

3) 평생 미혼이었다.

아주머니에 따르면 P 씨는 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평생 미혼으로 사셨다.

4) 다방에 자주 드나들어, 마담이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함

P 씨는 일을 쉬는 날에는 다방에 자주 드나들었고, 가끔씩 여자들이 방으로 찾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여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P 씨는 다방 아가씨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고, 마담이랑도 친해서 어느 날은 마담이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다방에 다니셨는지는 모르신다고 하였다.

5) 돌아가신 후 OO 전우들에게 전화 왔다고 들었다.

P 씨가 돌아가신 후 고인의 핸드폰으로 OO 전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는 모르며, 핸드폰은 경찰이 가져갔을 거라고 하셨다.

7) 죽은 뒤 시신 처리에 쓸 비용으로 통장에 600만 원을 모아놨다고 했다

P 씨는 나중에 자신이 죽은 뒤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통장에 600만 원을 모아놨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후 그 통장이 발견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다.

8) 죽은 뒤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하시던 도중 우리에게 P 씨의 시신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셨다. 시신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 안치됐는지 궁금했었다고 하셨다.

9) 그 외

아주머니는 고인이 ○○병원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러 다녔다고 하셨다. 고인이 일을 그만둔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엇갈렸는데, ○○번지 아저씨께서는 돌아가시기 5-6년 전부터 일을 안 나갔다고 하셨지만, 아주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일을 관렸다고 하셨다. 아주머니 역시 P 씨가 수급자였다는 점, ○○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셨다.

D. ○○ 전우회(○○동)

P 씨가 ○○ 출신이고, ○○ 전우들과 연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근에 있는 ○○ 전우회 건물을 찾았다. 그러나 찾아간 곳의 회원 명단에는 고인의 성함이 없어서(○○동에 ○○ 전우회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함) 회장님께서 또 다른 전우회 회장인 P 씨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P 씨도 고인이 명단에 없다고 하시면서 사무국장님의 번호를 알려주셨다. 후에 사무국장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P 씨에 대해 아는 회원들이 있는지 물어본 뒤 연락 주겠다고 하셨다. P 씨의 사연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시더니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알아보겠다고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다.

E.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

고인이 오랫동안 ○○동에서 막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어울렸던 동료 분들을 찾고 싶었다. 남○○역 앞에 있는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를 찾아, 이 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조연을 구해보았다. 이 센터는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퇴직금,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문제 등)를 위해 98년 1월 1일에 설립된 곳이며, 2006년부터 전산화를 시작해 노동자들의 노동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센터에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하면 P 씨는 2009년 7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셨다고 한다.(그러나 이 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은 현장에서 일한 경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 이 센터에는 고인이 일을 한 기록이 몇 달에 한 번 꼴로만 남아 있음.) 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잡부 일(철근 쪽, 형틀 목공 일도 한 적은 있음)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인부들은 대개 하루 8-9시간(식사 시간 포함)을 일하고, 일당은 8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직원 분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대답해주셨는데, P 씨의 연세를 보시고는 아마 이미 세대교체가 돼서 P 씨와 어울리던 동료 분들은 더 이상 현장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F. 그 외(○○ 목욕탕, ○○다방, ○○다방, 과일가게, ○○약국 등)

P 씨가 친구 분들을 만나곤 했다던 집 근처의 ○○ 목욕탕을 찾아가 보았다.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내외 분, 그리고 남탕에 있는 이발소에 찾아가 봤지만, 기억하는 분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P 씨가 들렀을 법한 다방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집에서 가깝고, 인근에서

	<p>유일하게 한국인이 운영한다는(인근에 다방이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다방들은 중국인들이 운영한다고 함) ○○다방에 먼저 가보았다. 주인 분을 만나봤지만, 고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셨다. 이후에 남○○역 근처의 ○○ 다방 등에도 가봤지만 고인에 대해 아는 분을 찾을 수 없었다.</p> <p>다방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과일가게 아저씨를 찾아가보라고 하셔서 ○○탕 근처 과일가게를 찾아갔으나 아저씨를 만날 수 없었다(취침 중). 과일가게 옆에 있는 ○○약국 약사 분도 만나봤지만, P 씨가 약국에 온 기록은 없다고 하셨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오늘은 P 씨에 대해 꽤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전에 취재했던 ○○○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으셨다 보니 기억하는 분을 만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그래도 P 씨는 여러 이웃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듯 했다. 고인의 과거사에 대해 상세히 아는 분은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기도 하고 이웃들과도 인사하며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약간은 안도감도 들었다. 비록 장례를 치러 줄 만큼 친밀하게 지낸 분은 없을지라도, 고인이 주위 사람들과 연을 맺으면서 사셨던 평범한 분 같다는 느낌이었다.</p> <p>여러 분들로부터 고인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인은 자존심이 강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여섯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세를 지지도 않고,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시신 처리 비용으로 600만원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에서 '폐 끼치기를 참 싫어하는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p> <p>사실 오늘 처음 P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을 때는 집안이 많이 낡고 어두워보여서 약간 긴장하기도 했다. 쪽방에 가 본 것도 처음이고, 이번 취재를 하면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된 터라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동네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건네며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점점 힘이 났다. 한 차례 취재를 마치고 나니 뒤늦게 '아까 이것도 여쭙볼 걸'하는 아쉬움이 계속 드는데, 다음번에 다시 찾아볼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p>		
2차 취재일	2014년 7월 4일 금요일	2차 취재장소	○○동 일대, 주민 센터 및 ○○경찰서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 일대 다방들 2. 세탁소 아저씨 3. 집 아저씨 4. ○○동 주민 센터 5. ○○ 경찰서 		
2차 취재 내용	<p>A. ○○동 일대 다방들</p> <p>남○○역 인근과 ○○동 시장 쪽에 있는 다방들을 열 곳 정도 다니며 P 씨에 대해 여쭙어보았지만, 지인을 만날 수 없었다. 일대에 다방이 워낙 많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 운영한 지 오래된 곳들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했으나, 고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p>		

B. 세탁소 아저씨

P 씨 댁 옆에 있는 세탁소를 찾아가보았다. 세탁소 아저씨는 P 씨가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고 하셨다. 다만 3년 전 쯤 OO 티셔츠에 명찰을 달아달라고 찾아온 적이 한 번 있으며, OO 출신인 것을 자랑한 것이 기억난다고 하셨다. P 씨는 키가 작고 얼굴이 좀 넓적하고, 콧수염을 길렀는데, 3년 전에 봤을 때는 별로 병색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세탁소 아저씨는 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으신 듯 했다. 그저 동네 사람들로 부터 '고인이 방에서 잠자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발견됐다', '고인에게 형제자매가 있는데 형제자매들은 잘 산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다고 했다.

C. 집 아저씨

1차 취재에 이어 다시 한 번 집 아저씨를 찾아가지만, 역시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지난번에 옆방 아주머니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집 아저씨께 몇 가지를 더 여쭙았는데, 아저씨는 P 씨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다. 유품에 대해 다시 여쭙보면서 통장 같은 것도 있었느냐고 하자, 아저씨는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고 있지만 경찰이 가져갈 예○○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셨다. 아저씨는 이 동네에 P 씨에 대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씀만 반복하셨다.

D. OO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 직원

이웃들에게 더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를 찾아가다. 담당 사회복지사 분을 만나려고 했지만, 현재 휴가 중이셨다. 다만 센터에 계신 직원 분으로부터 P 씨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퇴원 후에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P 씨는 2013년 OO월○○일에 수급자로 지정되었는데, 수급자가 된 후 몇 달 안 돼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셨다.

E. OO 경찰서

OO 경찰서에 찾아가지만, 웬일인지 데이터베이스에 P 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 분이 아무래도 자연사나 단순 병사 처리가 돼서 기록에 안 남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형사 ○○팀 담당이었을 것 같은데 그 팀은 오늘 비번'이라고 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기로 했다.

F. 기타

- P 씨 옆방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보려고 했으나, 현재 시골에 가 계셔서 만날 수 없었다. 그 외 ○○번지 집에 사는 다른 주민 분들도 만나보려고 했지만, 모두 부재중 이었다.

- ○○번지 집 할아버지께서 고인이 작년에 남○○역○○번 출구 근처에 있는 야채시장 옆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 OO 전우회에 재차 연락했지만,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오늘은 나름대로 이곳저곳을 열심히 누볐지만, 새로운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발품을 판 데 비해 정보를 얻지 못한 것도 아쉬웠지만, 취재하는 동안 들었던 동네 분들의 자조 섞인 듯한 말씀이 아프게 느껴졌다. 집 아저씨는 ‘이 동네에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동네에 이웃끼리 잘 몰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고, 세탁소 아저씨도 이 동네에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혹시라도 고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간 다방에서는 한 할아버지로부터 ‘그 분이 생전에 이런 데 다니고 하던 분이려면,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굳이 그 분의 삶을 들춰내려고 하느냐. 그것도 당신들 욕심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사실 취재를 하면서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기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순간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다.</p> <p>OO 나왔다는 점을 여기 저기 자랑하고 다니셨던, 자존심이 강하셨던 것 같은 P 씨는 과연 본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실까. 그 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충족하려는 욕심에, 고인이 감추고 싶어 했던 부분을 내가 구태여 들춰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P 씨처럼 혼자 사셨던 분들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겠지만, P 씨 개인에게는 내가 실례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취재를 접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다.</p>		
<p>3차 취재일</p>	<p>2014년 7월 9일 수요일</p>	<p>3차 취재장소</p>	<p>OO동 동사무소, OO경찰서</p>
<p>만난 사람 및 연락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O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 직원들 2. OO경찰서 형사 1팀 ○○ 형사 3. 국가보훈처 서울○○보훈지청 4. ○○보훈병원 		
<p>3차 취재 내용</p>	<p>A. OO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 직원들</p> <p>오전 10시 쯤 OO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를 다시 찾았다. P 씨와 상담하셨던 사회복지사님(젊은 여자분이셨음)이 휴가에서 돌아오셔서 다행히 이번에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P 씨가 주민 센터에 찾아온 적이 거의 없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지 채 1년도 안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에 대해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시진 않았다. 그래도 앞으로의 취재에 좋은 단서가 될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p> <p>1) 형제자매들은 OO에 거주, 형제자매 중 한 명과 통화했으나 시신 인계 거부 앞서 P 씨 옆방 아주머니께 들은 대로, P 씨는 결혼을 하신 적이 없으며, 술하에 자녀도 없으셨다. 다만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님께서 P 씨의 형제자매들이 OO 등에 자택을 가진,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 같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수급자들의 경우 형제자매들도 모두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P 씨는 다소 특이한 케이스라고 덧붙이셨다.</p> <p>사회복지사님은 P 씨가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들 중 한 명과 통화를 해보셨는데, “연락하지 말라”며 시신 인계를 거부하셨다고 한다.</p>		

2) 그 전부터 쉽게 수급자가 될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P 씨의 경우,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나 배우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쉽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P 씨는 돌아가시기 불과 몇 달 전(2013년 가을쯤 신청, 2013년 0월 ○○일 수급자 지정)에야 수급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셨다. 사회복지사님은 P 씨가 수급자 신청을 하러 주민 센터에 오셨을 무렵, P 씨는 이미 폐암으로 오랫동안 입원 중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P 씨는 겉보기에는 병자처럼 보이지 않으셨고, 1년도 안 돼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P 씨가 ○○동 쪽방에 산 것은 17~18년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2010년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님은 이 동네에는 전입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많으며, 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P 씨가 2010년에 갑작스레 전입신고를 하시게 된 것은 노령연금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다.

3) 2013.00.03.~00.01.까지 ○○보훈병원 ○○내과 입원

옆방 아주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P 씨가 입원하셨던 병원이 ○○병원이 맞느냐고 여쭙보았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님께서 P 씨가 입원해계셨던 병원은 ○○구에 있는 ○○보훈병원이라고 대답하셨다.

이후 ○○보훈병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P 씨는 2013년 0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 달 간 해당 병원 ○○내과에 입원하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를 받은 직원 분께서 환자 개인정보라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셔서 더 이상의 정보를 얻진 못했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입원하시는지 질문하자, "일반 환자들도 입원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에게 치료비가 50~60%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P 씨가 굳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훈병원에 입원했던 것이 의아하게 느껴져, 혹시 고인이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4) 기타(사회복지사님과의 대화)

- (일을 그만 둔 시기?) "일을 언제 그만두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5년 정도는 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수급자로 지정되셨을 무렵에는 소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 (○○에 대해서 질문) "병무 기록은 주민 센터에 남아있지 않다. 구청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 (왜 집에서 먼 보훈병원에 입원해계셨는지, 혹시 국가유공자셨는지 질문) "국가유공자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B. ○○경찰서 형사 ○○팀 ○○ 형사

P 씨 사건을 담당한 형사님이 오늘 오전 근무(09:00~18:00)를 하는 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정오 무렵 ○○경찰서를 찾아갔다. 해당 형사님은 형사 ○○팀의 ○○

형사님이었다. 형사님은 P 씨 사건의 경우 병원 검안 결과(서울○○병원 ○○ 선생님이 검안했다고 함) 폐암으로 병사하신 것이 분명해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킱스에 더 이상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1) 오후 4-5시쯤 출동, 이웃들이 여럿 나와 있었지만 고인에 대해 잘 모르더라
형사님은 P 씨 집에 출동을 했던 때가 금요일(2월 ○○일) 오후 4-5시쯤이라 부랴부랴 주민 센터에 가 등·초본을 땀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다. 출동 당시 고인의 시신은 약간의 건조가 일어난 상태였으나(정확한 사망 일시는 모름. 사망한 지 1~2일 정도 지났을 수도), 그리 오래 돼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길에 이웃들이 여러 명 나와 있었고, 이웃들에게 P 씨에 대해 이것저것 여쭙봤지만 그 분에 대해 아는 분이 없었다고 했다. 그 후에는 곧 P 씨의 사인이 '폐암'인 것으로 판명되어, 더 이상 자세한 수사는 하지 않으셨다.

2) 형제자매 중 ○명과 통화했지만 모두 "연락 말라"고, 2명은 연락 안 돼 등·초본을 보고 형제자매들의 연락처를 찾아, 총 ○명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두 분은 아예 연락이 안 되었고, 세 분은 '연락하지 말라'며 시신 ○○를 거부했다. 형사님은 고인께서 형제자매들과 오랫동안 등지고 지낸 것 같다고 하셨다.

3) 유품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형사님을 만나면 가장 묻고 싶었던 것 중 ○○가 유품에 대한 부분이였다. 그런데 민 형사님은 유품은 경찰에서 가져가지 않으며, 그럴 의무나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인의 유품은 ○○구청과 연계된 회사에서 처리했을 것").

이전에 집 아저씨께서 P 씨의 카드와 통장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보여주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어찌 된 일인지 좀 의아해졌다.

'고인의 ○○ 전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혹시 기억나시느냐'고 여쭙지만(이전에 옆집 아주머니께서 경찰이 고인의 ○○ 전우와 통화했다고 하심),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셨다.

4) 베트남전에 참전한 듯, 보훈처에서 온 우편 있었다

민 형사님도 P 씨가 ○○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보훈병원에 입원하셨던데 혹시 국가유공자셨냐고 여쭙보자, 아마 고인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출동 당시 고인의 집에 보훈처에서 온 우편이 있어 확인해보았는데, 아마도 상이군경 심사를 받던 도중에 돌아가시게 된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후 우리가 보훈처에 문의해본 결과, 고인은 2013년 ○월 ○○일에 이미 상이군경으로 인정되었음)

C. 국가보훈처 서울○○보훈지청(통화)

경찰서를 나서며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걸어 P 씨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국가보훈처 대표 번호로 전화했더니, P 씨가 사셨던 ○○구 기록은 ○○지청에 문의해보라는

	<p>답변이 돌아왔다. 곧이어 ○○지청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p> <p>1)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고엽제 피해자, 피해 정도 심한 편 P 씨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자 다행히도 담당자께서 기록을 조회해주셨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P 씨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돼 2013년 8월 ○○일부로 상이군경으로 지정되셨다(그 날부터 효력 발생). 상이군경으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이나 혜택을 받게 되냐고 질문하자, 사망 시까지 매달 보상액(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이 지급된다고 하셨다. P 씨의 피해 등급이나 보상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며 거듭 답변을 거절하셨다. 다만 P 씨는 등급은 꽤 높은 편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럼 꽤 몸이 불편하셨겠네요?”라고 묻자, “네, 이 분 같은 경우는 (피해 등급이) 높으신 편이에요.”) 이후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51.asp)를 통해 알아보니, 고엽제 후유증 등급은 고도, 중등도, 경도로 분류되었다. 등급별로 지급되는 월 보상액은 고도장애의 경우 77만 5천 원, 중등도 장애는 57만 2천 원, 경도 장애는 37만 5천원이다. 보상액은 피지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배우자에 한함)에게 계속해서 지급된다.</p> <p>3) 기타 -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P 씨의 고엽제 피해가 정확히 어떠한 식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보훈처 홈페이지를 계속 뒤지다보니 P 씨의 사인이었던 폐암도 ‘고엽제 질병’ 중 ○○라고 나와 있었다. - 보훈처 홈페이지 ‘인물 찾기’ 코너에 ‘혹시 P 씨가 아닐까’ 싶은 참전 국가유공자 두 분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참전 국가유공자 검색창에 ○○ 출신 P를 검색하면 총 6명이 나오는데, 그 중 두 분이 서울 ○○ 보훈처에서 담당하는 베트남 참전 용사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p> <p>D. 그 외 - ○○구청과 병무청에 문의했지만, P 씨의 입대 시기를 알 수는 없었다. ○○구청에서는 “민방위 기록 외에 병무 기록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며 병무청에 연락해보라고 했고, 병무청에서는 개인 정보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 ○○구 상이군경회에 전화해 P 씨의 회원 가입 여부를 문의했으나, 고인은 해당 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P’라는 이름의 회원이 있기는 했으나, 그 분은 19○○년생 육군 출신으로, 동명이인인 듯 했다.</p> <p>* 향후 계획 - ○○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등에 찾아가 P 씨의 지인들을 좀 더 수소문해볼 계획. - 이번 주 내로 고인이 입원하셨던 ○○보훈병원에 방문할 예정. 담당 의사, 간호사 등과 인터뷰 시도해볼 것. - 저녁 시간대에 P 씨 이웃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찾아가보고, 집 아저씨께도 통장과 카드 등에 대해 재차 여쭙보려고 함. 이번에는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야겠다.</p> <p>3차 취재 후 작은 단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늘은 P 씨에 대해 예상치 못한 정보를</p>
--	--

느낀 점	<p>얻게 됐다. 그간 단순히 OO 출신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으로만 여겼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피해까지 입으신 분일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오늘 낮에 뉴스를 보다가 광주에서 고엽제 피해자였던 60대 국가유공자가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들곤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 P 씨도 비슷한 케이스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p> <p>집으로 돌아와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P 씨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상과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줄곧 안타까웠다. 조금 더 빨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상이군경으로 지정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런 복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마음 아팠다.</p> <p>특히 고엽제 문제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자세로 취재에 임하면서, P 씨의 삶이 어떠했는지 점점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다.</p>		
4차 취재일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4차 취재 장소	○○보훈병원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훈병원 0층 병동간호사들 및 환자들 2. ○○보훈병원 법당, 교회 		
4차 취재 내용	<p>A. ○○보훈병원 0층 병동(OO내과) 간호사들 및 환자들</p> <p>오후 4시 무렵 P 씨가 입원해계셨던 ○○보훈병원 OO내과 병동(본관 0층)을 찾았다. ○○보훈병원은 P 씨 댁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5호선 종점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니 P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할아버지 환자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p> <p>P 씨는 2013년 0월 3일부터 0월 1일까지 OO내과 병동(본관 0층) 3호실에 입원해 계셨다. 간호사님에 따르면, P 씨는 처음 오셨을 때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잘 모르셨으며, 입원해 계시는 동안 암 검진을 받으셨다고 했다.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P 씨는 자신의 병을 상당히 뒤늦게 알게 되신 듯 했다. 우리가 만난 간호사님들은 P 씨에 대해 별로 기억이 없으셨으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P 씨에 대한 기록을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셨다.</p> <p>결국 간호사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데 실패한 우리는 0층에 있는 휴게실에 자리를 잡고, 환자분들에게 P 씨에 대해 아시는지 여쭙보았다("작년 가을에 3호실에 입원해 계시던 할아버진데, 키가 작고 콧수염 있으시고 OO 나오셨는데..."). 그러나 고인을 아는 분은 만날 수는 없었고, 전우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아래층에 있는 상이군경회, 고엽제피해전우회에 가보라는 조언을 들었다.</p> <p>B. ○○보훈병원 내 법당, 교회</p> <p>병원 1층에 있는 상이군경회와 고엽제피해전우회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일찍 퇴근하신 상태였다. 결국 혹시라도 P 씨에게 종교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내에 있는 법당, 교회 등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법당 사무실에 계신 분은 P 씨를 모르셨고, 교회의 목사, 전도사님들도 P 씨가 온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교회의 경우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층별로 담당 전도사가 있는데, 10층</p>		

	<p>담당 전도사님이 P 씨를 모르신다고 함).</p> <p>*향후 계획 정황상 P 씨는 19○○.7~19○○.9에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듯하다. OO 기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45년생, 고엽제 피해자, OO 출신, 월남전 파병 기간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P 씨의 OO 전우를 계속 찾아보려고 한다. 월남전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에 전화를 걸어보았을 때는 P 씨가 활동한 적 없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정말 OO신문에 광고라도 내봐야 OO 하는 생각도 든다. 일단은 OO동으로 다시 돌아가, 이웃 분들을 또 한 번 만나보려고 한다. 또한 다음 주 평일 중에 남OO 새벽 인력시장에 가서 혹시 P 씨를 아는 노동자들이 계신지 수소문해봐야겠다.</p>		
4차 취재 후 느낀 점	<p>OO: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취재에 임하고 있다. 아주 희박한 가능○○지라도 혹시 고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뒤져보려고 한다. 아직 P 씨에 대해 깊이 아는 분을 만나지 못해, 고인이 어떤 성품의 분이었던지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취재를 할수록 P 씨의 마지막이 조금 더 명예롭고 편안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조사를 해보니 고엽제 피해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월 보상금 지급, 병원비 감면, 간병인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 아니라, 혹시 가족이 없는 경우 무연고사망자 처리가 되지 않도록 대신 장례를 치러주는 상조 서비스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고 P 씨에게는 그 혜택들이 돌아가지 못한 것 같아 생각할수록 안타깝다.</p> <p>OO: 오늘은 참전 유공자들이 모여계신 보훈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보훈병원은 둔촌역에서 걸어서 십오분 남짓 걸리는 데요. 가족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걸으셨을 P씨가 상상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p>		
5차 취재일	2014년 7월 15일 화요일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5차 취재 장소	남OO 인력시장, OO보훈병원, OO보훈지청, 남OO역 및 P 씨 택 주변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OO 인력시장 노동자들, 인력사무소 사장님들 - 정○○(P 씨 친구): 2. OO보훈병원 내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 상이군경회 3. OO보훈병원 OO내과 간호사들, 간병인들 - OO다방 OO 아주머니: 4. OO보훈병원 원무과 5. OO보훈병원 OO ○○기 전우들(이○○ 씨 외) - 이○○ 6. OO보훈지청 이○○ 씨 7.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 8. OO인력 사장님 및 OO슈퍼 아저씨 9. OO약국 앞 완구점 아저씨 		

	<p>10. ○○집 아저씨 11. 그 외</p>
<p>5차 취재 내용</p>	<p>A. 남○○ 인력시장 노동자들, 인력사무소 사장님들 7월 15일, 16일 양일에 걸쳐(15일은 ○○·○○ 두 명이서,) 새벽 4시 반에 남○○ 인력시장을 찾아갔다. 남○○ 인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으로, 매일 새벽 500~1000명가량의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몰려든다고 한다. 새벽 4시 반의 인력시장은 아직 어두컴컴했고, 장이 활성화되기 전이었지만(5시-5시 반에 절정), 커다란 배낭을 멘 노동자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들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른 새벽 P 씨가 집을 나서 일터로 향했을 모습을 상상하면서 P 씨 댁 문앞에서부터 남○○ 인력시장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p> <p><15일> 1) "여기선 이름 말해 갖곤 아무도 몰라" 결과적으로 인력시장에 나간 첫날인 15일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매일 인력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500-1000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남○○역 주변에만 해도 인력사무소가 수십 개는 되고(어느 노동자 분의 말씀에 따르면 100곳 정도 된다고 함), 따로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계신 노동자 분들을 찾아내어 여쭙보아야 했다.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장소는 크게 다섯 군데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씨의 성함, 연세, 주소, 인상착의, ○○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수소문해봤지만, 고인을 아는 분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노동자 분들은 '여기서 십 년 넘게 일했는데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60살 넘으면 아무도 안 써', '여기선 이름 말해 갖곤 아무도 몰라. (앞에 있는 아저씨 가리키며) 애랑 30년 봤는데 우리도 서로 이름 몰라' 등 우리의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몇몇 분들이 '○○ 군복 입고 다니던 사람?', '여기 앉아서 가끔 장기 두던 걸 본 것도 같다'고 하셨으나, P 씨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였다.</p> <p>2) 1년 반 전까지 '○○ 인력'에 몇 번 찾아온 적 있어 다음으로 눈에 띄는 대로 남○○역 주변 인력사무소에 들어가 P 씨를 수소문해보았다. 인근 인력사무소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인력, ○○인력을 비롯해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케이에스인력 등등에 가보았지만, 모두 P 씨를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다(○○인력의 경우 조회 자체를 거부). ○○인력 사장님만이 1년 반쯤 전까지 P 씨가 가끔 일을 구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자세한 이야기나 기록 조회는 거부하셨다.</p> <p><16일> 1) ○○ 전우인 ○○, P 씨와 친구 지간 그런데 ○○에서도 취재를 나왔는지 인력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여기저기서 카메라가 보이자 노동자 분들의 욕설도 들려왔다. 사실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P를 계속 수소문해보았는데, 한 시간 쯤 지났을 무렵 정말 운이</p>

중계도 ○○슈퍼 앞에서 P 씨 친구 분(○○ 씨)의 동생을 만나게 됐다. 동생 분으로부터 P 씨가 ○○ 전우인 ○○, P 씨와 어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 씨의 핸드폰 번호를 얻었다. 아직 7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라, 오후 즈음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 얽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후 3시 반 경에 전화를 해보니, 우리가 번호를 잘못 들었는지 해당 핸드폰 번호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저녁 7시쯤 촬영을 접고 집에 가려고 할 무렵, ○○이가 편의점에서 우연히 ○○ 씨 지인 분과 마주쳤고, 결국 ○○ 씨의 연락처를 새롭게 알아냈다.)

B. ○○보훈병원 내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 상이군경회

새벽 6시 반쯤 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보훈병원으로 이동했다. 우선 지난번에 문을 닫아 아쉽게 들르지 못했던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와 상이군경회를 찾았다. 그러나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상담일지에는 P 씨의 성함이 없었고(모든 내담자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 상이군경회 회장님께서도 ○○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P 씨의 성함을 처음 듣는다고 하셨다. 비록 P 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회장님께서 고인을 찾을만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고, 커피도 대접해주셔서 조금 힘이 났다.

C. ○○보훈병원 ○○내과 간호사들, 간병인들

1) "간병인이 있었다면 ○○,○○,○○,○○ 중 한군 데 썼을 것"

이후 P 씨가 입원해 계셨던 0층 ○○내과로 향했다. 간호사실에 바로 찾아가면 자칫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P 씨가 계셨던 3호실에 바로 들어갔다. 5인실이었는데, 베드에 적힌 입원 날짜를 보니 모두 입원하신 지 며칠 안 된 분들뿐이었다.

병실을 나와 휴게실에 앉아 계신 간병인 분들께도 P 씨에 대해 여쭙봤지만 역시 잘 모르시는 듯 했다. 한 분께서 P 씨가 기억난다고 하셨으나 이야기는 나눠본 적은 없었고, P 씨에게 간병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하셨다. 다만 "간병인이 있었다면 ○○,○○,○○,○○ 중 한 군데에서 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P 씨 여자친구에게 연락 취해보겠다"

촬영을 하다가 간호사님께 제지를 당해 데스크가 있는 쪽으로 따라갔다. 사정을 설명하니 간호사님께서 고인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지만, 보호자 명단에 적힌 P 씨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일단 간호사님께 우리 연락처를 남기고 ○○내과 병동을 떠났다.

다행스럽게도 이후 저녁 7시쯤에 P 씨 여자친구 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주셨다.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월요일 오전 10~11시 중에 역 근처에 있는 ○○다방으로 찾아뵙기로 약속을 정했다

D. ○○보훈병원 원무과

고인은 생전에는 병원비를 60% 감면받다가 3월에 상이군경 3급으로 최종 통보를 받으면서 병원비 100% 감면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원무과에서 인터뷰 및 촬영을 거절)

E. ○○보훈병원 ○○ ○○기 전우들(○○ 씨 외)

병원을 떠나 이동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병원 앞에서 ○○ 팔각모를 쓰고 계신 한 무리의 노인 분들을 발견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P 씨를 아시는지 여쭙았는데 놀랍게도 한 할아버지(○○ 씨)께서 대뜸 고인과 아는 사이라고 말씀하셨다. 무리 중에서 고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분은 ○○ 씨였으나, 그 옆에 계시던 다른 분들 몇몇도 P 씨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으셨다. 잠시 ○○ 씨를 비롯한 ○○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오가 되면 다른 할아버지들이 더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에 병원에서 조금 더 머물기로 했다.

1) 마지막으로 징발된 ○○ ○○기 출신, ○○대 소속

모여 계시던 할아버지들은 ○○ ○○기로, P 씨는 ○○기 선배라고 말씀하셨다. ○○ 할아버지에 따르면, ○○기부터는 자원을 통해 파월이 되었지만 ○○기까지는 징발이 된 경우로, 동기들도 몇 되지 않는다고 한다("○○기부터는 지원병이라서 학교 잘린 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갔다. 그런데 ○○기까지는 징발로 간 거다."). 이○○ 할아버지는 P 씨의 키가 아주 작았다면서(160cm 초반 혹은 그 이하였던 듯) "저렇게 쪼그만 데 ○○에서 어떻게 뽑아갔나 몰라" 생각했다고 덧붙이셨다.

P 씨는 베트남에서 ○○대 소속이었는데, ○○ 씨는 본인도 ○○대였다며 직접 전장에 나가 교전하는 일이라 고인이 무척 고생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무슨 전투에 나갔는지, 전쟁 중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셨다. 이에 대해 ○○ 씨는 ○○ 출신들은 원래 자존심이 강해서 힘든 얘기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고, P 씨도 그런 성향이 강했다고 말씀하셨다. ("○○기질로 곧 죽어도 끌리려고 하는 성질은 아니야", "그냥 기수 얘기나 했지 그런 얘기(베트남전쟁 중 고생한 이야기)는 안 했어")

2) 별명은 '○○', 차림새가 독특했다

○○ 할아버지는 보훈병원 2층 치과 병동에서 P 씨와 처음 마주치셨다(그 외 다른 분들도 모두 병원에서 고인과 처음 만났고, 병원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함). P 씨가 ○○ 팔각모를 쓰고 계셔서 아는 척을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분 모두 혼자 산다는 공통점을 발견해 "앞으로 서로 모든 걸 이해하고 지내자"면서 약수를 나누었다. 그 후 두 분은 종종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 할아버지에 따르면 고인은 코 밑에 난 수염 때문에 '○○'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이후 남○○역 인근에서도 수소문해보니 P 씨는 성함보다도 '○○'로 통했던 것 같았다). "○○, 일루 와!"하고 장난을 치면 P 씨는 "이 새끼가 선배한테..."하면서 웃으시곤 했다. 또 고인의 차림새가 할아버지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독특했는데, 거의 늘 반바지 차림에 팔각모를 쓰고, 콧수염을 기르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3) 속 이야기는 안 꺼내, 전우회 같은 데 나갈 위인 아니야

OO 할아버지들은 P 씨가 다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남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편은 아니었다고 기억하셨다.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으며, 술도 못 하셔서 술자리에도 끼지 않으셨다. 우리가 고인의 흔적을 찾아 OO 전우회, 월남전 참전자회,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등에서 연락했다고 하자, “그 인간은 그런 데 나갈 위인이 아니야”라고 고개를 저으셨다. 그러면서 P 씨는 OO 출신들이 흔히 그렇듯 자존심이 강해서 남들에게 힘든 티를 내거나 속 이야기를 잘 안 꺼냈고, 활동적인 성격도 아니라서 집밖에 잘 안 나갔을 거라고 하셨다. 다만 이OO 할아버지는 P 씨가 원래는 활발한 편이었으나, 폐암 판정을 받고부터 약간 움츠러들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4) 상이군경 심사 결과가 빨리 안 나와서 매일 한 시간 반 걸려 병원에 왔다

OO 할아버지에 따르면 P 씨는 상이군경 심사 결과가 얼른 나오지 않아 거의 매일 같이 보훈병원에 왔다고 한다. P 씨가 사셨던 OO동에서 보훈 병원까지는 한 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 지나왔던 그 먼 길을 몇 달 간 매일 오갔을 고인의 모습이 잠시 머릿속에 그려졌다. 더군다나 고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상이군경 심사의 최종 통보는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나온 듯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5) 폐암 말기였지만 담배는 끝까지 못 끊어

OO 씨는 고인이 술은 못 했지만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다고 기억하셨다. 하루에 담배 한 갑 반 정도를 피웠고, 폐암 말기라 주위에서 피지 못하게 말려도 끝까지 끊지 못하셨다고 한다.

6) 그냥 병원에 더 이상 안 오니 ‘죽었나보다’ 했다

OO 씨를 비롯한 OO 할아버지들은 P 씨가 고인이 된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정확히 듣지는 못하신 듯했다. 그저 늘 병원에 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오지 않으니 ‘죽었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들은 “여기는 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오면 죽은 거야”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이셨다. 우리가 고인이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월남전 참전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만 대답하셨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면 고엽제 피해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성격이 포악해져서 부인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OO 할아버지들 중에도 전쟁에서 돌아온 후 부인이 떠나버린 경우가 있었다.

사실 정보 측면에서 OO 할아버지들로부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P 씨의 OO 기수였다. 하지만 꽤 긴 시간동안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굳이 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월남전 당시의 이야기나 참전 용사들이 겪는 애환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런 저런 하OO을 털어놓으시는 모습에서 참 가슴 속에 한도 많고 외로움도 깊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P 씨의 모습도 그 분들과 닮아있지 않았을까 어렵פות이 추측해보게 됐다.

F. ○○보훈지청 ○○ 씨(고엽제 피해자 담당)

1) '폐암'으로 고엽제 피해 판정

지난번에 ○○보훈지청 ○○ 씨와 통화를 했으나 기록을 남기지 못해, 이번에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촬영 협조를 구하러 갔다. 고인이 상이군경 판정을 받은 공식적인 서류들을 확인하고, 보훈증에 사용되었을 고인의 사진을 공개해줄 수 있는지도 여쭙보기로 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촬영을 거부했고, 사진 공개도 끝내 거부했다(보훈처 대변인실, 언론팀과 통화했지만 허락을 구하는 데 실패).

비록 촬영은 할 수 없었지만 ○○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핸드폰으로 음성은 녹음해두었고, 지난번에 전화를 통해 들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 씨가 '폐암'으로 고엽제 피해 판정을 받은 것이 맞으며, 폐암 외 다른 질병으로는 보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로이 듣게 되었다.

고엽제 피해에는 1~7등급으로 분류되는 '고엽제 질병'과 고도·중등도·경도로 나뉘는 '고엽제 질병의증'이 있다. P 씨는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는 '폐암'으로 보훈 신청을 하였으며, 상당히 높은 등급(3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P 씨의 상이군경 심사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온 것 같다고 여쭙보자, ○○ 씨는 '좀 늦게 나온 편이시긴 하다'고 인정하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는 않았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정리된 팸플릿을 받아두고 일단 ○○보훈지청을 떠났다.

G.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

다시 남○○로 이동해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1차 취재 때 P 씨의 일용직 노동 기록을 확인했던 곳이지만, 지난번에는 아무런 촬영을 하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촬영 협조를 구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촬영은 거부하셨고, P 씨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H. ○○인력 사장님 및 ○○슈퍼 아저씨

1) 예전에 ○○인력에 가끔 왔다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건설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나와 P 씨 댁으로 향하는 길, ○○슈퍼 앞에 모여 계신 아저씨들이 눈에 띄었다. 혹시 그 분들이 P 씨나 ○○ 씨를 아실까 궁금해져 여쭙보기로 했다. 그런데 또 한 번 운이 좋게도 아저씨들께서 ○○ 씨를 알고 계셨고, P 씨의 외양도 묘사해드렸더니 '알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쉽게도 ○○ 씨의 연락처나 주소 등은 모르고 계셨고, 이 근처에 가끔 나오니 나중에 다시 찾아와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던 중 길에 나와 계시던 ○○인력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P 씨가 예전에 ○○인력에 가끔 나와 일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그 전날인 15일에도 ○○인력에 찾아갔었지만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개인정보라서 얘기 못해준다고만 하심), 이번에는 사장님이 우리 얼굴을 기억하시곤 몇 마디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다. 카메라는 여전히 거북하신 듯 했으나 'P 씨가 자주 일을 나왔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셨고, 나중에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변하시면서 P 씨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알려주시기까지 했다. 후에 나(○○)와 둘이서 사무실로 올라가면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은 게 자존심밖에 없어. 아까 아침처럼 그렇게 촬영하면 싫어 해. 어제도 나왔었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새벽에 나올 필요 없이 그냥 아침 8-9시 이후쯤에 아까 내가 가르쳐준 데로 가봐'라고 조언해주셨다. 이를 연속 꼭두새벽에 나온 우리가 안 돼보였는지 아저씨가 전보다 훨씬 따뜻한 태도로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놓였다(계단을 통해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아저씨와 나는 대화는 깜빡하고 녹음을 못 했음...).

2) "핸드폰으로만 찍어가", "'OO'이라 그래야 알아"

○○인력 사장님께서 사무실 촬영을 거부하셔서 ○○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P 씨의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묻자 '핸드폰 카메라로만 찍으라'며 나에게 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셨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P 씨의 실제 얼굴을 처음으로 접하고,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간 주변 분들의 묘사를 들으며 혼자 상상만 하고 있던 P 씨의 모습이 드디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앞으로의 취재가 한결 수월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한 사장님은 나에게 다음에 ○○슈퍼 근처에서 P 씨 친구들을 찾을 때는 고인의 성함보다는 별명인 'OO'로 찾는 게 빠르다고 조언하셨다('P라고 그러지 말고 'OO'이라 그래야 알아'). 또한 P 씨가 정○○, P 씨 외에 '○○', 'OO(별명)'와 어울렸다고 'OO'의 인상착의를 메모해주시기도 했다(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통통한 체격, 머리가 짧다고 함. 사장님이 내게 메모를 적어주시는 장면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I. 완구점(○○ ○○ 하우스) 아저씨

1)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 같았다"

P 씨 택 인근으로 이동해 가게 주인 몇 분에게 P 씨를 아시는지 여쭙보기로 했다. ○○약국 앞에서 차를 수리하시던 아저씨께 P 씨의 사진을 보여드리니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다. 아저씨는 ○○약국 앞에 있는 완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OO동에는 10년가량 사셨는데 P 씨가 가끔 완구점에 들를 때 얼굴을 봤다고 말씀하셨다.

인터뷰를 해보니 아저씨의 기억 속에서 고인에 대한 인상은 별로 좋지 않은 듯 했다. 아저씨는 P 씨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 같았다"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를 이야기해주셨다. 어느 날 P 씨가 완구점에 와서 목장갑을 사가길래 장갑 끼는 방법을 설명해드렸는데("붉은 면이 손바닥 쪽으로 가도록 꺼라"), 듣지 않고 굳이 반대로 장갑을 끼고 가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구나' 싶어 고인과 별로 이야기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저씨는 '이 동네에 그런 사람들("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며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아저씨는 P 씨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서 처음 들었다고 하시면서 덤덤한 얼굴로 계속 차를 고치셨다.

	<p>J. ○○집 아저씨</p> <p>○○집 아저씨를 또 한 번 찾아갔지만 아저씨는 인터뷰나 촬영을 한사코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간의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아저씨께 들려드리며 ‘이런 얘기 알고 계셨느냐’고 여쭙보자, 조금씩 대답은 해주셨다. ○○집 아저씨는 P 씨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거나 국가유공자란 사실 등은 전혀 모르고 계셨으며, P 씨가 ○○ 출신인 것도 어느 날 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p> <p>K. 그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씨의 군 시절 사진을 얻기 위해 ○○ ○○부에 전화했으나, 담당자가 일찍 퇴근해 통화하지 못했다. - 구글에 ‘○○○○기’를 검색하여, ○○ ○○기 출신인 두 분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한 분은 창원시 P 씨이고, 다른 한 분은 ○○기 ○○중대 ○○소대 출신인 P씨였다. - 참외를 사들고 옆방 아주머니를 다시 한 번 찾아갔으나, 몸이 편찮으시다면서 인터뷰를 거부하셨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자꾸 찾아오는 게 불편하셨는지 우리를 보자마자 ‘이제 오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월요일에 다시 찾아봐어도 되겠냐고 거둬 여쭙보니 결국에는 알겠다고 하셨다. - ‘○○동 터줏대감’이라는 과일가게 아저씨는 이번에도 취침 중이셔서 만남에 실패했다. 다음번에는 타이밍을 잘 맞춰 찾아가서 꼭 만나 뵈 수 있도록 해야겠다. <p>*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 오전 중에 P 씨의 여자친구 추정되는 ○○동 ○○다방 아주머니를 찾아뵈 예정. - ○○ 씨께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요청해보려고 함. ○○ 씨를 통해 P 씨 등 P 씨의 다른 친구 분들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 월요일 오전 8~9시 이후에 ○○인력 사장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가서 P 씨의 친구 분들(“○○” 씨, 이○○ 씨 등)을 찾아볼 계획. - ○○ 사령부에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해 P 씨의 사진을 요청하고, 구글에서 찾은 ○○ ○○기 P 씨, P 씨께도 연락을 시도해보려고 함. - P 씨 사진을 들고 ○○동 주변을 돌며 아는 분을 찾아보려고 함. ○○구 ○○ 전우회, ○○목욕탕, 과일가게 등 인근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볼 계획. - 옆방 아주머니와 ○○번지 집 옥탑방에 사시는 할아버지께도 찾아가보려고 함. 옆방 아주머니께서는 우리가 자꾸 찾아오는 것이 많이 불편하신 듯해, 월요일 인터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가능한 한 모두 여쭙보아야겠다.
5차 취재 후 느낀 점	<p>15시간 가까이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당황, 짜릿함, 아쉬움, 미안함, 뿌듯함, 피곤함 등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우리 팀이 고독사 취재를 시작한 이래 가장 긴 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하루였고,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둔 하루이기도 했다. 이렇게 장시간 취재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마칠 때 즈음에는 진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P 씨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 마음만은 뿌듯했다. 그간 취재를 다니며 아무</p>

	<p>성과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오던 날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운 좋게도 가는 곳마다 P 씨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되어 놀랍기도 했다.</p> <p>. 아침에 보훈병원에서 취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옆에서 조언을 듣다 보니 어떻게 취재를 하고 영상을 찍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오기 시작했다. 사실 아직도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거듭 설득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더 끈질긴 자세로 취재에 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취재를 이어나가다보면 오늘 여러 차례 경험했듯이, 또 다시 운 좋게 소중한 단서를 얻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고 믿는다.</p> <p>오늘 취재를 통해 P 씨의 이미지가 이전에 비해 한층 생생해진 느낌이다. 다음 번 취재 때는 P 씨의 여자친구 등 고인과 비교적 깊은 관계였던 분들을 만날 예정인 만큼, 인터뷰나 촬영을 더욱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P 씨와 오랫동안 교류했던 분들은 그 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p>		
6차 취재일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6차 취재 장소	OO동 OO다방 OO동 일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O다방 OO 아주머니, 이OO 아주머니 - OO다방 전화번호: - OO 아주머니: 2. OO다방 이OO 아주머니 3. OO동 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4. OO동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5. 그 외 		
6차 취재 내용	<p>월요일 아침 9시 반, 지난주에 통화했던 다방 아주머니를 만나 보러 OO동 OO다방으로 찾아갔다. OO다방은 OO역과 OO역 사이, 큰길가에 있는 제법 규모 있는 다방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OO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당초 우리가 간호사님께 들은 것과는 달리, 아주머니께서는 P 씨의 여자친구는 아니셨으며, P 씨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고 계셨던 듯했다. 아주머니는 우리와 함께 자리에 앉자마자 “그런데 P 씨가 언제 돌아가셨어요?”하고 물으셨다.</p> <p>A. OO다방 OO 아주머니</p> <p>1) 92년도에 다방에서 처음 만나... 20년 넘은 단골손님</p> <p>P 씨는 1992년 이전부터 돌아가시기 불과 몇 달 전인 2013년 말까지, OO다방에 20년 넘게 찾아오던 단골손님이었다. OO 아주머니는 1992년 무렵부터 OO다방에서 일하셨는데, P 씨가 OO다방에 출입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도 더 이전이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과거에 P 씨가 ‘내가 다방 선배’라며 자신의 기를 누르기도 했다고 회상하셨다. P 씨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달에 몇 번 꼴로 OO다방에 들르셨으며, 현재까지 다방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들 중에는 OO 아주머니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한다(92년 이전부터 P 씨와 알아왔던 ‘언니’가 계셨으나,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음. P 씨는 한때 그 ‘언니’ 분을 좋아해 OO, 남동생과</p>		

함께 다방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함).

○○ 아주머니는 P 씨가 어떻게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다방의 단골이 되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셨다. 그러나 P 씨가 ○○동으로 이사하기 전에 ○○동에 살았거나, ○○역 근처에서 용역 일을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2) 다방에 올 때마다 오장육부를 뒤집어, 안 싸운 사람이 없다

○○ 아주머니는 P 씨가 다방에 올 때마다 '오장육부를 뒤집고 갔다'고 하셨다. 변덕이 심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금세 파르르 화를 내곤 해서 다방에서 P 씨와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아주머니께서 '바쁘니까 이제 끊자'고 말하면, P 씨는 바로 다방으로 찾아와 '전화를 그 따위로 끊느냐'며 역정을 내셨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P 씨는 종종 다방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창 장사가 잘 되어 다방에 배달 전화가 많이 걸려오던 시절, 일부러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장사를 못하게 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고인의 행동들 때문에 아주머니는 P 씨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주머니께서도 P 씨에게 호락호락 당하고만 계시지는 않았다. P 씨에게 전화 세례를 당한 이튿날에는 아주머니께서 역으로 P 씨에게 새벽까지 전화를 걸어 일을 못 나가도록 '복수'를 하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12시까지 전화를 계속하니 (P 씨가) 그제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며 꼬리를 내렸다'고 웃으셨다. 또 어느 날은 P 씨가 향균법 위반(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 50만 원형을 받은 사실을 알고, P 씨를 굶려준 일도 있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오빠, 50만 원 벌금 안 낸 것 있더라?'하고 말하자, 깜짝 놀란 P 씨가 '나 다른 죄 없어. 잘못했어, 전화 안 할게'라고 사과했다며, 옛 기억을 떠올리셨다.

전반적으로 아주머니와 P 씨는 오랜 세월 티격태격 싸우며 미운 ○○ 든 사이 같았다.

3) "고엽제 먹어서 그런가 생각이 초등학교에서 멈췄다"

○○ 아주머니는 P 씨가 '고엽제를 먹어서 그런지 생각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멈춘 것 같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초등학교이었던 P 씨의 조카조차도 P 씨를 보고 '삼촌은 중학교에서 생각이 멎었나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오죽하면 조카가 초등학교일 때 '삼촌은 중학교에서 생각이 멎었나봐' 그랬다잖아.").

아주머니는 P 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대화를 나누다보면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하셨다(이전에 보훈병원에서 ○○ 할아버지들을 인터뷰했을 때에도, 한 할아버지께서 P 씨에 대해 '나사가 몇 개 빠졌어. 정상은 아니었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음).

아주머니에 따르면, P 씨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은 베트남전 이후였다. 정확히 어떠한 계기로 정신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P 씨의 정신이 원래부터 온전치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1900년경에 P 씨의 ○○와 남동생이 다방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남동생이 '(형이) 어릴 적에는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잘 썼는데, 베트남전에 다녀온 후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동생 분이 베트남전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P 씨는 ○○ 아주머니께 베트남전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만, 아주머니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나 언젠가 P 씨가 '눈앞에서 자기가 사람을 총으로 쏘다', '총 끝에 칼이 달렸는데 그걸로 (사람을) 찔렀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다. 아주머니는 P 씨가 어릴 적에 멋모르고 전장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정신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다고 추측하셨다.

○○ 아주머니께서 P 씨에 대해 '초등학생 같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능이 낮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했다는 의미인 듯 했다. 아주머니는 P 씨가 한문도 잘 쓰고, 머리 쓰는 일을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바둑 두기와 신문 읽기를 즐기셨다고 했다. P 씨는 다방에 올 때면 출입문 근처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를 시키고 신문을 읽으셨으며, 항상 MBN 등 시사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채널을 시청하셨다. 또한 쉬는 날이면 집 근처 공원에 가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바둑을 두기를 좋아하셨다고 한다("내가 '심심하고 따분하게 그런 것(바둑) 뭐 하러 해?' 그래도, 자기는 그게 제일 좋대."). 그러나 ○○ 아주머니는 P 씨와 단 한 번도 다방 밖에서 만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P 씨가 어떤 분들과 바둑을 함께 두셨는지는 모르셨다.

4) 국가유공자·수급자 신청하라고 하면 "내가 거지야?" 하며 화내

P 씨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된 데에는 ○○ 아주머니의 공이 컸던 듯했다. 고인이 병을 얻기 전부터 아주머니는 노년에 셋방살이를 하며 어렵게 사는 P 씨가 안 돼 보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여러 차례 권하셨다. 그러나 P 씨는 그때마다 '내가 거지냐, 아픈 곳도 없는데 왜 (정부에서 돈을) 받느냐'며 버럭 화를 내셨고, 이 문제로 아주머니와 자주 싸우셨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갑갑한 마음에 '오빠가 애국자네. 더 썩썩한 다른 사람들도 다 타먹고 있는데, 왜 오빠는 못 받느냐', '오빠도 월남에 갔다 왔으면 고엽제 뿌릴 때 오빠도 먹었을 것 아니냐'며 거듭 설득했지만, 그때마다 고인과 말다툼만 일어났다고 하셨다.

그러던 P 씨의 고집이 꺾인 것은 작년이였다. P 씨는 작년 여름(확인 필요)에 드디어 베트남전 참전 공로로 국가유공자증을 받았고, 다방에 증서를 가져와 아주머니에게 자랑을 하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P 씨에게 '보훈증서는 오빠의 보물이니까, 먼지 안 타게 잘 싸서 이불장 밑에 넣어놓으라'고 조언하셨고, 고인은 '알겠어, 알겠어. 잘 감춰놓을게'하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P 씨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전 취재에서 알아냈던 바와 같이, P 씨는 국가유공자, 수급자 모두 작년에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1년도 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 아주머니는 P 씨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한동안 완강히 거부했지만, 작년에 결국 '○○동 다방 언니들'의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다.

5) 평생 미혼, 마지막 돼서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듯

○○ 아주머니에 따르면, P 씨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애초부터 별로 없었다("처음에는 장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더라."). P 씨는 자신의 키가 워낙 작다 보니 여자들이 자신을 기피한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나이가 든 후에는 '여자 있으면 뭐해? (나만 벌어) 나만 쓰면 되지'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말년에 보훈 증서가 나오고, 병을 얻게 되자 P 씨는 그제야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고, ○○ 아주머니를 비롯한 많은 다방 여자들에게 반농담조로 '결혼하자'는 말을 던지고 다니셨다.

○○ 아주머니는 남편이나 자식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P 씨는 그런 아주머니가 측은하셨던지 '돈(보상금) 받으면 나랑 결혼하자'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 아주머니는 고인이 자신을 정말로 좋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으셨다. P 씨의 결혼 제의에 아주머니는 '됐어, 내가 오빠 먹여 살릴 일 있어?', '다른 아줌마 구해서 살아'라고 응수하셨는데, P 씨는 '너는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너한테 가면 구박 안 할 것 아니야. ○○동 다방 애들은 가난해. 개네는 방도 없고... 너는 그래도 따뜻한 밥은 줄 거 아냐'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6) 90년도도 쯤 ○○동생과 함께 다방으로 찾아왔다

○○다방에는 ○○ 아주머니보다 더 오랜 기간 일하신 '언니' 한 분이 계셨다. ○○년부터 ○○다방에 계셨다는 '언니' 분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P 씨는 한때 '언니'를 짝사랑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품었다. ○○ 아주머니에 따르면 P 씨는 1900년 즈음에 ○○와 남동생을 다방으로 데려와 '언니'를 소개시켰다. 그러나 ○○와 남동생이 '언니'를 만나보니,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P 씨 혼자만의 마음인 것이 분명해보였고, P 씨에게 '정신 차리라'며 마음을 접도록 했다. ("언니를 좋아한다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한테 소개시킨다고 데려왔는데, (○○가) 와서 보니까 그 상대는 아니잖아. 자기 혼자 좋아한 거지. 그래서 ○○가 '이 놈아, 정신 차려라. 아니다.'... 동생이고 ○○고 '저 여자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당시 P 씨의 동생은 ○○○에 근무하고 있었고, 형과는 달리 '배운' 사람이었다(P 씨의 학력은 확실치 않으나, 아주머니는 중학교 정도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심). 동생 분은 아주머니께 '저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형을 모시느라 고생했다. 손님으로 받아준 것도 고맙다'는 말을 남기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주머니는 '얼마나 속을 뒤집었으면 동생마저도 그렇게 말을 했을까'하고 말씀하셨다. ○○ 아주머니는 1996년 당시까지는 P 씨가 형제자매들과 교류를 했던 것 같지만, 이후 언제부터인가 연이 끊어진 채 살았다고 말씀하셨다(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음).

7) 가족들과 연락 끊긴 지 오래, 형제자매가 항암치료 받을 때 사인만 해주고 갔다더라

P 씨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지만, ○○ 아주머니에게 형제자매와 남매들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한 P 씨의 형제자매 역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P 씨가 가족들에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관계가 멀어진 계기는 정확히 모름). 다시 연락이 닿은 것은 작년이었는데, P 씨가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지자, 보훈병원 측에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처음에 P 씨는 ○○ 아주머니께 보호자 사인을 부탁했지만, 병원에서는 반드시 친족이 서명을 해줘야 한다며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보훈병원에 찾아왔을 때에도 P 씨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담당의를 만나 보호자 서명을 한 뒤, P 씨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났다. 이후에 ○○ 아주머니가 '왜, 만나보지, ?'하고 묻자, P 씨는 '내가 어떻게 만나. 보기 싫다고 (의사)선생님만 보고 갔는데...', '돈 대달라고 할까봐 그런가?'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8) 추석 때 ○○에게 찾아갔으나, 이미 돌아가신 지 5년도 넘어

형제자매 중 P 씨와 그나마 연락하고 지낸 분은 고인을 엄마처럼 돌봐주었던 ○○ 분이였다. ○○ 아주머니는 P 씨가 형제자매 중 ○○이었으며, 일찍 부모님을 여읜 탓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의 보살핌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아주머니는 P 씨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연락이 끊긴 후에도 ○○와는 연락을 나눴는데, ○○마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가족들과 연이 끊기게 됐다고 하셨다.

그러나 P 씨와 ○○도 생전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추석 무렵에 P 씨가 오랜만에 ○○가 보고 싶다며 ○○ 덕에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은 후였다고 한다(○○만 만나고 돌아왔다고 함). 이 이야기를 들은 ○○ 아주머니께서 '근데 왜 ○○한테 연락도 없었대? ○○도 있는데?'하고 물으셨는데, P 씨는 '(연락)하지 말라 그랬나봐'하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아마 P 씨가 장례식장에 오면 시끄럽게 떠드니까 가족들이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조심스레 추측하셨다. 또한 P 씨 역시 평소에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멀어지게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9) 작년 가을 암 병동 입원, "죽을 건 생각 안하고 계속 등급 받는 애기만"

어느 날 P 씨는 ○○ 아주머니에게 '약을 먹는데도 감기가 안 떨어지고, 가래가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주머니는 보훈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셨고, 얼마 뒤 P 씨로부터 폐에 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이후 보훈병원에 입원 중이던 P 씨가 외출 허가를 받고 다방에 놀러오셨는데, 그 때 아주머니는 P 씨의 손목에 '암 병동'이라고 쓰인 팔찌가 채워진 것을 발견하셨다. 팔찌를 본 아주머니는 '폐는 한 번 암 걸리면 끝'이기 때문에, P 씨가 얼마 못 가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예감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P 씨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으셨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P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항암치료를 두세 번 받으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P 씨는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으셨다. 당시 P 씨는 통장에 500만 원 가량을 저축해 두었는데, 이 돈을 새로 나온 항암제를 맞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P 씨가 다방에 와서도 '바보 같이 죽을 거란 건 생각 안 하고 계속

등급(고엽제 피해 등급) 얘기만 했다'고 기억하셨다. 고인은 '등급만 받으면 월 14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것 같다고 하셨다.

○○) 고향은 OO, OO국군묘지에 묻히고 싶어 했다

P 씨는 OO 출신으로, 보훈 증서를 받은 후 '나는 고향에 있는 국군묘지에 묻힐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증서를 갖고 와서는, 자기는 월남 파병 용사니까 '죽으면 난 여기로 가' 그랬다").

11) 처음 알던 때부터 일용직 노동자, 작년까지도 일 계속

○○ 아주머니와 처음 알게 되었던 90년대 초반부터 P 씨는 쪽 일용직 노동일을 하셨다. 아주머니는 P 씨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잡부였고, 고지식한 성격 탓에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은 열심히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을 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P 씨를 한 번 고용한 곳에서 고인에게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었다고 한다. 아주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P 씨는 6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도 간헐적으로 노동일을 하셨는데, 입원하기 직전에는 '일이 없어 한 달 째 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12) OO가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자랑, 항상 OO 모자에 새마을운동 제복 차림

아주머니가 고인과 알고 지낸 22년 동안, P 씨는 늘 한결 같은 옷차림을 고수했다. OO 출신인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기에, P 씨는 항상 머리에는 OO 모자를 쓰고, 보훈처에서 받은 OO 배지를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옷을 바꿔 입어도 (배지를) 꼭 달고 다녔어"). P 씨는 옷이 별로 없어서 허름한 차림이었는데, 거의 늘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 입던 제복을 입고 다니셨다고 한다("지도자 스타일"). ○○ 아주머니는 P 씨가 제복을 참 좋아했던 것 같이라며 '얼마나 제복이 입고 싶었으면 그것만 입고 다녔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이처럼 P 씨는 언제나 낡은 옷을 입고 다니셨지만, 주머니에는 항상 현금을 잔뜩 넣고 계셨다고 한다. 어떤 때는 주머니에 80만 원씩 가지고 다녀서, ○○ 아주머니께서 '위험하니 통장에 넣어두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P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였는지 늘 많은 액수의 현금을 들고 다녔는데, 자랑만 하고 돈을 쓰지는 않으셨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P 씨에 대해 자존심은 굉장히 강했지만,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 거짓말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하셨다. P 씨는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며 현금을 잔뜩 들고 다니고, 걸핏하면 '내가 거지냐'며 화를 내기는 해도 쪽방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솔직히 밝히셨다. 아주머니는 P 씨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 같았다고 덧붙이셨다.

13) 술을 못 하니, 다방을 집처럼 여기고 자주 들렀다

생전에 P 씨는 '다방'이라는 장소 자체를 무척 편안하게 여기신 듯하다. P 씨는 ○○다방 외에도 OO동, OO동에 있는 다방 이곳저곳에 자주 들르셨다고 한다(다방

이름은 모름. OO동 다방의 경우, 59세 정도 된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고 함). 이에 대해 OO 아주머니는 P 씨께서 술을 마시지 못하니, 갈 곳이 다방뿐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20년 넘게 드나든 OO다방은 마치 집처럼 편하게 여겨서, 지방에 일을 하러 갔다가 상경할 때면 귀가를 하기도 전에 배낭을 메고 다방부터 찾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P 씨는 다방에 오더라도 보통 30분 이내로 짧게 머물다 가는 편이었다. 손님이 없을 때에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손님이 있을 땐 그냥 소파에 앉아 신문만 보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또, 점심때는 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밥을 해놓으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때에도 OO동에서 두 시간 거리인 OO다방에 찾아오곤 했다. P 씨는 치아가 불편했고(치아가 다 빠져 보훈병원에서 틀니를 맞췄다고 함),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해 아주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맛있게 드셨다고 한다.

14) 12월에 다방 문 닫으면서 연락 두절, 전화 안 오기에 돌아가신 걸 예감했다

OO다방은 작년 12월 무렵 아주머니께서 몸을 다치시는 바람에 몇 달 간 영업을 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인과 다방 아주머니들은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다방 문을 다시 연 것은 2월 OO일이었는데, 아주머니는 아마 그 사이에 P 씨가 다방으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업을 재개한 후, 아주머니는 평소 다방에 자주 전화를 걸어오던 P 씨로부터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짐작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언니랑 천국에서 같이 만나서 놀겠다. 우리 언니는 12월에 갔으니까'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B. OO다방 이OO 아주머니

OO 아주머니와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다방에서 일하시는 또 다른 아주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두 번째로 인터뷰한 이OO 아주머니는 P 씨와 대화를 많이 나눈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고인에 대해 기억나는 점들을 몇 가지 말씀해주셨다. 단, 방송에 자신의 얼굴, 목소리, 이름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다.

1) 이상한 성격, 변덕이 심하고 정상은 아니었다

P 씨와 자주 다투면서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셨던 OO 아주머니와 달리, 이OO 아주머니는 고인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이OO 아주머니는 P 씨가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이상하다보니 자신에게 심한 막말을 한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아주머니와도 다툼이 있었고, 아주머니는 P 씨와 되도록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셨다. OO 아주머니는 OO다방 아주머니들 중에 OO 아주머니와 돌아가신 '언니'께서 P 씨의 비위를 그나마 잘 맞춰준 편이라고 하셨다.

2) 인정은 많은 사람... 반찬 같은 것 먹고 싶다고 하면 만들어다 주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이OO 아주머니는 고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P 씨가 인정은 많았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도 P 씨는 얼마 뒤에 또 찾아오곤 했고, 그러면 아주머니는 손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였다고 한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다 보니 P 씨는 화를 내다가도 금방 '차 마시자'면서 친절하게 굴기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유형이었던 듯했다.

또한 P 씨는 아주머니들에게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한번은 ○○ 아주머니께서 고등어 튀김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다 주시기도 했다고 한다.

3) 올해 3월에 꿈에 양복을 입고 나타나 돌아가신 걸 예감

아주머니께서는 P 씨가 폐암에 걸린 후 마음이 불안했는지 다방에 전화를 자주 걸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수시로 전화해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전화가 없으니 아주머니는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꿈이 잘 맞는 편이신데, 3월 무렵에 평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P 씨가 갑자기 꿈에 나타났다고 한다. 생전에 왜소한 체구에 허름한 옷만 입었던 고인의 모습과는 달리, 아주머니의 꿈속에서 P 씨는 양복을 입고 늙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 꿈을 꾸 후 아주머니는 ○○ 아주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두 분은 '양복을 입는 꿈은 죽음인데, 그러면 돌아가셨나보다' 짐작하셨다고 한다.

C. ○○동 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동 시장 내 반찬가게에 들어가 P 씨의 사진을 보여드렸다.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와 그 옆 점포에 계시던 아저씨께서 P 씨를 기억하셨는데, 고인과 특별히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없으신 듯했다. 다만 아주머니는 고인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반찬가게에 김치를 사러 오곤 했는데, '여자에게 갖다 준다'며 두 봉지씩 사갔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옆에 계시던 아저씨께서도 P 씨가 근처 다방에 출입했던 것을 기억하셨지만, 어느 다방에 다녔는지는 모른다고 하셨다.

D. ○○동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동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에 다시 한 번 찾아가 사무국장님을 만났으나, 이번에도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후 전화를 건 ○○구 ○○ 전우회에서도 ○○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터라 활동하는 분이 없는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다.

E. 그 외

- 옆방 아주머니는 우리가 찾아갔을 때 댁에 계시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 ○○ 씨와 통화했으나, 'P라는 사람을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하셨다. P 씨의 별명인 'OO', 생김새, 연세, 주소 등을 언급하며 정말로 모르시냐고 거듭 여쭙봤지만, '잘 모르겠다'고만 답하셨다. P 씨의 또 다른 친구라던 P 씨에 대해서도 여쭙봤으나, 역시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통화 녹음 파일 있음).
- 지난 취재 때 ○○인력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자리에 P 씨 친구 분들이 계신지 찾아보려고 했으나, 무더운 날씨 탓인지 아무도 나와 계시지 않았다.

	<p>- OO동 일대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일가게, 슈퍼, 정육점, 고물상, OO목욕탕 등)께 P 씨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고인을 아시는지 여쭙어보았다. 그러나 'OO동 터줏대감'이라는 과일가게 아저씨를 비롯해, 우리가 찾아간 가게 주인 분들은 고인을 기억하지 못하셨다.</p> <p>- 여러 번의 시도 끝에 OO 사령부와 통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OO 사령부에서는 OO기의 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군사연구소 나 O군 기록물 보존소 에 전화해보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두 기관에 모두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군사연구소에서는 관련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고, O군 기록물 보존소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p> <p>- 구글에서 찾은 OO O기 P 씨, P 씨와 통화했으나, 두 분 모두 P 씨를 모른다고 하셨다.</p> <p>- 어제(7월 OO일 금요일) OO에 있는 OO 전우회 OO회에 찾아가 O기 분들의 연락처 목록을 얻었다. 담당자 분께서 연락처는 흔쾌히 내주셨지만, 'OO 출신들이 워낙 별나서 방송에 고인의 삶이 비참하게 그려지면 들고 있어날 수 있다'며 한참동안 나를 걱정해주시기도 했다.</p> <p>목록에는 총 68명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것은 29명뿐이다. 향후 한 분씩 전화를 걸어 P 씨를 아시는지 여쭙볼 계획이다.</p> <p>*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 O기 분들(총 29명)께 전화를 걸어 P 씨를 아시는지 여쭙보려고 함. - P 씨가 종종 바둑을 두러 가셨다던 OO공원에 가볼 예정. - OO동 일대를 계속 탐문해볼 계획. - P 씨와 함께 일하셨던 분들을 만나보고 싶다. 또한 P 씨께서 OO동으로 이사 오기 전, 청년 시절에는 어떻게 사셨는지도 궁금하다. 이 시절을 아는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
<p>6차 취재 후 느낀 점</p>	<p>취재를 시작한 이래 머릿속이 가장 복잡했던 하루였다. OO다방을 나온 뒤, 두 아주머니들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 아주머니들께서 생각보다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고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뷰를 하다가 몇 차례 말실수를 한 것이 줄곧 마음에 걸렸고, 중요한 인터뷰였는데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한 것 같다는 후회도 밀려왔다.</p> <p>사실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P 씨가 안 됐다는 마음이 4할, P 씨의 가족이 이해간다는 마음이 6할 정도였다. P 씨가 대화기에 편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았고, 고인 역시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지도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가족 간 교류가 끊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취재를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P 씨의 가족들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평소에 연락은 안 하고 지냈더라도 시신은 거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들이 쌓이면서, 오늘은 은연중에 P 씨 가족을 비난하는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 나와 버린 것 같다.</p> <p>P 씨와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선택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취재를 거듭하면서</p>

	<p>나도 모르게 고인에 대한 마음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어지럽다. P 씨 취재를 마무리할 때 즈음 나는 고인에 대해 어떤 감정이 될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또 베트남전에 관해선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인터뷰를 할 때 선불리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p>		
7차 취재일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7차 취재 장소	OO ○○전우회, OO동 일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OO 전우회 ○○회 OO동 정육점 주인(○○ 씨) 기타(통화) - O군 기록물 관리소 - 국가보훈처</p>		
7차 취재 내용	<p>오전 ○○시부터 저녁 6시 무렵까지 OO동 등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히 새로 얻은 정보는 없었다. 다만 O군 기록물 관리소와 통화해 성공해, P 씨가 OO ○○기 출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오늘의 성과였다.</p> <p>A. OO 전우회 ○○회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또 한 번 OO역 인근에 있는 OO 전우회 ○○회를 찾아갔다. 전우회에 가입된 OO 출신들의 연락처를 얻어, P 씨를 아는 분을 수소문해보기 위해서였다. 이미 한 차례의 방문을 통해 OO ○○·○○기의 연락처 목록을 받았지만, 목록에 올라있는 분들 중 P 씨를 아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혹시 다른 기수 분들 중 고인을 아는 분이 있을까 싶어 연락처 목록을 추가로 요청해보기로 했다.</p> <p>건물을 들어서자마자 OO 전우회 ○○님과 마주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했다.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를 떠나신 탓에, 전우회 사무실 내부에는 두어 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첫 방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카메라를 대동해서인지 우리를 다소 경계하셨지만, 총무국장님께서 ○○기의 명단을 손수 복사해주셨다.</p> <p>이후 우리는 카페에 앉아, 목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한 분씩 전화를 걸어보았다. 2008년에 수집된 기록이라,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있었다. 여러 날에 걸쳐 약 ○○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해 성공한 것은 ○○명뿐이었고, 그 가운데 P 씨를 아는 분은 찾을 수 없었다.</p> <p>B. 월남전 ○○회 오후 2시 즈음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있는 월남전 ○○회를 방문했다. 오전에 이미 전화로 방문 허락을 받은 뒤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서자 P님과 P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셨다. 우리는 월남전 참전자 분들을 만나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현재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 중이셔서 홍보국장님과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p> <p>알고 보니 P님 역시 19○○년 육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셨으며, 허혈성</p>		

심혈질환으로 상이등급 ○○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였다. 처음에는 홍보국장님과 인터뷰를 해볼까 생각했으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P 씨와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깊은 인터뷰는 시도하지 않았다.

P님께서서는 한동안 우리에게 파월 장병의 숫자와 월남전이 대한민국 발전에 미친 영향, 고엽제 피해자들의 삶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다. 고엽제 피해자는 2세에게 그 피해가 유전될 우려 때문에 결혼을 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 취업을 하려고 해도 기업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되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이야기, 전우회에서 활동하려면 월 회비(지부에 따라 다름, 보통 월 1~2만원)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는 회비가 부담스러워 활동을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이 기억에 남았다.

C. ○○동 정육점 주인(유○○ 씨)

○○구에 거주하는 ○○ 출신 월남전 참전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 전우회 ○○지부 회장을 맡으셨다는 정육점 주인 유○○ 씨를 찾아갔다. 유○○ 씨는 월남전 참전자는 아니셨으나, ○○구에 사는 ○○ 전우 분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했다. 유○○ 씨께 우리의 연락처를 남기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 전우 분들을 몇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렸다.

D. 기타

1) ○군 기록물 관리소

○군 기록물 관리소에 전화해, ○○ ○○기의 군 시절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지, P 씨의 입대시기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담당자께서 취재의 목적과 P 씨의 인적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면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겠다고 선뜻 말씀하셔서, 점심 무렵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후에 얻은 답변에 의하면, ○군 기록물 관리소에는 ○○ ○○기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자 분은 P 씨께서 19○○년 2월○○일에 입대하여, 19○○년 ○○월 6일에 전역했다는 정보를 알려주셨다(문자 메시지 있음. 처음에는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하셨으나, 나중에 군이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음). 곧바로 ○○ ○○기 한 분께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기의 입대 날짜는 19○○년 2월 ○○일이 맞다고 말씀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P 씨가 ○○ ○○기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

2) 전쟁기념관 기록물 관리실

전쟁기념관에 전화해 ○○ ○○기의 사진을 갖고 있는지 여쭙보았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3) 국가보훈처

이전에 우리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물 찾기' 코너에 올라온 정보를 통해, P 씨의 베트남전 참전 시기가 19○○.○○~19○○.○○일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오늘 보훈처와 다시 통화해보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였다.

	<p>P 씨의 보훈번호는 '○○'로, '전상군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늘 통화한 국가보훈처 직원에 따르면, '인물 찾기' 코너에 등재된 참전유공자 목록에서 전상군경은 배제된다고 한다. 보훈처에서는 '개인 정보'라는 점을 내세워 P 씨의 참전 시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데, 결국 고인의 정확한 참전 연도를 파악하려면 P 씨를 기억하는 전우 분들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다.</p>		
7차 취재 후 느낀 점	<p>취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쳐서는 안 되는데, 오늘은 취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 지쳐버린 것 같다. OO 분들께 전화를 돌리고, 월남자 참전자회 등을 방문하면서 P 씨를 기억하는 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참 많이 접했다. 베트남전이 끝난 지도 벌써 수 십 년이 흐른 데다, ○○기의 인원 자체가 너무 적다는 이유였다. ○○기나 ○○기 등 다른 기수에게 전화를 걸면, '동기도 기억할까 말까'라며 ○○기는 모른다고 잘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며칠 째 '모른다', '그렇게 해서 못 찾아'란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 왠지 기운이 점점 빠졌다. 취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P 씨의 전우를 단 한 분이라도 만나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한 기분이다.</p>		
8차 취재일	2014년 8월 8일 금요일	8차 취재 장소	○○ 씨 댁, 국립 현충원, ○○ 씨 댁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1. OO ○○기 ○○ 씨 2. OO ○○기 ○ 씨 ○○ ○○기 ○ 씨 3. 기타(통화) - 전우신문 - 국방부 대변인실</p>		
8차 취재 내용	<p>지난 며칠 간 OO 분들께 P 씨를 수소문하면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 두 분과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OO ○○기 조○○ 씨와 ○○기 이○○ 씨는 P 씨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셨지만, 베트남전 참전 경험 등을 비롯해 P 씨와 비슷한 면을 지닌 분들이었다. 두 분께서 우리에게 베트남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흔쾌히 허락하셔서, 8일 오후 각각 두 분의 댁으로 찾아갔다.</p> <p>우선 ○○ 씨 댁에서는 일대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다음으로는 ○○ 씨를 포함해 참전용사 세 분과 함께 대화했다. 오늘 만난 분들은 모두 OO 출신 베트남전 참전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터뷰의 분위기나 방향은 사뭇 다르게 전개됐다. 첫 번째 인터뷰(○○ 씨)는 비교적 밝고 편안한 분위기였는데, 베트남전보다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반면 두 번째 인터뷰(○○ 등)에서는 인터뷰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때도 많았으며, 주로 베트남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p> <p>A. OO ○○기 조○○ 씨)</p>		

○○씨는 ○○ ○○기 동기 회장으로, 1966년 파월된 분이다.
○○ 씨는 매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는데, 현재는 아내 분이 장기 입원 중이고 자제 분들은 모두 분가를 하여, ○○동 자택에 홀로 살고 계셨다. 약 두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한 시간은 댁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에는 인근에 있는 국립 현충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1) ○○ 출신, 고등학교 중퇴 후 스물 둘에 ○○ 입대

○○ 씨는 1944년생으로, 고 P 씨와 같은 ○○ 출신이다. ○○ 씨의 집안은 ○○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데다가 형제자매가 아홉이나 되었다. 이 때문에 ○○씨는 '나는 고생을 타고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다. 더구나 큰형님께서 요절하시는 바람에 ○○ 씨는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장남 역할을 해야 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산전수전을 겪은 탓에, ○○ 씨는 '시골에서 농사지을 때에 비하면 오히려 군 생활은 고생스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 훈련은 탈영병들이 생길 정도로 혹독했는데, 힘든 일에 인이 박혀 있던 ○○ 씨는 병사들이 왜 도망을 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했다.

○○ 씨는 젊은 시절 육상선수로도 활동했는데, 전국 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을 만큼 소질이 있으셨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고, 먼저 ○○에 입대했던 친구의 권유로, 스물 둘의 나이에 ○○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2)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자원하여 참전

당시 ○○는 대부분 징발 형식으로 파월됐지만, ○○ 씨께서는 자원하여 베트남에 간 경우였다. 이에 대해 ○○ 씨는 '나는 월남을 죽으려고 갔다'고 말씀하셨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 씨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면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형제자매가 연금을 타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참전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평소 ○○에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교육을 받았기에, ○○ 씨는 자신도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하셨다.

3) 베트남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나만 살아서 미안하다"

'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전쟁이었지만, 죽을 고비는 번번이 ○○ 씨를 비껴갔다. ○○ 씨는 베트남에서 몇 차례나 위험한 순간을 맞았지만, '그렇게 작전을 나가도 이상하게 총알이 나만 피했다'고 말씀하셨다. ○○ 씨는 베트남에서 전사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무공훈장을 전우에게 양보하기도 했지만, 결국 귀국할 때까지 부상 한 번 입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 씨는 우리에게 전쟁 중 아찔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 씨는 원래 무선 통신병이었지만, 베트남에 도착하니 T.O.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중대'라고 불리던 최전방의 중대에 배치되었다. 그곳에 떨어지자마자 ○○ 씨는 철조망을 걷는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알고 보니 철조망에는 베트남들이 부비트랩을 설치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비트랩이 터지는 순간에 ○○ 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셔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작전을 나가다가 트럭이 지뢰를 밟아서 전우 23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 씨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셨다. ○○ 씨가 탄 트럭에는 웃긴 이야기를 아주 잘 하는 병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 분께서 자꾸 사람들을 웃기는 바람에 차량의 이동 속도가 늦어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 씨가 탄 차는 지뢰를 피할 수 있었고, 앞서 간 차량이 지뢰를 밟고 폭발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23명의 전우 분들은 현재 모두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고 한다.

○○ 씨는 자신은 죽기 위해 베트남에 갔는데 결국 살아남았다며, '나만 살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이후 우리는 현충원으로 자리를 옮겨 ○○ 전우 분들이 많이 묻혀 계신 ○○구역을 찾아갔는데, 이곳에서도 ○○ 씨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다. ○○ 씨는 전우 분들의 성함은 이제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상당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았다. ○○ 씨는 요즘도 매년 현충일이 되면 전우들에게 참배를 하기 위해 현충원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다.

4) 영화 '○○ 사나이'에 출연하기도

○○ 씨께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끔찍한 기억만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베트남에서의 즐거운 추억도 몇 가지 떠올리셨는데, 특히 이만희 감독의 영화 '○○ 사나이'에 출연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당시 이만희 감독이 여배우 문정숙 등과 함께 베트남으로 영화 촬영을 왔는데, ○○ 씨는 약 한 달 동안 영화 촬영에 참여하셨다고 한다. ○○ 씨는 '○○ 사나이'에서 전사하는 병사 역할을 맡았으며, 우리에게 영화 촬영 중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하셨다.

5) 제대 후 ○○에서 근무, 스물여덟에 결혼, 매우 화목한 가정

제대 후 ○○ 씨는 ○○에 취업해, 약 30년 간 근무하셨다. 또한 휴일에는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바지 장사를 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 씨는 자택도 마련할 수 있었고, 둘째 ○○을 5년 간 유학시키기도 했다.

또한 ○○ 씨는 매주 가족회의를 열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만큼, 가정에도 매우 충실한 가장이었다. ○○ 씨는 스물여덟 살에 현재의 아내 분과 결혼하셨는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 씨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듯했는데, 아내 분과 자녀분들 모두 ○○ 씨와 상당히 사이가 좋다고 했다. ○○ 씨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식과 아내가 늘 자신을 인정해주어서 기쁘다고 하셨다. 자녀분들은 '세상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다'며 ○○ 씨를 인정해주고, 아내 분 역시 항상 '잘했다'며 ○○ 씨의 기를 북돋워주셨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 씨와는 가족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눴는데, ○○ 씨께서는 듣는 사람이 부러워질 만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다. 비록 지금은 분가해 따로 살고 있지만, 자제분들 모두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갖고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다(큰○○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에서 근무, 작은○○은 ○○에서 공부한 후 현재 학원 운영, 아들은 ○○ 다니고 있음), 자주 ○○ 씨께 안부 전화를 걸며 살갑게 대한다고 자랑을

하셨다.

현재 ○○ 씨는 은퇴 후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다. '집사람의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 듯 했다. ○○ 씨의 아내 분께서는 5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 현재 1년 2개월째 입원 중이신데, ○○ 씨는 '집사람이 아프기 전에는 걱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 씨는 '매일 ○○ 재활 병원에 집사람을 보러간다'면서, 우리와 인터뷰를 마친 후에도 아내가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향하셨다.

6) 남에게 잘 베푸는 성격, 각종 모임 회장직

○○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 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꺾었다가 떼인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다. ○○ 씨는 우리에게도 인터뷰 중간 중간 물이나 요거트 등을 권하시고, 근처에 맛있는 중국집이 있다며 자장면을 배달시켜주시기도 했다.

이렇듯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 씨는 각종 모임에도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셨다. 지금도 ○○ ○○기 동기 회장을 비롯해 ○○동 체육회장, 경로당 사무장, 배드민턴회 회장 등을 맡고 계셨으며, 봉사활동 모임에도 나간다고 하셨다. 취미도 다양하셨는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며 우리에게 애창곡 한 소절을 불러주시는가 하면, 대만, 중국 등에 여행 갔던 사진들을 잔뜩 보여주시기도 했다.

7) 고향 근처인 ○○에 묻히고 싶다

자장면을 먹은 후, 우리는 ○○ 씨와 함께 국립 현충원으로 걸어갔다. 먼저 채명신 장군 묘와 ○○ 씨의 외○○·외○○가 묻혀 계신 곳을 방문한 뒤, 베트남에서 전사한 ○○ 분들이 많이 안장되어 있는 26구역으로 향했다.

현충원 내부를 거닐면서, ○○ 씨는 죽은 뒤에 고향 근처에 있는 ○○에 묻히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 씨의 외○○ 역시 외○○와 함께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셨는데, ○○ 씨는 자신 역시 죽은 후에 아내 분과 함께 합장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들으니, 고 P씨 역시 그곳에 묻히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 떠올라서 기분이 묘했다.

B. ○○ ○○기 ○○ 씨 & ○○기 ○○ 씨(○○동)

현충원을 나온 뒤, 곧바로 ○○동에 있는 ○○ 씨 댁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 씨 댁 안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 씨께서 집이 비좁아 불편하다며 앞집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셨다(앞집에도 ○○ 전우 분이 살고 계셨음).

우리는 앞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 씨, ○○ 씨 등 총 세 분의 ○○ 출신 베트남전 참전자 분들과 대화를 나눴다. 세 분 모두 ○○중대 출신으로 전투에 보병으로 참전하셨으며, 그 중 ○○ 씨와 ○○ 씨는 전장에서 다리 부상을 입어 전상군경 판정을 받은 경우였다(○○ 씨는 허벅지 부상, ○○ 씨는 정강이 부상&고엽제 피해). 우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분은 ○○ 씨였는데, 다음은 주로 ○○ 씨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1) 소대장 차출로 파월,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다

○○ 씨는 ○○에 입대한 동네 선배의 제복이 멋져 보여, 스무 살에 ○○에 자원 입대하셨다. ○○ 씨 역시 열아홉이라는 어린 나이에 ○○에 자원 입대하셨다. 이후 베트남전 파병이 시작되면서 상부에서 1개 중대를 차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 씨와 ○○ 씨 모두 소대장 차출로 파월이 결정되었다(○○ 씨는 19○○년 8월 11일 파월, ○○ 씨는 같은 해 9월 ○○일에 파월됨). 갑작스레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죽으러 간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 씨는 베트남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죽어서도 해병'이라는 각오로 바늘 세 개를 실에 묶어 팔뚝에 손수 ○○ 마크를 새겼는데, 아직도 왼팔에 문신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2) ○○동 전투 참전, 전쟁 중 다리 부상

○○동에 모인 분들은 모두 ○○동 전투에 참전한 분들이었다. ○○동 전투는 1967년 2월 ○○일에서 ○○일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당시 약 300명의 병력에 불과했던 ○○중대는 2400명이 넘는 베트남군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 ○○ 씨와 ○○ 씨는 인해전술로 밀려드는 베트남군들에 맞서 싸웠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전투 중 다리에 포탄 파편이 박혔던 자국을 보여주셨다. ○○ 씨는 정강이에, ○○ 씨는 허벅지에 파편이 박혔는데, 아직도 파편 조각 일부는 몸에서 빼내지 못했다고 한다. 부상을 입은 후, 두 분은 3개월 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다리가 채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소대에 복귀해야 했다. ○○ 씨와 ○○ 씨는 당시에 ○○일보에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렸다고 하며, '○○ 병상에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다. 기사에는 전사자 15명과 부상자 33명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는데, 부상자 명단에서 ○○ 씨와 ○○ 씨의 성함을 찾을 수 있었다.

3) 처음 사람을 죽인 경험... 어떻게 살인에 익숙해졌나

○○ 씨와 ○○ 씨는 인터뷰 중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다. ○○ 씨에 따르면 ○○ 씨는 ○○ 전투에서 베트남군을 50명 이상 죽였다고 한다. 또한 ○○ 씨는 베트남전 당시 적군의 시체를 50구씩 다섯 무더기를 쌓았으며, '시신 사진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라는 말씀도 하셨다.

처음에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두 분의 표정은 덤덤해보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 씨와 ○○ 씨 모두 전장에서 사람을 죽인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 씨는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얘기해주겠다'며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던 날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베트남에 도착한 후, ○○ 씨는 아주 큰 총을 지급받았는데, 조작법이 익숙지 않아 총구가 자꾸만 하늘로 향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정찰 중에 처음으로 베트남군을 생포해 죽이게 되었고, 그 날 밤은 죽인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 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총으로) 사람을 잘 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들던 ○○ 씨 역시 당시에는 나무를 베는 용도였던 만도칼(정글도 혹은

마체테라고도 함) 역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덧붙이셨다. ○○ 씨는 '전우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우리도 모르게 흥분이 돼서 (베트콩을) 안 죽이고 그냥 놔두면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 씨는 ○○에 처음 가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설명하셨다. 부대에 신참이 오면 칼, 도끼, 몽둥이, 삽 등을 쥐어준 다음, 민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참이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경우, 때려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 때, 옆에서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들으시던 또 다른 ○○ 분께서는 ○○ 씨가 '(○○에서) 멀쩡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표현을 쓰자, 제동을 걸기도 하셨다. 그 분은 '청룡부대를 보면 베트콩이 머리껍질까지 벗겨서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본 해병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죽인 것'이라고 변론하셨다.

이처럼 전쟁 중에 폭력에 무너지다 보니, ○○ 씨는 '전쟁을 갔다 오면 전부들 눈이 돌아가서 살기가 썩는다'고 말씀하셨다. 베트남전 참전자들 중에는 괴로운 마음에 술에 기대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참전자들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으면 '저 새끼, 나한테 덤벼. 저 새끼 죽여야지'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다.

4)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 씨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듯했다. 군에서 제대한 지도 ○○년이 넘게 흐른 어느 날("서른 서너 살 무렵"), 술에 취해 귀가하던 ○○ 씨는 우연히 교회 종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고개를 드니 눈앞에는 십자가와 하늘에 뜬 별이 보였는데, ○○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했다.

"하느님, 저 살인잡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살인자 죄인. 하느님, 이 살인자를 처벌해주십시오."

"월남전에서 본의 아니게 내가 타국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때부터 ○○ 씨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성경도 8번이나 읽으셨다. ○○ 씨는 지금도 술에 취해 이성을 잃으면 자신도 모르게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종교가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5) 고엽제 피해로 취업 못해, 생활고 때문에 자살 생각도 여러 번

○○ 씨는 동맥경화, 협심증, 중추신경계 이상, 고혈압,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였다(상이등급 6급 2항). 고엽제 피해는 피부병으로도 나타나, ○○ 씨의 양손과 둔부 근처는 백반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 때문에 ○○ 씨는 한여름인데도 장갑으로 손등을 가리고 계셨다. 장갑을 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며 문둥이 보듯 한다는 것이었다. ○○ 씨는 사람들이 백반을 보고 전염병인 줄 알고 피해가기 때문에 더워도 장갑을 꼭 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전쟁 중에 건강이 상해버린 탓에, ○○ 씨는 스물 셋에 제대한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개인 사업을 벌였지만, 사업 경험이 없다보니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나중에는 공장에라도 취직하려고 했으나, 신체검사에서 걸려

	<p>그마저도 좌절됐다. 이 때문에 ○○ 씨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p> <p>이후 ○○ 씨는 ○○○공으로 일하기 시작해 기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듯했다. ○○ 씨는 현재 ○○시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며, 매월 지급되는 ○○만 원의 고엽제 피해 보상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다(○○ 씨 역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신 듯했음).</p> <p>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 씨는 국가와 정치인들에 대해 울분을 토하셨다. ○○ 씨는 우리에게 세 장의 국가유공자증(고엽제 피해자, 전상군경, 베트남전 참전)을 꺼내 보이시며, 전쟁에 나가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푸대접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셨다. ○○ 씨는 ○○○ 정부에서 참전자들의 전투 수당을 강도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 참전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고엽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을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p> <p>6) 세 아이 잃고 첫 번째 부인과 파경, 이후에 재혼</p> <p>○○ 씨께 '가정은 언제 꾸리셨느냐'고 여쭙보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실 때와는 달리, ○○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 이야기는 못하겠다'고 말끝을 흐리셨다. ○○ 씨는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 상황도 어렵다 보니(당시에는 고엽제 피해보상금도 받지 않았던 상황),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셨다고 했다. 또한 당시 아내 분과의 사이에서 생겼던 세 명의 아기 역시 고엽제 여파로 모두 잃고 말았다고 말씀하셨다.</p> <p>이후 ○○ 씨는 현재의 아내 분을 만나, 슬하에 외동○○ ○○를 두었다. ○○ 씨는 ○○이 글을 잘 써서 ○○대, ○○대를 다녔다며, 잠깐 동안 따님 자랑을 하시기도 했다.</p> <p>우리는 조금 더 ○○ 씨와 ○○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저녁에 술 약속이 있다고 하셔서 아쉬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p> <p>C. 기타</p> <p>- P 씨와 군 생활을 함께 한 분을 찾기 위해 전우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P 씨의 군 시절 복무 부대를 파악하지 못해, 전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현재까지 알아낸 것은 P 씨의 ○○ 기수, 입대 및 제대 시기, 병과 등임). 전우신문 측에서는 가능하면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 복무 부대를 확인하라고 조언하였는데, 국방부는 요즘 윤 일병 사건 때문에 매우 바쁘고 예민한 상태인 듯하였다. 일단 국방부 대변인실과 통화한 후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좀 더 답신을 기다려봐야겠다.</p>
8차 취재 후 느낀 점	<p>오늘 인터뷰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사실 인터뷰 허락을 받은 후에도 나는 ○○ 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솔직한 속 이야기를 해주실지 확신이 없었다. 이전에 만난 ○○ 분들의 모습을 떠올려봤을 때, 본인의 아픈 경험에 대해 자세히</p>

	<p>밝히는 것은 꺼리시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 씨, ○○ 씨, ○○ 씨 모두 상당히 진솔하게 자신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전우를 잃고 홀로 생존했을 때 느꼈던 미안함, 전투 중 사람을 죽였을 때 느꼈던 죄책감 등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뜻 해주셔서 감사했다.</p> <p>이렇게 ○○ 할아버님들께서 솔직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덕분에, 오늘 대화를 마친 뒤에는 이전보다 그 분들이 한결 더 인간적이고 가깝게 느껴졌다. 사실 이전까지는 전쟁 후유증을 겪는 ○○ 분들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분들의 사고방식이나 과격한 언사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함께 대화한 ○○ 분들에게서는 인간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면모들을 많이 발견했고, 이전 세대 분들의 삶에 대해 좀 더 이해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p> <p>특히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터뷰의 분위기가 서로 달라서 더 흥미롭게 느껴졌다. ○○·○○ 씨의 경우 베트남전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P 씨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셨을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에 반해 ○○ 씨의 화목한 가정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P 씨의 삶과는 대조적이라는 느낌이였다.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 씨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껏 추적해온 P 씨의 삶 이야기가 대비되어 떠올랐다.</p>
--	--

(2) 세상의 끝에서 나눔을 외친 봉어빵 아저씨

- 시체처리구: 서울특별시 ○○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64
-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 주소지: 서울특별시 ○○구
- 혼인사항: 미혼
- 연고자: 아버지, 형제, 조카
- 사망년도: 2013.10
- 사망지: 주택
- 주거형태: ○○
- 발견일시: 2013.10
- 발견자: 친구 정○○씨
- 안치장소: ○○묘지
- 사망원인: 심장마비 추정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1차 취재일	2014년 6월 8일	1차 취재장소	서울 중구
만난 사람 및	1. H 씨 같은 셋방 주민		

연락처	2. 식당 아주머니:		
1차 취재 내용	<p>1. 많은 주민 분들이 기억하는 H 씨 H 씨는 '이 건물 몇 층 몇 호 사셨던 분'이 아니라 그 성함으로 기억하는 주민 분들이 많았던 유일한 분이였다. 특히 주민 분들이 "아, H?"하고 친근하게 부르시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건물 앞에서 페트병을 옮기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H랑 친했어"라고 하셔서 인터뷰를 부탁했더니,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셨다.</p> <p>2. 돌아가시기 전날 마주치셨던 식당 아주머니 고인이 살던 동네는 중구의 '뒷골목'이지만, 그나마 그 뒷골목의 앞쪽에는 자그마한 슈퍼와 식당이 있다. 3시경 식당이 좀 한산할 때에 들러 아주머니께 H 씨를 혹시 아시냐고 여쭙어보았다. 아주머니께서는 H 씨가 이곳에 15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주민이라는 건 알았지만 직접 얘기해본 적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H 씨와 가까이 지내던 일행 분들(같은 셋방 건물에 사시던)이 식당에 자주 들렀다고 한다. 한 번은 H 씨가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드신 적이 있는데 좋아하셨다고 회상하셨다. 또 H 씨가 젊었을 적엔 일용직으로 일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p> <p>아주머니가 그나마 그를 좀 더 알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H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이었다. 그날 저녁 술을 거나하게 드셨던 H 씨가 식당에서 골목으로 꺾어지는 귀퉁이에 앉아 걸음을 옮기기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그를 부축하여 그 골목 끝 셋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H 씨의 친구 분들이 셋방에서 앉은 자세 그대로 세상을 떠난 그 분을 발견했다. 마을에서 H 씨의 제사를 치러주었고(제일 끝 골목에서) 아주머니도 3만 원의 부조금을 냈다고 말씀하셨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매번 만나는 동네 분들마다 "어디 사셨던 누구" 아시냐고 여쭙보면 모르거나 겨우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H 씨만은 동네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는 듯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기억해내 우리조차도 반갑고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비록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p>		
2차 취재일	2014년 6월 11일	2차 취재장소	○○상담센터, 서울 중구 ○○로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1. 전○○ 사회복지사님: 2. 박○○ 간호사님: 3. 주○○ 씨 4. 최○○ 통장님: 5. H 씨 집주인 분</p>		
2차 취재 내용	<p>1. 착하고 온순한 사람, 인권운동도 해 이 날 인터뷰해주신 모두가 H 씨에 대해 입 모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착하고 온순하다'는 것이었다.</p> <p>박○○ 간호사님은 그를 잘 웃는 사람, 이웃하고 잘 지내는 사람으로 기억하셨고 본인 몸에 문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까봐 걱정했다고 한다. 전○○ 사회복지사님에 따르면 H 씨는 기초수급자이셨고,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최○○ 통장님은 그가 서울역 ○○(?)에서 자주 봉사를 했다고 전해주셨다. 친구였던 주○○ 씨는 빈민구제 운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추모제 때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p>		

고 한다. 인권단체의 이○○ 간사님이 H 씨를 잘 알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2. 술을 끊지 못해

인터뷰이들은 공통적으로 그의 성격 말고도 '술'에 대해 얘기했다. 전○○ 사회복지사님은 그가 술을 자주 드시진 않았지만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폭음한다고 하셨다. 주○○ 씨는 동생인 H 씨가 술을 끊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왔으나 3개월만 넘어가면 술을 참지 못하고 많이 드셨다고 한다. 인천이 고향이고 그 동네 다방에 아는 분이 있어서 술을 먹고(?) 거기 자주 갔던 걸로 알고 계셨다. 또 서울역 노숙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형 동생 하며 술을 같이 드시기도 했단다.

3. 사망 한 달 전 입원,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전○○ 사회복지사님과 박○○ 간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바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2013년 9월 12일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호흡기, 심장 관련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 때 H 씨는 전○○ 사회복지사님께 돈 30여 만 원이 모자라 입원비를 내달라고 전화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님은 병원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 병원비를 주는 대신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근데도 기어이 술을 드셨다며 속상해하셨다.

전에 취재를 통해 H 씨가 과음을 하신 다음날 돌아가신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는데, 사회복지사님 얘기로는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 몸에 열이 많이 나서 냉장고를 열고 얼음물을 마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4. 고향과 가족관계

주○○ 씨는 그가 인천이 고향인 건 아는데 어떻게 서울에 오게 됐는지 등의 사정은 자세히 모른다고 하셨다. 언뜻 들기론 수감생활도 했었던 거 같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서로 불편해서 안 한다고 하셨다.

H 씨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혼을 안 했고, H 씨가 돌아가셨을 때 H 씨 아버지와 사촌 조카(?)가 다녀온 걸 들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시신을 거두지 않아 무연고로 장례를 치르게 됐다고 한다.

5. 친구인 주○○ 씨가 기억하는 H 씨

H 씨와 6년간 알고 지내셨다는 주○○ 씨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주○○ 씨는 그와 햇수로 5년간 겨울마다 봉어빵 장사를 함께 하셨다. 수급자들 중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봉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일은 잘 했다. 그는 일을 하면 번 돈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H 씨를 도왔으나 돈이 50만 원만 넘어가면 그걸 참지 못하고 다 썼다고 한다.

같이 어울리던 수급자 분들과 ○○교회도 같이 다니고 특히 주○○ 씨와는 세례를 같은 날 받았다고 한다.

주○○ 씨는 H 씨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셨다. 본인은 H 씨가 술 먹은 뒤 베개 베고 잘 자는 것만 봤지 냉장고에 처박고 돌아가실지 몰랐다고.

한 가지 에피소드라면 H 씨가 걸로 나이가 많아보여도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선

	<p>가장 막내였다고 한다. H 씨가 모자만 벗으면 노인 같아서 경로당에 노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행사 때 삼계탕을 얻어먹기도 했다고.</p> <p>6. H 씨 집주인 분도 '술' 언급 H 씨 집주인 분은 이미 사람들이 몇 번 다녀오고 많이 물어봤다며 인터뷰를 격하게 거부하셨다. 왜 죽은 사람에 대해 말하게 하냐고. 그리고 H 씨에 대해 술 마시지 말라는데 그 말에 오히려 웃으며 술을 마셨다고 덧붙이셨다.</p>		
2차 취재 후 느낀 점	<p>술, 잦은 입원, 단절된 가족관계는 그간의 무연고 사망자들 사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인권운동도 하고 이웃과 교류가 많은 케이스는 처음이라 특이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 인생의 흔적이 많아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p> <p>친구인 주○○ 씨가 인터뷰가 많이 기억에 남는다.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 중간 뜬금없이 H 씨와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보기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였던 H 씨와 경로당에서 공짜 음식을 먹었다는 에피소드에서는 나도 웃음이 났다. "그 친구랑 있을 때는 참 재밌었는데..."라고 말씀하실 때는 잠시 숙연해졌다. 이렇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이 분이 살아계시는 듯한 느낌도 든다. 그래서 마음이 좀 뒤숭숭했던 것 같기도 하다.</p>		
3차 취재일	2014년 6월 17일	3차 취재장소	○○상담센터, ○○교회 ○○성전, H 씨 주소지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 ○○성전 목사님 H 씨 친구 분 김○○ 씨 H 씨 친구 분 김○○ 씨 		
3차 취재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에 주말마다 예배드려 주○○ 씨가 말씀해주신 교회를 찾기 위해 무작정 나섰다. 그러나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그 교회의 지부는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 ○○성전을 발견했고, 담임목사실에 계시던 어느 목사님을 통해 김○○ 장로님과 통화할 수 있었다. 김○○ 장로님은 주○○ 씨와 H 씨에게 양복을 맞춰주기도 했다는 장로님이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남들 모르게 도우려고 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하셨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도 H 씨가 그저 주말에만 보였던 사람이고, 그 동네분들은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보조금 때문에 교회(기독교)에 다니다가 성당(천주교)에 다니다가 한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다. 가까이 지냈던 교인이 있으시냐고 물어도 아마 없을 거라는 반응이었다. 덧붙여 정○○ 장로님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을 많이 도우셨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셨고, 전화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했더니 주말 오후에 찾아오라고 하셨다. 친구 김○○ 씨와 함께 일해 1층에서 물어 물어 김○○ 씨를 찾았다. 우리를 보시고는 식당 할머니를 통해 들었이라며,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흔쾌히 권하셨다. 김○○ 씨는 8년 전에 ○○로 왔고, H 씨는 그때 이미 이곳에 살고 계셨다. H 씨 		

는 이 동네 생활을 10년 전부터 했고, 젊었을 때는 서울역 부근에 사셨다(노숙하셨다). 그래서 서울역에는 H 씨를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8년 전에 두 분은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에서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일자리를 얻어 한동안 함께 일하셨다고 한다. 일하면서는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5년 전부터 시작한 붕어빵 장사도 붕어빵 기술을 갖고 있던 김○○ 씨를 중심으로 H 씨, 주○○ 씨를 포함한 대여섯명이 힘을 합친 결과였다. 수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용돈이나 병원비로 쓰기 위해 시작했다. 겨울마다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꼭 돈을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좋아하셨다고 한다.

3. 술과 관련된 기억

김○○ 씨 역시 H 씨가 술을 자주 먹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떨 땐 술을 드시고 헛것을 보시기도 했다. 언제 한번은 술을 드신 H 씨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해서, 다음날 함께 통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술을 드시고 착각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할 때 두고두고 웃곤 했다고 김○○ 씨는 회상하셨다.

하지만 술을 드시고 나서 서로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다. H 씨가 술을 드시고 김○○ 씨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김○○ 씨도 화가 나서 맞받아쳤다. H 씨는 얼마 안 가 바로 후회하시며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셨다. 그만큼 착했던 사람이었다고 김○○ 씨는 강조하셨다.

H 씨는 아마 가정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하셨다. 아버지와 조카가 생존해있어서 경찰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시신을 거부했다. 하지만 고향이나 가족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알고지낸 김○○ 씨도 잘 알지 못했다.

4. 식도염과 대장 문제로 병원 입원도

H 씨는 식도염 때문에 2010-11년 즈음에 ○○병원에 입원하셨었고, 대장에 문제가 있어 119에 실려 가기도 했었다. 돌아가신 것도 퇴원한지 겨우 며칠 남짓 되던 날이었다. 그래서 김○○ 씨는 그가 돌아가시리라 더욱 예상치 못했다.

5. 김○○ 장로님 덕에 함께 교회 나가

김○○ 씨는 H 씨 그리고 다른 친구 분들(주○○ 씨 포함)과 함께 교회를 같이 다니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건 2010년도이지만 그 전에도 몇 번 가신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씨가 다니기 시작하자 1~2주 후에 H 씨도 따라서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책임감이 생겼다고 하셨다.

또한 교회의 김○○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다. 그 일화로, 장로님이 동네를 방문하여 커피를 나눠주고, 그 이후에도 술도 한 잔 함께 하시고 했었는데, 헤어지면서 한번 씩 안아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양복을 맞추어주기 위해 사이즈를 가늠하기 위함이었다. 다음번 방문 때 장로님은 김○○ 씨, H 씨 등에게 양복한 벌에 구두까지 안겨주었고, 김○○ 씨와 H 씨 일행은 양복을 아껴두었다가 주일에 예배 갈 때 입고, 세탁비도 없는데 혹시 뭐라도 물을 세라 교회에서 돌아오면 얼른

	<p>벗어서 걸어두었다고 한다.</p> <p>6. 친구 김○○ 씨 역시 '착한 사람'으로 기억해 김○○ 씨 다음으로 형님으로 통하던 같은 셋방 김○○ 씨께 인터뷰를 요청해보았다. 이미 김○○ 씨가 다 얘기해줬을 거라며 거절하셨습니다, 착한 친구였다는 것만은 강조하셨다.</p>		
4차 취재일	2014년 6월 20일	4차 취재장소	고인이 생전에 활동했던 인권단체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이○○ 간사님 윤○○ 씨(H 씨 지인)</p>		
4차 취재 내용	<p>1. 처음 알게 된 계기 - (H 씨를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셨다) 2004년 7월에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27세 청년이 철도 공안과 공익근무요원에 의해 흉부압박질식사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정신질환이 있던 분이었는데, 여행객에게 실례를 범해 철도 공안과 공익근무요원이 제재하던 중 과잉대응으로 팔이 뒤로 꺾인 상태로 고착시켰는데 그 상태가 지속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던 사건/ 당시 그분의 죽음은, 서울역에서 공권력이 없는 자들을 사람 이하로 대하는 방식의 집약체라는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 폭행중지, 공공역사로서의 사회적인 기능 복원 등 조치를 요구했다/ 2004년 7월부터 서울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었고, 당시에 H 씨는 농성장 지킴이로 결함을 시작하셨다/ H 씨는 윤○○ 씨 등 전부터 인권단체 활동하시던 다른 분들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다.</p> <p>2. 그 이후 - 목요일마다 인권단체 활동 하는데, H 씨는 종각, 종로3가역 담당(그러나 지금 그곳에 H 씨를 알고 계신 분은 없을 것) 상담활동가로 2008년까지 참여하셨음/ 활동을 하면서 매주 한 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그게 쌓여서 복지나 기초법에 대해 숙지를 해서 상담도 하고 도움도 주었다/ 하지만 2년 밖에 활동을 안 하셔서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 그 때 당시에는 교육도 매주가 아니라 6주 정도. - 그 이후로는 드문드문 나오시고, 대신 ○○ 지역에서 봉어빵 장사를 하는 등 활동의 중심을 옮기신 것 같다/ 마지막으로 2011년에 ○○단 체육대회에 오셔서 축구 하던 사진이 있던 것으로보아 2011년도까지는 간헐적으로 활동하신 듯. - 현재 인권단체 사무소는 2012년에 이사온 곳. 그 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만 오셨었다. 이곳에 오신 적은 없음.</p> <p>3. H 씨의 성격 - 말이 없으셨다/ 키도 작고 나이에 비해 노안이시긴 했지만 단단한 분이셨고, 돌쇠같은 스타일이셨다/ 농성하더라도 몸으로 하는 노가다 같은 일을 도맡아 하심/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보다는 천막 안에 자리를 지켜주는 역할/ 그러면서도 욕하는 성격이 있어, 농성을 방해하는 휘방꾼들이 오면 돌변해서 그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셨다.</p>		

	<p>4. H 씨의 인간관계, 이○○ 간사님과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에 남는 대화가 없다/ 본인 얘기도 거의 안 하셨다/ 윤○○ 씨를 찾아가서 여쭙보라. -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술 자주 드셨다/ 현재 이곳에 계시던 분들 중 당시에 계시던 분들은 없다 		
4차 취재 후 느낀 점	<p>이○○ 간사님을 뵙기 전에 그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다른 분을 만났다. 그 분은 한 때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눈앞이 캄캄했다가, 이렇게 인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다기에 찾아오셨다고 한다. 활동비 같은 걸 받지도 않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고 뿌듯한 일이기엔 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구나 준비를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참 당연한 말인데도 새삼 뜨끔했다. 그 활동가 분이 겪으셨을 그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상황을, 돌아가신 H 씨는 물론 인권단체에서 한때 활동하셨던 그리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느끼시지 않았을까.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심한 것 같다. 이 단체에서 온몸을 바치고 계시는 이○○ 간사님은 정말 젊으신 분이었는데, 외모라기보다는 그 눈빛이 정말 강직하셨다.</p>		
5차 취재일	2014년 6월 22일	5차 취재장소	중구 ○○로 , ○○교회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김○○ 씨 정○○ 씨 정○○ 장로님:</p>		
5차 취재 내용	<p>1. H 씨 도와주던 공무원 있었다</p> <p>○○로 식당 안에서 우연히 만난 김○○ 씨와 김○○ 씨. H 씨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두 분은 H 씨를 알고 있는 다른 분을 알려주셨다. 구청의 '임 주임'이라고 부르던 '임○○ 씨'가 3~4년 전부터 H 씨를 여러모로 도와주셨다고 한다. 24일 화요일에 김○○ 씨를 통해 그 분을 만나 뵙기로 약속했다.</p> <p>2. 10년지기 친구 정○○ 씨가 말하는 H 씨</p> <p>H 씨와 안 지 10년이 넘었다는 정○○ 씨도 역시 H 씨를 온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함께 봉어빵 장사도 하고 같은 집에 살며 가까이 살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H 씨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 보니 거친 면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거주지가 생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바뀌었다고. 먹을 게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고 욕심 안 부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돕기도 하고, 병원도 착실히 다녔던 걸로 기억하셨다.</p> <p>H 씨에게 듣기로 고향인 인천에서 나오게 된 건 어린나이였다고 한다. 어린 나이부터 집을 나와 객지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촌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나마 자리 잡고 생활을 몇 년 하고 있다가 이번 일을 당하게 된 거라고 설명하셨다. 어떤 이유에서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 씨는 그의 가정사가 태평치 않았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p> <p>3. "가족이 버렸다"</p> <p>정○○ 씨에 의하면 H 씨의 연고자로는 아버지, 배다른 형제가 있었다고 한다. "연고자 추적해서 찾아냈지만 그 사람들이 개를 버린 거죠. 개도 어려서 집을 나왔지만</p>		

	<p>아버지도 개를 버렸고. 배다른 형제들도 애뜻한 정이 없어서. 그렇게 시신이 백병원에 두 달 있다가 나간 걸로 알아요.” 두 달간 차가운 영안실에 있었던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게 느껴졌다.</p> <p>4. 정○○ 씨가 최초 시신 발견자</p> <p>지난해 H 씨는 병원 입원으로 봉어빵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정○○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원래대로 봉어빵 장사를 했고, 그 시간에 H 씨는 술을 드셨다. 봉어빵 장사 친구들이 술을 못 먹게 말리니 다른 분들과 술을 드신 것이었다.</p> <p>돌아가시던 날도 술을 잔뜩 드셨다. 정○○ 씨는 H 씨 옆 방이었는데, 옆 방의 다른 분이 정○○ 씨에게 “야, 네 친구 이상하다.”라고 했다. 정○○ 씨가 H 씨 방에 들어가 발로 툭툭 건드려 보는데 미동도 안 했다. 처음엔 자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푸르스름하고 거무튀튀한 것이 죽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상체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렇게 돌아가신 걸 정○○ 씨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 정○○ 씨는 정말 안타깝게 얘기했다. 아직 죽은 나이도 아니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아직도 문득 생각이 난다고도 하셨다. 특히 정○○ 씨가 방에 들어가려면 정면에 H 씨의 방이 보여서 한참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p> <p>5. “자꾸 찾아와서 ○○에 대해 묻는 것 불쾌하다”</p> <p>정○○ 씨가 끝으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셨다. 지금까지 대여섯 번 정도 우리를 포함해 기자들이 찾아왔었는데, H 씨가 돌아가셔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니 왜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찾아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다.</p> <p>덧붙여 자기들은 H 씨와 각별했기 때문에 H 씨의 죽음으로 무척 슬퍼했고 이제야 잠잠해졌다며, 다시 와서 감정을 들쭉시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본인 같은 사람들은 ○○에서 할 일이 없기에 잡생각이 많아 또 다시 H 씨에 대한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면 술을 찾게 된다고 하셨다. 지난번에 인터뷰해주신 김○○ 씨 같은 경우는 H 씨 죽음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다가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셨다고 한다.</p> <p>6. 정○○ 장로님 “나중에는 교회 잘 안 나와”</p> <p>매주 2~3번 전도하러 가시는 정○○ 장로님은 H 씨를 아신 지 2~3년 정도 됐다. 장로님이 처음 H 씨를 봤을 때 그는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단다.</p> <p>처음에는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점점 안 나오셨고, 왜 안 나오냐 물었더니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고.</p> <p>장로님이 H 씨와 많은 말씀을 나눠보지 않아서 H 씨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다.</p>
5차 취재 후 느낀 점	<p>오늘 정○○ 씨의 인터뷰를 하고 나서 우리는 망치로 머리에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돌아가신 분은 어떤 분이었고,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에만 초점을 맞췄지, 그 분과 관계 맺었던 분들의 현재 감정은 어떠했을지 가늠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인터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생</p>

	<p>각보다 가깝지 않은 사이였나?”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제 다 괜찮아지셨나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 곳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한 둘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익숙해져있을 거란 착각을 했다. 혹여 익숙해져 있더라도, ‘친구’의 죽음은 당연히 다른 것이었을 텐데. 진심으로 죄송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취재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지 고민이 되고 막막하다. 우리 둘 다 H 씨 친구 분들에게 그런 폐를 끼치면서까지 취재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의 취재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p> <p>그리고 정○○ 씨가 느낀 ‘가족’에 대한 얘기도 인상 깊었다. 정○○ 씨는 ○○마을(?)에서 일을 할 동안, 그리고 이 동네에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가족이 있음에도 연고자 없이 사망 처리되는 걸 보셨다. 그걸 수없이 지켜보는 그 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쓸쓸한 죽음이죠.”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경험에서 나온 뼈 있는 말 같았다. 그래도 본인은 가족이 있는데도 외톨이가 되기 싫다며 이전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정○○ 씨 외에 가족들과 왕래를 끊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건 참 가슴 아픈 사실이다.</p>		
6차 취재일	2014년 6월 24일	6차 취재장소	중구 ○○로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임○○ 씨 윤○○ 씨</p>		
6차 취재 내용	<p>I. 임○○ 씨</p> <p>1. H 씨와 만나게 된 계기 (약 5년 전)</p> <p>임○○ 씨는 ○○동 동사무소에서 통 담당 및 운전직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 동네 친구들과 친해지셨다/ H 씨는 5-6년 전 ○○동 동사무소에서 동네 청소를 하시고 수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순찰 돌 때 이외에도 ○○로에 자주 와서 살피고, 어버이날 동사무소에서 돈 걷어 족발도 시켜 드리고, 많이 마음 쓰셨다/ H 씨와 함께 민원처리 하는 팀원들과 같이 일하다보니 각별한 사이가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청소를 솔선수범해서 하셨었다/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새벽에 치우고/ 음식물쓰레기도 직접 손으로 집어서 치울 만큼. <p>2. 붕어빵 장사</p> <p>임○○ 씨가 구청에 부탁해서 자리를 만들어줬다/ ‘특혜’라는 눈초리 때문에 눈치도 많이 봤다/ 그래도 붕어빵 장사 하실 때 사서 구청에도 갖다 주어 드셔보라고도 하고 했다/ 붕어빵 장사를 처음으로 제안/ 이 곳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년에 주방장 하셨던 분들 등 한 가닥 하셨던 분들이 많다/</p> <p>3. 가족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에 있는 형제 집에 1년에 한두 번 갔었다고 함/ 가서 눈치가 보였는지 갔다가도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오더라/ 배다른 형제들이라 그런지 함께 자랐어도 거리가 있던 것 같았다 - 인천뿐만 아니라 동두천, 심지어 미국에도 형제들이 있다더라/ 조카가 그 사이에 가고 역할을 했다 - H 씨 사망 이후 가족들에게 연락했을 때, 마치 올 것처럼 이야기했다/ H씨 통장 		

에 200만 원 가량 있었는데, 전에는 시큰둥하다가 통장 얘기를 하자 얼른 와서 통장은 가져가고 그 후 계속 연락이 없다가 기한(시신을 받아가는 두 달의 유예기간)이 달했을 때 시신 포기 각서를 보냈다.

- 떨어져서 자라다보니, 이복형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이 없었다/ 만나려고 하지 않아서 얼굴 본 적이 없다/ 만나려고 여러 번 전화했으나 실패/ 경찰서에 소집상태로 있던 H 씨의 신분증 등도 가족들이 와서 가져갔다/ 나머지는 와서 그냥 둘러보더니 없애달라고 했다

- 가족들이 H 씨를 살아생전에 찾아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시신 발견 당시 및 이후

- H 씨가 계단에서 굴렀는지, 시신 발견 당시에 머리, 이마가 까지고 부은 상태/ 너무 아프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 머리를 드밀고 있다가 죽은 것이었다/ 너무 아프니까 머리를 식힌다고 그런 거겠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어찌되었든 간에 시신을 포기하려 했으면 빨리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 정부의 의뢰를 받은 상조기관에서 와서 염을 했다/ 일반인과는 달리 옷도 꼼꼼히 안 입히고 속 입히고 한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다/ 상조기관 직원 두 분과 임○○ 씨가 벽제에 가서 화장을 했다.

- 운구도 직접 하시고 화장 후 유골을 들고 가셨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납골당은 유골함이 아니라 다른 느낌이었다/ 버려졌다는 느낌, 부속이나 제 품들을 박스에 포장해서 진열해놓은 느낌/ 예산 등 국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천대 받는구나 (인터뷰 초반 내용)

5. ○○교회 집사

- 이 동네에서도 더욱 어려운 분들을 늘 나서서 도와주었다/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살피고, 대기업에서 봉사활동을 오면 돕고, 일손을 도왔다.

6. 마지막 만남

-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봤다/ 현재 구청에 속해서 일하고 있지만 가까워서 자주 온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저 언덕에서 약속하고 장난치고 그랬었다./ H 씨는 몸이 안 좋은데, 술을 안 마실 땐 안 마시다가 한번 마시면 며칠을 마셨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술을 좀 먹었던 상태. 좀 깨고 나서 나를 보고 또 마신 것.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났다.

7.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 비참했다. 가족을 잃은 것처럼/ H 씨가 사셨던 동네 사람들은 유난히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한 식구처럼 지냈다/ H 씨, 주○○ 씨 등이 집주인 원○○ 씨를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어머니처럼 모시고. 오랫동안 살다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끼니도 챙겨주시고, 밥도 주고 쌀도 주었다.

- 김○○ 씨는 술 먹고 3일 내내 울었다. 오른팔 같던 친구가 죽었으니/ 김○○ 씨도 당이 심하게 있었으니/ 형제 같은 사람을 잃었으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원○○ 씨도 이삼일 간 식사를 못하셨다/ H 씨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다.

8. H씨의 성격

- 귀가 얇았다/ 누가 뭐하자고 하면 자기 돈을 쓰고, 잘 빌려주었다. 못 받아도 또 빌려줬다/ 심성이 착했다/ 누가 사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상대방을 더 많이 사주곤 했다/ ○○ 행동, 수녀님, 교회 등을 가서 많이 도왔다/ 인권단체 활동도 도와주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

9. 과거 이야기

- 깊은 과거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여기 분들이 친하긴 해도, 과거 얘기를 물으려면 본인 이야기도 꺼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는 이 분들에게 상처다.

10.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7~10년 전)

- ○○시장의 밀가루대리점이 만두피 공장에 납품하는데, 만두피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를 버리는 게 아까워 사장님이 그걸 푸대자루에 담아오곤 했다/ 매일 조를 짜서 만두피를 기계에 넣으면 넓고 긴 밀가루 반죽이 나오는데, 거기에 칼집을 내서 돌리면 쫄깃한 칼국수 면이 되었다/ 김○○ 씨, H 씨 등 4-5명이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계속 기계에 돌려서 면이 되면 독거노인들 잡숴 수 있게끔 박스에 넣어서 건물 마다 돌리곤 했다/ 동네 분들이랑 국수 해먹었던 기억/ 대리점 맞은편의 교회에서 국수를 해줘서 점심으로 먹었었다.

- 현재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서 봉사단체들이 와서 면을 만들어간다.

II. 윤○○ 씨

1. H 씨를 만나게 된 계기

- 2004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자활하다가 만나게 되었다/ H 씨는 좀 늦게 참여했고 3년 정도 같이 했다/ 사람 좋은 분이었지만, 담배와 술을 너무 좋아했고 병원에 자주 다녔다/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 갔다/ 일하다가 '형님' '아우'하면서 친해졌다

- 자활은 아침 9시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3시~3시 반까지/ 당시엔 주4일이었는데 자주 일정이 바뀌었다.

2. 인권단체 활동

- 밤에 같이 나가서 커피도 나눠주고, 옷이나 이불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상담도 했다/ 이○○ 감사님도 그 때부터 알게 되었다

- H 씨에게 먼저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동자동 살던 친구를 도와 벽보를 붙이다가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차츰차츰 활동하게 되었다.

3. 과거 이야기

- 노숙 많이 했던 것은 알지만 얘기는 많이 안 했다/ 술 먹고 장난치고 했을 뿐

	<p>4. 인천에 갔던 기억 (2005-2006년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일하던 2명(한분은 지방으로 갔고, 나머지 한명은 김○○이나 김○○. 같은 건물 살고 있다. 아직도 동사무소 일 다닐 것이다)을 포함해서 H 씨와 함께 인천에 놀러간 적이 있다/ H 씨 형제가 인천에서 다방을 하고 있었다./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잘해주더라/ 인천 가서 바다 구경하다가 H 씨가 형제 집에 가자고 해서, 더우니 냉커피도 마실 겸해서 갔었다/ 처음부터 형제 네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술 한잔 먹고 서울역에서 택시 타고 놀러 간 것/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놀러간 것 - 형제와 H 씨는 단둘이 얘기하고 있어서 자세히는 못 들었으나 고향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는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p>5. 2010년 교통사고 이후 동사무소 일을 그만두셨다/ 그 때 7개월 입원했고, 나와 보니 H 씨도 입원했음을 알았다/ 일을 그만 둔 이후에는 딱히 왕래가 없었다.</p> <p>6. 마지막 만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연히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H 씨를 만났었다.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나왔냐고 하니 '병원 나왔어요~'했다/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동네서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았다/ 오늘 만났는데 내일 죽었다고 하네. - 아직도 눈 감으면 영정 사진이 훤히 보인다. <p>7. 붕어빵 장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서 도와준 건 아니고, 김○○ 씨가 주인이었다./ H 씨는 담배 값이나 벌려고 가서 일했던 것/ ○○경찰서 앞에서 장사하던 것을 가서 보기도 했다/ <p>8. ○○로 살던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에 몇 개월 동안 H 씨네 앞 건물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자주 놀러왔다/ TV를 주인이 마음대로 꺼서, 갈등이 있어서 방을 빼고 이쪽으로 이사 왔다. 		
6차 취재 후 느낀 점	<p>취재를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다. ○○상담센터에서도 그랬고, 오늘 인터뷰했던 임○○ 선생님도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다. 취재에 기꺼이 응해주시던지 혹은 거절하시던지 간에, 주민 분들의 어려운 사정에 마음을 다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동정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함께 생활하신다.</p> <p>H 씨의 유가족 분들이 통장만 챙겨가고 시신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에 과연 어떤 사건들이 H 씨와 가족 분들의 사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 과연 중요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어떤 사정이든 간에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남처럼 살았던 가족보다, 창고의 박스들처럼 유골함이 쌓여있는 납골당에 H 씨의 유골을 두고 오며 누구보다 가슴아파했던 임○○ 씨가 H 씨에게는 가족보다 더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내가 감히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할 수는 없지만, 혐의의 가족만을 염두에 둔 '무연고' 사망자 분류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p>		
7차 취재일	2014년 7월 8일	7차 취재장소	중구 ○○로 , ○○교회, 중구청

<p>만남 사람 및 연락처</p>	<p>슈퍼 주인아저씨 ○○ 수녀님(50세) : ○○수도회 소속 H 씨와 같은 층 주민 동네 아주머니들 ○○교회 행정실 직원 김○○ 사회복지사 : 중구팀 ○○팀 소속 문○○ 인권단체 전 대표 이○○ 간사님 : 인권단체 소속</p>
<p>7차 취재 내용</p>	<p>1. 슈퍼 주인아저씨 동네에 이사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사람들과 접촉이 잘 없어서 모른다고 하셨다. H 씨 사진을 보여드려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하셨다. 혹시나 싶어 이 슈퍼가 들어오기 전 주인에 대해서 여쭙봤지만 모른다고 답하셨다.</p> <p>2. H 씨와 같은 층 주민 우리는 H 씨와 봉어빵 장사를 한 분들 중 성은 확실하지 않고 '○○'이란 이름을 가진 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주친 주민 한 분이 H 씨와 같은 층에 살고 계신 분이였다. 지난해 6월에 이사 와서 H 씨와 눈인사만 하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추모식을 하길래 봤더니 영정 사진에 H 씨가 있어서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다. 술을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H 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다. 주로 술은 방에서 드셨다고. 결국에는 H 씨와 친구였던 '○○'씨도 봤는데(성함이 오○○ 씨였다), 인터뷰를 원치 않으시고 바쁘다며 사라지셨다.</p> <p>3. ○○ 수녀님 인터뷰를 하던 중에 ○○ 밥차가 도착했다. ○○ 밥차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 곳에 와서 반찬을 나눠준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날 오신 분이 지난번 김○○ 씨와의 인터뷰에서 언급 됐었던 '○○ 수녀님'이었다. ○○ 수녀님은 6년 전부터 이곳에 와 반찬을 나눠주면서 H 씨 얼굴을 알게 됐다고 하셨다.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H 씨와 김○○ 씨 등이 수녀님을 도와 서울역 급식 봉사를 도왔다고 한다. 서울역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하고 나면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이걸 같이 청소했다고.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잘 도왔다고도 덧붙이셨다. 봉어빵 장사를 하는 것도 알고 계셔서 수녀님께서 유니폼을 지원해주셨다고 한다. 여기 분들이 마음 모아서 끈기 있게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H 씨는 꾸준히 했다고 말씀하셨다. 대화를 길게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착하고 인사성 밝고 미소가 예뻐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셨다. 잘 지내던 분이었는데 김○○ 씨 통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셨다.</p> <p>4. 동네 아주머니들</p>

	<p>밖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는 아주머니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H 씨가 '○○교회' 교인이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교회는 일요일마다 ○○교회 아래층(?)에서 예배를 한다고 알려주셨다.</p> <p>'○○교회'는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다. 그 때는 교회 이름을 착각하신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 말씀이 맞다면 H 씨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셨던 것 같다.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줬다면 H 씨를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후에 연락해보기로 했다.</p> <p>5. ○○교회 첫 취재 때 ○○교회 봉사자 분들이 이 곳 주민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다. 만약 매주 저 분들이 이와 같이 봉사를 한다면 사람들을 기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이에 ○○교회를 찾아가 봉사자들 연락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개인 신상 문제로 연락처를 줄 수는 없고, 그 쪽에서 허락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p> <p>6. 중구청 ○○팀 김화영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님께 총 네 분의 성함을 여쭙았는데, 그 가운데 H 씨만 유일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사회복지사님이 일 때문에 많이 가면서 얼굴을 알게 됐다고. 대화를 길게 나눠보지는 않았다고 하셨다.</p> <p>기초생활수급 상담내역에 따르면 주○○ 씨 말씀대로 미혼이셨다.</p> <p>7. 인권단체 문○○ 전 대표님 및 이○○ 간사님(전화) 지난번 H 씨 친구인 윤○○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권단체 초창기에 '문 대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이○○ 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지금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문○○ 전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다. 그러나 H 씨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셨다. 대신 H 씨가 상담활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조언해주셨다.</p> <p>문 대표님과 통화 후에 이○○ 간사님께 다시 연락드려 2008년 즈음 상담활동가 분들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냐고 부탁드렸고, 후에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p>
7차 취재 후 느낀 점	<p>오랜만에 방문하면서 약간 걱정이 됐다. 지난번 정○○ 씨 인터뷰를 통해서 H 씨의 친구 분들이 얼마나 H 씨를 아꼈고, 그래서 그 죽음에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알게 돼 계속해서 친구 분들을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남의 아픔을 자꾸 건드린다는 게 참 머리 아프다.</p> <p>비록 오늘은 H 씨 친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 수녀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수녀님이 말씀하시는 H 씨 이야기는 다른 분들과 많이 비슷하고 새로운 사실도 없지만, 그래도 H 씨를 기억하는 분을 한 명 더 만났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p> <p>물론 조금 답답하긴 하다. 7차 취재까지 왔는데, H 씨에 대한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없어서 해매는 느낌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부분 때문에 취재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이 든다.</p>

8차 취재일	2014년 7월 13일	7차 취재장소	중구 ○○로 , ○○교회
만남 사람 및 연락처	○○교회 봉사자들 동네 주민들 김○○(63세) 씨 이○○ 간사님 : 인권단체 소속 이○○ 이사장님		
8차 취재 내용	<p>1. ○○교회에서 만난 주민들, 봉사자들</p> <p>오늘 오후 5시부터 ○○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따라갔다. 주민 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식사 자리에는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약 40명 정도 모였다.</p> <p>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혹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H 씨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며 여쭙봤다. 그러나 대개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고, 일부는 이름을 기억하셨으나 추모식에서 봤다고만 알려주셨다.</p> <p>급식 봉사를 하는 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았지만, 이 곳에서 거주하시지도 않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 잘 모르시는 듯했다.</p> <p>2. H 씨와 친구 사이, 김○○ 씨</p> <p>김○○ 씨는 취재 초반에 다른 주민 분이 H 씨의 친구라고 알려주셔서 안면이 있었던 분이였다. 그 후에 제대로 뵈지 못했었는데, 오늘 마침 교회 안에서 뵈게 됐다.</p> <p>김○○ 씨는 H 씨와 같은 건물 지하에 사시고, 예전에 “H 씨 아세요?”라고 여쭙을 때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던 분이였다. 그런데 말을 더듬으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다소 어려웠다.</p> <p>“H와 안 지 꽤 오래 됐고, 친했다. 복수가 차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갔다. H가 을지로 쪽 공원(?)에서 일을 했다. 병원에서 죽었고, 죽은 지 오래 됐다.”</p> <p>H 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냐고 여쭙봤을 때는 그저 웃기만 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다.</p> <p>3. 이○○ 간사님(전화)과 이○○ 이사장님(전화)</p> <p>지난번 부탁드린 대로 H 씨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상담활동가 분들의 연락처를 여쭙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락 가능한 사람은 없고, 지금은 활동하지 않지만 인권단체 이사장이신 이○○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셨다.</p> <p>이○○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당시 H 씨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H 씨에 대해서도 아신다고 답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16일 이후에 뵈기로 했다.</p>		
8차 취재 후 느낀 점	<p>주민 분들이 한 곳에 모이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에 비해 얻은 결과가 없어 속상하다. H 씨 친구라는 김○○ 씨를 뵈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p> <p>고인이 살던 동네에 가는 게 예전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해주셨던 분들도 계속 찾아오니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일부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p>		

	<p>으름장까지 놓은 상태라 스스로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H 씨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실 분을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는 것도 무거워진 마음에 한 몫 하는 듯하다.</p>		
9차 취재일	2014년 7월 18일	9차 취재장소	중구 ○○로
만난 사람 및 연락처	주○○ 씨		
9차 취재 내용	<p>주○○ 씨를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먼저 주○○ 씨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언급한 H 씨가 가셨다던 '용산구의 단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접촉한 인권단체인지, 봉어빵 장사를 같이 하신 분들의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H 씨가 A교회뿐 아니라 B교회도 자주 가셨는지 여쭙보고 싶었다. 마침 주○○ 씨를 만날 수 있었다.</p> <p>1. "용산구 단체의 우○○ 씨를 찾아라"</p> <p>주○○ 씨가 말씀하신 용산구 단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 씨 관련 취재를 하다가 찾아간 적 있었던 '용산구 ○○상담소'였다. 그 곳에서 우○○ 이사님을 찾아가면 H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다.</p> <p>2. 봉어빵 장사를 함께한 다섯 명</p> <p>봉어빵 장사를 같이 한 분들이 5~6명 있다는 것만 알고, 성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여쭙봤다. 우리가 찾아본 적 있었던 오○○ 씨, 김○○ 씨, 주○○ 씨, 정○○ 씨 그리고 아직 찾아뵙지 못한 조○○ 씨가 같이 했었다고 한다.</p> <p>덧붙여서 봉어빵장사를 같이 한 건 아니지만 자활을 오래 같이 하신 김○○ 씨에 대해서도 여쭙봤다. 김○○ 씨는 H 씨 보다 몇 살 아래라고 한다. 이 분도 건물에 산지 오래 되셨는데, 이번에 방세 낼 때가 가까워오자 도망갔다고 한다. 통장님 말씀과 다르게 현재 ○○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영등포 어느 공원에서 노숙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원래 이 곳 사람들, 특히 뜨내기들은 여름에는 밖에서 잘 수 있으니 여름에는 나가서 생활하고, 추워지면 다시 들어온다고 덧붙이셨다. 노숙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p> <p>3. B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다</p> <p>지난번에 한 주민 분으로부터 H 씨가 B교회 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주○○ 씨에게 여쭙봤다. 주○○ 씨 말씀으로는 A교회를 주로 다녔고, B교회는 일요일마다 이곳 공원에서 예배를 올린 뒤 도시락을 나눠줘서 점심을 먹었던 것뿐이라고 설명하셨다.</p> <p>그리고 우리가 취재 첫 날 봤던 교회 봉사자 분들은 아마 A교회 분들이 아니라 B교회 분들인 듯하다. 주○○ 씨와 주민 여럿 분이 일요일에는 B교회에서 봉사를 온다고 알려주셨다.</p> <p>더 긴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바쁘신 관계로 인터뷰를 마치고 연락처를 받았다.</p>		

9차 취재 후 느낀 점	<p>주○○ 씨 덕분에 새로 찾아갈 분을 더 알게 됐다. 우○○ 이사님은 부디 H 씨의 오래 전 과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p> <p>그리고 봉어빵 장사를 같이 하신 분들 중 아직 뵙지 못한 조○○ 씨의 얘기도 들어 봐야겠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 또 어떻게 접근해서 최대한 이 분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된다.</p>		
10차 취재일	2014년 7월 22일	10차 취재장소	동자동 단체, 중구 ○○로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이○○ 이사장님 : 동자동 단체 박○○(60세) 씨 : 인권단체 소속 우○○ 씨 : 동자동 단체 김○○ 씨 ○○교회 권사님</p>		
10차 취재 내용	<p>1. 이○○ 이사장님 인권단체의 이○○ 간사님 추천으로 현재 동자동 단체에서 이사장으로 계신 이○○ 씨를 만나 뵈었다. 그런데 미리 전화했을 때 얘기와 다르게 해 줄 얘기가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듯 말씀하셨다. ○○행동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신에게 다 떠넘겼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듯했다.</p> <p>-서울역 노숙할 때부터 알았다 이○○ 이사장님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권단체 활동을 하셨고, H 씨와 같이 활동 시기가 겹친 건 6개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활동했을 당시에 알게 된 사이는 아니고, 노숙할 때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노숙할 때는 얼굴만 서로 알고 가끔 술 한 잔 했던 사이였다. 형 동생 하면서 사이가 좀 더 발전된 건 ○○생활을 시작한 이후라고.</p> <p>H 씨가 어떤 분이셨냐고 여쭙보자 그저 “술 달고 살고, 술 안 먹으면 순한 양이고 술 먹으면 괴팍한 행동도 했다.”고 답해주셨다.</p> <p>이○○ 이사장님은 우리가 전에 인터뷰 했던 윤○○ 씨와 친한 사이였고, 윤○○ 씨와 만날 때면 H 씨도 같이 껴서 만났다고 한다. 윤○○ 씨와 H 씨는 같이 어울리던 무리가 있었고 이○○ 이사장님은 따로 무리가 있었다. 셋이서 술을 먹게 되면 공원 등에서 마시기도 했다. 당시 술 먹으며 나눴던 얘기는 10년도 더 돼서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다. “야 이놈아, 술 그만 먹어라” 이런 얘기나 했을 거라고 덧붙이셨다.</p> <p>혹여 술 드시며 과거 얘기를 나눴을까 싶어 여쭙봤지만 서로 과거 얘기는 더더욱 묻지 않는다고 하셨다.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가정사를 묻는 게 가장 실례라고. 그걸로 인해 싸움도 일어난다고 한다.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묻지 않고, 남 가슴 아프게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하셨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입장에서 근황만 물어보지 과거는 묻지 않는다고 한다. H 씨도 마찬가지였다.</p> <p>노숙할 때 H 씨와 어울리던 친구 분들이 기억 나냐고 여쭙자 얼굴 보면 아는데 이름은 모른다고 하셨다. 이따금씩 거리에서 마주치기도 한다고. 그러나 긴 얘기는 하지 않고 H 씨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얘기 나누는 정도라고 하셨다.</p>		

-인권단체 활동 당시

이○○ 이사장님과 H 씨는 같이 인권운동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이○○ 이사장님의 경우 이 단체의 병원비 및 주거 지원 덕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활동을 같이 하게 됐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건네며 어떻게 지내냐고 얘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이 뭔지 묻기도 하며 활동했다고. H 씨도 같은 일을 했었다.

그러나 H 씨가 활동을 잘 나오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윤○○ 씨에게 H 씨가 왜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술 먹고 집에서 자고 있다든가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활동을 나오지 않으면 주거지원 사후관리를 하는 방문팀이 집을 방문한다고 했다. 당시 방문한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보다 H 씨에 대해 더 잘 알거라고도 얘기해주셨다.

H 씨가 이사 갔을 때는 이사 기념으로 윤○○ 씨와 이○○ 이사장님, 그 밖에 주민 친구들 등과 함께 방에 찾아가기도 했단다. 방이 좁아서 안에서 술을 먹진 못하고 밖에서 먹었다고 한다.

-노숙 이후 가끔 연락해

노숙 이후에 연락을 하는 건 2년에 한 번 정도였다고 한다. 봉어빵 장사를 하는 것도 알고 계셨다. 가끔 만날 때는 그냥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근황만 물어봤다고 한다. 그런데 10번 보면 한두 번 정도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술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술 취한 상태에서 거리에 자고 있는 걸 보기도 하셨단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야 이놈아 술 그만 먹어라. 지난번에 어디서 자고 있더라.” “형 미안해요.”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H 씨가 돌아가신 소식은 이○○ 간사님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하셨다. 이○○ 간사님의 요청으로 함께 장례를 치러줬다고 한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냐는 질문에는 “그냥 술 먹고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서 죽었다 하면 좋은 소리 할 사람 누가 있어. 술 먹고 그렇게 됐다니까.”라고 말씀하셨다.

2. 박○○(60) 씨

이○○ 이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얘기를 듣고 계시던 분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 분도 H 씨를 알던 분이였다. 현재까지도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 씨였다.

박○○ 씨는 인권 활동을 하실 때 노숙자인 H 씨를 알게 되셨다고 한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는 정도였고, 밥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안부를 묻곤 했다고 한다.

역시나 술 좋아하는 사람으로 H 씨를 기억하셨고, 술을 안 먹으면 말도 잘 안 했다고 한다. H 씨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진 않았다고 하셨다.

박○○ 씨 도움으로 지난번 주○○ 씨가 추천해주신 ‘우○○ 이사님’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주○○ 씨가 알려주신 용산구 단체는 우리가 찾아갔던 용산구○○상담소가 아닌 이 곳, 동자동 단체였다.

3. 우○○ 씨(전화)

	<p>동자동에 계시지 않아 전화로 연락을 드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다고 하셨다. 오히려 자신보다 '김○○ 씨'가 더 잘 알 거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셨다. 이 분은 현재 일을 하러 나가셔서 연락이 잘 안 될 거라고 알려주셨다.</p> <p>4. 조○○ 씨 찾지 못해 봉어빵 장사를 함께 했던 분인 조○○ 씨를 찾기 위해 고인이 살던 동네를 다시 찾았다. 그 곳에서 그동안 우리 취재를 많이 도와주셨던 김○○ 씨를 또 뵈게 됐는데, 말씀으로는 조○○ 씨가 일을 나가고 없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지겹다. 그만 찾아와라. 임 주임도 연결시켜줬지 않나. 수발해주기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다. 김○○ 씨 외에도 오○○ 씨도 뵈었는데, 같은 말씀을 하셨다.</p> <p>5. ○○교회 권사님(전화) 지난번 한○○ 씨를 통해 받은 연락처로 ○○교회 권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다. ○○교회 쪽에서 H 씨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 씨의 임종 기도를 해준 봉사자들도 있다고 들어서였다. 권사님은 H 씨의 성함은 기억하셨다. 장례를 치른 것도 맞다고 알려주셨다. 권사님을 비롯한 봉사자들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 분들과 상의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해주셨다.</p>
10차 취재 후 느낀 점	<p>점점 동네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마저도 멀어지는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계속 찾아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된다. 그냥 수첩과 카메라를 내려놓고 주위를 맴돌면 될까? 같은 공간인데, 취재 초반보다 어렵게 느껴진다.</p>

(3) 장애가 두렵지 않았던 의지의 사나이

- 시체처리구: 서울특별시 ○○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64
-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 혼인사항: 기록 상 미혼이지만 실제로는 이혼함.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병원
- 주거형태: -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
- 안치장소: ○○원

- 사망원인: 발가락 절단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기타: 당뇨가 있었으며, 당뇨 때문에 한 쪽 다리도 절단함. 이혼 후 혼자 생활함. 전부인과 자식이 OO동에 주거함. 종종 자식은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함.

1차 취재일	2014-6-24	1차 취재장소	OO동 경비실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경비아저씨 김OO님		
1차 취재 내용	<p>경비아저씨 김OO님은 故길OO님을 모르신다. 이 아파트로 오신 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셔서 고인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신다. 그럼에도 이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근무하시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느낀 점을 총체적으로 말씀해주셨다.</p> <p>우선 이곳은 입주자들도 장애나 수급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웃끼리 왕래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만큼 아파트 분위기는 삭막하다.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심지어 돌아가시고 한 달 뒤쯤 발견되는 분들도 있다(재작년)</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바로 옆 단지에 사셨던 故오OO 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단지만의 특성을 경비아저씨로부터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복지의 혜택이 부정적으로 퍼진다 해도, 그런 시각으로 고인들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p>		
2차 취재일	6-28	2차 취재장소	경비실, 아파트 앞 입구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경비아저씨 2. 김OO 님(故 L님의 선배) 3. 김OO 님, 김OO 님(아파트 친구) ... 인터뷰 해주신 세 분의 이름이 비슷해요ㅠ		
2차 취재 내용	<p>1. 다른 경비아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 : 오늘 계신 경비아저씨께 여쭙보니 L 님을 대강 알고 계셨다. 당뇨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만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셨다.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은 알지 못 한다고 하셨다. 별 다른 직업은 없어 보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트 입구 상가건물 앞에서 보내신다고 하셨다.</p> <p>-그래서 곧바로 상가건물로 갔다. 상가건물은 OO대학교에서 운영하는 OO동OO단지 사회복지관 건물. 그런데 그 곳은 65세 이상 분들만 계신 곳이고, 아까 경비아저씨가 말씀하신 'L 님의 일행'으로 보이는 분들은 건물 안에는 없었다.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전동차를 타고 계신 두 분과 그 옆에 서 계신 한 분이 얘기 중이었다. 그</p>		

쪽으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혹시 아실까?'라는 걱정보다 'L 님 아세요?'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였다. 역시나 그 분들은 바로 답을 해주셨다.

-상가건물 앞에서 만나 뵈신 분들 (김○○ 님, 김○○ 님) - 길○○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같다. 이 분들로부터 고인은 몸이 안 좋은 데도 술을 많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 김○○ 님 - "고독사. 자기가 조금만 더 신경쓰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김○○ 님은 유독 고인에 대해 박한 평을 내리시는 분이다. 고인을 술, 당뇨, 거기에 합병증, 그 셋으로 표현하셨다. 당뇨로 다리 절단도 했다고 했다. 투석 때문에 수급자 되고 여기 ○○단지에 입주 한 것도 덧붙였다.

김○○ 님은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따로 돈을 받으려고 위장이혼을 하고 홀로 들어와 산다고 하셨다(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데려가는 쪽은 한 부모자식 혜택, 홀로 남은 사람은 수급자 혜택). 그렇기 때문에 김○○ 님은 고인께서 합의이혼 외에도 위장이혼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다.

김○○ 님이 자리를 떠나기 전, 본인은 곧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난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분은 고인을 좋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으나 선약이 있으셔서 다음에 인터뷰하기로 했다.

3. 김○○ 님 -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왜 감염이 돼서 뇌까지 침투를 했냐는 거야, 그건 소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냐. 문제는 ○○병원이야!"

대체적으로 김○○ 님은 고인과 친분이 있어 보였다. "○○이는~"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인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았다. 앞에 인터뷰 한 김○○ 님과는 다르게 고인의 생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다. 김○○ 님께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고인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원인은 발가락 절단 수술 때문이었다. 발가락에 염증이 나서 절단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님은 느낌이 안 좋아 고인에게 전화해 발가락 절단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내일 수술 들어가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더 두고 보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수술 하고, 하루 있다가 혼수상태 되고 사망한 것.

L 님은 원래 무연고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혼한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있음. 그런데 무연고자 처리된 이유는 여자형제 있는데 L 님이 '허튼 짓(김○○ 님 표현)'을 했다고 한다. 여자형제가 돈을 가져가 노름했던 것. 그래서 관계도 틀어졌다.

그리고 "작년에 ○○이가 쉰 살인데, 여자생각 안 나겠어요? 여자도 알게 되면 자기 돈 대놓고 사주고 그랬잖아. 얻어먹기는 싫고, 옛날에 돈 벌던 습관 때문에 사주고 하니깐 돈이 문제가 되고 그랬었어"라고 하셨다. 전체적으로 고인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하시지만, 어조에서 느껴지는 고인에 대한 감정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 김○○ 님은 선약이 있어 떠나시고, 김○○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다. 자리를 아파트 입구로 옮겼다. 도보를 의자 삼은 채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자연스레 오

	<p>시더니 대화에 참여하셨다.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으나 지친 쪽은 우리일 뿐 나머지 두 분은 일상인 것처럼 한 곳에서 길게 대화를 이으신다.</p> <p>3. 다시 김○○ 님 - 돈이 없어 당뇨수술 즉, 신장이식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도리어 고인은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함. 당뇨로 인해 투석 중인데도 술을 마신 것. 술을 마시고 싶으면 혼자서 전동차 타고 나가서 마시고 온다고 한다.</p> <p>고인의 이전 직업은 활어차를 운반하는 운전수라는 것도 들었고, 병원에서 사망하고 난 후 여자형제에게 까지 연락이 갔었는데 “자기 동생 아니다”고 말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한다.</p> <p>4. 김○○ - 고인의 선배라고 소개하셨다. L 님의 인생사를 얘기해 주셨다. 고인은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조직 생활을 좀 했고, 그러다 조직에서 나와 OO동에 단란주점을 차렸다. 그것이 한 10년 전쯤이라고. 그 때 김○○ 님은 L 님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놀았다.</p> <p>그러다 몇 년 뒤, 즉 지금부터 6년 쯤 전에 병원에서 L 님을 다시 만났다. 그런데 다리가 없다더라. 당뇨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야만 하셨다고 한다. 김○○ 님은 당시를 떠올리면서, 본인 앞에서 담배도 태우지 못하는 후배였다고 말한다.</p> <p>고인이 OO동○○단지로 들어오게 된 때는 2010년. 여기 와서는 술과 노름을 자주 했다. 김○○ 님이 기억하기에 고인은 노름을 잘 하는 친구는 아니었다고. 자세부터 벌써 고수에게 허점을 보이고 들어가는 하수였다고 했다.</p> <p>그 외에도 이분으로부터 들은 고인의 얘기는 앞에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김○○ 님이 흥미로웠던 점은 본인의 역사를 재미지게 꺼내시면서 중간중간 고인을 떠올리셨다는 거다. 조직에 가담했던 생활과, 전국 광패 조직에 대한 간단한 요약, 그리고 뒷골목 삶에 대한 추억 등.</p> <p>그 중에서 어느 어느 점을 고인과 끼워 맞춰 묘사했는지 정확히 서술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에 김○○ 님이 살아온 삶만큼이나 고인이 살아온 삶 역시 의지 넘친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김○○ 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의 에너지는 고인의 거울 같았다. 결국, 故 L 님의 어두웠던 과거가 다이나믹하다는 게 아니다. 그만큼 생의 의지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던 것이 느껴졌다는 의미다.</p> <p>- 비록 지금은 단지 ‘김○○ 님이 자기 역사에 중간중간 꺼 넣은 고인의 모습을 통해 고인도 삶의 의지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정도지만, 다음 번에는 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 가령 술을 자주 드셨다니 술을 드신 분들을 찾아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p>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우리는 김○○님을 보면서 고인에 대한 취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재해온 고인과 김○○님의 살아온 환경과 느껴지는 에너지는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p> <p>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고인은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다고 한다. 그는 언제부터 자신의 삶의 의지를 포기했을까? 아니면 그는 자신이 가진 선택지에서 가장 의지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이상 그가 선택할 것이 없기에 모든 열정을 내</p>

러놓았을까? 우리는 앞으로의 취재를 통해 좀 더 고인에게 다가가 보고자 한다.			
3차 취재일	2014-07-01	3차 취재장소	김○○ 자택 ○○단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김○○ 님 사회적기업 ○○ 팀장.		
3차 취재 내용	<p>우리는 지난 취재에서 인터뷰를 약속한 김○○ 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우리는 그간 제대로 된 영상에 목말랐다. 취재 미숙, 장비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를 괴롭혔다. 이번에도 실패할 순 없었다. 우리가 바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실내 촬영이 필수였다. 우리는 김○○ 님께 자택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님은 다행히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했다. ○○단지 앞 슈퍼에 산 막걸리 5병, 아파트 입구 떡볶이 행상에서 산 순대와 떡볶이를 들고 김○○ 님의 집으로 향했다.</p> <p>이 글은 극이 아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의 복선을 미리 공개하려 한다. 우리에게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는 우연하게도故 L님이 생전 대모라 모시던 분이셨다. 그녀는 우리의 4차 취재 대상이다.</p> <p>1. 고독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p> <p>우리는 고인에 대한 질문 이전에 김○○ 님이 평소에 생각하는 고독사에 관해 물었다. 그는 '고독사는~' 이라는 직접적인 정의 대신 이혼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문제를 제기 하는 요점은 경제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혼이었다. 김○○ 님은 경제 문제 때문에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했다. 이는 이혼을 할 경우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자는 기초 수급자로, 자녀를 부양하는 자는 한 부모 가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종으로 받기 때문이다. 김○○ 님에 따르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서류상 이혼한 부부관계는 사실상 이혼이 된다. 김○○ 님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이혼문제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이에 대해 민원을 넣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p> <p>이렇게 시작한 이혼, 이에 대한 결과로 남게 된 고독은 외로움을 낳는다. 김○○ 님은 많은 고독사의 원인을 이혼으로 꼽고 있다. 그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상실 이 외로움을 낳고 사람들은 이를 이겨내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바꿔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 막상 외로움의 빠진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다. 결국 이는 악화되어 고독한 사람들은 집밖에 나오지도 않는다.</p> <p>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대주택이 가진 공동체의식을 여쭙었다.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말 트기도 쉽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딱 잘라 그것을 부정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김○○ 님은 현재 수급자 생활을 거의 마감하고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보장구 수리 및 골전도 이어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에 봉사하고, 자신처럼 수급자를 벗어나 비장애인과 사회 속에 어울리길 희망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적이 많았어." 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p>		

그의 대답은 시기와 질투가 그 원인이라 하였다.

그는 고독의 이유를 이혼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시작된 외로움, 그리고 '만성'을 지적했다. '만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취재하면서 수급자의 주변에서 수급자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공통으로 줄 곳 사용하던 단어였다. 김○○ 님 같은 경우 특별한 이유는 그 역시 '만성'적인 그룹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김○○ 님은 장애인들의 만성적인 행태가 그 자신들을 더욱 고립시킨다고 하였다. 수급비는 1인 가정 기준 약 55만원이 나온다. 이 돈은 절대 많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데 빠듯하게나마 쓸 수 있다. 김○○ 님은 집에 나오지 않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에 자기계발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가 정부의 취직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묻자, 양측 모두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의 만성이 있고, 정부는 해당 공무원들의 만성적인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님은 정부와 장애인의 보신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 고인에 대해 알려 달라.

김○○ 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김○○ 님과 고인은 2010년에 처음 만났다. 당시는 고인이 ○○단지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던 시기였다. 김○○ 님은 고인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 님이 바라보던 고인은 술을 마시는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항상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고인에 소개받은 것도 같이 술을 마시던 무리 중 한 명에 의해서였다. 고인은 동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고인에 대해 안 좋게 평가 하는 김○○ 님 역시 이 점에는 부인하지 않았다. 고인은 술과 도박을 좋아했다. 김○○ 님 기준에서 고인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했다. 그래서 어떠한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둘간의 사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김○○ 님은 고인의 이혼에 대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의도적인 이유라고 강하게 추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 온거라 말했다. 그에겐 한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 자식은 종종 고인을 찾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자주 보이던 고인의 여자형제가 있었다고 한다. 김○○ 님은 고인의 여자형제와도 인사를 하던 사이였다. 고인의 여자형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인과 함께 있었고, 동네 친한 무리들과 허울없이 지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겼다. 우리가 지난 번 취재에서 김○○ 님에게 알 수 있던 것은 고인의 여자형제가 고인 시신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 우리가 이에 대해 묻자 김○○ 님은 "술과 도박만 즐기는데 (죽은 뒤) 누가 찾아가겠냐."라 딱 잘라 말했다.

김○○ 님은 우리에게 고인은 절대 고독사가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고인은 언제나 주변에 술동무가 있었고, 그들과 몰려다니며 놀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고 김○○ 님은 우리에게 "L씨는 고독이 아니고 방탕이에요. 방탕." 이라는 말을 남겼다.

3. 고독사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김○○ 님은 자신이 장애인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틀렸다'고 했다. 김○○ 님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몸이 불편하

다면 최소한 낮 시간에는 술을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님에겐 그것이 진정한 삶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 만성의 문제에 대해, 가장 큰 해결 주체는 역시 정부라고 했다. 정부는 장애인, 특히 고독한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줘야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집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도전해야한다. 그들에게 사회로 나가는 시작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김○○ 님은 고독사 해결에 대해 '공론장'의 필요성을 말하셨다. 그는 장애인-공무원-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장은 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그 근거였다. 우리는 그에 대한 현재 상황을 물었다. 그는 "병신만 있어서 뭘 소용이겠어?" 라는 말과 함께, 현재의 광장은 장애인 밖에 없으며 제대로 된 상담과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님은 장애인 고독 해결방법에 대해 다른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의 사례를 말해주었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이 더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선 일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20만원이 장애인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고독한 사람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광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어떤 계기로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는 김○○ 님이 삶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어떻게 그가 삶에 대해 긍정하고 열정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지 궁금했다.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2006년이다. 그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 때문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그 역시 건강했던 시절 장애라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우울했다. 고독했다. 고립되었다. 그는 언제나 주머니에 10알의 수면제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에겐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줄 부인이나 자식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강원도 OO에서 거주하는 직업군인이었다. 친구는 김○○ 님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친구는 그의 장애 그리고 그로인한 우울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 친구는 김○○ 님에게 선언했다. "매주 금요일 서울 갈까 니까 몇시까지 나와. 만나오면 나 서울 안간다." 김○○ 님은 친구의 협박에 못이 겨 매주 금요일 외출을 했다. 김○○ 님은 사회와 단절을 하려했다. 아니 단절을 당할뻔했다. 하지만 친구는 그를 수령에서 구출했다. 계속 사회와 대화를 하라는 친구의 말로 김○○ 님은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친구는 김○○ 님의 임대아파트 서류 작성까지 도와주었다.

친구는 김○○ 님을 사회로 나가도록 수령에서 구출해주었지만, 정작 그는 친구를 대신하여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 2년동안의 보살핌 이후 친구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김○○ 님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내가 친구에게 받은 도움을 다른 어려운 이에게 나누자고. 그렇기에 김○○ 님은 자신의 자립과 함께 '만성'에 젖어있는 관계부처와 장애인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은 그 중 대표적인

	<p>하나 일 것이다.</p> <p>5. 고독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p> <p> 길었던 인터뷰의 마지막. 우리는 우연히 김○○ 님 방에 한 장의 프린트를 보았다. 프린트에는 첫줄에 '장기이식'을 시작으로 수많은 연락망이 적혀있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물었다. 김○○ 님은 "나는 죽어도 고독사로 죽기 싫어요."라고 말했다. 연락망은 곧 삶의 의지였다. 그는 다른 장애인을 집에 초대하면, 가장 먼저 이 연락망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는 "연락망이 고독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었다. 실제로 김○○ 님 주변 지인들 집에는 그의 영향을 받아 비상연락망이 붙어 있다고 한다.</p> <p> 언제나 타자를 위해 사는 김○○ 님에게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김○○ 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본인이 먼저 나서야 한다. 방콕하지 말고 현관문을 나서라! 주변사람들이 먼저 나서도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의 경계를 자신의 집으로 한정 짓지 말고 현관문을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말을 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망가진다. 그렇게 죽는다. 처음을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반긴다. 그것이 세상이다!"</p>
<p>3차 취재 후 느낀 점</p>	<p>박○○: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희망을 보았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안에서 폐쇄적으로 있는 것 보다 밖으로 나와 달라는 메시지를 들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분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겠다는 의지를 가진다.</p> <p>이○○: 인생사를 배웠다. 김○○ 님이 사회로 나오자는 말에 감명을 받았다. 속으론 계기가 궁금했었다. 몸에 이상 있을 때 친구의 존재가 그것이었다. 친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다른 장애가 있는 분에게 돕는 걸 보고 감명 받았다. 과연 나눔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p> <p>첨언: 김○○ 님의 이야기는 감동스러웠다. 자신이 겪은 장애, 친구를 통해 재기의 성공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 하지만 나는 뒷맛이 짝고려웠다. 이유는 뭘까?</p> <p> 아마 인터뷰 내내 들었던 만성과 나태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다. 김○○ 님은 장애인들의 문제 때문에 고독사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본인 혼자 노력의 노력이 아닌 장애인-비장애인-정부의 각고한 노력이 전제된 다음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장애인들은 나태한 것인지, 재활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근거에 의해 재활을 '해야만' 하는지 조차 불분명하다.</p> <p> 나는 사회학을 공부한다. 세부적으로 관심분야는 빈곤이다. 나는 지금 내가 빈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빈곤이 연민이 될 수 없</p>

	<p>다는 것, 빈곤이 누군가에게 감동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빈곤이 처절한 삶의 필연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와 만성이라는 단어에서, 나는 최근에 읽었던 '세상물정 사회학'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p> <p>"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문제 삼아 '저렇게 사니, 저 모양이지'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렇게 사는 건 가난이 제공한 결과이지, 한 개인의 가난을 만들어낸 원인이 결코 아니다."</p> <p>나는 2차 취재를 했던 김○○씨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취재가 끝난 후 내가 남긴 소감을 다시 살펴보겠다.</p> <p>"고인과 마찬가지로 김○○ 님 역시 한때 노름판에 가담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노름판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지는 않고, 노름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는 소규모 고리대금업이다. 김○○ 님은 수급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약간의 노잣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여 여비에 보탠다. 김○○ 님은 이러한 아르바이트 덕분에 자신은 넉넉한 살림을 살고 있다 하였고, 현행 수급비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힘들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김○○ 님의 의지이다. 우리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경우 내가 가진 선택지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을 의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님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의지가 없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p> <p>우리는 김○○ 님을 보면서 고인에 대한 취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재해온 고인과 김○○ 님의 살아온 환경과 느껴지는 에너지는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고인은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다고 한다. 그는 언제부터 자신의 삶의 의지를 포기했을까? 아니면 그는 자신이 가진 선택지에서 가장 의지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이상 그가 선택할 것이 없기에 모든 열정을 내려놓았을까? 우리는 앞으로의 취재를 통해 좀 더 고인에게 다가가 보고자 한다."</p> <p>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낮에 술을 먹고 있는 분들을 나태라고 부르는 것은 응당 당연한 반응이다. 만약 이러한 의견에 문제제기를 해보자. 그분들은 선택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는 비겁하게나마 양비론을 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그분들을 나태라 볼 수도 신성화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내 언어가 그들의 삶을 해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삶 앞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언어이다.</p> <p>그렇기에 나는 취재기간동안 그분들에 대한 '지향'으로서 나의 소명을 다하려 한다. 이는 관찰하다. 바라보다와 다른 개념이다. 뚜렷한 목적에 의해 바라보는 관찰과 다르고, 진실에 대한 두려움에 다가가지 못하는 바라봄과 다른 것이다. 나는 내가 겪는 속앓이와 계속 대화를 할 것이다. 이는 나와 소통하는 모든 취재자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상과의 대화이며, 나와 이질적인 어느 한 인간과의 대화이다.</p>		
4차 취재일	2014-7-2	4차 취재장소	○○단지 아파트 입구 포장마차
만난 사람 및 연락처	떡볶이 할머니. 성함은 여쭙어 보지 못함.		
4차 취재	고인은 혈액투석 하시는 분.		

내용	<p>당뇨. 혈액투석에 당뇨까지 있으니까 발가락이 썩어 들어간다. 투석 한 번 하고 갔다 오면 70리를 갔다 온 느낌이라고 해. ○○님은 이틀에 한 번씩 투석했다. 병이 생기고(투석하게 되고) 여기 임대 아파트로 오게 된 것.</p> <p>마지막 길 과거에도 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할머니는 그래서 병문안을 갔었다. 삼만원 주고 오셨다고 한다. L님은 바깥까지 나와서 인사했다. 그 후에도 L님은 할머니를 의지했다. 할머니는 L님이 혼수상태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 인사하러 갔다. 혼수상태라 얼굴은 퉁퉁 붓고 눈도 잘 못 뜬다. “○○씨 교회 나갔으니까 예수님 알지.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천국 가요. 나도 나이(75) 많으니까. 천국 곧 갈테니까 천국가서 만나!” 그러는 순간 할머니 팔을 치며 L님의 팔이 반응하더라.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p> <p>왜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겨울에는 트럭 앞에 모닥불 펴놓고 사람들 와서 이야기 나누고 그랬다. 모닥불 펴놓고 강통에 대고 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덴 걸 몰랐다고 한다. 나중에 불이 붙고 발이 탄 걸 알고났을 때는 이미 발이 불에 탄 상태. 수술을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밀봉을 해주었으나 퇴원 후 본인이 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깨끗이 씻고 약을 발라야 하는데 말이다. 거기에 당뇨가 있으니까 점점 발이 계속 썩어 들어갔다. 할머니는 본인이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병원에서 예약을 하고 절단 했는데 그 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들어가 혼수상태가 된 거다.</p> <p># 이 전에 인터뷰 했던 분들과 다른 내용) 이 부분은 다른 분(김○○님)이 말하셨던 것과 다르다. 김○○님은 마지막 수술 후 이틀 만에 죽었기 때문에 병원의 처치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원통해 했다. 병원의 과실을 고인이 떠안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면, L님은 모닥불에 발을 디였고, 그 후 처치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며, 그러는 동안 균은 틈틈이 몸 위로 확산 되었다는 얘기. 즉 고인의 죽음은 마지막 수술 때문이 아니라, 발을 치료할 틈도 제대로 없이 평소 당뇨와 맞물려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p> <p>고인의 자식 자식이 아버지를 보러 한 달에 두 번 정도 왔다. 5만원도 주고, 용돈도 주고. 자식 이번엔 돈 없으니까 오지마~ 이런 사근한 말도. 자식 성격은 기지배 같이 암전했다. “어렸을 때는 뭘 줘야 날 사랑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줘라. 형편 되는 대로 주라. 너 쓸 것만 조금 남기고...”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님에게 하셨다. 그 말을 들어서인지 몰라도 자식에게 돈을 어김없이 줬다고 한다. 그만큼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할머니는 문득 무언가 떠오르셨다. “아 그 자식이 ○○동에서 차를 타고 온다고 했</p>
----	---

어.” 자식은 택시타고 온다고. 택시비도 아버지가 주고. 할머니는 ○○님이 과하게 자식을 아끼시려는 모습을 보고 “알뜰히 생활하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으셨다 한다.

한편, 투석하는 사람들끼리 그 자식 오면 조카 같이라며 만원씩 주고 용돈 주고 그랬다고 한다. “서민들끼리는 또 통하잖아~.”

무연고 처리가 된 사연

시체는 여자형제가 안 가져갔다. 예전에 입원했을 때는 누이가 입원비를 다 냈었다고 한다. 여러 번 입원하고 그러니까, 자기보고 대라고 할까봐 병원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시체포기각서를 쓰면 다 알아서 해 줄테니까 와서 서명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여자형제도 돈이 두려워서 병원에 오지 못했던 것.

이 전에 인터뷰 했던 분들과 다른 내용) L님은 도박을 하면서 여자형제의 돈을 가져다 써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런 사연은 누이가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외면하게 만들었 다는 것.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누이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본인이 보호자로 나타날 경우 병원비를 전부 대야 할까봐 마지막 순간에도 사체를 거두어들이지 못했던 것. 돈을 내라고 할까봐 겪는 두려움... 사체를 포기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기본 법 절차조차 수용할 수 없었다고. 안타깝기만 하다.

L님 사망 후, 여자형제는 할머니에게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다고 한다. 자기 형제가 생전에 의지했던 분이어서...

모닥불 앞에서 얘기 나누던 기억. 할머니가 기억하는 고인.

내가 고인이 돌아가신 시기를 잘못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바로잡아주셨다. 할머니가 고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짐작 하는 방법은 감각적이다. “작년 겨울에는 모닥불이 없었어.”

“고구마도 구워먹고, 가래떡도 가져와 구워먹고. 술은 잘 안 마셨어. (다른 사람들이 술을 잘 마셨다고 하더라니까) 에이 그 사람들 제대로 몰라. 죽으면 무조건 술 먹어서 죽었다 생각해서 그래. 불에 디여서 죽은 건데...”

할머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고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고인의 어두운 면을 주로 얘기했지만 할머니는 고인과 모닥불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셨다. 고인은 착한 사람이라고. 술도 많이 먹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물도 잘 생겼어. 가엽잖아... 젊은 사람이 투석하고.”

아까도 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할머니 말씀을 언급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 착했어. 그리고 ○○이 여기서 사랑 많이 받고 그랬어. 투석하는 환자들도 많고 하니까 사랑 받고 그랬어.”

그 외에도 먹을 것 조심함. 과일도 반쪽만. 바나나를 먹는다 해도 반쪽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니깐. 투석하는 곳에서 점심을 드시고, 병원 안 가는 날은 도우미

	분이 차려주신다고 했다.		
4차 취재 후 느낀 점	<p>할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다. 다른 분들을 소개해주시기도 했다(고○○ 님. 반대쪽 커피 가게 아주머니 등). 이 분을 만나 뵈게 된 것은 의미가 새롭다. 일전에 인터뷰 했던 분들 역시 고인의 생활 터전 안에 왕래하던 분들이었으나, 그 분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모습은 전부 본인의 삶 속에서 어찌어찌 해석해 낸 느낌이었다. 인터뷰 시간의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과거를 말씀하시는데 할애되었으니 말이다.</p> <p>그러나 할머니는 정 반대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하던 그 시절. 그때를 떠올리시는 듯했다. 비록 잠깐 들은 얘기였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고인의 진심만을 말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L 말고, L이 생전에 녹음해두고 간 이야기들을 듣는 느낌.</p> <p>앞으로 L 님에 대해 동네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 할 거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걸러 들어야 할 필요도 생길 거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께 여쭙어 보면 고인의 진심어린 모습이 정리될 거 같다. 일단은 여기서 즐인다.</p>		
5차 취재일	2014-7-3	5차 취재장소	○○단지 아파트 공원, L 님 살던 곳 옆 집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님 ○○ 님의 선배. 전동차 타심 2. 정○○ 님 L 님의 3. 심○○ 님 L 님의 		
5차 취재 내용	<p>○○단지 입구에서 전동차 타신 분 혹은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L 님을 아시냐고 여쭙어 보았다. 아시는 분도 계셨으나 사적인 생활을 시시콜콜 알지는 못 했을 뿐더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친했던 분을 찾고자 했다. 때마침 한 분이 전동차를 타고 가셨고, “저 분이 L의 선배다”라고 하신 이웃의 말 덕에 전○○ 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공원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쭙었다.</p> <p>1. L 님과 친하셨는지? 어쩌다 만나서. 개도 좀 외로우니까. 옛날에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먹으니까 만나서 조금씩 했지. 그리고 같은 ○○단지니까 “아 형님 소주 한잔 하세요~” “야 너 임마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조금은”. 한 달에 한두 번. 많이는 먹지도 못해요 개는. 서너잔. 많이 먹어야 다섯 잔. 당뇨도 있으니까 또 금방 취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외로우니까 한두 잔씩 하지.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p> <p>나도 자식을 본 적은 없어요. 자식이 강건너 쪽에 산다는데... <u>그 쪽까지 전동차 타고 (○○대교 건너서)같이 간 적은 있어요.</u> 근데 자식은 만나지 못했지. 첨엔 바람피러 갔어요 여기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p> <p><u>개는 유별나게 다른 사람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탔어요. 잘 나갔던 과거가 있고 하나</u> <u>까 그리고 자식도 있으니까...</u> 생각나는지... “자기 자식 결혼 할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p>		

자리 옮겨

2. 성격

성격이 되게 화끈하다. 술 좋아하는. 술도 사주고.

자기가 병나고 여자형제에게 가게(분식집)를 넘겼었다. 투석받고 그러니까.

남자들 자존심이랄까. 술 먹고 싸운 적은 있었는데... 누가 먼저 화해할 것도 없이 다음 술자리에서 풀 게 되었다.

길 아저씨는 빼갈을 좋아함.

노래방도 가서 놀고 그럼. 노는 것도 리드하는 호탕한 성격. 본인이 삶의 재미도 찾으려한 성격. 외로우니깐.

자식과 만날 목적으로 ○○대교 직접 건너 강북까지 간다. 그러나 전화기를 들고 가만 바라볼 뿐 연락을 하지 못한다. 왜 안 하나 보채기도 해보지만. 그냥 막걸리 몇 잔만 마시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자식에게 용돈도 자주 준다. 십만원 넘게 올 때마다 챙겨준다고 한다.

가족 얘기. 자기 예전에 살던 곳. 다친 거. 놀았던 거. 개도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자꾸 죽고 싶다.. 자기 자식 장가가는 것만 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장기이식 받는 거 신청이나 해보라고 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안타깝지... 자식 장가가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 되게 좋았어요 화끈하고. 정도 많고. 뭐 말만 하면 지가 말하고 지가 울어.

3.

한강으로 자주 산책 나가곤 했다고 한다.

식당을 물려 준건지. 그래서 당당하게 여자형제에게 돈을 빌려 쓴다고 하더라고요. 몸 아프고 나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식당을 줬다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한테 그렇게 들었다.

새벽에 잠도 안 오면 혼자 바깥에 돌아다니고 하셨다.

L이가 고독사인가? 가족도 있었는데... 생전에 외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두루두루 친했던 사람. 외로우면 지가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식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외롭게 혼자 살다 죽는 게 고독사인데..

생각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애착까지는 아니에요. 만나면 밥먹고 전화해서 만나자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나가다 만나면 소주하자라고 얘기나와 만나는 정도. 그러니까 말고도 다른 사람 만났을 거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는 없다는 것...)

- 뉘우치는 쪽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 자식이 결혼하는 걸 못보고 죽을까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다.

- 말벗이라도 할 여자가 하나 있었으면...
- 과거에 놀았던 거 얘기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해주신다.

직업 : 단란주점 운영, 활어회 운반차도 몰았고.

과거 : 아내 돈 떼어먹고, 섬으로 들어가 노름도 하고.

- 의욕은 많은데 할 수 없으니까... 그 절망감이 컸을 것. 그래서 집에 들어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 항시 바깥에서 돌아다녔다고.

- 이 아파트 자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루는 전동차타고 집으로 올라가던 중 사체를 봤음.

- 중도 장애인들은 과거를 잊지 못하더라고.

전○○ 님과 대화를 마친 후 L 님이 사셨던 곳을 찾아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문을 열어 놓은 한 집에서 할머니(정○○ 님)가 대뜸 뭘 찍는 거냐며 물으셨다. 그러더니 옆 집(심○○ 님)에서는 다른 할머니가 나오셨다.

정○○ 할머니

- 불만 가득하신 목소리를 거세게

이웃에게 인사가 없다. 예의가 없다. 소리도 뽁뽁 지르는 사람이었다.

문 열어놓고 있으면 전동차가 와서 걸리니까 장애가 된다. 그러면 좋게 부탁해도 될 것을 큰 소리로 막 뭐라뭐라한다고 했다. 예의 없는 사람.

심지어 잘 죽었다고 하신다.

- 누이 숙 많이 썩이다가 죽은 거라고 말하심.

사방에 돈을 꺾다 쓰셨다고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렸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녁 되면 장애인 아줌마들을 불러서 집에 들어갔다고 함. 행동도 나쁨.

- 세상을 뜨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안다.

- 100만원 빌려준 사람도 있다. 계약서는 썼다고 함.

- 어릴 적부터 불량하게 자랐다. (들은 적은 없고) 얼굴 보면 안다.

아파트 전체에 쌓인 불만이 L 님에 쏟아 붓는 듯.

- (#)좋은 말로 해도 되는 걸 왜 시끄럽게 그러냐니까 “아, 다음부터 그러면 되겠네요~”라고 말했다더라. 버르장머리 없다고 판단.

- 6층에 사는 아주머니(L 님과 잦은 왕래가 있던 분)가 자기에게 말하길, L 님이 같이 자자고 했다고 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이어 말씀하시길,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

- 자식이 자주 온다. 용돈도 준다. “자식 때문에 돈을 꾸는지...”. 자식이 교육비나 뭘

	<p>내야할 때 돈을 대주려고 빌린다... L님은 돈을 왜 꾸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형제 괜찮다고 평하심. 여자형제가 세간 살이 정리하면서 몇몇 물건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 L님이 죽기 몇 달 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당시 어머니 영정사진 들고 돌아다니던 걸 봤다. <p>심○○ 할머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에서 술 먹는 모습을 자주 봤다. '많이 먹는다'고 한다. - (#) 원래 그런 게 사람 사는 모습임.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그런데 이 할머니 자체가 너무 간간해서 그런 거 봐주지 못한다.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다. - 시도 때도 없이 바깥에 나간다. 새벽 두시에도 나간다. <p>- (개인 인터뷰) 나쁜 사람 아니야~.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렇지. 문 열어봤다고 소리한 번 지르고 만 거지. 우리도 미안하다고 어쩌다 문 열어졌다고 미안하다고 서로서로 좋게 넘어가지.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이르면 자기도 미안하다고 한다.</p>		
6차 취재일	7.22	6차 취재장소	○○단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커피집 아주머니들 2. 고○○ 아저씨 3. 정○○ 할머니(L 아저씨 이웃) 		
6차 취재 내용	<p>11:30 - 13:30 커피포장마차</p> <p>L님이 자주 들리시던 커피포장마차 인터뷰. 이 곳은 ○○단지 주민의 광장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해 현재 멤버는 7명 정도다. 일 년 전만 해도 ○○아저씨가 계셨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이 ○○이~” 해가며 본인이 더 하나라도 말씀하시려 앞에 나선다. 벌써 이 광장에도 열 번 가까이 들렀다. 오늘은 ○○아저씨에 관한 정보보다는 처음 ○○아저씨를 본 느낌, 돌아가신지 1년이나 되었는데 어떤 심정인지, 홀로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두렵지 않은지... 에 관해 여쭙었다.</p> <p>특히 그동안 한 말씀도 없으셨던 당뇨동기, 투석동기, 상처동기, 아픔의 동지... 고○○아저씨의 이야기를 그 분의 욕성으로 길~게 들을 수 있었다. (모닥불 피우다 ○○아저씨는 발가락을, ○○아저씨는 손가락을 데이셨다. 그 때 발가락을 데인 ○○아저씨는 치료가 소홀히 되어 여름에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p> <p>인터뷰를 직접 한 ○○의 글)</p> <p>고○○아저씨는 말이 없었다. 우리의 취재는 15회 가깝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고○○아저씨는 드디어 말을 꺼냈다. “두렵다.” 그가 처음 꺼낸 말이다. L아저씨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나는 뭐가 두렵냐고 했다.</p> <p>그는 L아저씨와 같은 병을 가졌다. 그렇게 의지해온 L아저씨가 돌아가셨다. 그래</p>		

서 그는 내적으로 자신도 곧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비교가 담긴 시선**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L 아저씨가 죽은 후 말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한탄했다. 그는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조차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는 자력으로 용변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부축해야 용변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함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특별한 점은 박○○ 아저씨가 주로 고○○ 아저씨를 돕는데, 고○○ 아저씨는 그 명목으로 박○○ 아저씨에게 가끔 용돈을 준다고 한다. 고○○ 아저씨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선의의 도움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자신이 지불하는 용돈이 부담된다고 고백했다.

그 외에도 커피아주머니 1,2와 대화를 나누었다.

(성함은 아직... 나중에 여쭙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1아주머니가 커피집 주인으로 영상에서 고○○님 바로 옆에 붙어 앉아계시는 분. 고○○님과 관계는 강 친구. L님과 고○○님과 1아주머니는 같이 투석받으러 다니셨음.

2는 영상에서 콩을 까는 아주머니 그리고 개인 인터뷰 하실 때마다 자꾸 답변이 다른 곳으로 새시는 분. 막내자식이 교통사고 당하고 9개월 뒤에 깨어남).

1아주머니에게는 투석 받은 뒤의 느낌을 여쭙었고, 2아주머니에게는 ○○아저씨와 ○○아저씨를 보며 무엇을 느끼는지를 여쭙었던 “불쌍하다... 가엾다... 내게도 장애인인 막내자식이 있는데 내 성격상 같은 처지 사람을 안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14:30 - 15:30 호랑이 할머니 댁.

원래는 김○○ 님을 취재하기로 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저씨 사정상 약속이 취소되어 급 변경해 호랑이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찾아뵙기 전 우리는 이 할머니를 주시했었다. 왜냐면 할머니 본인은 사람을 대화가 통하는 사람 아니면 사귀기도 싫고, 동네 노인정도 격 떨어져서 안 나가신다고 하고, 특정지역사람은 절대 사귀지 않으시려 하기 때문이었다. 관계를 맺는 주관이 너무너무 뚜렷하셔서 동○○단지에서 할머니의 친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번 취재에서 “할머니 외로우세요?”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하시면서도 기다렸다는 듯 맞받아치시며 “네 외로워요”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곳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진심을 끌어내기 위해.

그러나... 할머니는 결코 빈틈을 보이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외롭다는 답변을 연달아 하시면서 진심을 꺼내줬구나 싶다가도 바로 “서울사람은 원래 혼자도 잘 살아요”라며 그 터져 나오는 뚜껑을 단호히 닫아버리셨다. 중간 중간 할머니와 정말 맘이 통했던 이웃이 일산으로 이사 가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롭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역시나. 그런 이야기만 반복되다보니 결코 진심을 털어놓으시려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생각도 들어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외롭다-그래도 혼자 살 수 있다’의 아슬한 줄타기만 계속 하시고 우리 눈에는 할머니의 외로움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게

	<p>보이지 않으려 하는 모습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p> <p>물론 우리가 손주 같아 보여 할머니는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셨다. 그렇다면... 오늘은 남자 셋이 찾아가니 사람이 많아 꺼내놓지 못한 말씀들, 다음에는 밤에라도 혼자 찾아가서 대화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p> <p>그리고 참고로 할머니는 O남O녀의 자녀를 두셨고, 자식은 다 결혼 했으며 손주들마저 우리와 나이또래가 비슷한 20대 후반이었다. 가족은 다 연락은 취하시지만 “할머니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것보다 아드님 며느님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여쭙었을 때는 “애들한테 피해주고 번거로운 거 싫어”라고 답하시는데 뒷맛은 씁쓸한...</p>		
7차 취재일	7.23	7차 취재장소	○○단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1. 고○○ 아저씨</p> <p>2. 김○○ 아저씨</p>		
7차 취재 내용	<p>오늘은 계획과 현실이 많이 어긋났습니다. 우선 L 아저씨의 도우미 분을 뵈러 <○○센터>에 취재요청을 드렸으나 거절당했고, 김○○ 님 관련하여 신부님을 뵈려했지만 내일(7월 24일) 뵈기로 약속만 잡았습니다. 오늘은 투석을 받던 병원에서 인터뷰 한 고○○ 아저씨와 일하시는 직장, 퇴근 후 술자리에서 인터뷰를 한 김○○ 아저씨에 대해 적겠습니다.</p> <p>고○○:</p> <p>우리의 목표는 단순했다. 고○○ 아저씨의 병원 가는 모습과 투석장면을 담은 것이다. 사실 인터뷰는 기대를 안했다. 어제의 고○○ 아저씨의 ‘많은 대화’는 정말 우연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어쩌면 고○○ 아저씨의 대화를 듣기 위해선 우리가 ○○단지에 보낸 40일을 다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p> <p>시작부터 실수연발이었다. 커피집을 찾아갔다. 고○○ 아저씨와 커피집 아주머니에게 투석시간을 물었다. 3시 30분에 출발한다 하였다. 하늘엔 비가 내렸다. 2시 40분. 우리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취재하면서 처음으로 아메리카노집으로 갔다. 매일 먹던 얼음 동동 띄운 800원 짜리 믹스 커피가 아닌... ○○단지에선 볼 수 없는 외계의 커피. 3시. 계획과 어긋난 취재를 조정했다. 3시 10분. 현금 1000원에 아메리카노를 리필했다. 아. 이때 왜 리필 했을까. 3시 20분. 걸어서 3분 거리 ○○단지 입구 커피집으로 향했다. 3시 23분. 우리는 뛰었다. 폭우의 조짐이 보이자, 고○○ 아저씨와 커피아주머니는 먼저 투석 병원에 간 것이다. 그분들이 투석병원을 가는 장면을 처음 본 것은 7월 15일 촬영 때였다. 박○○군은 이 장면이 가장 눈시울이 젖는 장면이라고 했다. 나도 동의한다. 전동차 한 대, 그 좁은 의자에 고○○ 아저씨와 커피아주머니가 몸을 구긴다. 아메리카노가게보다 가까운 병원을 가는데도 너무나 위험했다. 그런데 병원은 더욱 심하다. 간호사 3명이 달려붙어 고○○ 아저씨를 체중계로 옮긴다. 그리고 베드로 간다. 고○○ 아저씨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다. 이 모습은</p>		

다음에 기약해야겠다.

고○○ 아저씨에게 말을 붙였다. 나는 아저씨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앞서 우려와 달리, 고○○ 아저씨는 많은 말씀을 하셨다. 우선,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4시간이나 되는 투석 시간동안 무엇을 하냐고 물었다. 고○○ 아저씨는 주무신다고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가족을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는 고○○ 아저씨가 가족이 있는지 물었다. 고○○ 아저씨는 일찍 이혼하고 있다고 했고 자식은 둘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끔이나마 만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돈과 관련된 문제로 자식들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자, 고○○ 아저씨는 역정을 냈다. “우리는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 만나지 않더라도 금전관계 이렇게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방송내보내서 나 수급자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저씨는 수급자의 지위 때문에 가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셨다. 그럼에도 아저씨는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끝을 흐리셨다.

아저씨는 매일 수면제를 드신다고 한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수면제의 양을 혹여나 조금이라도 늘리면 하루 종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아저씨는 매일매일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한다. 우리는 아저씨에게 “그래도 커피 집에서 다른 분들이랑 만나는 게 가장 즐겁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저 시간이 가는 것.” 이라 말했다. 아저씨는 현재 박○○ 아저씨에게 신세를 지며 용변이나 이동에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저녁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고○○ 아저씨는 아침과 새벽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다. 우리는 아저씨에게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었고 아저씨는 허락하셨다.

김○○:

김○○ 아저씨는 인터뷰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분이다. 우선, 그는 우리의 인터뷰에 매우 호의적이다. 이런 점에선 인터뷰 요청이 용이하다. 그러나 막상 인터뷰에 들어서면 우리가 묻는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김○○ 아저씨에 대한 인터뷰는 오늘 포함 3회였다. 가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인터뷰가 가장 솔직하지 않았나 싶다.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도 나쁘진 않았다. 첫 번째 인터뷰가 인상이 깊을 뿐)

아저씨는 바쁘시다. 오늘 외근이 있다고 하셨다. 오늘은 그의 직장을 찾아뵙기로 했다. 5시. 00동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을 찾아갔다. 아저씨가 우리를 반긴다. 아저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말했다. 아저씨는 보장구(장애인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수리를 하신다. 그리고 아저씨는 지하철이 오가는 모든 곳에 출장 수리를 가신다. 나는 왜 강서구에서 수리를 안 하시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아직 구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셨고, 기존에 구의 지원을 받는 보장구 수리업체가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장애인 파벌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리가 본 아저씨는 장애인 사회에서 좋은 인식을 받지 못한다. 어제 보였던 이○○ 아저씨도 “사기꾼”이라 말했고, 김○○ 아저씨가 거주하는 ○○단지 에서도 반응은 이와 비슷하다. 물론 김○○ 아저씨 역시 이러한 평가를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 묻자, 자세히는 말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간 인터뷰의 정황상 김○○ 아저씨가 가진 태도-장애인에

	<p>대해 ‘갱생’이 필요하다는 생각-가 기존 장애인 분들과 불화의 씨앗인 것 같다.</p> <p>아저씨는 다시 한 번 기초수급자들이 사회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자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노동이 너무나 의미 있다고 했다. 인터뷰 배경은 달랐지만, 아저씨의 말씀은 대체로 일관적이다. 친구의 도움이 자신을 사회로 나가게끔 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이제 남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겠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들은 직업을 구하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점.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지난 2차 인터뷰 때 우리는 아저씨의 여자친구를 보았다. 우리는 둘의 연애이야기를 물었다. 그리고 그 연애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아저씨는 “서로 의지 한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한 이유는 매일같이 볼 수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는 아저씨의 여자친구분에게 인터뷰요청을 의뢰했는데, 아저씨는 그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아저씨의 여자친구는 장애인이다. 아저씨는 장애인들은 그동안의 아픔 때문에 갑자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저씨는 심리치료 상담사, 도로교통 사고감정사 공부를 했다고 한다. 실제 집에서도 수많은 관련 책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장애와 관련되어있다. 아저씨는 산재로 인해 장애를 얻었다. 그래서 아저씨는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저씨의 직장동료들이 모두 회사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저씨는 남들도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를 받게 할 수 없다 생각하여 관련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아저씨는 시험에 떨어졌다. 왜냐하면 당시 시험은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형평성 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동안 몇 명을 법적으로 도와줬다. 장애인의 보장구는 비장애인의 다리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점을 장애인조차 모른다는 게 아저씨의 설명이다.</p> <p>아저씨는 우리와 함께 퇴근하셨다. 아저씨는 전화를 받으신다. 술 약속이다. 동네 포장마차로 간다. 우리도 합석했다. 한쪽 팔이 불편한 우○○ 아저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 두 분은 장애인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친해졌다. 적당히 비 오는 야외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콜뱅이와 돈가스 그리고 소주 한잔을 했다. 그런데 이 포장마차를 선택한 이유가 특이하다. 동네에서 보장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포장마차라고 한다. 그리고 보니 주변에 보장구를 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았다. 우○○ 아저씨는 과거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이 분은 자식과 같이 산다. 17살이고, 부인은 2006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도란도란. 소주 4병. 술자리가 무르익었다. “만약 자식이 없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물었다. “내 자식은 삶의 이유야.” 우○○ 아저씨의 대답이다. “자식이 아저씨의 존재 이유겠네요?” 나는 다시 물었다. “아니, 나도 내 삶이 있다고. 어이, ‘그렇다’고 하는 게 원하는 답인가?” 나는 놀랐다. 가족의 의미를 묻는 내의도가 너무 유치한 것 아닌가 싶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우○○ 아저씨를 자식이 없다면 개인 삶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가족의 의미는 중요하다. 그러나 전부라 말할 수도 없다. 누구에게나 ‘나’가 있기 마련이다.</p>		
7차 취재 후 느낀 점			
8차 취재일	7.30	8차 취재장소	○○단지
만난 사람 및	1. 김○○ 선생님		

연락처	<p>2. 정○○ 할머니, 심○○ 할머니</p> <p>3. 고○○ 아저씨, 박○○ 아저씨</p>
8차 취재 내용	<p>2014년 7월 30일 보고서 (성당과 관련된 김○○ 할아버지의 지인인 ○○ 아저씨에 대한 보고서는 ○○이가 올립니다.)</p> <p>1. ○○단지 복지사 김○○ 선생님</p> <p>○○단지 입구에는 ○○ 사회복지관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취재를 ○○단지에서 했지만, 복지관의 관계자와는 만난 적이 없었다. 아마 다른 팀이라면 처음 했을 법할 복지관 취재를 이제야 한다. 예정된 복지사 김○○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김○○ 선생님은 얼굴을 나오기 꺼려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복지관을 대표할 수 없다 말했다. 우리가 접한 조직의 공통점은 언제나 보고가 선행되어야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팀원들은 둘 다 이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관공서나 복지관 인터뷰에 소홀하지 않았나싶다.</p> <p><u>○○단지의 특수성은 무엇인가?</u> 동네 주민 80%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장애인이다.</p> <p><u>일하면서 힘든 점은?</u> 가끔 할아버지들이 술주정을 부리고 의자를 집어던진다고 한다. 그러나 복지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별다른 애로 사항이 없다고 한다.</p> <p><u>○○단지의 가족사항은?</u> 어르신과 자녀 한명의 2인가구나 1인 가구가 거의 다수이다. 허나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간 유대감은 적은 편이다. 오히려 가족 간의 믿음보다 복지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하다.</p> <p><u>그러한 이유는?</u> 되려 복지사가 (물질적)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의적이다.</p> <p><u>수급자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u> 얼마 전 ○○단지 내 어느 분이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에게 “의자에 올라서서 떨어지면 어떨까” 라는 말을 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자연스럽게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에 복지사들은 자살예방을 위해 힘썼다. 결국 그 분은 자연사를 했다. 그 분이 “복지사님 결혼하면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 라고 말하던 게 기억에 남는다.</p> <p><u>그럼 그렇게 친분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충격적이지 않나?</u>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좋은 세상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죽음</p>

자체를 충격이라 보지 않는다.

외로움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건강이 중요하다. 나의 아버지는 건강으로 오랜 기간 고생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 것 같다.”라 말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점점 밖에 나가기 꺼려하고 사회적 관계는 악화된다.

그리고 날 이해해주는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좋다. 사람은 관계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면 더욱 더 외로워진다.

○○단지 외로운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책임감을 느낀다. 단지 내 누군가의 죽음을 들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자책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한계 역시 느낀다. 이번 우리 복지관 하반기 사업의 이슈는 고독사이다. 우리는 실천적 대안으로 모든 생활공간의 네트워크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복지공간끼리의 관계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병원, 마트, 복지관 이 모든 것들의 네트워크가 선행되어야 그에 맞는 복지가 실천할 수 있다.

복지사님은 가족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

나 역시 1인가구이다.(웃음) 가족의 여부가 외로움의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가족은 별거 없다.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제일 큰 힘이 가족이다.

세간 사람들은 수급자분들에게 ‘복지병’이라는 단어를 쓴다. 복지사로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은 사실이다. 처음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생각한다. 고마움이 잊혀가는 게 아쉽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신체적 정신적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 자신의 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복지병이라 부르며 비판하는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수급비로 술을 먹는 사람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일부의 안 좋은 사례 말고 적절하게 복지혜택이 적용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의 문제로 전체를 부정할 순 없다. 나는 복지사로서 술을 먹고 수급비를 탕진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갑자기 복지사님은 우리에게 이분들의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하셨다. 우리 역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2. 호랑이 할머니 옆집 할머니

2-1. 호랑이 할머니

이제 호랑이 할머니와 우리의 관계는 취재대상과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목표와는 멀어진다. 할머니는 말이 많으시다. 요새 20대 초반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촌촌하다(통명스러우나 속으로는 좋아한다.). 언제나 우리가 오면 가시오가피 액을 꺼내주신다. 아마 우리 팀원들 가운데 나만 맛있게 먹는 것 같다. 할머니는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의 취재의도를 아셨는지 “서울사람은 외로움을 타지 않아.”라 하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늘 취재를 하면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다. 할머니는 잔병이 많으신 분이다. 남편은 이복사람인데 조금 무뚝뚝하셨나 보다. 할머니는 잔병치레를 겪으면서도 혼자 병을 이겨내셨다. 남편이 사별한지는 14년, 우리는 “그래도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죠?” 라 물었다. 할머니는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다. 14년 동안 수많은 잔병치레를 이 전과 같이 혼자서 이겨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한다. 오히려 자식들 생각 보다 많이 난다고 한다.

우리는 할머니의 잔병이 걱정되었다. 이제는 잔병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할아버지가 없는 최근에 몸져누운 적이 있냐고 물었다. 있다고 하셨다. 그때는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었다. 근처 아줌마를 불러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우리는 “그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할머니는 “친하지 않고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 내가 그동안 도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그 정도는 도와주는 거지”라 잘라 말했다. 할머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 동네의 서로간의 호혜관계는 그것의 친분여부를 떠나 다른 동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람들은 외롭지 않아. 나는 이 동네사람들보다 교양 수준이 높아. 나는 가족들과 화목한 사람이야. 나는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라 외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아직도 정립된 어떠한 생각도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만약 할머니에 대해 ‘저분은 외로운 분이야. 할머니의 행동은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려 하는 행동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할머니를 바라본다면, 할머니의 진심을 바라보는데 점점 멀어질 것만 같다.

2-2. 옆집 할머니

호랑이 할머니는 옆집할머니를 싫어한다. 전라도이며 교양이 없어서 싫다고 한다.(보면 알겠지만 호랑이 할머니는 극우성향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 또 만났단다. 왜 만났냐고 하니, 파스 붙일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업무를 핑계로 호랑이 할머니의 말을 끊고 옆집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호랑이 할머니는 아파트 근처 정자를 가리키며 그곳에 옆집 할머니가 있을 거라 말한다.

옆집 할머니는 호탕하신 분이다. 연신 땀을 닦으면서 어찌나 말을 재밌게 하던지. 우선 故L 아저씨에 대해 물었다. 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사람들과 자주 싸웠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다. 호랑이 할머니는 故L 아저씨에게 온갖 욕을 했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는 그러한 다툼에 대해 가볍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문 열고 사는데, 전동차가 복도를 지나가려면 문을 닫아야해. 개(故L 아저씨)는 그게 싫어서 우리한테 티격 댄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문을 닫으면 해결될 문제야.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하고.” 할머니 역시 故L 아저씨를 좋아하지 않는다. 짜증을

많이 낸다고 했다. 근데 할머니는 “다리 하나 잘렸는데, 올바른 생각 가질 수 있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육해도 사람 아니겠어”라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정자에서 계신다. 정자에는 할머니의 또래 친구 분들이 많으시다. 할머니는 정자에 나오면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호랑이 할머니)도 데리고 나오시지요?” 라고 묻자, 옆집 할머니는 “그 사람을 외로울 틈도 없어. 돈 많지. 가족들 잘나가지. 뭐 외롭겠어? 그리고 그 할매는 외로움 안타.”라 말했다. 할머니는 손자랑 같이 산다. 우리에게 손자 자랑을 많이 했는데, 가족 사랑이 많으신 것 같다. 그래서 손자가 없는 동안 심심하여 정자에 나온다고 한다.

3. 고○○ 아저씨 집 방문

아저씨의 집에 가는데 정말 어려웠다. 아저씨는 왜 집에 가냐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는 아저씨의 거절에도 몇 번의 부탁을 했다. 아저씨는 아저씨의 거동을 돕는 박○○ 아저씨의 허락이 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다행히 박○○ 아저씨는 취재에 동의했고, 밤 8시 투석을 마치고 나오는 고○○ 아저씨와 함께 우리는 아저씨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대한 경계를 많이 내려놓으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셨다. 우선, 우리가 먼저 본 것은 많은 량의 약들이다. 우리가 투석 받는 분들의 집을 찾아갈 때, 언제나 많은 약이 침대 곁에 있었다. 특히 모든 분들이 간지러움에 관한 약을 드셨는데, 고○○ 아저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다른 분들보다 약의 양이 많았다. 아저씨는 감기약, 심근경색약 그리고 수면제까지 드셨다. 아저씨는 침대에 앉자마자 약을 드셨다. 그런데 아저씨는 제때 먹어야 할 약을 잘 찾지 못했다. 그때마다 박○○ 아저씨는 옆에서 약 먹는 모습도 챙겨주셨다. 세삼 박○○ 아저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아저씨 집에는 10개의 모자가 가지런히 정리되어있었다. “아저씨 모자 좋아하시나봐요.”라 묻자 아저씨는 웃으신다. 정말 어렵게 봤던 아저씨 웃음을 이제는 가끔이라도 볼 수 있다. 한편, 아저씨 집 벽면에는 아저씨의 과거 결혼사진과 아이들 사진, ○○대학교 앨범 그리고 수많은 화장품들. 그것에 대해 물었다. 우선 아이들은 동생의 아이들이라고 하셨다. 아이들 모습이 예뻐 사진으로 간직하신다고 했다. ○○대학교 앨범 역시 동생의 졸업앨범이다. 화장품 역시 동생이 화장품 영업을 하기에 많이 가져다준다 하였다. 아저씨는 동생과 사이가 각별해 보인다.

우리는 먼저 고○○ 아저씨의 과거를 물었다. “아저씨는 어떻게 다치게 되셨나요?” 아저씨가 우물쭈물하자, 박○○ 아저씨가 먼저 말씀하신다. “의료사고였어.” 고○○ 아저씨는 투석을 15년이나 하신 분이다. 9년 전, 고○○ 아저씨는 사고를 당했다. 이는 간단한 사고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절단 수술을 감행했다. 결국 (법적인지 불분명) 의료사고인 것은 확정되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내가 그 뒤로 몸이 너무 불편해.” 고○○ 아저씨는 다리를 절단 한 후, 몸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가 투석의 어려움을 묻자, 투석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고○○ 아저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저씨

는 혼자 걸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보기에 정말 위태위태하다. 그렇기에 박○○ 아저씨가 고○○ 아저씨 곁에 있는 것이고, 고○○ 아저씨 자신도 박○○ 아저씨 없이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가 아니다. 혹여나 혼자 걷다가 넘어질 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다.

우리는 고○○ 아저씨의 故L 아저씨에 대한 기억을 물었다. 아저씨는 “○○이는 나만 보면 ‘형, 돈 좀 주쇼.’라고 말했었어.” 라 말하며 웃으셨다. 故L 아저씨와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가족까지. 특히 L 아저씨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우리가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던가요?”라 묻자, 전 부인은 통화를 가끔 했는데 통화만 하면 싸움만 하셨다고 한다. 이유는 금전 문제였다. 그런데 이는 故L 아저씨가 아파트에 와서 생긴 금전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이혼 전후로 생긴 대과거에 있었던 금전 문제라고 한다.

특히 고○○ 아저씨는 L 아저씨의 자식에게 각별한 정을 갖고 있었다. 우선 故L 아저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다. 그래서 자식이 오면 용돈과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집에 보냈다. 고○○ 아저씨 역시 故L 아저씨의 자식이 아버지를 보러 올 때마다 5만원씩 쥐여주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자, 본인도 자식이 있고 자주 놀러오니 귀여워서 챙겨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고○○ 아저씨의 자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올해 OO세이고, 최근에 군대 제대를 했단다. 제대 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중이란다. 자식을 자주 보냐는 질문에는 일 년에 3~4년은 본다고 하셨다. 그러나 올해는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지난번 투석 때 잠시 언급 되었지만, 전 부인과의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故L 아저씨와 각별하신 고○○ 아저씨가 故L 아저씨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사실 이 질문은 계속해서 질문 드리고 있다. 아저씨는 그걸 금세 눈치 채고, “아 왜 또 묻는데”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해서 안됐다라 말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자신이 그때 겪은 감정에 대해 말을 잘 안한다고 한다. 원래 자신은 생각이 많지 말을 잘 내뱉지 않는다고 했다. 옆에 있던 박○○ 아저씨께선 고○○ 아저씨가 故L 아저씨의 죽음을 듣고 울먹이면서 “○○이 일어날거다. ○○이 일어나서 올 거야.”라고 말했다고 했다. 고○○ 아저씨는 약간 머쓱해하셨다.

아저씨는 故L 아저씨와 같은 병으로 다리를 절단하셨다. 한쪽 다리를 그제 절단 한 점도 같고, 그 뒤에 발가락 일부를 절단 한 것도 같다. 우리는 아저씨에게 故L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병원을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故L 아저씨보다 더 빨리 두 번째 절단 수술을 했다. 그래서 아저씨는 故L 아저씨에게 어차피 자른다면 절단면을 그제 자르라고 당부했다. 절단의 이유는 염증인데, 조금 자르면 염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故L 아저씨를 죽음으로 이끈 2번째 절단 수술은 염증 부위를 남겼다. 의사는 염증 부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이름으로 수술 부위는 수술이 끝나도 꿰매지지 않았다. 결국 아저씨는 돌아가셨다. 고○○ 아저씨는 자신이 좀 더 강하게 당부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셨다. 결국 장례식도 못 갔다고 한다. 요새도 장례식을 안간 것에 대해 생각이 난다고 한다.

우리는 화제를 바꾸어 고○○ 아저씨의 삶에 대해 물었다. 집에서는 뭐하시는지 물

었다. 아저씨는 수면 부족의 고통을 겪고 계셨다. 아저씨는 새벽 3시에 깨신다. 그리고 몸은 피곤하지만 잠을 못 주무시고, TV를 본다고 하셨다. 이는 지난달부터 수면제의 양을 줄인 결과이다. 아저씨는 강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다. 이는 잠은 잘 왔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아저씨는 강한 수면제를 복용하고부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자력으로 걸을 수 없었다. 아저씨는 이에 대해 좌절을 하였다. 결국 아저씨는 며칠 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자신과 싸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 날밤을 썼다. 하지만 손에 기력은 찾았고, 자력으로 걸을 수 있었다. 현재 아저씨는 중간 정도의 수면제를 복용하신다. 하지만 중간 정도의 수면제로는 고작해야 4시간 정도의 수면만 취한다고 한다. 아저씨는 커피집에 나가는 아침 8시까지 뜯눈으로 아침 해를 맞이하신다.

그리고 아저씨는 최근에 정신적 고통까지 겪으신다. 일종의 강박증으로, 예를 들어 TV에서 연속극 주인공의 이름이 공금하면 잠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저씨는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답이 나올 때 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아저씨는 그래서 요새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안 하려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아 밤만 되면 어딘가에서 강박감이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고 하신다.

고○○ 아저씨에게 커피집은 어떤 의미일까? 아저씨에게 어떤 계기로 가게 되었는지 물었다. 아저씨는 그저 자연스러운 계기였다고 한다. 전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단지 앞에 사람이 모여있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같이 투석을 받으시는 신○○ 아주머니가 현재 커피집 주인인데, 고○○ 아저씨가 신○○ 아주머니에게 인수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렇게 현재의 커피집 멤버들은 신○○ 아주머니의 커피집 인수 이후의 멤버라고 한다. 아저씨는 커피집에 있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셨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할 이야기는 많다고 하셨다. 그래서 커피집 식구들끼리는 가족이야기도 알고 서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눈다고 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故L 아저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말을 잘 안한다고 한다. 故L 아저씨의 죽음 이후로 아저씨는 말문을 막았다. 아저씨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다. 아저씨는 이내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故L 아저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았다.

우리는 아저씨는 요새 어떤 생각을 하시냐고 물었다. 이 부분은 녹취를 그대로 옮기 고자 한다.

○○: 아저씨는 요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고○○ 아저씨(이하 ○○): 내가 얼마 못 간다고..

○○: 요새 건강이 안 좋으세요?

○○: (끄덕끄덕)

다치면 나아야하는데, 낫질 않고 악화되니.

가래침조차 안 넘어간다고. 힘이 없으니까.

	<p>○○: 건강 안 좋으실 때 마다 어떤 생각 드시나요?</p> <p>○○: 외롭지. 자식새끼라도 와서 집적거리면 얼마나 좋아.</p> <p>○○: 자식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p> <p>○○: (끄덕끄덕)</p> <p>정적</p> <p>○○: 혹시 아드님 생일이 언제인가요?</p> <p>○○: 10월 0일. 월요일이야.</p> <p>○○: 건강 안 좋아지고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p> <p>○○: 이제는 할 게 없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p> <p>○○: 형은 마음 비운지 오래야. 그저 자식이 잘되길 바랄 뿐이지.</p> <p>○○: 아저씨 10월 0일에 아드님한테 갈비 시원하게 쏘시겠다.</p> <p>○○: 그때까지...</p> <p>침묵</p> <p>○○: 건강하셔야죠. (울먹)</p> <p>○○: 저희도 자주자주 찾아뵙게요. 커피집도 자주 찾아뵙게요. (울먹)</p> <p>○○: (끄덕끄덕)</p> <p>○○: 죽은 놈이 아깝지 뭐. (○○에 대한) 개도 ○○이도 할 말이 많을 텐데.</p> <p>○○: 한이 많이 맺혔지.</p>
<p>8차 취재 후 느낀 점</p>	<p>느낀 점:</p> <p>취재를 준비하던 당일 새벽, SNS에 남겼던, 지극히 개인적인 글 하나. 느낀 점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취재와 일관성은 부족합니다. 사실 취재가 끝나고 몇 가지 질문들</p>

로 구성된 느낀 점을 남겼는데... 글로 다시 쓰자니 느낌이 안살기도 하고.. 느낀 점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취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는 질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관심도 없었던 ○○단지가, 고독사가 제 수많은 고민거리들 생각거리들 중에 작더라도 하나가 될 거라고. '기존의 내 삶'과 '취재를 통한 체험'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나의' 진심일까 계속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밑에 글은 고통 받는 20대 후반 백수가 늘어놓는 녀두리라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이미 직업인들은 일을 시작했을법할 늦은 아침, 날마다 보는 스마트폰 인터넷 짬방들은 내 인생의 작은 탈출구다. 그 시간 만큼은 어쨌거나 즐겁거든.

뜨거운 여름 오후 매일 보는 ○○단지 사람들. 고○○ 아저씨. 신○○ 아주머니. 진주 아주마. 떡볶이님 권사님. 김○○ 아저씨. 박○○ 아저씨, 자전거 도둑 조심하라며 냉커피를 내어주는 길거리 커피집 식구들....그들은 '인간' 이라는 동화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동화는 너무나 비극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웃는다. 나는 여름내내 이분들과 같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 역시 줄어들었다. 나도 이제 동화속 일원이 된 건지....아니면 여전한 비극에 대해 내가 밭 딛는 곳이 아니라며 '동화'라고 취급하는 건지... 자전거를 밟아가며 도착한 동에서 나는 마음의 위안을 느낀다. 아마도 내가 타자라서 느끼는 이 위선같은 위안.

매일 저녁 술을 마신다. 거의 같은 놈과 마신다. 언제나 우리는 돈이 없고 배고프다. 그럼에도 매일 술값은 어딘가에서 나온다. 그래도 살만 한가보다. 아니 생각 해보니 오늘은 ○○어딘가에 입사한 놈이 술값을 내주었고 지난주엔 하루는 ○○감독님이, 또 하루는 우연히 만난 ○○형님이 술값을 내주었지...

"고독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근대적 사랑은 진짜 존재할까?" 우리는 병신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유치하게 답을 찾아간다. 그러한 병신같은 행동들을 하다보면 금세 술잔은 비워지고 우리는 취한다. 유익하지 않다. 나는 책 귀퉁이에서 읽은 무언가를 빼꾸기처럼 지꺼릴 뿐이고 친구는 그런 나에게 감탄한다. 이미 나조차 진심이 없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시간은 하염없이 낭비된다. 그래도 즐겁다. ○○어딘가의 다니는 친구의 눈치를 보며, 아니 비단 이친구가 아닌 다른 나같은 병신에게 술 사주는 내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나는 금융업계에 능통한 녀석이 되기도 하며, 일일이 다른이의 스펙을 분석해주기도, 쓰잘데기 없이 친구가 하는 시기 질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래, 그런 것 보다는 수준이 비슷한 놈들끼리 형이상학이 더욱 즐거운 법..

최근 친구놈과 1500원 짜리 가오리 날개 하나, 1000원 짜리 학꽂치 하나. 찢어가며 하는 이야기가 아마 최근 나의 가장 큰 행복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에 조금이라도 탈출한다.
아침엔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적된 짬방에 허탈한 웃음을.

	<p>점심엔 ○○아파트 사람들과 동화속 이야기들. 저녁엔 친구놈과 무익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p> <p>그리고 새벽엔 반쯤 감긴 눈으로, 내일있을 ○○단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그리고 이제는 곧 끝날 ○○단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안타까워 하며..</p>		
9차 취재일	7.31	9차 취재장소	○○단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커피아줌마(김○○ 아줌마와 함께 근무 하시는 분)		
9차 취재 내용	<p>커피아줌마</p> <p>그동안 이름을 걸고 사연을 전했던 고○○님, 김○○님, 박○○님, 정○○님(호랑이 할머니), 심○○님(라이벌할머니), 김○○님, 김○○님, 김○○님, 전○○님, 김○○님(떡볶이할머니), 진주엄마 등으로부터 ○○아저씨를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p> <p>함께 공유한 추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마지막 길을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고, ○○아저씨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앞길이 두렵다 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분도 있다.</p> <p>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을 크게 가지시는 분도 있다. 바로 커피어머님.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 성함을 여쭙지 못한 분, 새벽 취재를 한 오늘까지도 어머니의 성함은 여쭙지 못했다.</p> <p>새벽4시. 동○○단지에서 가장 먼저 생업을 여시는 분이다. 커피광장의 주인은 아니지만, 잠이 없어 일찍 나와 가게 문을 대신 여신다. 취재 두 달 쯤, 지금까지 ○○아저씨에 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다.</p> <p>처음 뵈을 때는 ○○아저씨의 노름 이력(?)을 공개해주신 분이고, 두 번째 뵈을 때는 아저씨의 가족관계와 부성애를 들려주며 잔하게 하려던 찰나에 술 이력을 꺼내어 균형을 맞추시더니, 세 번째 뵈을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된 사고 전반과 중환자실에 병문안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곧바로 여자문제를 꺼내셨다. 향시 ○○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안 좋은 모습 하나씩을 추가로 얘기해주신 분이다. 웃음도 별로 없으신 분이 말씀도 오락가락 하시고, 이쪽저쪽 이야기에 끼어들기도 하면서, 동문서답은 기본으로 해주시니 취재할 땐 ‘이분 뭐지뭐지?’ 하면서도 집에 오면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게 한다.</p> <p>특히, 최근 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꾸만 맴돈다. “그날 내가 양미리 더 사다주지만 안았어도 발에 불 안 데었을거야. ○○이도... 그날 그렇게 되고 병균 옮겨서 죽었잖아. 내가 많이 미안하지...” 잠깐 ○○ 아저씨의 죽음을 돌이켜보면 이렇다.</p> <p>2013년 1월, 동○○단지 입구에 모여 있던 ○○&○○아저씨는 깡통에 불을 피우고 양미리 생선을 구워먹고 있었다. 두 분이 특히나 잘 먹길래 커피아줌마는 옆에 시장가서 만원 어치를 더 사다줬다. 그러다 일은 발생했다. 두 번째 사온 양미리를 구워먹던 중, 불이 발을 태우고 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거다. 두 아저씨 모두 당뇨가 심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지만, 남은 한 쪽 발마저 불에 타고 있던 것</p>		

	<p>을... 모르고 있었던 거다. 당뇨로 감각마저... 잃었으니까. (이날 ○○아저씨는 손가락마저 데였다. 그래서 지금도 붕대로 칭얼칭얼ㅠ 볼때마다 눈물이난다.)</p> <p>응급처치 후 그 해 겨울은 어찌어찌 보냈나 보다. 그러나 치료가 아마 잘 안되었던 것 같다. 무더운 여름 딱 1년 전 오늘 쯤, 투석병원에서는 발가락마저 절단하지 않으면 굳이 찍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 아저씨는 곧바로 큰 병원으로 가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 날 밤에는 비가 내렸다.</p> <p>수술 도중 일이 잘못 되었다. 굳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들어가 혼수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더는 깨어나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수술 전날 ○○단지 입구에서 함께 술한잔 했다는 형님도 있었다니... 그 분도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단다.</p> <p>그 후, 전부인도 자식도 형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가족 셋은 ○○ 아저씨의 사체를 포기했다. 심지어 포기서명서를 작성하러 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연은 여기서 다음에 정리하겠다.)</p> <p>아저씨 죽음의 발단이 된 양미리 사건. 직접적인 원인을 커피아주머니 탓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머니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계셨다. “나땀에... 미안하지...” 여기까지가 오고가며 들었던 커피아줌마 얘기다. 정작 이야기는 가장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성함도 모르고... 단독 취재도 한 적이 없어 밤을 새고라도 꼭 새벽에 만나러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서두가 정말 길다...</p> <p>잠이 없어 네시에 나와 장사준비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외출한 3시. 그러나 어머니는 삼십분 지각하셨다. “어머님, 오늘은 늦게 나오셨네요?” “응... 아침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하... 커피집을 개장하는 동안 낮빛이 꽤나 어두운데 도와드릴 수가 없었다. 혼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손의 여유가 없었다. 이럴 때 진짜 고민된다. 장면이냐... 도덕이냐...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온 목적은 광장의 시작을 담기 위해서니 목적에 충실하고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촬영을 시작했다. 아침광장의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온다. 출근하는 사람 1/3, ○○단지 전동차 타신 분 1/3, 일찍 잠깨신 노인 분들 1/3.</p> <p>2차 출근 손님 무리를 맞이하기 전 40분가량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에, 잠이 없는 이유, 왜 이렇게 ○○아저씨를 챙기셨고 지금도 ○○아저씨를 챙기시는지의 이유를 들었다. 커피어머님의 개인사가 또 있었다.</p> <p>밤 꼬박 새고 3시에 나갔다가 7시30분에 돌아와서 여기까지 작성하는데... 너무 졸립네요. 커피어머님께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은데... 잠이... 죄송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정리할게요. 새벽에 ○○이가 올린 보고서랑 합치기 위해서 ○○ 아저씨가 죽음에 이른 과정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만 일단 올리겠습니다.</p>
9차 취재 후 느낀 점	

(4) 사람이 그리웠던 외로운 멧쟁이

- 시체처리구: 대전광역시 OO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40
-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 주소지: 대전광역시 OO구
- 혼인사항: 미혼
- 연고자: 無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자택
- 주거형태: 월세
- 발견일시: 2013년
- 발견자: 이OO (집주인)
- 안치장소: OO공원 (납골당)
- 사망원인: 실족사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1차 취재일	2014.06.30	1차 취재장소	대전 OO구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이OO 씨 (80대) : A씨 씨 주소지 집주인 / 대전 OO구 2. OO동 주민센터 직원		
1차 취재 내용	1. 고아원에서 자란 A씨 씨 A씨 씨는 좀처럼 이웃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다. 3-4년 전 OO동으로 이사를 왔고 술이나 먹을거리를 담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었지만, 절대 주변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A씨 씨가 사망한 것을 처음 발견한 집주인 이OO 씨와도 데면데면한 사이였기에 이OO 씨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들었다고 했다. 자원봉사자가 말하길 A씨 씨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곳에서 나와 한 여성과 가정을 꾸려 살다가 헤어진 이후 쪽 혼자 지냈다고 한다. 자녀도 없었기에 아무 연고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2. 사망 당일의 A씨씨 집주인 이OO씨는 방을 세놓는 것 이외에도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날도 어김없이 마당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이OO 씨는 술기운에 약간씩 비틀대며 왔다 갔다하는 A씨 씨가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까 싶어 한쪽으로 폐지를 치워 길을 비워줬고, 그는 그대로 집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전혀 없었다. 저녁때가 되어 밖에서 폐지를 줍던 이OO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A씨 씨가 집에는 왔나, 밥은 먹었나 하는 생각에 그의 방으로 향하다 방문 앞에 고꾸라져있던 A씨 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방문이 열린 채로 문지방에 얼굴을 박고 누워있던 A씨 씨가 아직 살아있을까 다리를 잡아당겨봤지만 힘이 달려 일으켜지지 않았고, 급한 마음		

에 골목으로 나가 지나가는 청년 두 명을 급히 불렀다고 한다. 장정 두 명을 동원해 겨우 방 안으로 A씨 씨를 눕였지만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이○○ 씨가 본 A씨 씨의 마지막이었다.

3. A씨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의 방을 비워둔 집주인 이○○씨

처음에는 그저 빨리 사람 하나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정신없이 청년들을 부르고 그를 일으켜 눕히고 했지만, 그가 죽어서 방을 떠난 이후 이○○ 씨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자꾸 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가 고꾸라져 있던 모습이 생각나 양약, 한약을 가리지 않고 심신안정제를 찾았다. 몇 달 뒤 겨우 안정을 찾긴 했지만, 아직도 A씨 씨의 방은 주인을 기다리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방문 앞에는 '노크하세요' 라는 문장과 함께 그의 이름 석 자가 크게 적혀있었다. 이 집 바로 앞에는 새로 생긴듯한 멋들어진 카페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옷가게도 있었는데, 이○○ 씨는 점점 동네가 발전하면서 작은 단칸방 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A씨 씨 옆방도 비어있었다. 이○○ 씨는 이후 경찰에게 A씨 씨에 대한 몇 가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매일 보던 사람인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게다가 술에 취해 방문 앞에서 죽었으니, 아마 술만 안 마셨어도 저렇게 가지는 않았을거야. 이제 나이 먹어서 월세도 못 놓겠어" 며 A씨 씨의 방문을 물끄러미 쳐다보셨다.

4.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술을 마셨던 A씨 씨

집주인 이○○씨는 평소 A씨 씨가 술을 좋아해 거의 매일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40만원 남짓한 수급비 중 12만원을 월세로 낸 다음 남은 돈으로 쌀을 사거나 술을 샀다고 한다. 유일하게 집주인 이○○씨에게 말을 많이 걸었을 때는 술값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이○○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A씨 씨에게 "나이 잡숫고, 술 드시면 큰일난다"고 한 마디 할 때마다 "내가 돈 안 줄까봐 그래?" 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매월 20일이 수급비를 받는 날이었고, 그래도 때마다 꼭꼭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한다. 더불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아파서 죽겠다,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가도 별 효과도 없고, 팔다리도 다 썩어서 죽겠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자주 던졌다고 한다.

5. 젊은이들과 A씨 씨

하루는 젊은 사람들이 A씨 씨와 함께 집으로 왔는데, 아마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자원봉사자가 이○○ 씨에게 말하기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주고 얼마의 사례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이 집은 오래된 자취방처럼 단칸방 여러 개가 웅기종기 붙어있었는데, A씨 씨 이외에도 젊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 씨가 밤에도 자꾸 어슬렁거리며 신발을 끌고 왔다갔다 돌아다녀서 이웃 주민들이 그에게 좀 조용히 해줄 수 없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6. A씨 씨의 흔적들

그의 방은 사망 이후 한 번 치워지긴 했으나, 몇 개의 유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서랍 제일 위를 열자 지독한 나프탈렌 냄새가 났고, 선글라스와 안경이 각각 하나씩 있

	<p>었다. 낡은 집 전화와 밥을 차려 드시던 작은 소반이 있었고, 벽면에 붙어있던 복지카드의 이름 석 자가 이 방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이○○ 씨는 별로 치운 것도 없고 원래 짐이 별로 없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꽤 많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쉽게도 사진이나 편지 등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p> <p>6.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의 직원은 오늘까지 마쳐야 하는 업무가 있어 무척 바쁘다는 말씀과 함께 아무리 좋은 취지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다 할지라도, 개인 정보나 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며 공문을 요청하셨다.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월세방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꺼져있는 불을 ‘탁’ 하고 켜자 곰팡이가 슬어있는 벽지와, 군데군데 들떠 있는 장판 위에 널려진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유품은 없었지만 그가 얼마나 이곳에서 고독하게 살았는지는 충분히 짐작됐다. 그리고 그의 방으로 향하는 곳 벽면과, 그의 방문 앞에는 아직도 A씨 씨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비틀거리는 몸을 움직이며 신발을 끌고 대문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이 보지 않았는데도 상상이 됐다.</p> <p>그리고 집주인 이○○ 씨 역시 이미 여든이 넘으신 노인이셨고, 자녀가 있긴 하지만 떨어져 지낸지 오래되어 그저 방에 월세를 주고, 박스를 주워 생활하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되었다. 이○○ 씨는 A씨 씨의 사망에 많이 놀라 몇 달간 잠도 설치셨다고 했다. 집을 떠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다.</p> <p>사시던 곳도 그대로 남아있고, 최초 발견자까지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취재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분만 찾으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마음이 성급했다. 이 사례를 끝으로 첫 날 취재를 마쳤기 때문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아무래도 타지로 취재를 오다보니 한 번 올 때마다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사례마다 좀 더 진중하게 취재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2차 취재일	2014.07.04	2차 취재장소	1. 대전 ○○구청 2. 대전○○경찰서 3. ○○공원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 형사님 / ○○경찰서 ○○팀 2. ○○ 형사님 / ○○경찰서 3. ○○ 씨 / ○○센터 돌보미		
2차 취재 내용	1. 케이스들에 대해 취재하다보니 주변 이웃들로부터는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A씨 씨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7월 3일 구청에 찾아가 보았지만 전산을 점검하는 주간이라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용기를 내어 대전 ○○경찰서에 찾아갔다. 먼저 ○○팀으로 가보았는데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셨다. 가족 없이 혼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흔적을 찾는다는 취지를 설명했더니 세 분이 서로 나서서 담당 형사를 찾아 주셨다.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케이스에 대한 담당 형사		

가 누구신지와, 자리 번호를 얻은 후에 한 분씩 전화를 드렸는데, 오후 시간에는 거의 현장에 나가계시기 때문에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러다 조금 일찍 자리에 돌아오신 ○○ 형사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2. ○○ 형사님은 ○○ 형사님과 함께 A씨 씨 사건을 담당하셨다고 했다. 우리보고 알고 싶은 것이 무어나고 직설적으로 물어서서, 기록보다도 혹시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있냐고 물었지만, 워낙 요새는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잘 기억하지는 못하셨다. 그래도 쪽방에서 남자 어르신이 실족사로 돌아가셨고, 그 집 주인이 발견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계셨다. 정말 감사하게도 수사기록의 스크롤을 넘겨주시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라고 하셨다.

3. A씨 씨는 사망 당시 트레이닝복 바지와 긴팔티, 양말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설침(혀 앞부분)에 흉과 먼지가 붙어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돌보미 ○○ 씨가 일주일에 3회 3시간 정도 다녀가고 있었으며, 11월 ○○일에 마지막으로 방문했고 사망당시에도 참고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인 진술 결과 평소에도 자리를 절뚝거렸기 때문에 자주 넘어졌으며 사망 일주일 전에 몸살을 앓아 식사를 잘 하지 못했다고 되어있었다. 개인 가족 관계로는 5살 때 ○○군 소재의 ○○고아원에서 성장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사망 이후 확인 결과 가족이 아무도 없는 무연고자였기 때문에 시체를 구청에서 처리했다고 쓰여 있었다.

4. 참고인이자, A씨 씨를 가까이에서 보았다는 ○○ 씨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처를 알아보아 전화를 드렸고 방금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라고 하셔서, 계시는 곳으로 바로 찾아갔다. ○○ 씨가 A씨 씨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2년 가을 쯤이라고 한다. ○○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중 배정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는데, 난방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매트리스, 그 위에 주민센터에서 지원해준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하고 계셨다고 한다. ○○ 씨가 주로 하는 일은 A씨 씨의 말벗을 하는 것과 옷가지 세탁이었다고 한다. 사시던 집 자체가 오래전 여관이었고, 지금은 달방을 주는 곳이다 보니 화장실도 공용으로 돌아서 가야하고 세면실도 멀었는데 A씨 씨의 거동이 불편했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셨기 때문에 ○○ 씨가 세탁을 도맡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시장에 모시고 다녀온 적도 많다고 했다.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시장에 가려면 한참 걸어야하는데, 어르신들의 고집이 있어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가셨다고 한다.

5. 옛날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는 잘 하시지 않았지만 어쩌다 들어보면 “예전에 내가 마누라한테 잘못된 것이 많다”는 언뜻 하셨다고 한다. 말하는 뉘앙스에서 자녀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또 어쩔 때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과의 왕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뭐 예전이야기도 조금씩 하시긴 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하기 좋아하기는 하셨다고 했다.

6. 주방이 없어서 A씨 씨가 문 밖에 조그마한 싱크대를 두었고, 식사는 휴대용 가스 레인지로 통해 하셨다고 한다. 수제비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끔 만들어 드리고, 국이 드시고 싶을 땐 국을 좀 해드리는 등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곤 했다고 하셨다. “할아버지, 저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대문 밖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염없이 ○○ 씨가 가는 길을 따라오시기도 했다고 한다.

7. 그러다가 작년 11월 말에 ○요일에 할아버지를 뵙고, “○요일에 오니까 빨래 비눗물에 담가두시면 와서 빨아드릴게요” 하니깐 “응. 알았어” 하시고 또 대문 밖까지 나와서 “잘가” 하며 손을 흔들어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인 ○요일 집에서 김장을 하던 중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집주인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 ○○ 씨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급하게 경찰서에 가셨다고 한다.

8. ○○ 씨는 40대 때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급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오래하시다보니 나중에는 이 일이 직업이 되어버려서 후에는 유급으로 일하기 되었다고 하셨다. 그저 자신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피려고 했을 뿐이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다. 가끔씩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도 많이 난다고 하시며, 얼마 전에도 ○○ 씨가 찾아뵈던 95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도 가족 없이 돌아가셨고, ○○ 씨가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는 말을 이어가셨다. A씨 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문득 할아버지가 어딘가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살다보면 수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당하시다가 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좋다. 주위에 안타까운 분들 자손이 있어도, 자손들이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9. 하루는 조카인지 사촌인지 친척이 찾아와서 휴대전화를 A씨 씨의 이름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집주인에게 들었던 것은 모르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친척이었음) 개통을 해 놓고 요금을 내지 않았는지 보증보험에서 할아버지에게 계속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A씨 씨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한다. ○○ 씨가 대리점에 연락하고,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해결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고지서가 날아와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한다. ○○ 씨 생각에도 친척이 할아버지를 도와는 주지 못할망정 찾아와서 명의를 빌려간 것이 야속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신경을 쓰신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 친척에 대해서는 과수원에 산다고만 들었으며, 후에 대리점인가 보증보험회사에서 A씨 씨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찾아와봤다고 말했다고 한다.

10. 할아버지는 유년 시절에 대해 거의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어렸을 적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한다고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말수가 적은 편이셨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을 자주 다녔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 더 여쭙보니 거의 김치나 된장, 새우젓, 파, 마늘, 감자, 양파, 고추와 같

은 기본 식재료를 주로 사서 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꼼꼼한 성격에, 멋을 부릴 줄 아는 분이셨는데 지하상가에서 종종 옷을 구매하셨다고 한다. 한 번 갈 때마다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다 둘러보시고 소재도 다 만져보고 구입하셨을만큼 꼼꼼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구제 옷을 파는 곳에서 1-3만 원 정도의 옷을 사다 입으셨다고 한다. 멋을 워낙 잘 부리셨기 때문에 신발도 신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발을 사서 신으실 정도였다고 했다. (1차 취재 때 방 안 유품 중 선글라스가 남아있던 것과, 유난히 옷걸이가 많았던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면 거의 일주일 만에 모두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 씨가 "돈 좀 남겨두고 쓰세요" 해도 "적은 돈인데 뭘 남겨놓고 써" 라고 하시며 월초에 돈을 거의 많이 쓰셨다고 한다.

11. A씨 씨는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방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보니 여름에는 집보다 시원했던 지하상가에 가서 저녁까지 늦게 그 주변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시곤 했다고 한다. 그렇게 저녁 늦게 있다가 술 한 잔 마시면 새벽 넘어서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한쪽을 끌고 다니시다 보니 주인아주머니가 늦게 왔다갔다하지 말라고 몇 번 주의를 줬다고 한다. ○○로 근처의 지하상가나 ○○시장에서 동○○ 씨와 함께 칼국수를 먹기도 하고, ○○장터에 가서 장을 둘러보기도 하는 등 ○○ 씨가 할아버지의 친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였다.

12. A씨 씨 방에 주민센터에서 나온 도우미들도 찾아왔지만, 가끔 반찬만 주고 갈 뿐이지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고 한다. 가끔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가는 김치가 안 오자 전화를 했다고 한다.

"다른 데는 다 김치가 왔는데, 우리는 왜 안 오지?"

"아직 할아버지 차례가 안됐으니까 그런가보지" "그치? 그렇겠지?"

표현이 없었던 어르신이었지만 '죽고 싶다'는 말은 가끔 입 밖으로 꺼내셨다고 한다. 더욱욱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정형외과를 모시고 갔더니 무릎이 좋지 않아 당장 수술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비용도 그렇고, 누가 와서 병간호할 사람도 없다보니 됐다고 하시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틀니가 불편하셔서 아픈 걸 그냥 참고 계시다가 ○○ 씨가 치과에 모시고가서 처리하고, 안과에도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워낙 깔끔하셔서 틀니도 물에 담가두고, 열심히 칫솔질 하시는 등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한다.

13. 삶의 의지는 있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사셨고,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못했지만 예전에는 일용직을 했었던 것 같다고 하셨으며 평소에 "예전엔 나도 이렇게 살진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실족사로 허무하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셨다.

14. 혹시 ○○ 씨가 속해있는 ○○센터에 A씨 씨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생각해 ○○씨 씨를 통해 전화를 드려봤지만 문서화해서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고, 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씨 씨는 자신의 노년모습을 보는 것

	<p>같기도 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 하다 보니 이 일을 40대 때부터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정말 직업이 되어버렸고, 지금과 같이 노인돌보니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대전○○센터가 공고해지면서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했다. 어르신들이랑 거의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뭔가 더 즐겁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일찍 발견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열흘씩 있다가 발견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A씨 씨의 경우 일찍 발견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신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센터나 많은 센터들의 지원프로그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것을 모르시거나 성격 탓으로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신앙이라도 매달리는데, A씨 씨는 신앙이 없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셨다.</p>		
2차 취재 후 느낀 점	<p>1차 취재 때 이미 고인이 사셨던 방을 둘러보고, 방을 치우고 남아있던 유품을 보고, 고인이 자주 갔던 시장에도 가봤기 때문인지 ○○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다. 방으로 가는 좁고 어두운 길과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바닥, 북적거렸던 시장...</p> <p>그리고 유품들에 유난히 옷걸이가 많고, 선글라스가 있던 것이 의아했는데 오늘 ○○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 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하나 하나 퍼즐을 맞춰가듯 그 분의 생전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p> <p>그리고 경찰서에서 A씨 씨의 유년시절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태어나서도 가족 없이 고아원에 맡겨지고 돌아갈 때도 가족 없이 혼자 돌아가셨다는 점이 가슴 아팠다.</p>		
3차 취재일	2014.07.17	3차 취재장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 ○○구 ○○동 주민센터 2. 대전시 ○○관 3. 대전 ○○구 4. 대전 ○○시장 5. 대전 ○○시장 옆 지하상가 6. 대전 ○○ 마트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 주민센터 직원 2분 2. 이○○ 씨 3. ○○시장의 상인들 4. 지하상가에 계신 어르신들 		
3차 취재 내용	<p>1. ○○동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갔다. 일단 어떤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 용기를 냈다. ○○님은 대체 무엇을 알고 싶으신 것이냐고 하셨고, 돌보미 분이 더 자세히 아실 것이고, 반찬 지원을 하셨던 분들도 매일 바뀌고 그 분들은 그저 전달만 하기 때문에 A씨 씨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저 그 분과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눴던 분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님은 공무원이기에 앞서 사람으로서 A씨 씨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가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님은 일단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취지에 대해 듣</p>		

고 싶다고 하셨다. 이전에 했던 설명과 더불어 우리는 이 분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민센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거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분의 삶 자체를 조명하고, 큰 주제인 가족에 맞춰 이 분들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이것이 죽음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돌보미 분과 집주인 이외에는 A씨 씨를 아는 분을 찾기가 힘들고 가족도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었던 ○○님들에게 듣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님은 언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미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취재해갔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기사나 영상으로 보니 그분들의 삶의 왜곡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적도 있었고, 결국 복지 혜택이 부족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의도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언론에게 많이 속았다고 하셨다. 그랬기에 처음에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다른 직원 분이 우리의 대화를 듣기 위해 오셨다. 아까 처음 이야기를 꺼내며 지난 취재에서 ○○씨 씨에게 A씨 씨가 “왜 주민센터에서 김치 안 오지?” 라는 말을 하며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김치가 어쨌다고요? 할아버지가 못 받았다고 했다고요?” 하며 날카롭게 우리를 쏘아보시던 분이였다.

우리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이런 취재나 방송에 많이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취재의도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최대한 우리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끔 방송에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밖에는 없었다. 그러자 다른 직원 분이 격앙된 목소리로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분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생이 어땠는지 본인이 아니고서야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방송을 통해 왜곡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의 말에 동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일리가 있었기에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지만, 이를 통해서 고독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최대한 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보겠다고 거듭 말씀드렸다. 알고 보니 그 분은 그때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던 직원 분이셨다. 그 때가 10월이었기에 아직 김장철이 아니었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고는 아직 김치가 올 때가 안 됐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사망 소식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신 듯 했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울먹거렸다. 자신이 조금 더 김치를 일찍 준비해서 전달해드렸더라면, 아니면 이후에 전화를 자주 드려 안부를 물었더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다. 그렇기에 더욱 할아버지의 뒤를 밟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어떤 마음으로 취재를 반대하고 계신지를 알 것 같았다.

직원분이 떠난 후 담당 ○○님은 우리가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다면, 이왕이면 시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야쿠르트나 반찬 배달을 하면서 매일 안부를 체크하

	<p>고, 지원도 해드리고 있으니 이런 좋은 면들도 함께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동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도 함께 전하셨다. 대신에 반찬지원을 하는 곳이 많아 A씨 씨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셨는지는 찾아봐 줄 수는 없지만 ○○동과 가까운 시 ○○관에서 반찬지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 한 번 찾아가 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셨다. 그래도 지금까지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그나마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고 나중에 꼭 방송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의도로 방송이 흘러가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했다.</p> <p>2. 대전시○○관에 찾아갔지만, 역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p> <p>3. 돌보미 ○○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과 지하상가에서 A씨 씨가 잘 갔었던 상점의 상호나 위치를 알 수 있는지 여쭙었다.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시장 왼쪽 끝 반찬가게와 지하상가의 구제 옷집, 주변 식당 등의 위치를 대충 알려주셨다. 키가 매우 작고 왜소하며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라고 하면 알지도 모른다고 하셨기에, 무작정 시장으로 향했다. 알려주신 반찬가게와 재래식 된장 가게를 중심으로 여쭙보았지만 대부분 모른다는 반응이었고, 한 군데에서만 그런 아저씨가 왔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 찾아가본 지하상가는 A씨 씨와 비슷한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쉬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경비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름에는 시원하고 하니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찾는다고 하셨다. 하지만 지하상가가 마침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가게의 문은 전부 닫혀있었다. A씨 씨가 다녔던 쌀집에도 찾아가 보았는데 사장님도 직원도 전부 기억하지 못하셨다.</p> <p>4. A씨 씨의 마지막 주소지를 다시 찾아갔다. 역시나 주인 할머니께서 맞이해주셨다. A씨 씨가 쓰던 방은 아직도 그대로였다. 둘러보고 나와 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은 자식이 있어도 죽는 게 편하다며, 아프면 자식도 고생을 한다고 하셨다. 오죽하면 예전에는 70만 넘으면 고려장을 했겠냐고 덧붙이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 역시 남편과 아들 모두가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였고, 자식은 결혼하여 살고 있어 그냥 세주는 방 옆에 혼자 살고 계셨다. A씨 씨 사망 당시 담당 형사도 주인 할머니에게 혼자 살지 마시라고 한 마디 했다고 하는데 뭐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며, 그래도 친구도 만나고 박스도 주우면서 많이 돌아다니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말을 전하고 발걸음을 돌렸다.</p>
<p>3차 취재 후 느낀 점</p>	<p>오늘은 시장에서든 지하상가에서도 쌀가게에서도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들에서 A씨 씨와 닮은 어르신들을 많이 뵈게 되었다. 에어컨 밑 동그란 벤치에 앉아 줄줄이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고 더위를 식히는 어르신들. 시장 순대가게에서 막걸리와 함께 순대를 드시는 할아버지들. A씨 씨는 이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골목길 앞까지 배웅해주셨던 주인 할머니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돌보미 ○○씨 씨를 배웅하던 A씨 씨의 모습을 우리를 배웅하던 주인 할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을 까하는 생각이 들었다.</p> <p>주민센터의 ○○님이 단순히 개인정보의 문제나, 동의 이미지 때문에 취재를 반대하</p>

	<p>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례가 있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정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고, 각별하게 생각하고 더 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렇게 동의 없이 다뤄지는 것이 대해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A씨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복지 정책에 대해 실무자인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었다. 고인을 어이없게 떠나보냈다는 죄책감 역시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취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좋지 않은 기억을 꺼내게 하는 것 같다.</p>
--	--

(5)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한 여자

- 시체처리구: -
- 성별: 女
- 출생년도: 1954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00구
- 주소지: 대전광역시 00구
- 혼인사항: 두 차례 이혼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숙박업소
- 주거형태: 월세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00 안주인 이00씨
- 안치장소: 대전광역시 00구
- 사망원인: 자살
- 기타: 두 번의 이혼과 한 번의 사업 실패 이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했고,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에 대전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대전 00 지원센터에 사정하여 3개월 동안 주거지원을 받아 00에 머물게 됨.

1차 취재일	2014.07.01	1차 취재장소	대전 00
만난 사람 및 연락처	00 주인 내외 (안주인 이00 씨 위주) /		
1차 취재 내용	<p>1. B씨 씨의 첫 인상</p> <p>B씨 씨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00동 00는 동네 여인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로 보였다. '안내'라는 뜻말이 붙은 방문을 똑똑 두드리니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를 맞아주셨다. 할아버님은 B씨 씨를 기억하고 계시긴 했지만, 안주인이 그이야기를 종종 나누어봤으니 이따 시장에 간 부인이 돌아올 때쯤 다시 오라고 하셨다. 오후쯤</p>		

다시 찾아 된 안주인 이○○ 씨는 할아버지보다는 젊어 보이는 외모였다. 올해로 60세인 이○○ 씨는 B씨 씨가 자기와 나이가 비슷했고, 같은 A형이었기 때문인지 성격도 비슷했던 것 같다고 하셨다. 처음 여관에 왔을 때 B씨 씨는 대전역에서 노숙생활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행색이 멀끔했다고 한다. 낯을 가려서 처음에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오며가며 얼굴을 마주친 이후로 부터는 종종 대화를 나누었다.

2. 두 번의 결혼, 한 번의 사업에 실패한 B씨 씨

하루는 B씨 씨가 이○○ 씨를 붙잡고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첫째 남편은 노름꾼이었는데, 성격이 매우 사납고, 자주 다툼이 있고 나서 B씨 씨가 남편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도망을 다니자 발목에 칼을 차고 B씨 씨를 찾으러 다녔고, 그녀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이후 두 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술에 빠져 살던 알코올 중독자였기에 역시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때부터 B씨 씨는 혼자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들고 나온 돈이 조금 있었기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했고, 언젠가 인삼밭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 행려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역에서 얼마간 노숙을 하다가 힘에 부쳤는지, 근처 센터에 무작정 들어가 '나 죽겠다 도와달라'며 호소했고, 그 센터에서 이후 3개월 동안만 집세와 쌀값을 지원해주 ○○에 오게 된 것이었다.

3. 자식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B씨 씨

B씨 씨는 두 명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임신은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유산했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이○○ 씨는 슬하에 3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씨의 둘째자식이 여관에 찾아와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B씨 씨가 "아줌마는 좋겠어. 엄마라고 불러줄 자식도 있고 얼마나 좋아"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이○○ 씨가 "그러지 말고 재혼을 하면 어때? 여기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돈 많은 할아버지나 꼬셔봐"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농담을 던지자 "그런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 그리고 난 두 번이나 남자한테 데인 걸보니 난 남자 복이 없나봐. 더 이상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자식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별 달리 위로해줄 수가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이라고, 자식이 있으면 신경써야할 일도 많아"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더 살아야 할 이유라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4. '죽고싶다' '자살하겠다' 라는 말을 자주 했던 B씨 씨

평소 B씨 씨는 삶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준 3개월 숙식비가 끊기자 하루는 이○○ 씨를 찾아와 "아줌마, 사실 나 이제 지원도 끊겨서 돈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했고, 이○○ 씨가 몸뚱아리가 멀쩡한데 왜 일을 하지 않냐며, 이 주변에서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러자 B씨 씨는

자신이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병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했다. 몇 번이나 더 견딜만한 일을 찾아보라고, 이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 식당 일을 하거나 숙박업소 카운터를 보는 일 같은 건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지만 몸이 아프다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날은 소지품 중에 하얀색 페트병을 꺼내 보이더니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이게 농약인데, 나는 집도 가족도 없고, 지원해 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얼른 죽어버리고 싶어. 만약 급박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걸로 자살해버릴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특히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이○○ 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주했다고 한다. 이○○ 씨는 “자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나까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그런 말 하지마” 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무서웠던 이○○ 씨는 방세를 천천히 받을테니까 이 주변에서 할 만한 일자리라도 찾아보라고 시간을 주셨고, 먹을거리가 떨어진 B 씨 씨에게 고구마 두어 되 정도를 드렸다고 한다. 사실 ○○도 달방을 하는 손님이 없어 몇 년 전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쌀이나 돈을 꿔 주시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 때가 겨울이라 난방비 때문에 운영에 부담을 겪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선뜻 나설 수 없었다고 했다.

5. B 씨 씨의 마지막 날

이○○ 씨는 B 씨 씨가 아침에 근처 슈퍼에 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 이후 며칠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평소에 B 씨 씨는 방문을 두드리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방세를 재촉하는 것일까 두려워 일부러 인기척을 내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마주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이○○ 씨가 노크를 해보고 인터폰도 해봤지만 인기척이 없어 보조 열쇠로 문을 열어봤더니 B 씨 씨가 코드를 빼놓은 전기장판 위에서 양 손을 위로 쪽 뺐은 채로 누워있었고, 느낌상 몸이 많이 굳어있으며 배가 풍선처럼 뽕뽕하게 부풀어 있었고, 입에는 농약을 삼켜서인지 흰 거품들이 입가에 말라붙어 있어 섬뜩했다고 한다. 얼른 나와 신고를 했고 경찰서와 119에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 B 씨 씨는 평소 아주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잘 닦지 않는 창틀까지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로 싹싹 닦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망 당시에도 방 안에는 살림이 단정하게 정리되어있었고, 페트병에 있던 농약을 작은 컵에 따라 마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유서를 남긴 노트가 있었는데, 경찰이 유품을 정리할 때 이○○ 씨가 슬쩍 보니 ‘죄송합니다. 시체를 빨리 발견하면 장기를 기증 해주십시오’ 라는 두 문장만 자필로 적혀있었다고 한다. 경찰에서 유품을 넘길 가족을 찾다가 자식이 한 명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남편 전 부인의 자식인 B 씨 씨와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어 시신인수를 거부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자식은 B 씨 씨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경찰에게서 연고자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지하실에 두었던 살림과 유품은 모두 고물상에 넘겼다고 한다. “시신이 비닐에 싸워져 나가는데 자주 보던 사람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고 안스럽더라고...” 이○○ 씨는 이 말을 하리며 왈칵 눈물을 쏟아내었다. B 씨 씨의 죽음 이후 몇 달간 계단이나 그 방 주변을 볼 때마다 그녀의 형상이 서 있는 것 같아 괴로웠다고 전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도와줄 걸, 죽겠다고 이야기 했을 때 좀 더 말려

	<p>볼 걸 하는 마음이 들어 더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을 더 잘 돌봐줘야 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p> <p>6. B씨 씨의 유일했던 친구 하루는 이○○ 씨가 시장에 들렀다 오는데, 외출하다 돌아오는 B씨 씨와 마주쳤다고 한다. 어딜 갔다 오느냐 물었더니 중천동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잠깐 보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신 싱글벙글하면서 예전에 행려자 시절에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나 먹으라고 음료수를 챙겨줬다는 말을 했으며, 이후에도 가끔 그 친구네 다녀왔다고 한다.</p> <p>7. 이○○ 씨와 함께 김장 이○○ 씨가 김장을 하려던 차에 B씨 씨가 지나가기에 “나 김장할 건데, 간을 잘 못 봐서 이리 와서 간 좀 봐봐” 라고 불러서 같이 김장을 했다고 한다. 김장이 끝나고 배추 5-6포기와 함께 수고비로 3만원을 건네니 처음에는 손사래 치며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 씨가 계속 넣어두라고 하자 받아갔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씨와는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 파크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한때는 함께 살 결심을 했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사랑스럽게 나를 쳐다봐 주었던 사람이 광기어린 눈빛으로 날 죽이려고 쫓아온 것도 모자라, 그 일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역시 조금 지나자 돌변하여 매일 손찌검을 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아마 그러면서 B씨 씨는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은 것 같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지만 아이는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정말 피붙이 한 명만 있었어도 B씨 씨가 삶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p> <p>B씨 씨가 돌아가신 이후 여러 신문에 기사가 났을 때에만 해도 주인 내외는 혹시라도 여관 운영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름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노심초사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안주인 이○○ 씨와 B씨 씨는 친구와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나마 이○○ 씨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신 것 역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게 만들었다. 그 눈물 이후, 이○○ 씨의 말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것 같았고, 정말 한 시간이 넘도록 이○○ 씨와 대화를 나눈 것 같다. 그리고 이○○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여관 운영을 접을 생각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여관을 부동산에 내 놓았지만 워낙 이 동네 상권이 열악해 팔리지도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셨다. 그래도 다복하게 자식 셋을 두시고, 할아버지도 함께 계셔서 다행이라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말을 전하고 왔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요구르트와 냉 보리차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던 이○○ 씨의 인정 넘치는 모습을 B씨 씨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2차 취재일	2014.07.03	2차 취재장소	1. ○○ 근처 ○○마트 2. 대전 ○○ 센터

<p>만남 사람 및 연락처</p>	<p>1. ○○마트 사장님 2. ○○ 실장님 / 대전○○센터 3. ○○ 팀장님 / 대전○○센터 ○○팀</p>
<p>2차 취재 내용</p>	<p>1. 엇그제 ○○ 안주인을 통해 B씨 씨가 ○○슈퍼에서 식료품을 자주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보았는데, 사장님은 행색과 어디 살았는지나 이름을 듣고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슈퍼 안주인 분이 혹시 아시지 않을까 하고 여쭙봤지만 부재중이었다.</p> <p>2.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오늘은 일찍 마치고 청주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던 중 갑자기 ○○ 씨 케이스를 취재하다 구청에 갔을 때, ○○ 주사님이 알려주신 대전○○센터가 생각났다. ○○ 안주인 이○○ 씨의 말에 따르면 B씨 씨가 대전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센터라고 하기에 동 주민센터처럼 건물이 번듯할 줄 알았는데, 낡고 작은 벽돌 건물에 덩그러니 간판 하나만 달려있는 곳이었다. 1층에서는 ○○ 열 분 정도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셨다. ○○ 주사님께서 알려주신 ○○ 부장님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다. 사무실 역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부장님은 휴가를 내서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대신 ○○ 실장님에게 우리의 취지를 설명했고, 가족 없이 혼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으니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조심스레 여쭙었다.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에 2-3년쯤 전에 이곳에 찾아왔을지 모르는 B씨 씨를 아시냐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B씨 씨가 돌아가셨냐고 되물으셨다. 알고 보니 생전에 몇 번 상담을 진행한 인연이 있었고, 반찬지원과 같은 도움을 드려 친분이 있었던 직원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B씨 씨의 사망소식을 전달하게 돼버렸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여기 몇 번이나 오셨었고,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돌아가셨구나” 하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의 취지와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찾아온 것이라고 하니 그때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B씨 씨에 대한 자료를 찾아주셨다.</p> <p>3. B씨 씨는 2012년 9월 에 처음 오셨고, 센터에 오시는 여성분들은 거의 정신장애가 있거나 허름한 차림인데 행색이 무척 깔끔한 편이었다고 한다. ‘방을 좀 구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센터의 공동숙소는 거의 남성 ○○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를 거부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규정상 오자마자 바로 주거지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거지원 담당자와 따로 면담을 하고 검증을 거쳤는데, 워낙 깔끔해보였고, 혼자 머물 방만 있다면 신변관리도 잘 될 것 같아서 월세로 주거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p> <p>4. B씨 씨가 ○○ 실장님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식당을 운영할 때는 비싼 옷과 가방에, 집에도 비싼 가구들을 들이면서 화려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남편과 헤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갈</p>

마동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다고 한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고 보험금이 B씨 씨 앞으로 나오자 그것으로 방세를 유지하다가 그 돈을 다 쓰고 난 이후에는 매우 궁핍해졌고 따라서 소유하고 있던 명품 옷이나 가방들이 이제 자신에게는 전부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져 고물상을 불러 다 가져가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달랑 가방 두 개만 들고 기도원으로 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달마다 5만원을 내야 숙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돈을 내지 못해서 핀잔과 눈치를 받다가 결국 짐을 싸서 대전역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다. ○○동에 살 때에도 센터에 가서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발자식여지지 않았고 그쪽에서 ○○센터에 가보라고 해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센터에 올 때는 달랑 가방 하나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오셨다고 했다.

5. B씨 씨가 원하는 것은 주거지원인데, 구청의 긴급생계지원과 연계하더라도 2-3개월의 방세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이었다. 기초수급지원자가 되려면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B씨 씨의 경우 65세가 되려면 3년 정도가 남은 상태였고, 시력이 아주 좋지 않을 뿐 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3개월 지원을 받은 이후로는 거처할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주거 지원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컸다고 한다. 9월에 센터에 오셨기 때문에 9,10,11월이 지나면 한겨울이라 혹시나 추운 날 갈 곳 없이 헤매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망설였던 것인데, 워낙 본인이 당장의 주거지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후에 센터 자체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상담소'라는 곳에 가서서 일자리를 얻거나 도움을 받아 저축도 하시고,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힘을 드렸는데, 알아보니 사무소에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이후에 ○○ 실장님이 반찬 후원이 있을 때 연락을 드렸었고, 그때마다 B씨 씨가 손을 잡고 큰 고마움을 표시했고, 감사의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 한다.

6. B씨 씨가 ○○ 실장님과 상담할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자살시도를 8번 정도 했다는 것도 언급하셨고, 그때마다 실장님은 관공서의 도움을 받다보면, 또 건강상으로도 노안이 있고 하니까 이후에 차상위계층이라도 될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로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그 다음해 2월, 센터로 요양병원 매점 관리자를 구한다는 연락이 와서, B씨 씨에게 연락을 드렸고, 면접을 본다고 해서 ○○까지 가셨지만 알고 보니 수기로 매상을 장부에 적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물건을 사면 컴퓨터로 환자를 검색해서 그 앞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60세가 넘는 B씨 씨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결국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면접을 본 이후 센터에 찾아와 취업이 안 될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한두 번을 더 반찬 지원해드리고, 전화로 연락은 몇 번 드렸지만 ○ 실장님이 휴가로 쉰 이후로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

7. ○○ 실장님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

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 B씨 씨가 원했던 것은 소일거리였고 화려했던 과거를 잊고, 현재 생활에 적응해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하셨다. 공공근로도 그 당시는 ○○동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지만 전입은 하지 않았던 상태라 연고자가 아예 없고, 거주지 이탈이 된 상태였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8. B씨 씨가 가끔 받았던 반찬지원도 새 반찬이 아니라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남는 반찬을 모아 드리는 것이었는데, 워낙 깔끔하신 분이래 좀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것 없이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다'며 열일 제쳐두고 찾아와서 받아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주머니에 사탕 같은 것이 있으면 꼭 고맙다고 책상 위에 놓고 가셨다고 한다.

9. 이후 B씨 씨에게 주거지원을 했던 ○○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센터에 있는 공용숙소가 여성전용이 아니라 남성 ○○의 비율이 높고 2-3명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편하게 지낼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기 불편해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주거지원을 우선 2개월간 해드렸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호적상의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신청이 받자식여지지 않았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도 불가했다고 한다.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센터에서 주거비를 지원해드렸고, 구청을 통해 생활비를 2-3달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계셨다. 긴급생활지원비가 노숙한지 6개월 미만의 사람들에게 자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을 구청에 증명을 해야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지만,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어서 3개월만 받고 지원이 끊겼다고 한다. 주거지원팀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2012년도 11월 ○○일이고, ○○일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주거지원 사례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상담하면서 ○○상담소에 넘겨드렸지만, 그곳에 잘 가지 않으셨고, 긴급지원이 더 적합한 것 같아 그쪽으로 지원을 해드렸다고 한다.

10. ○○ 팀장님이 당시에 B씨 씨를 보았을 때는 무기력과 불안이 심각하신 상태였다고 한다. 센터 측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원칙 중 하나가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했고 가족과도 이미 다 끊어진 상태였으며 기초생활수급권 역시 신청을 할 수 없어서 팀장님께서 요양시설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 씨가 그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기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한다. 스스로 가족이 이렇게 해체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비용문제도 있었고, 아직은 60대 초반이었으므로 정신문제를 진단받는 것에 거부감이 든다고 밝히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해보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 팀장님이 보기에는 이미 무기력증 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았고, 근로를 통해 삶이 회복되기에는 불가능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11. ○○ 팀장님께서 센터에서 주거지원을 할 때, 방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연

락처를 드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B씨 씨의 경우 센터로 연락이 오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고, 심지어 센터의 관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완료했지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시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센터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보다 심리적으로 더 다가가고 신경써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일손이 부족하고, 예산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심리적으로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주거 지원 사업을 2명이 맡지만 예전만 해도 야간 3교대로 혼자 업무를 진행했기에, 자주 찾아가기가 어려웠고 찾아가도 휴대폰이 없거나 해서 허탕을 치곤하니깐 일을 하면서도 무기력함을 느끼셨다면, 그래도 한 번만 더 찾아가고 관계를 잘 형성했다면 자살 생각을 하기 전에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상담하시지 않았을까하는 말씀을 하셨다.

12.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가족이 아예 없거나, 해체된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관련된 내용을 여쭙보니 간혹 가족 전체가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가족이라는 지켜야할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1-2년 안에 모두 회복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아까 언급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받으셨지만 돌아가셨던 그 분은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혼자 생을 마감하셨다고 한다. 결국 외로움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가족이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못한다고 하셨다. 그 예로 쪽방 주민들 중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보다 애완견이 더 잘 먹고 잘 관리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다보니 가족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는지 알게 되고 가족이 없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없으면 외부의 바람이나 파도를 막아주는 것 없이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입니다”

13. 다시 ○○ 실장님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씨 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레스토랑 같이 화려한 식당이었으며, 유년시절이나 자식에 대한 말은 거의 없으셨고, 부산에 친구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셨다. 그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게 당장이라도 2-300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 손을 벌리면 끝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며 거절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 한 몸 누울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더 기억나는 것이 없냐고 물으니 한 번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장미꽃을 꺾어 “내가 줄게 없어서 이거라도 가져왔어”라고 하시며 전달했다고 한다. 아까 우리가 ○○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자리에서 B씨 씨에 대한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장미꽃 생각이 났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오래 여기서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을 이렇게 까맣게 잊고 살았구나라는 마음도 들고, 센터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혼자 생활할 수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규정을 까다

	<p>롭게 거치는데, B씨 씨는 정말 어려워져 찾아왔던 것 같으며 좀 더 빨리 처리해드리지 못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다. “어머님이 왜소하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깔끔하시고 피부도 참 예쁘셨는데, 항상 조그마한 손가방을 들고 절룩절룩 다녔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다시 눈물 흘리심) 이웃 어머니로 만났다면 그냥 제가 먹는 반찬, 식탁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이니까 마음속에 선이 있었던 것 같고, 형평성을 가지고 대해야하니까요. 사망소식을 듣다보면 저에 대한 역할을 돌아보기도 하고 제가 여자라 마음이 어려서 그런지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데 말이죠. 저는 어머니가 충분히 조금만 율타리가 있었으면, 그리고 정말 일하고 싶어하셨거든요. 과거에 음식점도 크게 운영해봤고 사람도 거느려봤기 때문에, 리더십도 통찰력도 있었을텐데 그런 일자리를 찾아도 없으니 다른 사람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는지 모르겠네 하시며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연세를 많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자식 같은 입장인데 선을 넘어서 한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연락하고 전화 안 받으셔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넘겼던 것이 아쉬워요. ○○분들 많이 만나니까 가족이 있으면 저축도 하고 일도 하시는데, 가족에 대한 율타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많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한계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다른 분들이 찾아오면 조금 더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머니랑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붙잡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머니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이었지, 그 이외에는 선을 넘을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스스로 이겨낼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자는 말을 드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천국가면 되죠”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남는다고 하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세 때 부모가 사망하여, 배움도 거기서 끊기게 됨 - 두 번째 남편과 5년 결혼생활 이후 가출해서 지내다가 생계를 위해 식당종업원 등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50세가 되니 취업이 어려워져 대구에서 7-8년을 말소 상태로 지냄 -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별거상태로 지냈고, 상담 당시 공공근로를 하며 지냈으나, 그마저도 지속되지 않음 - 작년 겨울 (2011년)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의료비가 많이 나와 수급신청을 하려는데 호적상 부인으로 되어 있어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고 함. ○○는 거절함. - 얼마 있다 사망소식을 듣고 남편의 보험 보상금을 받게 되어 현재 ○○동에 월세를 얻음. 수입에 없어 보증금을 다 쓰고 나옴 (6.16)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다행히도 센터에 찾아와 B씨 씨와 상담했던 직원 두 분을 만나 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B씨 씨의 사망을 알리게 되어 굉장히 유감이었다. 특히 ○○ 실장님은 여성 직원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B씨 씨와 유대감이 깊었던 것 같은데 B씨 씨가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으셔서 함께 울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B씨 팀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취재를 다니면서 느꼈던 복잡한 마음들이 정리가 됐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이</p>

	<p>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취재가 끝나고 나와서 센터 외관을 촬영하는데, ○○ 실장님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분과 손을 꼭 잡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 역시 취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에게 설명하면서 힘든 것이 있으면 털어놓기도 한다. 아무리 현업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도, 그리고 우리처럼 취재를 하면서 가족 없이 혼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슬픔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모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3차 취재일	2014.07.04	3차 취재장소	○○ 근처 상점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1. ○○마트 사장님 내외 2. 근처 미용실 원장님</p>		
3차 취재 내용	<p>1. 지난 취재에서 고인의 사진을 확보했기에, 사진을 들고 다시 ○○마트를 찾아갔다. 사장님께서는 얼굴을 보아하니 몇 번 오셨던 기억이 난다고만 하셨다. 사모님께 여쭙어보니,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으며 몇몇 식료품을 사간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하셨다.</p> <p>2. 미용실 원장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만 하셨다.</p> <p>3. B씨 씨는 사망 당시 다리가 출입문 쪽으로 향하고 대자형으로 누워서 사망했다. 입에 거품을 물었고, 코에서 부패액이 흘러나왔으며 양팔에서 부패흔적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시신기증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B씨” 라고 쓰인 유서가 있었다.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었고,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병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되었다.○○보험에 2011년 6월 ○○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2012년 2월 ○○일부로 실효되었고, 2007년 5월○○일에도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지만 해지되었다. 그나마 ○○에 2012년 7월○○일 신청한 매월 납부하는 ○○보험만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p>		
3차 취재 후 느낀 점	<p>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씨 씨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다. 역시 이웃들과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p>		
5차 취재일	2014.07.17	5차 취재장소	대전 ○○청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청 ○○님 ○○ 안주인</p>		
5차 취재 내용	<p>지난번에 ○○청에 갔을 때는 긴급지원 담당 분이 전산시스템이 멈춰있는 상태라서 알아봐줄 수 없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셨지만, 오늘 다시 방문했을 때는 개인정보 때문에도 그렇고 공문이 없으면 알아봐줄 수 없다고 말하셨다. 2012년 당시 담당</p>		

	<p>했던 직원 분은 그냥 B씨 씨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만 하셨다. 우리가 왔다 간 이후로 구청 내에서 이야기가 돈 것 같았다. 다른 케이스들 역시 아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기대했던 것은 아니라 실망은 크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은 있었다.</p> <p>- 통화를 마치고, ○○에 다시 찾아갔다. 안주인 이○○ 씨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동에 친구가 있다고 한 것을 자세히 여쭙봤지만, 전화번호라든지 자세한 이름 등은 듣지 못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책만 읽었을 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혹시나 그 때 작성했던 계약서가 있지 않을까 여쭙보았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하셨다. 1층 카운터로 가서 파일뭉음을 찾아보니 B씨 씨의 계약서가 있었다. 계약서는 대전○○센터 직원 분이 작성하신 듯 했다. 하지만 지장은 B씨 씨의 것이었고, ○○동 옛 주소와 이전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져 있었다.</p>		
6차 취재일	2014.07.18	6차 취재장소	대전 ○○구
만난 사람 및 연락처	○○ 빌라 주민들		
6차 취재 내용	<p>1. B씨 씨가 기도원에 가기 전까지 거주했던 빌라의 주소로 찾아갔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빌라 건물이었다. 지하부터 맨 위층 (주인집으로 추정됨) 까지 모두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이 부재중이었고 안에 계시던 분들은 절대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주인집에 여쭙보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자고 있는 아기가 깃다면서 가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었다.</p> <p>2. B씨 씨 사진이 있기에 주변 상가를 돌며 혹시 그녀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p> <p>3. B씨 씨가 몇 달간 기도원에 있었다는 단서 하나로, ○○동과 가까운 기도원부터 먼 곳까지 차례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거의 기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었고 B씨 씨를 아는 사람도 없어 아쉽게 오늘 취재를 마무리 해야했다.</p>		

(6) 불우했지만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던 인쇄공

- 시체처리구: 부산광역시 ○○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66
- 등록기준지: 경기도
- 주소지: 부산광역시 ○○구
- 혼인사항: 이혼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집 앞 골목길

- 주거형태: 월세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
- 안치장소: 부산OO묘지
- 사망원인: 추락사
- 기타: -

1차 취재일	2014.07.01.(화)	1차 취재장소	부산 OO구 E씨씨가 살았던 곳.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E씨씨가 살았던 집의 주인할머니(○○상회) 2. 부산 OO구 ○○복지관 3. ○○병원 장례식장 담당자		
1차 취재 내용	<p>1.E씨씨가 살았던 집의 주인할머니(○○상회)</p> <p>- E씨는 집 앞 골목길에서 돌아가셨고, 또 밖에서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변 이웃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에 나와있는 집 주소지로 찾아갔다.</p> <p>-E씨가 살았던 집은 OO에서도 많이 높은 곳이었다. 끝없는 오르막길을 올라가 내려다보니 OO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p> <p>E씨가 살았던 집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었고, 바로 옆집에는 문방구 겸 상회인 ○○상회가 있었다. E씨의 집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E씨가 식료품이나 담배, 술을 사기위해 이곳에 자주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 ○○상회 안으로 들어가서 할머니께 물어보았다.</p> <p>-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한분은 ○○상회의 주인이자, E씨가 살았던 집의 주인이었다. 다른 할머니는 이웃주민이었다. 인사를 드리고 우리의 취지와 소속을 말씀드리고 E씨에 대해 물어보자, 살짝은 거부감을 드러내셨다.</p> <p>인상은 어떠신 분이였는지 여쭙보자, E씨는 보통 남자 체격에 인상도 선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E씨는 이곳에 와서 라면이나 술을 사셨고(E씨에 대한 기억들)</p> <p>E씨가 밤에 사고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쓰러져있는 모습을 주인할머니께서 처음 발견하시고, 주변 이웃 분에게 부탁해 신고를 하셨다고 한다. 그 이후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술을 먹고 들어와서 3층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떨어졌다고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E씨가 사셨던 집은 비워두셨다고 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집을 한번 볼 수 있을지 여쭙보자, 그런걸 봐서 뭐하냐고 하시다가 지금은 보려고 해도 못 보는게, 그 사건이후로 E씨의 집을 정리하고 문을 잠근 뒤, 할머니의 손자분이 그 열쇠를 가져갔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들리겠다고 하고, 손자분에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쪽지를 남기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다음에는 오지 말라며 귀찮다며 말씀하셨다. 단호하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쪽지를 남기고 돌아왔다.</p>		

	<p>2. 부산 OO구 OO복지관 E씨의 집과 가까운 곳에 부산 OO구 OO복지관이 있었다. E씨가 장애5급이셨다는 할머니의 말씀에서 혹시나 가까이에 있는 OO 복지관에서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겨보았다. -그러나 OO OO복지관에 E씨에 대한 기록이나 직원 분들의 기억은 없었다. 장애 5급이면 특별히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닐 거라고 말씀해주셨다.</p> <p>3. OO병원 장례식장 주인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E씨는 돌아가신 후 OO병원에 며칠간 안치되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OO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을 만나보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OO병원 장례식장으로 찾아갔다.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 해보니, 15일정도 안치되신 것 말고는 그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E씨가 사셨던 집에 처음으로 가본 날이다. OO 꼭대기라고 할 만큼 정말 높은 동네였다. 힘들게 올라갔지만 만나고 온 주인할머니가 다음부터는 오지말라고, 말할 것 없다고 귀찮다고 오지말라고 하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할머니입장에서는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모르는 학생들이고, 거기에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에 대해 물으니 거부감이 드시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주인할머니에게서 E씨에 대한 애정이 정말 느껴졌기 때문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꼭 더 듣고 싶었다. 다음에는 상회에 가서 취재하면서 쓸 볼펜도 사고, 컵라면도 먹으면서 할머니의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p>		
2차 취재일	2014.07.03	2차 취재장소	<p>1. OO구청 2.부산 OO구 E씨가 살았던 곳.</p>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1. OO구청 OO과 2. E씨가 살았던 집의 주인할머니(OO상회), 할머니의 자식분</p>		
2차 취재 내용	<p>1. OO구청 OO과 E씨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OO 구청에 갔다. OO구청 OO과에 근무하셨던 당시 담당자를 만나서 E씨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키 172cm, 보통체격 - E씨는 2013 23:00에 OO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3층 옥탑방에서 혁대를 풀고 소변을 보려다가 골목길에 추락하셔서 두부손상, 경부손상, 흉부손상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 E씨는 200X년에 OO씨와 결혼을 하셨다. - 두 분은 200X년 6월에 결혼을 하고, 200X년 9월에 이혼 을 했다. 또 두 분 슬하에 200X년생인 자식이 있다. (200X년에 결혼과 이혼, 출산을 하셨다.) - E씨가 돌아가신 후, 구청에서 OO씨께 연락을 했지만,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p>		

혼 당시부터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존재도 모르고 있고, 알리고도 싶지 않다고 하시며 시체처리를 구청에 위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 어머니 ○○씨는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힘들어 시체인수를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 그리고 E씨는 “○○사”의 직원이셨는데, 그중에서도 회사 동료로 가깝게 지내시던 ○○씨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다. 복지담당자의 말로는, ○○씨가 전처인 ○○씨와 장례절차와 시체인수로 협상을 하려했으나, 잘 되지 않아 E씨는 무연고가 되었다. 그 뒤로 구청에 전화가 와서 입관 때 내가 회사 직원들과 가도 되느냐라고 문의를 하였고, 담당자는 당연히 오셔도 된다고 하며 이야기를 했지만 나오지 않으셨다고 한다.

2. E씨가 살았던 집의 주인할머니(○○상회), 할머니의 자식분

1차 취재 때, 완강히 취재를 거부하시며,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던 주인 할머니께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 다시 ○○상회를 찾았다. 분명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할머니에게서 E씨에 대해 따뜻한 애정이 느껴져서 다시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르막길을 올라 ○○상회 앞에 도착하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다.

평상에는 자식 내외분으로 보이는 두 분이 계셨고, 상회 안에는 주인할머니와 동네 이웃분 네 분이 계셨다. 우리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왜 또 왔어, 지금 오면 우리자식한테 혼나, 무서워 얼른 가! 얼른 나가”하시며 내보내셨다. 그 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자식이 우리에게

“야, 너희 뭐야, 너희들이 그 이틀 전에 왔다간 개들이야? 니들이 뭔데 뭘 보여달라 말라야 건방지게 뭐야 너거들 뭐야 경찰이 가래? 경찰에서 보냈어? 뭐야!” 라고 소리치셨다.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자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고, “건방지게 니들이 뭔데 남의 인생을, 그것도 죽은 사람을 파헤치려고 하냐 / 밥먹고 할 짓 없으니까 저러고 다니지 / 됐으니까 빨리 가 빨리 저리가/됐으니까 지금 바로 가/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라고 말하시며 굉장한 화를 많이 내셨다. 점점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아 인사를 드리고 옆 골목길로 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한 번 더 찾아뵙기로 했다.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자식 앞에 가서 “속상하신 마음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많이 속상하시죠?.. 그런데 저희 정말 다른 의도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직접 듣고 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너희들이 뭔데 건방지게 남의 인생을 그렇게 파헤치려 하는건데? 어디서 건방지게 어? 니들이 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뭘 죽은 사람 동의없이 파헤치려고 해? 뭐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 근데 됐어 됐으니까 그냥 가, 빨리 가!! 취재? 해도 상관없어. 파헤치고 싶어? 파헤쳐!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너희들 인생도 내가 파헤칠꺼니까, 또 너희집 찾아가서 다 파헤쳐놓을테니까 너희들 집 주소랑 이름이랑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들어가. 문따줄게 어?!건방지게 니들은 그렇게 하기 싫으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남의 인생은 파헤치려 들어? 이런게 어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고, 파헤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야

	<p>기를 들어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리자 자식께서 “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아? 어? 장례 우리가 치러줄려고 했어. 아무도 없다길래 우리가 직접 장례 치뤄주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싫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리고 어머님도 자식같이 생각하고 잘해줬었는데, 그 기억 겨우 묻어두고 사시는데 그걸 너희들이 뭔데 와서 들먹여? 니들이 뭘 아는데” 라고 말하셨다. 자식도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셨다. 주인 할머니도 “지난 일 가지고 잘사는 우리가족 불화 일으키지말고 어여가. 뭣 하러 이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이런 거 하려고 해. 다른 좋은 거 짝을 거 많으니까 그거 가서 짝어. 우리 자식 화나면 나도 못 말리니까 어서 집에 가”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자식과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취재를 하는 것이 이 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 같아 정중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취재를 끝냈다.</p>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눈물 참느라 고생한 날이었다. 자식께서 우리를 보자마자 정말 화를 크게 내셨다. 생각지도 못하게 무섭게 화를 내셔서 눈물이 났다. 그래도 우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겨우 겨우 참았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사실 나는 이대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크게 화를 내셔서 다시 가기 무서웠는데, ○○이가 다시 가보자는 말을 했다. 다시 가서 우리가 그 분 인생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드리고 한 번 더 해보라며 ○○이가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가서 말씀드리는데 처음 찾아갔을 때는 무서워서 눈물이 났지만, 두 번째 갔을 때는 죄송해서 눈물이 났다. 자식의 이야기를 들으니 주인 할머니분의 가족들이 E씨와 많은 정을 나눈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E씨를 자식처럼 생각하며 이 것저 것 챙겨주시고 마음을 쓰셨고, 자식도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E씨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서 화로 표현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꾸 우리에게 자식이 건방지다고 하셨는데, 아마 자식의 입장에서 그분들만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그 겪었던 아픔들을 모르는 우리가 그분의 인생에 대해 물어오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말 나는 건방졌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의 취재에서도 나는 그 인터뷰이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친했었던 분인지에 대해 생각했었는데, 인터뷰이 입장에서는 그때 살아계셨을 때의 그분들과의 추억들과, 돌아가셨을 때는 마지막까지 못 챙겨드렸던 죄책감과 안타까움, 그때의 아픔, 슬픔들을 다시 꺼내야하는 것 이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p> <p>인터뷰이의 마음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다 이해한다, 얼마나 슬프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건방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죄송스럽다.</p> <p>일차 취재 때 E씨가 사시던 곳을 방문하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E씨의 집이 비어있다고 얘기해주셨다. 이때까지 취재를 하면서 고인분들이 사셨던 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고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도 집을 보고싶었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집을 담아야 돼. 그곳에 들어가야 E씨에 대해 더 알고 더 좋은 취재를 할 수 있어!'</p>

	<p>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이 정말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오늘 2차 취재 때 E씨의 방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인집 자식 분을 만났는데 아주 크게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내쫓으셨다. 이대로 갈순 없다는 생각에 실례를 무릅쓰고 다시 자식분께 가서 "아버님, 저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저희 그래도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닙니다..."라면 말씀을 드렸지만 끝내 자식분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는 울면서 길을 터벅터벅 걸어내려왔다.</p> <p>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맨 처음 다큐프라임 고독사 제작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면접을 보았을 때 이 일을 단순히 '경쟁'내지는 '합격과 불합격'정도로 생각했었다. 지금 나는 나의 그 생각들이 아주 철없고 단순하다 못해 건방진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죽음은 생각보다 주위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그것을 들춤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조심성과 진심이 있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태까지의 취재가 모두 후회가 된다. 진심을 담아 고인의 흔적을 찾아다닌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많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가족관계를 파헤치고 그 가족들의 속사정만이 궁금한, 제3자의 호기심을 대변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내가 이 취재를 하면서 진정으로 바라보고 느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갈수록 취재가 어렵고 가슴이 아프다.</p>		
3차 취재일	2014.07.14	3차 취재장소	E씨가 근무하셨던 ○○사 (부산)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사장님 ○○사 사장님</p>		
3차 취재 내용	<p><○○사의 사무실 여직원분></p> <p>-1년도 안되게 근무하셨고, 일을 정말 잘했음. E씨는 인쇄실에서 인쇄기술자분을 보조하는 일을 하셨음. E씨는 동료분들과 잘 지내고 주관도 뚜렷해서 독특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계셨음. 불의를 참지못함.</p> <p>-다른 직원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안하고 땡땡이를 치려고 했는데, E씨가 그분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신 에피소드가 있음.</p> <p>-E씨는 신용불량자셨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사에서 성실하게 일함. 사장님은 E씨를 이회사의 재목으로 키워보겠다고 했으나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까지 안타깝다고 말씀하심</p> <p>-토요일에 퇴근해서 모레 월요일에 봅시다~하고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정말 놀랐음. 직원들끼리 모여서 병원에 갔으나 보호자가 아니라고 보지 못했음. ○○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사고를 당하신게 아니라 E씨는 토요일에 친구분이 새로 차를 구입해서 축하하러한다고 하며 퇴근하셨음.</p> <p>-토요일에 멀쩡히 인사하고 갔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 당시에 너무 놀랐기도하고, E씨가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함.</p> <p>-E씨와 ○○씨가 같이 종종 ○○사에 오기도 하셨음. 이○○씨가 ○○사에서 근무 하시지 않았지만 이 회사에 취직하려했으나 사장님과 협상이 잘 되지 않았음.</p> <p>-젊은 나이에 가족이 없다는게 왜 그럴까 궁금하셨음.</p> <p>-사장님이 유난히 아끼셨음. 근무하셨을때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E씨에 대한 애정이</p>		

	<p>남달랐음. -E씨의 이력서를 볼수 있을까 했지만, 사장님과 면담으로 취직하셔서 그런 문서는 남아있지 않음.</p> <p><○○사에 12년 근무하신 남자직원분></p> <p>-가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 집안사정이 복잡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음. (자식도 있지만 혼자산다는 것) -같은 업무가 아니었을뿐더러, E씨가 근무하셨던 당시에는 상당히 바빠서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한잔 먹거나 하지 못했음. - 회사특징상 직원들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있어, 또래가 많이 없음. 회사안에서 친구라고 할만한 사람이 없음. - E씨는 같은 인쇄계통의 다른 곳에서 근무함(○○산업) - 본인과 다른 직원분들과 모여서 사건이후에 바로 찾아 갔지만 경찰에서 조사해야한다고 장사치를 때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그 뒤에 연락이 오지 않았음.</p> <p><○○사 사장님</p> <p>-가족도 찾아주기 위해서 전처인 ○○씨와 직접 만나기도 하셨지만, ○○씨가 자식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며 거절. 가족이 반대하는 장례를 치러주는 것도 이상해서 장례를 치러주지는 못했음. -E씨가 신용불량자였는데, 그것을 회생시켜주기 위해서 법무사를 고용.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그 심사가 한달 정도 걸리는데, 그 한달을 앞두고 E씨가 돌아가셔서 매우 안타까움. -E씨가 돌아가신 후, 가매장 된 곳(○○공원)을 찾아가서 “편히 쉬어라, 잘 지내라” 하며 인사를 하고 오기도 했음.</p>
<p>3차 취재 후 느낀 점</p>	<p>○○ : 가까웠던 이웃분에게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속상했지만, 오늘은 E씨가 일했던 ○○사에 가서 새로운 E씨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날이었다. ○○에서 꽤 먼 사상에 ○○사가 있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느낌이 단단하고 따뜻한 회사인 듯했다. 직원 그 어느 누구에게 여쭙봐도 E씨에 대해 사소한 기억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기억하는 E씨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E씨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사실 그동안은 혼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생전에 열심히 사시지 않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을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E씨의 직장인 ○○사를 방문한 이후로 정말 생각이 바뀌었다. 신용불량자였던 E씨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위해 6개월 남짓 ○○사에서 정말 누가봐도 정말 열심히 한다 느낄 정도로 일하셨다고 한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느껴졌으리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E씨를 보고 사장님도 힘을 다해서 도와주신 듯했다. 법무사를 고용해 E씨의 개인회생을 돕기도 해주셨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되기 몇 주전, E씨는 혼자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런 사연을 알고나니 너무나도 속상했다. 삶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분인데, 밝은 미래를 앞두고 사고를 당하신게 너무나도</p>

	<p>안타까웠다.</p> <p>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온 달콤한 주말에, 친한 친구분인 ○○씨와 즐거운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며 집에 돌아왔을 E씨의 모습이 그려진다. 정말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번 취재에서는 고독사하신 모든분들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우리가 고독사취재로 E씨를 만나뵙게 되었지만, E씨는 고독하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다. E씨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이리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되어서 다행이다. E씨 주변의 손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취재는 정말 뜻 깊었다.</p>		
4차 취재일	2014.07.22	4차 취재장소	부산 ○○빌딩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1. ○○ 취재원의 아버지</p> <p>2. E씨의 친구 ○○</p>		
4차 취재 내용	<p>-구청에서 알게 된 E씨의 친한 친구였던 ○○씨에게 전화를 돌려보기로 함. 부대 한 카페에서 10시 반경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드림. 매번 지인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 실패했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전화를 했었는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며 범일동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오라고 하심.</p> <p>-○○ 취재원의 아버지의 회사가 있어 점심을 얻어먹고자 아버지를 만남. 함께 점심을 먹으며 자식들이 이렇게 고독사를 취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쭙어 보며 인터뷰를 진행함.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전해보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취재를 하면서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열심히 하라고 하셨음. 동시에 세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20대 대학생들이 취재하는 것에 대해 어린 마음에 상처입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음</p> <p>-약속시간 2시에 맞춰 ○○씨의 회사에 찾아가감. 우리를 조금은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상황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음</p> <p>-○○씨는 E씨를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일용직 노동현장에서 만났다고 하셨음. ○○씨는 그때 하시던 사업이 망해 가족을 살려 먹일 돈을 벌기위해 일용직 노동을 시작하셨고 E씨는 그 전부터 그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함.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노동현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며 친해졌다고 함. E씨도 몇 년 전 사업이 망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음.</p> <p>○○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함. 자신이 다시 잘 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함. 그러나 E씨는 자신과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 함. 자신이 일용직 노동을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어디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함. 또한 자신의 안 좋았던 과거얘기를 자존심상 해하며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함. ○○씨는 E씨가 젊은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줄도 몰랐다고 하셨음. 누나가 있다고는 얘기를 했으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안하셨다고 함.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자식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함. 오히려 생전에 ○○에 애인이 있다고 E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함. 함께 불꽃놀이도 보러가고 했다고 함.</p> <p>○○씨는 E씨와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랐고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자존심 강하게 사나'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함. 그래서 자신이 혼도 많이 내었고 싸우기</p>		

	<p>도 하였는데 E씨가 주로 이○○씨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수용했다고 하심. E씨가 ○○○씨를 매우 믿었던 것 같음.</p> <p>E씨와 일용직 노동현장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 이후에도 같이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함. 일용직 노동을 먼저 그만둔 ○○○씨가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으로 넘어가서 E씨를 불러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고 함.</p> <p>왜 E씨를 많이 챙겨 주셨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가정이 없는 형님이 안쓰러워 보였고 자신이 아니면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많이 챙겨주고 E씨가 자신에게 많이 의지했다고 함.</p> <p>○○씨는 E씨가 사시던 예전 동네에도 가보고 집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한 적이 있다고 하셨음. E씨의 사고가 났던 집에도 가보았고, 집에서 E씨는 주로 게임을 즐겨 하셨다고 함. 취미활동으로 게임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만나기도 하였다고 함. 무슨 게임 동호회에 가입하셨는지 아느냐고 물었으나 그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심.</p> <p>E씨의 집주인 자식 분 얘기도 E씨가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하셨음. E씨가 일이 없어 6개월 정도 놀고 있을 때 집주인 자식이 따라 일을 같이 했다고 함. 산에서 모터를 심고 물을 끌어올리는 일이었다고 함. 한 달 정도 같이 일을 했을 거라고 함. E씨와 집주인 자식분이 친하게 지냈다고 함.</p> <p>E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자신과 E씨, 그리고 전 회사에 있었던 동료와 함께 술을 같이 먹었다고 하셨음. E씨가 그 때 술을 먹으며 영업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함. ○○○씨는 부딪혀보라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고 함. 그 날 따라 E씨가 많이 비틀거렸고 많이 먹은 듯해 보여 먼저 택시를 태워 보냈다고 함. 7시에 만나 9시에 택시를 태워 보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함. 그날 얘기했던 E씨의 마지막으로 얘기 중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는지 물어보자 E씨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함. ○○○사에서도 하는 일을 잘 해보고 싶고 자신의 개인 신용도 한 달 후면 회복이 된다고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함.</p>
<p>4차 취재 후 느낀 점</p>	<p>○○○ :</p> <p>오늘은 E씨와 친구였던 ○○○씨를 만나 뵙고 왔다. 사실 인터뷰를 할 수 없을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범일동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말해주셨다. 사실 너무 긴장되고, 감사하고, 부담도 되어서 속이 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씨를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런 긴장과 부담은 이내 사라지고, 내가 E씨와 ○○○씨의 옛날 추억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이전의 취재에서는 잘 느껴볼수 없는 감정이었다. 같이 일 끝나고 자갈치의 꿈장어 집에서 술한잔 기울이는 모습, 자신의 미래를 말하며 마음을 다잡는 E씨의 모습, 형님 아우 하며 즐겁게 만났을 모습들. ○○○씨도 웃으면서 그행님 옛날에 그랬었지 하며 추억에 잠시나마 잠기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그런 ○○○씨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이와 나와 사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되었다. 만약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있으셨나요? 추억에 남는 장소가 있나요 하면서 물어보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웃기기도 하면서 마음한쪽에서 짙한게 올라왔다. 이유모를 눈물도 조금 나려고도 한다. ○○○씨와 이야기 나누면서 ○○○씨의 얼굴에 있었던 미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p>

5차 취재일	2014.07.24	5차 취재장소	부산 ○○산업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산업 직원분들		
5차 취재 내용	<p>-○○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씨와 E씨가 같이 출퇴근을 하며 일하셨다던 ○○산업으로 가보기로 함.</p> <p>-버스를 1시간 정도 타고 도착함.</p> <p>-인터넷 지도를 보며 ○○산업을 찾아 나섰지만 쉽게 보이지 않았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산업을 찾아내어 올라가 보았음.</p> <p>-회사 안에는 3명의 직원분들이 계셨음. 직원분들께 2년전쯤 일을 하셨던 ○○씨와 E씨에 대해 아시냐고 물어보았음.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새로 온 사람들이라 잘 모른다고 하셨음. 한 분이 아셨으나 오다가다 얼굴 한번 마주친 게 다라고 하셨음.</p> <p>-E씨의 이력서라도 보기 위해 사장님이 계신지 여쭙어보았으나 잘 나오지 않는다고 전해주셨음. 또한 ○○산업이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마 예전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심.</p> <p>-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은 듯 보였음. 번호를 적어드리고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회사를 나옴</p>		
5차 취재 후 느낀 점	<p>○○ : E씨에 대해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취재가 잘 풀리지 않고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힘들었다. 하지만 4차 취재 때 처음으로 고인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분을 만날 수 있었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E씨를 머릿속에 더욱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함께 일을 하셨던 과정과 예전 직장까지 알려주셔서 그 정보를 가지고 ○○산업으로 오늘 가보았다. E씨의 ○○사 이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다른 동료분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장님도 잘 나오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 실망하고 허탈하였다. 갈수록 더욱 무더워지는 날씨에 부산의 끝과 끝까지 간 것이었는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고 돌아와야 해서 무척이나 허탈하였다. 취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보를 듣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무더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전히 아쉬움과 허탈함은 강하게 남는다. E씨의 흔적을 어떻게 더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겠다.</p>		

(7) 자유를 갈망하던 공사장 근로자

- 시체처리구: 부산광역시 ○○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55세
-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 주소지: -
- 혼인사항: 無 (동거녀 추정)
- 연고자: ○○형제 중 ○○째
- 사망년도: 발견일로부터 약 5~6개월 전 추정
- 사망지: 부산광역시

- 주거형태: 연립주택 (월세)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집주인 가족
- 안치장소: -
- 사망원인: 심장마비 추정
- 기타: 공사근로자. 2개월 전부터 변사자 방에서 심한 악취와 구더기 발생. 집주인이 '5년 전 백골 사체 발견' 뉴스를 청취 후 이상히 여겨 사다리를 타고 창문 확인.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백골 시체 발견.

1차 취재일	14. 06. 23(월)	1차 취재장소	○○동 기찻길 ○○마을 ○○ 파출소 ○○동 주민센터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집주인 자식 ○○씨 (51세) 2. ○○동 ○○통 통장 ○○씨(○○마을) 3. ○○ 파출소 소장 4. ○○동 지역주민센터 5. ○○구청 ○○과 ○○씨		
1차 취재 내용	<p>55세 G씨. 우리 팀의 첫 번째 취재대상이신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의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등록기준지인 ○○동 집을 찾아 나섰다. ○○번지임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를 연신 외쳤지만 아무 미동도 없었다. 우리는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기에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중년의 남성분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셔서 곧장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집주인 노부부의 자식 ○○씨(51세)였다. 약 5분후 다시 집 밖으로 나오시는 ○○씨에게 이곳에 사셨던 G씨에 대해 조심스레 여쭙었더니 이미 1년 전에 끝난 얘기를 들춰내지 말라고 강하게 방어하셨다.</p> <p>Q. "혹시 G씨에 대해 아시는지..." A. "이미 끝난 얘기를 왜 자꾸 꺼내려 하는데예.. 이미 경찰들이 와서 사건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앞에 운동공원도 생기고한데.. 흥흥한 소민 돌아서 뭐합니까. 마 됐습니다"</p> <p>○○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집을 나가셨다.</p> <p>두 번째 만나본 분은 G씨 주택에서 조금 위로 떨어진 곳에 사시는 인근 주민이었다. 취재 당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온 줄 아시고 본인은 불교신자이며, 현재 명상중이라며 강하게 거부하셨다. 우리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G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셨다.</p> <p>Q. "혹시 요 앞집에 사셨던 G씨에 대해 아시는지..." A. "신문에서 먼저 봤지.. 주의 동네사람들이 그 소식을 거의 알긴 해도, 친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아마. 주변 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 아마 그 사람은 화장했다 하던데..?" 여기서 갑자기 다른 여자 주민이 대화에 들어옴. "우리도 잘 모르긴 몰라도.. 그 집에 어떤 여자가 한 번씩 드나들던데..?"</p>		

우리는 G씨의 주소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OO구 OO마을 앞 벤치에 앉아 이후 우리의 거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OO마을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안쪽에서 공예하시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다.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젊은 남녀가 와서 수상히 여기시는 것 같았다. 그분은 우리가 G씨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느낌으로 아시는 것 같았다.

Q.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A. "여기 OO마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공예, 예술작품, 강좌 이런 거 하는데고.. 여기랑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곧이어 OO마을 직원은 우리에게 통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고, 약 5분후 통장님과 바로 만나 볼 수 있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입니다. 혹시 이 앞에 사셨던 G씨에 대해 좀 아시는게 있으세요?" "평소에 전혀 관계가 없었나요?"

A. "거기 집주인이 90대 노 부부거든. 집주인이 자식이랑 같이 살아. 아마 집주인 자식이 거의 유일하게 그 사람 얘기를 알꺼라.. 일용직 노동했다 카는데.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옆문으로 들어오니까는 거의 볼 일이 없지 뭐.."

Q. "통장님은.. 이 지역에 사시면서 그래도 이래 저래 불일이 있었지도 않나요?"

A. "그게.. 그 사람이 기초수급 신청도 안하고 살았더라고. 뭐 신청하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진 않지만.. 자기가 손만 내밀었다면 우리도 그렇고 앞에 교회도 있고 도와줬을 텐데.. 뭐 그렇게 전혀 없었으니깐에.. 그 왜 '뜨내기'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런거였지"

Q. "뜨내기요?"

A. "연고도 없이 혼자서 이래 방 얻어가꼬 뭐 일하러 가고 왔다 갔다가.. 이 집에서 그 사람이 일하러 갔으면 불도 꺼져있고 해야 하는데, 며칠로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이상하다 해서 집주인 자식이 작은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시신을 발견한거라... 자기 집 일이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소문 돌까봐 얘기하기 싫어하는 걸끼라.."

현재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위의 재개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집을 팔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 OO파출소 : 파출소에서는 시신이 발견되면 사건의 경위만 조사함.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 때 기록은 문건으로 남아있지 않다. 시신처리는 지역주민센터나 동사무소로 찾아가보라고 말해줌.

파출소장 曰 : "작년 10월 당시 백골시신 사망자(G)사건은 주위에서 떠들썩했다"

-주민센터曰 : "무연고 사고가 생기면 해당구(OO구)에서 담당합니다. 주민센터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OO구청 OO과 OO 씨 曰의 "제가 이 업무 맡은 지 일주일 밖에 안됐긴 한데.. 작년 무연고 처리 기록에는 G씨가 없습니다. 2013년 이후 무연고자 처리 총 O건 중 어

	<p>편 기록도 없습니다. 만약 그 분의 본적이 다른 곳이라면 다른 구에서 장례를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다가 연락해보세요”</p> <p>-부산 ○○공원 홈페이지 무연고자 검색 : G씨에 대한 무연고처리 기록 없음.</p>		
<p>1차 취재 후 느낀 점</p>	<p>○○ - 무엇을 어떻게 묻고 만나야할 지 고민스러웠던 준비기간을 끝내고 첫 취재를 시작했다. G씨의 사망지는 너무나도 아담한 지역 OO센터의 바로 맞은편 연립주택이었다. 폐가 같은 곳에서 돌아가신 그 분의 삶과 너무 대조되는 위치라고 생각했다. 그 분의 삶을 상상하며 그 동선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분의 죽음을 쉬쉬하는 동네 주민들과 철저하게 방어하는 집주인 아저씨로 인해 첫날은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첫날은 일부러 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았음)</p> <p>우리는 그의 흔적을 찾아 지역 주민 센터, 파출소, 구청에 연락을 취하고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봤지만 그의 흔적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시신처리구라는 OO구청에서조차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니.. 그 분의 시신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된 것일까? 이 질문이 내 머릿속에 끊이지 않았다.</p> <p>2차 취재를 기약하고 돌아온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그분의 삶을 상상하고 그려보았다. 부산지역 수많은 언론들의 사망경위기사와는 다른, 살아생전 그 분의 삶에 대해 조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연고자가 없을까.. 진짜 없을까? 어디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을까? 지역 주민들과도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은둔의 G 씨. 그 분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p> <p>○○ -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음 찾아간 집 앞. 우연히 집으로 들어가시는 집주인을 보였지만, 말씀하시기를 완강히 거부하셨다. 들춰내서 좋은 일이 없다고 하셨다.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마주한 상황은 당혹스러웠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설득의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단 주위 이웃분들에게 물어보았다. 보도를 통해서 고인에 대해 많이 아시긴 했지만 직접 보고 만난 일은 없는 듯했다. 하지만 취재하면서 인상깊었던 것은 주민분들이 어느새 주변의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하셨던 것이었다. 고독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편 우리의 질문이 주민분들을 책망하는 투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인의 삶의 흔적을 찾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다.</p> <p>▶주의점 : 다음 취재부터는 한명이 인터뷰(○○)를 할 때 다른 한명(○○)은 꼭 메모 or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렵듯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펜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p>		
<p>2차 취재일</p>	<p>14. 06. 24(화)</p>	<p>2차 취재장소</p>	<p>- OO구청(전화인터뷰) 부산 OO경찰서 ○○팀</p>
<p>만남 사람 및 연락처</p>	<p>부산시청 ○○과 OO구청 ○○과 부산 OO ○○병원 (○○직원)</p>		

	<p>OO경찰서 OO팀 OO경찰서 OO팀장 OO</p>
<p>2차 취재 내용</p>	<p>2차 취재에 앞서 작년 주위를 떠들썩하게 했다던 G씨의 사건을 검색해봤다. '부산서 또 백골 시신 발견돼... 5개월 전 숨진 50대 일용직 노동자' 그때 당시 부산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종편에서도 이 사건을 직접 리포터 해갔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G씨에 대해 알 수 있었것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남성 - 공사장 근로자 - 평소 술을 매우 많이 마심 - 발견당시 부엌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을 집주인 자식이 발견 후 신고. -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OO연구원(양산 소재)에 DNA분석을 의뢰함. <p>오늘은 시청 OO과 통화를 했다. 무연고자 장제처리 담당 업무를 보시는 OO씨. 하지만 전화 통화의 주요지는 각 구에서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구에서 처리하지, 시에서는 일절 처리하지 않는 다는 말과 함께 소득 없이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 어제 통화한 구청직원과 상반된 증언이 이어졌고, G씨의 죽음에 의문점이 하나 둘씩 늘어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씨가 돌아가신 OO구 OO동에는 OO병원이 있다. <p>공사장 근로자였으면 평소 몸이 아프셨을 때 OO병원을 갔을 것 같았다. 지인중에 OO병원 직원이 있어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주민번호는 모르지만, 고인이 작년 사망당시 55 세였으니 주민번호가 57로 시작된다고 추정했다. 결과는 57년생 G씨가 한분 나오는데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했다.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다음날 유품정리결과 고인이 맞았던걸로 확인)</p> <p>본래 오늘은 팀원형제와 함께 취재하러 가기로 한날이 아니었으나, 어제 사건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아 혼자 무작정 OO경찰서로 향했다.</p> <p>-OO경찰서 OO팀 처음 가보는 경찰서라 많이 떨리긴 했지만, 무작정 수사과 형사과가 있는 3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작년 발견당시 자연사 인지 변사인지를 밝히기 위해 OO가 이루어졌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OO팀 방문을 두드렸다. 형사 두 분이 계셨다. 공문을 가져와 정식 승인을 받고 오던지, 민원신청을 하던지 하라고 하셨다. 작년 10월 OO동 백골시신 사건에 대해 안다고 하셨으나,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 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고 아시는 것이 없냐고 묻자, 맞은편 앉아 계시던 형사님께서.. 당시 자신이 부검했던 사람이라며 그 분은 무연고자가 아니라 서울 부근에 유가족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OO팀에 가보라고 하셨다.</p>

	<p>-OO경찰서 OO팀 OO팀 면접하기 위해 약 5분정도 기다렸다. 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셨다. Q. "혹시 작년 10월 OO구 OO동 OO번지에 사시는 55세 G씨 사건 담당하신 형사님을 좀 만나 볼 수 있을까요?" A."누구요? 그 사건 내가 담당했는데?" Q. "저는 고독사 하신분들의 삶의 흔적이 궁금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A. "그 사람은 무연사가 아니에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한테 한번씩 반찬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그 형제가 형제한테 자기 처지를 보이기 싫어서 집은 절대로 안 보여줬다고 해요. 그 사람 수사 할 때 집에 들어가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영수증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고 엄청 깔끔한 사람 같더라고. 월세내는 날도 꼬박꼬박 지켰다고 하네요. 월세 집이지만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나름 잘 해놓고 살았네요. 식사는 주로 시켜 먹은 것 같다고 집주인이 그러네요. 집에서 반찬 냄새 안나더라고." Q. "아.. 그래요? 발견당시 백골시신이 부엌에서 발견됐다면데.." A. "백골시신? 아니라. 그냥 시신이 조금 말라있었을 뿐이었고. 부엌이 아니라 컴퓨터방에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져 있었지." Q. "아.. 진짜요? 음.....그 분 공사장 근로자라고 하던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 아시는거 있으세요?(우리가 받은 G씨의 자료와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 A. "공사장 근로자가 아니고 편의점이라 PC방 이런데 알바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한사람이라고 형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좀 있고 이랬나 봐요. 발견당시 집에 있는 문이 다 잠겨있었기 때문에 타살흔적은 없었고, 형제가 시신을 인수해서 장례식을 치러줬지 아마"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직접 그 사건을 담당했다는 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은 부분의 의문이 풀렸다. 특히 OO구에서 무연고처리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p>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OO- 나는 내일 다시 그 분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풀리지 않았던 몇몇 의문이 풀린 동시에 몇 가지의 의문점이 더 생겼기 때문이다. 공사장 근로자? 편의점, PC방 알바? 부엌에서 발견? 컴퓨터방에서 발견? 뭐지... 뭐지... G 씨의 삶이 그려질 듯 그려지지 않았다.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집주인 자식분이 분명히 싫어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딪쳐야 겠다고 생각했고 가능하다면 귀가 좋지 않으시다는 90대 할아버지 집주인을 만나봐야 겠다고 생각했다.</p>		
<p>3차 취재일</p>	<p>14. 06. 25(수)</p>	<p>3차 취재장소</p>	<p>부산 OO구 OO동 OO 관리사무소 OO경찰서 OO팀 OO경찰서 OO팀</p>

<p>만남 사람 및 연락처</p>	<p>○○동 세탁소 앞 이웃주민 3명 G씨 댁 집주인 할아버지 ○○경찰서 ○○팀 ○○ ○○경찰서 ○○팀 ○○ 형사님</p>
<p>3차 취재 내용</p>	<p>- 이웃주민 Q. 혹시 이 길 끝에 사셨던 G씨에 대해 아세요? A. "공사근로자였지. 이웃들이랑 전혀 교류가 없었다. 형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다지 깔끔하지도 않았고, 더럽지도 않았다."</p> <p>오늘도 집주인 자식 ○○씨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가셨다. 우리는 조심스레 집 문을 두드리며 할아버지를 애타게 불렀다. 10분쯤 흘렀을까 유리창에 실루엣이 보이고 뺨짝 마른 할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걸어 나오셨다. 귀가 잘 안들리신 할아버지는 우리가 반가우신지 6.25 시절 얘기부터 쪽~ 해주셨다. 우리는 아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며 취재 분위기를 잡아갔다. G씨에 대해 조심스레 물으니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다.</p> <p>- ○○ 할머니 인터뷰 A. "우리 작은방에 있던.. 술만 쳐 먹던.. 죽었다. 그 사람을 안단말이가? 그 사람은(주 위에는)아무도 없고 벌써 죽었잖아? 한 3년 됐나?(나이가 많으셔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추정됨)우리 집 작은방 있잖아 저기 두나. 그 놈이 집짓는 철공사 하는데 그 술 만 먹고 우리 집 방세 120만원 떼먹고 죽었다." Q. "아무 가족이 없었어요?" A. "응.. 가족이 없어. 흔적도 없어. 죽었지만은 아무도 안와. 우리 막내자식이 문 창문으로 이래 내다보니깐 막 기절해있더라. 우리는 쥐가 죽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상은 순사(경찰)하고 정부에서 치뤘다" Q. "혹시 여기 사실 때 얼굴은 자주 보셨어요?" A. "몰라.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셔가 얼굴이 시커멓드만. 물을 먹다가 넘어져서 죽었는가봐. 그렇다"</p> <p>- ○○ 할아버지 인터뷰 Q. "작년에 여기 앞방에 세들어 살던 남자 분 기억나세요?" A. "그 놈이 우리 집에 12년 있었다. 문 딱 잠귀버리고 2년 있었다이가. 2년 동안은 방세도 안 주제 수도세 안 주제 한 달에 7만원이나 되는데 전기세까지 다 물었다. 그 사람 노가다 오야봉이다. 하루에 14만원씩 받는다. 하루는 추석에 돈 좀 달라 하니 내일 가불해서 준다 하더라. 근데 어느 날 보니 방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전기다 켜놓고.. 사흘동안 불을 안 끄는기라. 우리자식보고 한번 봐봐라 하니, 문이 다 잠겨져 있어서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자식이 '아버지 큰일났습니다. 사람이 죽어있습니더' 하더라. 막 벌레가 기어나오는기라. 그래서 경찰서 신고안했다. 아직 웃은 그대로 있다. 경찰은 동에가서 치위달라 하더라. 동에서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 치위봤자 저 방은</p>

사람도 안 들어올끼고 방을 손 볼 돈도 없고, 그냥 마 내뒀다. 너거 한번 볼래? 망치로 꼭 닫아놨는데 너거 한번 볼래? 사람 죽은거는 경찰이 다 싹고 갔고 지 살던건 다 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병이 많이 있다. 으휴 얼마나 더러운지..마 그냥 있다. 거짓말 한번 하고 한달 지나가고 거짓말 또 한번 하고 한달 지나가고.. 그 돈 안받아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았다. 200~300만원 전기세 수도세 내가 다 물었어. 그 사람이 양심이 없어..

-OO경찰서

어제 찾아갔던 OO경찰서의 증언에 힘입어 고인의 집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생각지 못한 배려로 고인의 방을 취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라.. 어제 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실제 사망 장소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부엌에 시신이 덮여져있었던 흔적이 있고, 평소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 있듯 같았던 형사님의 증언과는 달리 고인의 방은 정리되지 않은 더러운 상태였다.(주로 술병이 텅굴었고, 부엌에는 컵라면과 라면봉지가 많았음)혼돈이 왔다.

'우리는 무슨 함정에 빠진 것일까..? '

다시 찾은 2차 인터뷰에서 어제 본인이 다른 사망자와 착각하신 것 같다며 말씀하셨다. 변사처리된 경우가 하루에 3~4건씩 있다고 하시며.. 본인이 어제 말한 분은 다른 분이라고 정정하셨다.

나는 이 과정에서 취재전 워크샷 때 들었던 '함정에 빠지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한 사건에 대한 한사람의 이야기가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굳건하게 다짐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저녁 7시, 우리는 G씨 사건 담당 형사인 OO팀 OO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우리가 찾던 G씨의 실제 이름은 H이었다. 형제의 신분으로 30년을 살다 가신 것이다. 고인의 유품(편지)에서 풀리지 않던 두 명의 성함(G, H)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 사건 경과

- 작년 9월, 부산 중부경찰서 6개월 된 백골사체 발견 뉴스 보도
- 뉴스를 접한 집주인자식 OO씨가 몇 개월간 보이지 않은 G (실명:H)씨도 혹시나 해서 사다리를 타고 집을 들여다 봄(6~7월경 구더기)
- 부엌쪽에 옆드려 있는 시체 발견/ 경찰에 신고/ OO 형사 출동
- 시신 수습 후 신분증 복사본 확보/ 가족에게 연락(O형제)/ 'G'이 아니라 'H '이라고 확인/ 부검 과정에서 OO도에 살고계신 어머니, OO에 살고 있는 실제 G, 돌아가신 H씨의 사체(대퇴부 10cm) DNA 비교결과 친자 확인.
- 경찰 측에서 화장 후 가족에게 인계(처음에는 사체인수를 거부하려고 했음)

*OO 형사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를 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췌장암으로 죽었다. OO에서 동거했다고 추정. -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 반장으로 일했다. - 첫째는 OO이고 막내 형제는 OO이다. - 3달 만에 사체를 인계했다.(시체 인치하는 곳에 87일 가랑 계심) - 모친은 OO에 계심 - G(형제)씨가 H(형)에게 등기로 통장, 주민등록증을 보냈다. -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세수를 하려다 었어진 것으로 보임. 사체 수습시에 배 쪽에 세수 소쿠리가 박혀있었음.) - H씨 셋방 옆에 거주자는 몇달전에 야반도주 - 집 앞 노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사진이 있음(가족이 사진을 보고 H씨라고 확인했음). 그리고 애인의 사진도 있음. - G씨가 형제의 신분으로 살게 된 계기는 24살 군제대 이후 예비군훈련에 가지 않으려고 집을 나간 이후부터라고 밝힘(가족) - 23~24살 때부터 연락이 두절(호적에서도 빠짐) - 몇 년전 OO에 거주(건설현장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추정) - 형제의 증언 : 형제(H)은 어릴 적부터 호기가 썼다. 역지를 잘 부렸다. 싸움을 하면 몇날 며칠 동안 했다. 깡다구가 있었다. '나 찾지 마소'하고 집을 나갔다.
<p>3차 취재 후 느낀 점</p>	<p>오늘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다시 찾아간 고인의 사망지에서 집주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사망지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었다. 6.25참전용사이시며 90대 고령의 할아버지는 연로하신 할머니와 자식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계셨다. 마치 손자 손녀가 찾아온 듯 환대해주시는 노부부의 모습에 취재보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 한참 후 G씨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껄끄러울 수 있을 법한 G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고인의 방도 흔쾌히 보여주셨다.("너희들 한번 볼래..?")</p> <p>고인의 방 현관문은 나무판자로 못질을 해 봉한 상태였지만, 직접 문을 뜯어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셨다. 들어가자마자 시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랫동안 봉인된 집이라 그런지 공기도 쾌쾌했다. 거미줄이 가득한 통로를 지나자 고인이 사망당시 발견된 장소와 자세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방을 둘러보며 고지서, 영수증, 편지 그리고 의문의 여인이 새겨진 핸드폰을 가져나올 수 있었다.)</p> <p>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다시 다녀왔고, G씨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 머릿속에는 고인에 대한 생각보다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중학생 손자 생각이 더 많이 났다. 취재를 하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그 집 사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 아이의 엄마는 도망갔다고 하고 집 또한 매우 어렵게 사는 것 같았다. 아이가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G씨의 방을 둘러볼 때 아이가 불쑥 들어와 그 장소를 보았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p> <p>우리가 진짜 필요한 일을 하는 걸까? 의문이 가지지 않는다.</p> <p>○○ - 사실 오늘 취재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p> <p>(오늘이 취재 3일밖에 안되었다니!!!!)</p> <p>고인의 시신이 녹아내린것을 밟기도 했고, 그 방에 들어가 그의 흔적을 찾고 유품을</p>

	<p>수거하는 일이 나에게서 큰 충격이었다. 담담한 척 했으나.. 솔직히 힘들었다. 그분의 미스터리한 삶은 잠시 뒤로 하고 고독사라는 취재를 지원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힘든 밤을 보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죽음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p> <p>또한, 같은 사건 같은 정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일방적인 나의 섭섭함이었지만, 같은 팀 안에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으니 서로에 대한 오해과 섭섭함이 커졌던것 같다.</p> <p>저녁 11시가 다되어서야 오늘의 취재를 겨우 끝낼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G씨 죽음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기로 한 월요일까지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p>		
4차 취재일	14. 06. 30 (월)	4차 취재장소	OO경찰서 OO병원 OO역 근처 식당 고인의 집 근처
만남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O OO병원 OO계 직원 2. OO집 주인 아주머니 3. OO식당 조OO 씨 4. OO님 / 월OO 5. OO, 할머니 6. OO동 OO통 통장OO 7. 주변 인력사무소 		
4차 취재 내용	<p>G 씨에 대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보았다.</p> <p>24세 > 집에서 나옴 - 사우디, 이라크, 아랍 쪽에 철근일을 하러 갔다고 함 35~39세 > 형제 찾아가 500만원 빌리려 하다 거절당함 39세 > 동거녀와 바닷가 (여성분 사진이 찍힌 날짜로 추정) 45세 > 벚꽃사진 45세 이후 > OO역 OO집</p> <p>이야기를 듣고, OO경찰서를 나와 근처 OO병원으로 향했다. 고인의 방 안에서 나온 OO병원의 처방전을 들고 접수대에 가서 이 분에 대해 알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분께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셨다. 다만 처방전에 나와있는 질병분류기호를 인터넷에서 찾아 어떤 병인지 찾아볼 수 있다 하셨다. 검색해보니 무릎과 관계된 상처인 것 같았다. 하나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산재를 당하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진료가 아닌 산재로 접수한 것을 알게됐다. 직원분의 말로는 진료를 받고 산재로 인정이 되면 후에 치료비를 돌려받는 방식이라 하셨다. 고인이 일하던 곳에서 다쳐 몸이 불편한 상태로 계시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취재는 고인이 찍힌 사진에서 실마리를 찾기 OO역으로 향했다. 다행스럽게도, OO집이 아직</p>		

	<p>있었다. 사진의 모습 그대로 플라스틱 테이블도 가게 앞에 나와있었다. 혹시 고인을 아실까 기대를 품고 주인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모르신다하셨다. 인상착의를 말로 설명해봤지만 사진으로 보지 않고는, 모르겠다하셨다. 이 주변에 홀로사시는 분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서 오래 드나들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다하셨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하셔서, 나중에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나왔다. 근처 다른 식당인 '○○식당'에 들어가 물었더니 이 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 ○○가 다 알고있다며 불러주셨다.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많은 소득은 없었다. 통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가는 길에 ○○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할머니택에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통장님과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다. 고인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기에, 주변에 인력소개소에 가서 고인을 아시는 분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시는 분은 계시지 않았다. 인력일이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나와도 되니, 만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찾지 않는다 하셨다. 주변 슈퍼에 들러 막걸리를 자주 사가셨던 분이 있냐 물으니 너무 많아 모른다 하셨고, 마을 입구에 있는 막걸리를 파는 집에 들러 물어도 잘 모르겠다 했다. 여기까지 취재를 하고 취재 내용을 정리 하고 마쳤다.</p>
<p>4차 취재 후 느낀 점</p>	<p>오늘 오전 고 G씨의 수사기록을 보며 그분의 삶의 실마리는 거의 다 풀렸다고 생각한다. 첫 취재때의 막막함과 비교하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분의 삶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도 그 조각을 찾기위해 생전 찾으셨다던 식당. 일했을법한 인력사무소, 슈퍼가는 길 등 여러곳을 열심히 돌아다녔다. 10시가 넘는 시간에 취재 마무리를 하며 우리팀은 취재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인의 삶,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우리만의 질문이 빠진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한참동안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주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직접 발로 뛰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도 우리는 내일 만남을 기약하며 또 한번 파이팅을 외쳤다. G씨의 삶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일까 궁금했다.</p> <p>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람들을 통해 고인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쩌서 고인은 혼자사는 삶을 선택했을까 궁금증이 든다. 취재 후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독사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처해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분과 같이 젊었을 때부터 가족과 멀리하며 지내온 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는 다른 팀의 의식도 공감되는 부분이었다. 홀로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해 좀 더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p> <p>오늘 취재 과정에서 집주인 자식분이 취재를 하는 우리를 보시곤 크게 화를 내셨다. 왜 하지말라는데 자꾸와서 찍느냐고 말이다. 원치 않으시니 집을 촬영하지 않는다,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다 말해도 그만하라 큰소리를 내시고는 집에 들어가셨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꺼내기 싫어하는 고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니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당분간 집주위에서 취재하는 것 보류하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고인의 방을 치울 수 있는 지 여부를 물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다.</p>

5차 취재일	14. 07. 01	5차 취재장소	○○역 주변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집 주인 아주머니 2. 역사 주변 어르신		
5차 취재 내용	고인이 생전에 방에 남겼던 사진 두 장이 있었다. 그 중 한 장에 배경이었던 식당, ○○집 주인 아주머니께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무리 할 일이 있다며 내일 오전으로 인터뷰를 잡았다. 나오는 길에 사진을 떠올리며 고인이 앉아 있던 그 장소에서 고인의 빈자리를 촬영했다.		
5차 취재 후 느낀 점	할머니께서 취재하기를 꺼려하시는 듯해 죄송했다. 영화촬영도 한 번 했었는데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간듯하다. 조심해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차 취재일	14. 07. 02	6차 취재장소	○○집 / ○○개발
만난 사람 및 연락처	- ○○집 주인 아주머니 / 남자 손님 - ○○개발 직원분들		
6차 취재 내용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 들려, 주인 아주머니께 인터뷰를 했다. 어머니께서 고인에 대한 기억이 없으셔서 단지 소감을 듣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했다. 옆에서 맥주를 드시던 남자분께서 인터뷰를 들으시곤 G이라는 이름을 되뇌이시더니 모르겠다하셨다. 사진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다하셨는데, 사진을 보고도 말로 표현할 밖에, 사진을 얻을 수가 없으니 아쉬움이 들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지난번에 들리지 못했던 ○○개발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갔다. G씨에 대해서 아시냐 물었더니 G이라는 사람을 안다해서 기대했지만, 고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 여기까지 취재하고 마무리했다. 고인의 마지막을 수사했던 기록을 통해 어느정도 삶의 윤곽을 찾았지만, 사망지 근처에서의 삶의 흔적을 찾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집주인 자식분이 화를 내시던 모습이 선명해 집 주변을 다시 찾기도 어려웠다. 하여 그동안 미뤄뒀던 ○○공원에 갔다. 무연고자분들을 따로 모셔둔 방이 있었지만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 방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6차 취재 후 느낀 점	인터뷰를 하고 패스트푸드점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 창가 쪽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데, 휠체어를 타고 환자복을 입은 여성분이 경사로를 올라오고 있었다. 뒤에서 밀어주던 분은 행인인 듯 가게 앞까지 도와주시곤 가셨다. 휠체어를 타신 분께서는 가게에 들어와 주문을 하시고는 내리막 걱정을 하셨다. 내리막 경사로 끝이 도로변에 마주해있어 위험한 곳이었다. 주문을 받던 직원분이 포장된 음식을 건네며, 내리막 끝까지 데려다 주고 올라왔다. 친절함.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사소한 친절이지만, 친절을 베풀고 그로 인해 좋은 기운을 나누는 것. 누군가의 자식 딸인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신 분,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내려 노력하시던 모습, 음료수를 권하시고, 음식을 권하시고, 한 잔 하라 하시던 그 모습 속에서 희망과 웃음을 찾는다. 처한 현실에 벽에 무기력해져도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는 과정, 친절함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처음 만남은 어색하고, 경계하더라도 얘기를 하다보면, 모두 어무이고 아버지다. '또 오라' 말하시는 것이 빈 말이 아닐지라, 한 30분 인생살이 고달픈 것 듣다보면 남이 아닌게 되는 게 아니겠나? 이게 나를 위한 위로고 친절하지 못한 이들을 만날 때 내가 보여야할 태도라고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죽음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7차 취재일	14. 07. 23(수)	7차 취재장소	형제 G씨 전화인터뷰 고인의 자택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G씨(G씨 형제) 2.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		
7차 취재 내용	<p>약 3주 만에 G씨 케이스를 다시 조명했다. 우리는 그동안 G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고인의 삶을 추측 할 수 있었다. 고인의 방에 들어가게 된 날 찾아낸 전화번호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차마 전화를 걸어보지 못하고 다른 케이스를 조사했다.</p> <p>오늘 우리는 잠시 내려놓았던 G씨 케이스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벽지에 보일듯 말듯 적혀져있는 번호였지만, 우리는 최대한 살려내어 'OO'이라고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다. 오랜 벨소리 끝에 "네, H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넘어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G씨의 형제 H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대해 얘기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했다. 처음에는 잘못전화한 것같다고 하시더니.. 우리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고 조금씩 형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고독사라는 것 자체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으신 듯 했다) 그분은 형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주셨다. 다음은 그분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다.</p> <p>-본인은 G씨의 형제 H이다. -살아생전에 형님의 부탁으로 주민등록 복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드렸다. -형님은 78~80년 사이에 이라크 바스락에 일하러 갔다. -고향은 OO. -본인은 OO, OO조선에서 일을 했다. -G씨는 만나는 여성분이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여성분 암으로 사망) -생전에 형님은 술을 마시고 전화가 자주 왔다.("너 전화번호 아직 안바꿨구나.."라고 했다고 하심) -아버지의 경제적 몰락으로 인해 G씨는 고등학교 졸업이 힘들었다. -G은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 형제들이 (본인포함)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났다. -G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 -김삿갓처럼, 한량처럼 인생을 사셨다. 안타깝다. -돌사진은 있는데 컷을 때 사진은 없다. -OO고등학교 OO회 졸업생이다. 본인은 OO회 졸업생이다. -가세가 기울고부터 고등학교를 다니기 힘들었다. 그때부터 형님이 빚나가기 시작했다. 날라리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집에 짐이 되기 싫어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크에서 돈벌어서 월 80만원씩 부쳐줬다. -심지가 깊은 분이셨다. -용각산(기침이 잦을 때마다 먹는 가루)을 드셨다.(중동의 모래바람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p>		

	통화를 끝냈다.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7월 ○○일 금요일 00로 올라가는 표를 끊었다. 이제 그분의 자택에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7차 취재 후 느낀 점	<p>생각지도 못한 통화였다.</p> <p>전화번호와 이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약 7개의 전화번호 목록 중 마지막 번호를 먼저 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G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 잊어지지 않는다. G씨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았노라고 얘기해주셨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와 주민등록증 사진속의 그분과 잘 매치되지 않았다.</p> <p>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형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며 본인을 자책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내일이면 G씨의 자택으로 향한다.</p> <p>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만.. 그것보다는 형제분의 아픔을 잘 위로해드리는 따뜻한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아픈 기억이겠지만, 그분의 삶에 또 다른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취재가 됐으면 좋겠다. (힘들겠지..?)</p>

(8) 장애를 가진 동생을 끔찍이 아꼈던 형

- 시체처리구: 서울특별시 ○○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69
- 등록기준지: 전라북도
- 주소지: 인천광역시
- 혼인사항: -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의료기관
- 주거형태: -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
- 안치장소: 용미1묘지
- 사망원인: 다제내성 결핵
- 기타: -

1차 취재일	2014.07.15	1차 취재장소	※ 고인의 주소지 인천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1. 39세 ○○ 님(고인의 동생 분)</p> <p>- 고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시고 계심.</p> <p>- 왼쪽 귀에 보청기로 보이는 것을 하고 계셨고, 말을 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으심.</p>		
1차 취재 내용	<p>1.</p> <p>오늘은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에 살지 않는 팀원 두 명을 고려해 아침 10시에 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역에서 만나 취재를 시작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인천 ○구 ○○로를 찾아가기 위해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을 해보</p>		

았다. 검색 결과 지하철역에서 고인의 주소지까지는 2Km정도 떨어져 있었다. 날씨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웠던지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게 되었다. 10여분 동안버스를 타고 가다 OO초등학교 역에서 내려 고인의 주소지까지 직접 도보로 이동했다. 2분정도 오르막길을 걸었을까? 힘겹게 건다보니 고인의 주소지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다. 그곳은 도로 한 가운데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바로 옆으로 고가도로가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 번 오피스텔 건물을 보았다. 4층 정도 높이의 회갈색 벽돌집이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지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분을 옮기시고 계시는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 분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보았다.

“뭐 좀 여쭙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셨던 분으로 하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 혹시 아세요?”

“형이에요. 돌아가신 분. ”

“아, 네”

“I 동생. J입니다”

“아, 형님이세요?”

“아니, 형 돌아가셨어요.”(이 부분에서는 J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본인이 I씨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보임)

“아,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동생 분이세요?”

“네.”

단순히 건물에서 관리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던 그 분이 바로 고인의 동생 분이신 I씨였다. 무연고자 분으로만 보였던 고인의 연고자를 만나 뵈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연고자 처리가 되셨잖아요? 그러가지고 형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저희는 그냥 대학생이구요”

“아, 네.”

“혹시 이야기 조금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건물 밖에서 I님을 만나 뵈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I님과 함께 고인의 주소지이자 지금 동생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께서 혹시... 작년에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아파서 돌아가신 거예요?”

“장이 안 좋았는데... 간도 안 좋고... 기침... 가래... 많이 심했어요. 계속...”

“아...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형님께서?”

“네. 작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듣기 어려웠으나, 이후 더 물어보고 고인

께서 결혼하시고 1998년도에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녀는 없었다고 하셨다. 또한 이혼하시고 1년 정도 후에 동생 분과 함께 사셨다고 하셨음)

“돌아가실 때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럼 혹시 같이 계셨나요? 형님 돌아가실 때?”

“아니요.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고인 분과 동생 분이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으나, 점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인께서는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고 얼마 후 바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음)

“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그럼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계셨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에서?”

“아니요. 병원에서요. 8월 달(2013년 8월 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음)에 병원에 실려 갔어요.”

“병원에서는 며칠 정도 계셨다가 돌아가셨어요?”

“8월 달...(2013년 8월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대략 나흘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 같음)”

“형님께서 치료를 원하지 않았어요.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서...”

“폐암 말기셨나 봐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선 일어나셔서 서랍에 놓인 앨범을 가지고 오셔서 사진을 보라며 건네주셨다. 동생 분께서는 생전에 고인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신 듯 했다. 사진 속의 배경도 순천, 태안, 독립기념관 등 여러 곳이었다. 고인께서 병세가 악화되시기 전에는 두 분이서 함께 등산도 하고(고인께서는 생전에 등산을 좋아했다고 한다. 취미로 자주 즐기지는 못하셨지만 등산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고 함)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기셨던 것 같다. 고 J씨와 동생 분이신 I씨 두 분은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있기도 하고, 서로 찍어주기도 하는 우애가 깊은 형제였던 것 같다. 그러한 모습이 사진 속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I씨와 앨범을 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누나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누나 분이랑 연락은 자주 안 하세요?”

“누나가 정신병원에 있어요.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미쳤어요. 계속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귀가 안 들려서 연락을 못 해요.”

“그럼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는?”

“OO이요.”

“전라도 그쪽에 계세요?”

“아니, OO에 있어요. OO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OO에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시겠네요?”

“네.”
 “원래 고향이 OO세요?”
 “아뇨. OO데, 엄마가 OO에 사셨어요.”(정확히 듣지 못하고 계속 되묻는 형식이었다. 원래 고향은 OO였으나 OO으로 이사를 가셨고, 고인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OO 사셨다는 말씀인 것 같음)
 “그럼 OO에는 아버지 혼자 사시고요?”
 “네
 “자주 왔다 갔다는 하세요?”
 “아뇨, 못가요.”
 “아... 가기가 어려우시죠?”
 “네.”
 “그럼 전화통화도 못하시겠네요. 귀가 안 좋으셔서...”
 “네.”
 “그럼 아버지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뵈어요?”
 “서울로 올라 오셨었는데, 98년에 올라 오셨어요. 형이 아버지 서울로 데려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아버지 뵈는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한 번 찾아 간 적 있어요. 형이랑 같이 살 때...”
 “그게 혹시 언제쯤...?”
 “2011년쯤...”

고인의 어머니는 (고인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고인의 누나 분 (확실하지는 않으나 누나인 것으로 추정)께서는 정신과에 입원해 계신다. 또한 고인의 아버지는 충남에서 혼자 사시지만 귀가 안 좋으셔서 통화도 못하고, 여건이 안 돼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동안 가지고 계셨을 회한과 외로움이 말씀하시는 동안 묻어 나오는 것 같았다.

“형님이랑은 그럼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서울에서 여기로 2013년 3월 달에 이사 왔어요.”
 “여기로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엄마 살아계셨을 때 이쪽에서 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도 형님이랑 계속 같이 사셨던 거예요?”
 “네.”
 “서울에서요?”
 “98년도에 형이 이혼하고 나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같이 살게 됐고요.”
 “그럼 같이 사신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나 봐요? 형님이랑은 언제부터 같이 사신 거예요?”

“99년부터 같이 살았어요.”

“형님이 아프시기 전에 성격은 어떠셨어요?”

“저한테 잘 해줬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부터 계속 혼잣말 하고,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형이 왜 이러지 싶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뭐 때문에 그랬던 거 같으세요?”

“기침, 가래 나오고서부터 그러는 게 심해졌어요.”

“그럼 아프고 나서 심해지신 거네요? 정신적으로 힘드셨나 봐요.”

“네.”

“근데 일은 계속 하셨고요?”

“네.”

“아프시기 전에는 혼잣말 하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깜빡깜빡 하는 건 있었어요.”

“아, 깜빡깜빡 잊어버리긴 하셨는데 아프시기 전에는 혼잣말 하고 그런 건 없으셨고요.”

“네.”

“아프고 나서부터 성격이 좀 변하셨나 봐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폭력도 쓰고. 형이 나를 때렸어요.”

“아... 서로 싸우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형이 말라서 저는 형을 때리진 못했어요.”

“형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유 없이 그러셨던 거예요?”

“네.”

동생 분께서는 고인이 1998년 이혼을 하시고 1년 뒤인 1999년부터 같이 사셨다고 한다. 왜 서울에서 사시다가 OO으로 오셨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사셨던 곳이라고 한다.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OO서 사셨던 것 같음) 고인께서는 생전에 중국집 배달, 택배 배달과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들은 이야기이지만, 사시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다 결국은 인천으로 오셨던 것 같음) 고인께서는 생전에 아프시고 나서 많은 변화를 겪으신 듯했다. 혼잣말을 한다거나 동생 분을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다거나 하는 등의 예민함을 보이셨다고 한다.

“형님께서 병원가시고 난 후 3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원에는 못가보신 거예요?”

“아뇨. 가봤는데 거기서 알아서 치워버렸어요.”

“병원에서 알아서 무연고자 처리를 하신 거예요?”

“네.”

“아 동생분이 아프셔서...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장애인인데... 말을 잘 못해요.”

“아, 말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세요?”

“네.”

“그럼 병원에서 동생 분이 장애인이니깐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신 거예요, 형님 돌아가시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고인이 무연고자가 되신 이유가 나타난 대목이었다. 동생 분께서는 장애가 있으시고 고인의 사후 처리를 할 수 있을 사정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이었다. 결국 고인은 돌아가신 후에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무연고자가 되신 것이다.

“찾아가실 때 혹시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지하철 타고 가셨어요?”

“아뇨. 주인한테 5만원 빌려서 택시 타고 갔어요.”

“혹시 그 때 적었던 주소는 지금 없으시고요?”

“네. 다 찢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워서... 형 돌아가신 다음에 자살 시도를 많이 했어요.”

J씨는 형님이신 고 I씨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셨다고 한다. (20대 시절에도 집을 나와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형님과 함께 사시다가 형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다시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 한다. 아마도 혼자라는 외로움이 우울증이 되고 형님이 돌아가신 충격이 상당한 듯 했다)

“8월 달에 이제 형님이 돌아가신지 1년이 되시잖아요. 일산 쪽에 용미리 묘지라고 있는데 무연고자 처리가 되시면 그쪽에 안치가 되시더라고요. 그건 모르고 계셨어요? 거기 안치 되신 건?”

“네.”

“거기는 찾아가시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용미리 묘지 주소를 알려드리고 갈까요?”

“네.”

고인께서 돌아가신 날은 2013년이다. 다음 달이면 이제 돌아가신지 1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J씨에게 형님이 안치되신 곳을 알려드리고, 주소를 적어드렸다. 혹시라도 8월에 가실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인께서 사셨던 주소지에서 고인의 동생 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밖으로 나왔다.

2.

밖으로 나와 다시 오피스텔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는 J씨와의 대화 내용을 되짚어 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빼먹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고인께서 일하셨다는 중국집. 고인이 아프시기 전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J씨와 30여분 정도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5분도 채 안

	<p>되어 문을 두들기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건물에서 100m정도 떨어진 슈퍼로 가서 J씨께 드릴 비락식혜와 두유를 사들고 찾아갔다. 사온 것을 J씨께 드리고 약소하나마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린 후, 고인이 생전에 일하셨던 중국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금호시장(이라고 말씀하셨으나 확실하지는 않음) 골목에 위치한 중국집. 고인의 생전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의 말을 전해 듣고 J씨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p>
<p>1차 취재 후 느낀 점</p>	<p>드디어 취재 날, I님께서 살았던 OO동은 우리 동네와는 먼 동네고, 예전에 학생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나다녔던 게 전부였다. 큰길가 바로 옆에 위치한 고인의 주소지를 찾았다가 우연히도 건물에서 나오는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바로 I님의 동생, J씨였다. 취재를 하면서 고인의 지인이 아닌 유족을 만나 빈 건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집 안에 들어가 고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동생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I님께서 빛이 많이 있어서 폐암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치료를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빛의 액수,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많은 빛을 지게 되신 건지 궁금했지만 거기까지 여쭙보진 못했다. I님께서 본인이 폐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생각해 봤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도 자신이 떠나고 난 뒤의 상황이 더 걱정되지 않으셨을까 싶다. 홀로 계신 아버지, 정신병원에 있는 누나, 장애인 동생 분까지... 어느 하나 마음 쓰이지 않을 곳이 없으셨기에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도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만 같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치료를 해서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분이셨지만 또 다른 현실에 밀려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느껴보지 않는 이상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것 같다.</p> <p>동생 분께서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히 해주시다가 사진을 보여주셨다. 사진을 보니 건강하셨을 적 모습이라서 그런지 정말 아파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평소엔 일을 하시면서도 일요일에 쉴 때마다 시간 내서 등산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 아빠 생각이 났다. 연배도 비슷하시고 등산, 그리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던 부분이 많이 닮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진을 보고 난 후 I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안타깝게 느껴졌다. 다른 취재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연민과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느껴졌다. 고인의 사진을 접해서였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동질감을 느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아팠다.</p> <p>동생 분께서는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이지만 질문에 답도 잘 해주시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니, 형님께서 떠난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그래도 같은 건물 분들이랑 안부도 묻고 교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안심이었다. 동생 분께서 형님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셨는데, 올해 8월 달이 형님께서 돌아가신지 1주기가 되는 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제작진과 함께 동행 취재를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p>OO : 고인분의 사진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진을 보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분의 모든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동생분이 해주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고독사로 알려진 고인 분께 사실은 가족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몸이 불편한 동생 대신 병원에서 무연고처리를 진행했다는 것, 생전에도 몸이 안 좋은 자신과 동생을 챙기며 힘들었던 고인분의 삶...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두 분 형제의 고단한 삶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또 그런 힘든 삶이 동생 분께도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다. 고독사가 그냥 단순히 가족에게서 버려진 죽음인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분의 삶과 죽음을 들으면서 고독사는 세상에게서 버려진 죽음이구나 싶었다.</p> <p>OO : 취재를 하면서 처음으로 고인의 가족을 만나게 됐다. 문전박대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선뜻 맞아주셔서 놀라운 마음이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취재를 하면서 처음으로 고인이 살고 계시던 곳에 들어가 보았다. 그동안 고인의 주소지 건물 외관만 보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일반적인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이었지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와서인지 웬지 집 안이 쓸쓸해보였다. 고인의 동생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중에서도 고인과 고인의 동생 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가장 앞섰던 것 같다. '우리가 찾아와서 괜히 아픈 곳을 찌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동생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생 분의 삶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가 동생 분에게는 너무나 큰 것만 같았다. 30여 분 남짓이었지만 동생 분과 정이 든 것 같았다. 이야기를 나누고 든 생각은 하나인 것 같다. '이제부터 J씨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다.'</p> <p><추후 취재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J씨가 고인께서 안치되신 용미리 묘지에 가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해봐야 함. 2. J씨께서 말씀해주신 고인이 생전에 일하셨던 중국집을 한 번 찾아가봐야 함. <p><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인이 생전에 일하셨던 중국집 사장님(중국집을 찾고 나서 가능하다면...) 		
2차 취재일	2014.07.17	2차 취재장소	※ 고인이 이사 오기 전 살았던 금호동 지역 - 서울시 금호동 ※ 금남시장 O집 ※ 고인께서 생전에 근무하셨던 중국 음식점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O아파트 경비 할아버지 69세 OO 님 2. OO집 아저씨 3. 금호역 앞 중국음식점 OOOO 사장님 (50대 중반 추정) 		

<p>2차 취재 내용</p>	<p>1.</p> <p>오늘은 I씨의 2차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기로 한 곳은 고인께서 인천으로 이사 가기 전에 사셨던 금호동이였다. 아침 9시. 이른 시간에 취재를 위해 금호역에서 모이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출퇴근으로 매우 바빴던 다른 역들과는 달리 금호역은 꽤나 한산한 분위기였다. 다 모이고 나서 고 IOO 씨께서 금호동에서 사셨던 곳으로 찾아가하기로 했다.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흔적이 다 사라진 곳이지만 IOO 씨가 이 동네에 사셨을 때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었다. 고인께서 사셨던 곳의 주소를 찾아보니 OO 아파트 주변이라고 나왔다. 아파트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언덕을 따라 계속 해서 올라갔다. 한 2분쯤 지났을까? 아파트 너머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보였다. 아마도 IOO 씨가 사시던 곳인 것 같았다. 우리는 재개발이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다. 경비실이 마침 눈에 들어왔고 몇 가지를 여쭙보기 위해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p> <p>“뭐 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무슨 곳인가요?”</p> <p>“아파트 짓는 데요.”</p> <p>“아... 그런데 언제부터 공사 시작한 거예요?”</p> <p>“2014년... 1월부터 시작된 거야.”</p> <p>“그럼 저기... 전에는 주택이었어요?”</p> <p>“이거 짓기 전에는 달동네였지.”</p> <p>“그럼... 저기서 전에 사시던 분들은 주로 어려우시던 분들이었나요?”</p> <p>“예. 그렇죠.”</p> <p>“그럼... 저기 사시던 분들은 언제 다 이사 가신 거예요?”</p> <p>“그건 벌써 오래 됐지. 한 2년 전에...”</p> <p>낮선 사람이 질문을 했음에도 경비 할아버지께서는 선뜻 맞아주시고 대답해주셨다. 경비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나서 아파트 너머로 보이던 재개발 구역이 생전에 IOO 씨께서 사셨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후 할아버지께서는 재개발 구역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자 우리를 옥상으로 안내해주셨다. 옥상에 올라가니 재개발 구역이 한눈에 들어왔다.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곳은 재개발을 하기 전까지 산이었고, 그 위에 판자촌들이 모여 있는 달동네였다. 이후 2년 전부터 그곳에 사시던 분들이 다 이사 가시고 재개발이 진행 됐다고 한다. 고 IOO 씨가 어렵게 사시다가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신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p> <p>시간이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곳에서 경비 할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본인이 사셨던 이야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에 대한 이야기 등.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이야기를 마치고 경비 할아버지께 이 근처 시장에 대해 여쭙봤다. 할아버지께서는 선뜻 안내해주시겠노라며 우리를 금호역으로 데려다 주셨고, 옆길로 쪽 가면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배웅해주시고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셨다. 너무나 감사한 경비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다.</p>
---------------------	--

2.

우리는 OO아파트를 지나 금남시장을 향해 걸어갔다. 금남시장의 인도는 매우 좁아 한 사람 밖에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는 고인의 동생 분께 들은 2층 중국집을 찾기 위해 건물을 주시하며 계속 해서 걸어갔다. 오전부터 취재를 진행하다 보니 두 시간이 지나 열한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슬슬 출출함이 밀려오던 시기. 우리는 옆에 보이는 집에 있는 떡을 먹기 위해 길을 멈춰 섰다. 떡을 고르고 계산을 한 후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집 아저씨에게 이 근처 중국집에 대해 여쭙았다.

“혹시 이 주변에 2층에 위치해 있는 중국집이 있나요?”

“저기 골목에 중국집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1층이고, 2층에 있는 곳이라면 금호역 앞에 있는 중국집이 2층일 텐데.”

“아, 이 주변에는 없고요?”

“2층에 있는 곳은 역 근처에 밖에 없지. 이름이 OOOO이었나?”

“그 중국집 혹시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지.”

“이사 왔나요?”

“응, 저쪽 재개발 지역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사 왔지 그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기막힌 우연이었다. 혹시나 싶어 여쭙았는데 이 근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단순히 떡을 먹기 위해 들렀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알게 됐다.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의 우연에 대해 서로 놀라워하며 다시 금호역을 향해 뒤돌아갔다.

3.

금호역 앞에는 2층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 ‘OOOO’이 있었다. 바로 IOO 씨가 일하셨던 곳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사장님께 IOO 씨에 대해 묻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배달과 음식 준비로 매우 분주해보였다. 식탁 한편에는 일회용 그릇에 담긴 단무지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했다. 30분이 지난 후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께 물어볼 요량으로 계산대로 향했다.

“잘 먹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

“네, 제가 사장인데요.”

“뭐 좀 하나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래 전에 일하셨던 분인데 ‘IOO’ 씨라고 알고 계시나 해서요.”

“IOO요?”

“네. 여기서 4년 정도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 때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종업원 말고 사장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종업원이셨어요. 한 10년 정도 전쯤에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p>“아, 여기 사장이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서 장사한지 10년 됐어요.”</p> <p>“10년이면 IOO 씨 그만두고 나서 사장님이 바뀌셨나 보네요. 혹시 이전에 사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p> <p>“네.”</p> <p>(연락처를 종이에 적고 나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p> <p>“이거 뭐 문제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p> <p>“네, 저희는 그냥 대학생들이에요. 아, 그 예전 사장님께선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p> <p>“아마 중국집 하고 있을 거예요. 강남 쪽이었나?”</p> <p>“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IOO 씨가 중국집을 그만두신 즈음에 중국집 사장님이 바뀐 것 같았다. 하지만 중국집 사장님께서 이전 사장님의 연락처를 알려 주셔서 너무나 다행이었다. 이후 사장님께서 연락처를 알려주신 게 걸리셨던 모양인지 우리에게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사장님을 안심 시켜 드렸다. 그리고 나서 이전 사장님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물어봤으나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이는 알려주신 연락처를 통해 우리가 추후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우리는 중국집에서의 상황을 마무리하고 계단을 내려 왔다.</p>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OO: IOO 님께서 이전에 사셨던, (지금은 재개발 돼서 없어져 버렸지만) 금호동 주소로 찾아가 보니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바로 옆에 아파트에 둘러보러 갔다가 운 좋게도 좋은 경비 할아버지를 만난 덕분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공사 현장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근처에 있는 남산에서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아마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IOO 님께서 살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지도상으로 주소를 찾아보니 재개발 지역의 위쪽 즈음에서 살았다고 표시가 되는데, 경비 할아버지께 여쭙보니 그곳은 낮은 산이었기 때문에 판잣집 형태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꾸준히 일을 해오셨지만 빛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이후 IOO 님께서 생전에 일하셨던 중국집을 찾기 위해 주소지 인근 시장 골목을 쭉욱 다 돌아봤다. 상호라던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운 좋게도 시장에서 집을 하시는 아저씨 덕분에 금호역 주변에 있는 중국집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집에 찾아가니 12시가 다 되었는데 한창 점심 준비로 바쁘신 듯했다. 우리는 짜장면과 볶음밥을 시켜 놓고 최대한 복스럽게 남기지 않고 먹고자 했다. 그래야만 뒷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았다. 밥을 먹으면서 중국집 내부를 둘러보니 가게는 30평정도 돼보였고, 생각보다 좁지 않았다. ‘IOO 님께서 여기서 일을 하셨겠지...’ 상상을 해보니 본 적은 없지만 마치 어제 일인 듯 가깝게 느껴졌다. 비록 점심시간이랑 겹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중국집 사장님이 바뀌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이전 사장님의 번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오늘 취재의 보람이 있었던 것 같다. 저번보다는 그래도 담담한 마음으로 취재에 임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분들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인지, IOO 님을 생각할 때면 안타가운 마음이 앞서게 된다.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될 때는 남 일이 아닌 내 가족 일처럼</p>

	<p>느껴지고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다.</p> <p>OO :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는 두렵게만 느껴졌던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또 즐거워진 느낌이다. 참았던 이야기를 터뜨리는 듯 한참이나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경비 할아버지께 참 고맙다. 그동안 그저 무겁게만 느껴졌던 취재가 조금은 따뜻해진 느낌이라 기분이 좋다.</p> <p>OO : 취재를 하게 되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번에 만나 뵈었던 경비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번 취재 때 만난 슈퍼 할아버지도 그렇고 낯선 사람인 우리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물론 고인의 동생 분이신 IOO 님에게는 더 큰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가 물어본 것들 이상으로 본인들이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신다.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나 낯설고, 더군다나 속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루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부터는 만나게 되는 분들의 한 마디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한 마디 한 마디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취재를 통해 만나 뵈는 분들이라 이런 간절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취재를 하다보면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이면 나에게 사람과의 만남은 지금보다도 더욱 귀중하게 다가올 것 같다.</p>		
3차 취재일	2014.07.23	3차 취재장소	※ 고인의 주소지 - 근처 OO 할인마트, O 헤어숍, 동네 철물점 - 이웃집 - 근처 OO 할인마트 ※ OO 교회 - 인천시 O구 학익동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OO 할인마트 아저씨 (40대 후반), O 헤어숍 아주머니들 (50~60대 아주머니들), 철물점 아저씨 (50대 후반) 2. 이웃집 아주머니 (50대 중반), 할아버지 (70대 초반) 3. 집주인 아주머니와 통화 4. 39세 J님(고인의 동생 분) - 고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시고 계심. - 왼쪽 귀에 보청기로 보이는 것을 하고 계셨고, 말을 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으심. 5. 동사무소 직원 6. OO 할인마트 아주머니 (60대 초반) 7. OO교회 집사님 (40대 초반)		
3차 취재 내용	아침부터 비도 오고 날도 흐려서 그런지 많이 긴장이 됐다. 동행취재는 고 IOO 님의 주소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O역으로 찾아갔다. 역에서 동행취재팀을 뵈고 나서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 다음 우리는 주소지로 향했다. 가는 길은 역에서 버스를 타고 4정거장만 지나가면 되는 짧은 거리였다. 첫 취재 때보다 익숙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IOO 님과 그 동생 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 동네		

주변 가게들을 찾아다녔다. 1차, 2차 취재를 오면서 동생 분께서 자주 다니시는 슈퍼를 먼저 찾아가기로 하고 그 앞으로 가보니 문이 닫혀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슈퍼는 오후에 찾아가하기로 하고 주변 다른 가게들을 가기로 했다. 맞은편에 또 다른 슈퍼가 있었다. OO 할인마트라는 곳이었는데 저번에 J님께 드린 음료수를 산 곳이었다. 그곳으로 들어가 현대 오피스텔에 사시는 I님을 아시냐고 물어보았다. 역시나 모른다고 하셨다. 그 밖의 인상착의를 말씀 드려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IOO 님이 자주 다니시는 슈퍼가 아니었다.

우리는 슈퍼 밖으로 나와 주변 다른 가게들을 둘러보았다. 아침이고 시내가 아니어서 가게들이 많지 않았다. 바로 옆 미용실이 눈에 띄었다. O 헤어숍이라는 고이었다. IOO 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슈퍼 맞은편에 위치해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50~60대 아주머니들께서 삼삼오오 모여 계셨다.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시더니 사진 찍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그러면서도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물었다. 우리는 혹시 IOO 님에 대해 아시냐고 물었고 인상착의도 설명 드렸으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혹시 헤어숍 앞 슈퍼가 지금 왜 문이 닫혀 있는지를 물었다. 새벽부터 채소시장에 갔다고 했고 오후쯤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오후에 다시 슈퍼로 가하기로 하고 주소지로 향했다. 길을 가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철물점의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시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기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 싶어 아저씨께로 가 보았다. 그러나 아저씨께서는 이 동네 사정에 대해서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신다고 하셨다. 그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우리들이 신기해서 지켜보신 모양이었다.

2.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들은 말들은 하나같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주소지인 OO 오피스텔로 간 우리는 1층에서 문이 열려있는 곳에 물어보기로 하였다. 그곳으로 가니 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다. 가정집이 아닌 사업장 같은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OO호에 사시는 남자 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디요? OO호예요? 네.”

“아, IOO 님 알고 계세요?”

“이름은 잘 모르고 사람은 알죠.”

“네. 그 분 형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무연고자 처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홀로 외로이 돌아가신 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한 번 쫓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돌아가셨다 소리는 들었지, 주인이 잘 알아요(사정을).”

아주머니께서는 IOO 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후에 오니 그분을 찾아가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후에 온다고 하셔서 우리는 전화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 앞으로 나왔다.

전화를 하려던 찰나 오피스텔 문 앞으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셨다. 오피스텔에서 나오신 것을 보아하니 그곳에 살고 계신 분 같았다. 할아버지께도 IOO 님에 대해서 여쭙보았다. 할아버지께서도 아까 아주머니와 마찬가지로 IOO 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셨다. 이웃 사람을 두 분 만나봤지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IOO 님에 대해서는 인사 정도 나누시는 관계로 보였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웃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기다려 보았지만, 이웃 분은 뵈지 못했고 다음 취재 때 더 많은 이웃 분들을 만나기를 기약해야 했다.

3.

이웃 분들을 더 만나는 것을 다음 취재로 기약하고, 집주인 아주머니를 뵈고자 했다. 그래서 IOO 님과 이웃 분들을 통해 알게 된 집주인 아주머니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해보았다. J님과 고 I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지금은 좀 곤란하다고 하셨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이번 달은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그러시고는 미안하다며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셨다.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다. 다음 취재 때,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다.

4.

미리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어긋나가기 시작했다. 주변 분들로부터는 잘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고,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집주인 아주머니는 만나 뵈지도 못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란 생각이 들었다. 낙담하기도 했지만 다음 계획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에 만나 뵈 분은 고 IOO 님의 동생인 J님이었다.

마침 오피스텔 앞으로 J님이 나오셨다. 우리는 J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잠시 할 수 있느냐고 여쭙보았다. 송구스럽게도 J님은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해주셨다. 자주 찾아와서 귀찮으실 법한데도 너무나 감사했다. 감사한 마음에 마침 시간도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기로 했다.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 간 곳은 감자탕 집이었는데, 그곳은 집과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J님은 형님과 함께 오셔서 감자탕을 드셨다고 한다. 자주 온 것은 아니고 한 번 왔지만 형님이 아프셔서 아무것도 못 드실 때 왔던 곳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다. 형님에 대한 J님의 애뜻함이 느껴졌다.

5.

점심을 먹고 J님과 함께 다시 J님의 집으로 가던 중 J님을 아시는 분과 마주쳤다. 평소 J님을 자주 챙겨주시는 동사무소 분이었는데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경계하시는 것 같았다. 평소에 혼자 다니시는 J님이 여러 명의 낯선 사람들과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셨던 것 같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안심을 드리니 알았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미심쩍으신지 J님에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로 전화하라고 하고는 지나가셨다.

우리도 길을 나서 JOO 님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JOO 님은 우리에게 생전에 형님과 함께 여행 다니면서 찍으신 사진들이 있는 작은 앨범을 보여주셨다. 전에도 봤었지만, 다시 한 번 보니 J 님께서는 많이 달라 보이셨다. 작은 앨범을 같이 보며 형님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번 형님께서 일하셨던 곳에 가보았더니, 형님을 전혀 기억 못하시더라고 이야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형님에 대해 다른 기록 같은 게 더 없냐고 여쭙보았다. 그러자 나J 님께서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다른 큰 앨범을 뒤적거리셨다. 그 모습을 보고 혹시 그 앨범을 봐도 괜찮겠느냐고 여쭙었고, 앨범 속에는 I님과 J님이 같이 찍은 2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 장의 서류가 접혀 있었다. 그 서류에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J님께 여쭙보니 서류는 형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 썼던 거라고 하셨다.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I님께서는 2003년도 경에 개명을하신 것이었다. 다음 취재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J님께 형님의 흔적이 남겨진 것들이 혹시 있느냐고 여쭙았다. 서류 같은 것들은 I씨께서 아프셨을 때 본인이 다 찢어버리셨고,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물품들은 J님께서 다 버리셨다고 하셨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고통에 그러셨다고 하였다. 혹시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고 하니 집안을 둘러보셨다. 그러던 중 한 노트를 꺼내시고는 누군가 공부를 했던 흔적을 보여주었다. 바로 형님의 필적이었다. 고 I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상경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한이 상당히 크셨다고 한다. 그 필적은 형님께서 생전에 검정고시 공부를 했던 것이었다. 일을 계속 해서 하시면서도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셨던 I씨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I씨는 옆에서 지켜보셨다고 했다. J씨는 계속 해서 집 안을 둘러보시다가 형님의 증명사진이라며 사진 두 장을 우리에게 건네셨다. 앨범에서 보았던 형님의 모습이였다. 증명사진에서도 마른 체형을 느낄 수 있었다. 증명사진을 보고는 I님이 왠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증명사진을 다시 드리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J님께서 형님이 생전에 입으셨던 점퍼 두 벌을 꺼내서 보여주셨다. 점퍼는 한 눈에 보기에 매우 작은 사이즈였다. 여성 체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 J님께서 점퍼를 버리지 않고 입으신다고 하셨다. 형님에 대한 그리움을 점퍼 두 벌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고 I님의 유품들을 하나 둘 보고 있자니 마음이 이상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고인 분이

아닌 I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평소에는 주로 집에서 밥을 해서 드시고, 집주인 아주머니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그러던 중 점심을 먹고 나서 길에서 마주쳤던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J님을 걱정하셔서 전화하셨던 것 같다. J님은 말씀이 불편하셔서 우리 팀의 소연이를 바꿔주셨다. 동사무소 직원은 우리에게 대한 의심이 아직 남으셨던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대해 물으셨다. 우리는 안심시켜 드리고 추후에 동사무소로 직접 가서 인사드린다고 하고는 통화를 마쳤다. J님은 평소에 집주인 아주머니를 포함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았다. 주변 이웃 분들은 가끔씩 반찬도 나눠주신다고 한다.

6.

J 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오피스텔 앞에서 우리는 다음 갈 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갈 곳은 I 님이 다니시는 OO교회와 자주 가시는 OO 할인마트 두 곳이었다. 우리는 두 곳 중 오전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었던 OO 할인마트로 먼저 향하기로 했다. OO 할인마트는 문이 열려있었다. 우리는 이야기도 여쭙고 음료수도 먹을 겸 안으로 들어갔다.

10팀, 슈퍼 계산대에 끼워져 있는 I 님 연락처를 발견한다.

“저희가 뭐 좀 하나 여쭙볼 수 있을까요? 여기 OO 오피스텔 보니까 I 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I 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적어 놓으셨는지...”

“아 그래요? 이 사람 어떻게 잘 알아요?”

“I 님이 여기 슈퍼에 자주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I 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몰라요. 우리 집 손님일 뿐이지 말도 잘 못 알아먹어요, 머시마. 그냥 이렇게 대답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못 알아먹는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안 하고. 그냥 알아듣겠다고 웃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귀도 이렇게 안 들리니까.”

“그럼 이거는 왜 여기 끼워놓으신 거예요?(책상에 끼워져 있는 I 님 연락처를 가리키며)”

“아, 이거... 거기 저... 잘 모르겠어요. 봉투 사러 왔는데, 쓰레기 봉투. 분리수거 자기네가 O구청에 전화를 해야 가져가는데 그게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나더러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요, 나한테. 내가 다 들어주니까.”

“아, 주로 어떤 부탁을 하세요?”

“뭐 이런 거나... 물어보는 거. 한 열 번 물어봐야 내가 한 마디 알아들어. 그 기분으로 자꾸 대화를 하고 나는 또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물어보지. 못 알아먹으면 그냥 가라 하면 상처받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아다리들이 딱 맞아. 이 사람 찾으러 왔는데 여기 이렇게 놔뒀네. O구청 가서 물어보면... 거기서 뭘 물어보고 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 형님이...”

“형님 잘 알아요?”

“잘 아는 건 아니고... 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홀로 사시다가 홀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동생 분과 함께 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걸 다큐멘터리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I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슈퍼 자주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번 와봤어요.”

“잘 알려면 그 건물주인, 거기 세 들고 살거든요. 거기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겠지. 우리는 뭐 그렇게 잘 몰라요.”

“I 님께서 혼자 사신다는 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전에는 형하고 같이 왔는데, 이제 형이 아프다고 돌아가셨다고 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심심해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고 하니, 암이라고. 위암인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살고 있는데, 집도 전세로 살고. 주인아주머니도 가끔 가다 2, 3일에 한 번씩 온대요. 오면 이제 심부름 뭐 시키면 여기 와서 봉투나 이런 거 사가고.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면 주인아주머니가 시켰다. 더럽다고(I 님께서 오피스텔에서 이사 청소하는 얘기 하시는데), 자기가 청소한다고. 주로 이렇게 봉투만 많이 사가요. 쓰레기 봉투.”

OO 할인마트 아주머니는 I 님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형님인 고 I 씨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아마 생전에 형님을 보셨던 것 같다. 그리고 I 님은 평소에 슈퍼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슈퍼 아주머니께서는 말을 알아듣기 어렵지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I 님의 부탁도 들어주신다고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평소에 J 님이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알아듣기 어려워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자세한 이야기들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쪽으로 가보라고 하셨다. 다시 한 번 다음 취재에서는 꼭 집주인 아주머니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7.

마트에서 사온 음료수를 나눠 마시고 다음 장소인 은혜의 교회의 위치를 확인해보았다.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보니 1.9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 한 정거장이라지만 우리는 걸어가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큰 길을 따라 쪽 내려가야 했다. 시내를 거쳐 계속 해서 걸어갔다. 걸으면서 ‘왜 이렇게 멀지?’하며 투덜대던 중 우리의 눈앞에 OO 교회가 보였다. OO교회는 꽤나 큰 교회였다. 밖에서 질문을 할 것을 상의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로비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테이블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 관리실로 보이는 곳으로 가서 한 여자 분을 만나 뵈었다. 그 여자 분은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I 님이라고 계시는데...”

“나...?”

“I 님이요. 일요일 날 두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대요. 그래서

	<p>혹시 그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라던가, 집사님을 만나 보러 왔거든요.” “쉽지 않은... 음, 없는데?”</p> <p>“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불편하시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보청기 끼시고.” “근데 두시에는 청년예배거든요, 사실은. 보통 장년 분은 아홉시 반이나 열시 반 그렇게 해서... 청년부 집사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두시에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일곱 시에 집에 가신대요.” “일곱 시에 가신다고요? 저희 일곱 시에 예배가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두시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p> <p>I 님에 대해서는 모르셨다. 큰 교회라서 모르는 게 당연했다. 그래서 돌아가려는 순간 동행취재를 온 EBS취재팀에서 이 교회에는 I 씨 말고도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다.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집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p> <p>“I 님이 혼자 사시거든요. 여기 교회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여기 교회에 그 분 말고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저희가 개개인의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는 편은 아닌데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p> <p>“그냥 걸로 보기에 혼자 오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그래도 몸 불편하신 분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신 분?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아 저 분은 조금 특이하신 분이다’ 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p> <p>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I 님 이외에도 교회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았다. 사람들 속에 있고 싶은 마음, 끼니를 때우려는 목적 등 여러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교회를 찾는 것 같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취재가 고독사에 관한 것인데, 고독사하신 고인 분들도 생전에 교회를 많이 찾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그리워하셨을 것 같았다.</p>
<p>3차 취재 후 느낀 점</p>	<p>OO : 첫 동행취재를 나갔다. 처음 찍어보는 낯선 사람들과의 촬영에 카메라가 따라 붙는다는 자체가 어색하고 신경 쓰였지만, 촬영 팀에서 우리 없는 셈 치라면서 편하게 이끌어주셔서 금방 적응이 됐다. 우리가 취재하면서 놓치는 부분 같은 게 있으면 촬영 팀에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평소보다 수월하게 촬영을 끝마칠 수 있었다. 오늘의 가장 큰 수확은 J 님과 옛 앨범을 뒤적거리려 보다가 I 님의 옛 이름을 알아냈다는 거다! 2003년도쯤에 개명을 하셨다는데 어쩌면 저번에 중국집 사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던 이유가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취재를 이어나가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 같다.</p> <p>OO : 고독사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고독사란</p>

	<p>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불쌍함, 안타까움'이었다. 그러나 취재를 진행해나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감히 내가 불쌍히 여길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나보다 상황이 더 나았던, 보통의 사람들이었다. 바꿔 말하면 나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인생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앞으로의 인생에서 내 주위엔 누가 있을까. 누가 남을까.'</p> <p>OO: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컸다. 동행취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그러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초반에 취재를 해가면서 벽이 생겨가는 것 같아 불편해졌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짜증과 초조함은 잊히고 고인과 고인의 동생 분에 대한 애뜻함이 생겨가기 시작했다. 취재를 한 이후 처음으로 고인의 가족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에는 식사도 같이 했다. 그리고 고인의 사진과 유품들도 보았다. 이러한 것들이 막상 그 순간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애뜻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리고 고인의 동생 분이 앞으로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이걸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분과 정이 든 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다. 처음에 이 취재단에 지원할 때만 해도 단순히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일이 아닌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인 것 같다. 그리고 취재가 막바지에 다가가면서 힘들었지만 보람됨을 느끼게 됐다. 매번 취재가 끝날 때마다 보람됨을 느끼는 것 같다. 취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p>		
4차 취재일	2014.07.29	4차 취재장소	※ 고인의 주소지 - OO 오피스텔 청소 아주머니 - 주인아주머니 ※ OO동 주민 센터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OO 오피스텔 청소업체 아주머니 (50대 중반) 2. OO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사 (30대 초반) 3. OO주민 센터 직원 분 (40대 중반) 4. OO 오피스텔 주인아주머니와의 통화		
4차 취재 내용	1. 중복 다음날인 오늘. 어김없이 O역에서 오전 10시에 만나 4차 취재를 나갔다. 7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가급적 취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3차 취재에서 못했던 부분을 오늘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다. 그곳은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참 한적했다. OO오피스텔 앞으로 가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우리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오피스텔 앞으로 작은 봉고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 봉고차에는 중년 부부가 타고		

계셨고, 청소업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잠깐 동안 '저 차 뭐지?'라는 생각에 넋을 놓고 있었다. 그분들은 차에서 청소도구를 가지고 내리셔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청소를 시작하셨다. 순간 머릿속으로 '아, OO오피스텔 청소해주러 오시는 분들인가 보구나! 그러면 혹시 I 씨나 I 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109호에 사시는 I 님을 아시냐고 물어봤다. 아주머니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청소만 하고 그냥 가는 거라서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2.

청소업체 아주머니에게선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는 오피스텔 앞에서 이웃 분들이 혹시 나오지 않으실까 해서 서있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OO동 주민 센터였다. 저번 3차 취재 때 J 님을 걱정하셨던 사회복지사 님을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혹시나 I 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였다.

OO동 주민 센터는 OO 오피스텔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저번에 I 님과 같이 점심을 먹고 지나가다가 봤던 직원 분이 계셨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 아마도 J 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혹시나 나쁜 사람들이 접근한 것은 아닐지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다. 사회복지사 분께 우리의 소속을 밝히고 취재를 나온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다. 그러자 우리에게 대해서 안심을 하신 것 같았다. 그리고 취재하면서 대화는 잘 되는지, 언제 방송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서 J 님의 형님인 I 님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분은 이곳에 오신지 두 달밖에 되지 않으셔서 만난 적이 없어 잘 모르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형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다른 직원 분을 가르쳐 주셨다.

3.

옆에 앉아계시던 직원 분께서 I 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셨다. 그 직원 분은 저번에 3차 취재 때 J 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만났던 분이였다. 직원 분께서는 I 님의 사망 처리를 하셨다고 했다. I 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이지나서였다고 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J 님께서 주위를 배회하신 것 같았고, 동사무소 주위에 계신 것을 보고 그제야 사망 신고를 했다고 한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 실의에 빠진 J 님의 모습이 그려져 더 슬프게 다가오는 부분이였다. 직원 분께서는 I 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셨다. 건설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지는 못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상했던 부분은 J 님은 형님께서 중국집 배달, 택배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직원 분이 해주신 말과 좀 다른 것 같아 의아했다. 그리고 I 님과 J 님은 고아나 다름없는 가족 사항이라는 말도 하셨다. 어려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p>말씀하시기도 했다. 더 놀란 부분은 사촌형이 계시다는 것이었다. I 님이 급한 일이 생길 때 의지하는 분이라고 한다. I 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담당 직원 분께서 연락을 취하셔서 처리를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사실 사고어나 다름없는 삶을 사셨다고 한다. 아마도 I 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른 가족 없이 동생과 계속 사셨던 것 같다. 어려서부터 상경해 돈을 벌면서 고아나 다름없이 살아오셨다고 생각이 들자 I 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p> <p>형님인 I 님께서는 요즘 시대에는 흔하지 않은 병인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치료만 잘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허망하고 너무 안타까웠다. 그리고 직원 분께서는 주민 센터에 동생과 함께 손잡고 오던 형님 'I' 님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다. 동생 손을 꼭 붙들고 와서 행정 업무를 보고 가셨다고 한다. 모습이 동생과 꼭 쌍둥이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동생과 우애가 상당히 좋아 보였다고 한다. 주민 센터에서 말고도 동생 손을 꼭 붙들고 다니시면서 은행 업무 같은 일도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한다. 형제간의 사이가 매우 좋았던 것 같았다. 그런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I' 님의 기분은 어떠셨을지... 안타까운 심정이었다.</p> <p>4.</p> <p>OO동 주민 센터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형님의 기억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기분이었다. 고맙게도 이야기를 해주신 직원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주민 센터 밖으로 나와 다시 고인의 주소지로 향했다. 바로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는 동안에는 계속지 안계실지 몰라서 일단 주소지로 가서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주소지 앞으로 가 주인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나서 주인아주머니를 만나 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아주머니께서는 업무 차 부산출장을 가셨다고 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나 인천에 오신다고 하셨다. 7월까지 취재를 마쳐야 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주인아주머니를 뵈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허망하게 느껴졌다.</p>
<p>4차 취재 후 느낀 점</p>	<p>소연 :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주인아주머니를 만나 뵈 수 있을 줄 알았다. 오피스텔 앞에서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여전히 바쁘신 목소리에 지금 업무 차 부산출장을 가있다고 하셨다. 8월 중순 이후에나 인천에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약간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J 님과 I 님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는 타인이자 이웃 분이셨기에 꼭 만나 뵈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대로 취재를 마쳐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서 의외로 직원 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I 님께서 폐암이 아니라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어디에서도 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아마도 자신보다는 늘 동생이 우선이었기에 본인 건강에 조금 소홀하실 수밖에 없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분 말고도 옆에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가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가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커다란 것처럼 느껴졌다.</p>

아름 : 동사무소 직원 분께서 말씀하셨다. I님, J님 두 분은 부모 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고아나 다름없다 생각하면 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역효과가 날 것이라 했다. J님께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는 아버님을 조금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등을 진 관계일 줄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고아나 다름없다는 그 말을 들으며 다소 놀라고 마음이 쓰였다. 가족이란 것이 안 본다고 안 봐지고 연을 끊고 싶다 하여 끊어지는 걸까...? 그 가족의 복잡한 사정이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폐결핵을 앓던 형과 장애를 가진 동생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세상을 헤쳐 나가기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다. 가족은 세상을 헤쳐 나가면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울타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어떤 방패막이도 없이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던져져야 했던 I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이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일신의 안녕을 걱정하기보다 남겨진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무거워졌다.

영권 : 가장 많이 취재를 나간 케이스였다. 4차 취재까지 나가고 그중에는 동행 취재도 있었다.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고, 공감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I님에 대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전해들을 때마다 기뻐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너무나 아쉬웠다. 그래서 주인아주머니와 통화하고 나서는 더욱 허무했던 것 같다. I님과 J님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했던 분인데, 만나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리고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후회가 남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 생각지 못했던 OO동 주민 센터에서 I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살아생전에 동생 분과 우애가 좋았고,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사셨고,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다. 이야기를 들어 기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같이 들었다. 취재의 성과를 얻었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망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에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동안 취재를 오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가 막바지에 올수록 '고독사'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된다. 그저 행정상에 무연고자라고 처리되면 그게 고독사가 되는 것 같다. 이게 너무 허무했다. 우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봐도, 무연고자 처리 혹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고독사 처리 되신 분들이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분들도 관계를 맺으면서 사셨던 분들이다. I님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분은 고독사가 아니었다. 동생이 장애인이어서 고독사가 됐다.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분들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처음에 받았던 '무연고자 시체처리 현황' 이라는 표로 정리된 종이를 보고 취재를 진행했을 때만 해도 멀고 안타깝게만 느껴졌던 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삶을 들여다보게 될수록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되고 그분들의 삶을 공감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같다.

(9) 폐암말기,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남자

- 시체처리구: 서울특별시 OO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56
- 등록기준지: 강원도
- 주소지: 서울특별시 OO구
- 혼인사항: -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2년 늦가을 혹은 2013년 1월 추정
- 사망지: 자택
- 주거형태: 고시원
- 발견일시: 2013년
- 발견자: 고시원 김○○씨
- 안치장소: 용미
- 사망원인: 폐암
- 기타: -

1차 취재일	2014년 6월 15일	1차 취재장소	-용산구 OO고시원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홍○○ 2. 고시원 주인		
1차 취재 내용	<p>1. K 씨 사망 배경과 당시 상황</p> <p>- K 씨는 원래 폐가 안 좋으셨음. 2012년 9월 2개월 정도 입원한 걸로 기억/ 폐암 말기라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원한 것. 사망선고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술 더 드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홍○○ 씨도 K 씨를 말렸으나 그 후로 K 씨는 술을 더 드셨다고 함./ “인생을 포기한 마냥” 계속 술을 찾으셨음</p> <p>- 배○○ 씨는 평소에 배달음식과 함께 술을 자주 드셨음/ 사망하신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드셨는데, 다 드시고 나서 4층 고시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쓰러지심/ 새벽 1시경, 3층 PC방 손님이 제일 먼저 발견했고, 평소에 그나마 가까이 지내던 홍○○ 씨가 얼른 가보니 이미 돌아가심./ K 씨가 돌아가신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에 “어떡하긴. 혼자 사는 입장에서 괴롭다.”고 답하셨다.</p> <p>- 자료에는 사망일시가 2013년 6월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2013년 1월이었다./ ??대학 병원에서 임시로 장례를 치름.</p> <p>2. K 씨 사망 이후</p> <p>- 2주간 계속된 경찰의 조사로 방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함/ 보험회사나 핸드폰요금 고지서도 계속 날아옴/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망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 대부분은 홍○○ 씨가 직접 보험회사 등에 전화하여 K 씨의 사망을 알렸다.</p> <p>3. K 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p> <p>- 가족은 있으나 수급을 받기 위해 따로 산지가 오래 되었다고 들었다고 하심(가족이 있으면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고시원(○○고시</p>		

	<p>원)에는 가족이 한 번 찾아왔으나 옆방에서 말소리만 들었음/ 자식 한 명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함/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반대로 연락이 오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더욱이 현재 고시원으로 옮긴 후에는 가족이 찾아오지 않은 걸로 안다./ 가족도 이사 가서 더더욱 연락두절.</p> <p>4. 살았던 장소</p> <p>- 홍○○ 씨는 2008년부터 용산구 ○○동의 '○○고시원'에 살기 시작했고, K씨는 이미 그 전부터 그 고시원에 살고 계셨음/ 2009년에 재개발 때문에 함께 농성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음/ 결과적으로 고시원 입주자들은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고시원은 '○○고시원' 주인이 보상으로 받은 것. 예전 건물에서와 같이 PC방과 함께 운영 중.</p> <p>5. K 씨가 자주 갔던 곳</p> <p>- K 씨는 왕십리에서 서대문으로 이사 간 교회(이름은 기억 못하심)에 수, 금, 일요일 낮에 다니셨음/ 교회 전단지 돌리는 봉사 등을 하셨음/ 홍○○씨는 K 씨가 종교를 믿어서 교회를 갔다가보다 교회 후원금을 받기 위해 자주 가신 것으로 추측/ 후원금은 한 달에 최소 10만 원~최대 100만 원정도이나, 아예 못 받는 때도 있었다/ 그 돈으로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카드비를 메꾸기도 했다.</p> <p>6. 홍○○ 씨가 기억하시는 K 씨의 성격, 삶</p> <p>- 남에게 본인 이야기를 잘 안하셨음/ 그래서 이 동네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지낸 사람이 거의 없음</p> <p>- K 씨는 젊었을 적에 안 해 본 노가다가 없는 걸로 알고, 식당 일도 하신 걸로 앎.</p> <p>7. 홍○○ 씨와 K 씨와의 사이</p> <p>- 병원 갈 때 키를 맡겨두고 가기도 하고, 병문안을 오고 갔다/ 홍○○ 씨가 고시원 아래층 PC방에서 알바 하셨는데, 그 때 와서 컴퓨터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음/ 그래서 홍○○ 씨는 일일이 다 가르쳐드림/ 할 게 없으니 고스톱 치셨는데, 그 때도 아이디를 빌려주곤 했음/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둘 다 부족한 걸 알아서 홍○○ 씨는 돈 빌려주고도 다시 받지 않곤 했다.</p>		
2차 취재일	2014년 6월 25일	2차 취재장소	K 씨 주소지(고시원), ○○상담소, ○○복지관(복지관), 고시원과 같은 건물의 식당 두 곳, 인근 슈퍼
만남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시원 분들 김○○,이○○,홍○○ 외 두 분 2. 용산구○○상담소 직원 3. ○○복지관(○○복지관) 직원 4. 인근 슈퍼 주인 5. 고시원 주인 6. 같은 건물 식당 두 곳(감자탕집, 고기집) 주인들 		
2차 취재 내용	1. 사망 장소는 고시원 건물 1층이 아닌 방 안		

시신 최초 발견자이자 이웃 김○○씨

-지난번 홍○○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K 씨가 고시원 건물 1층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이웃 분의 이야기는 달랐다.

고시원 두 번째 통로 오른쪽 첫 번째 방에 살고 계시는 김○○ 씨는 K 씨가 사망하기 전 날에도 보고,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다. 사망하기 전 날에는 약간 뒤척이며 자고 있는 걸 보았고, 다음 날 아침에 사망한 걸 확인했다고 한다. 원래는 아침 새벽이 되면 잘 일어나던 사람이 그 날은 일어나지 않아서 이상했다고 한다. 말을 걸어도 대꾸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봤다. 그리고 팔을 만져봤는데 냉기가 흘러서 119에 신고했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기는 2012년 늦가을쯤으로 기억하셨으나 확신하진 못했다.

홍○○ 씨와 얘기가 달라 다른 고시원 분들한테도 여쭙보니 김○○ 씨가 말씀한 대로 기억하고 계셨다. 직접 시신을 확인했다는 김○○ 씨 말씀이 맞는 듯하다.

홍○○ 씨가 말씀하신 1층에서 발견된 날은 단순히 다치셔서 119에 실려 간 것 같다. 김○○ 씨에 따르면 그 전에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피 나고 해서 병원에 많이 갔다고 한다.

2. 김○○(67) 씨가 기억하는 K 씨

K 씨와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않아서 아픈 줄도 몰랐고, 가족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돌아가시고 경찰서에서 알게 됐다고. 혼자서 얼마나 끔찍 알았겠냐며 속사정을 털어놓기라도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안타까워 하셨다.

사람은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좋은 말도 건네고, 어수룩한 사람들 이용해먹으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커피 한 잔 주기도 하는. 김○○ 씨가 몸이 안 좋아 밖에 잘 나가지 못해서 K 씨가 시장 나가실 때 물건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씨가 밖에 나가질 못하니 밖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나 K 씨는 교회든 어디든 잘 나갔다고 기억하셨다. 지난번 홍○○ 씨가 말한 왕십리에서 서대문으로 이전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듯하나 이름은 역시 모르고 계셨다.

PC를 다룰 줄 몰라서 아래층 PC방에는 잘 안 갔고, 교회나 시장에 간 것 외에는 다른 어디를 갔는지는 잘 모른다.

안에서 술, 배달음식을 많이 드셨던 건 몸 상태가 악화됐을 때라고. 몸이 안 좋으니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배달음식을 자주 시킨 거다. 그 전에는 자주 밖에 나갔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이 바깥에 안 나가는 게 이상해서 방에 들어가 본 거라고 설명하셨다. 김○○ 씨는 대장암 말기라고 기억하셨는데 폐암 말기로 추정된다.

술 드시는 걸 자주 보았냐는 질문에는 약을 많이 먹는데 빈속에 먹으니 속이 안 좋지 않았겠냐, 더군다나 암 말기인데 통증을 어떻게 견뎌냈냐며 통증을 잊기 위해 술을 먹은 것 같다고.

K 씨가 기억나는 때는 추위에 커피가 생각날 때라고. “형님~ 물 끓였으니 커피 드세요” 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 그 친구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셨다. 아래층 PC방에도 자판기 커피가 있지만 그게 사람 손으로 만드는 커피와 같겠냐며.

3. 이○○(57) 씨 “술은 입에 잘 안 댔다”

약 3년 알고 지냈다. 역시 대화는 많이 나누지 않았다고 하셨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방에 항상 혼자 있고 갑갑하면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가셨다고 한다. 술은 좋아하긴 해도 몸이 아파서 몇 달 동안 입에 대지도 않았고, 어쩌다가 술을 먹으면 안주 없이, 가끔은 짬뽕을 시켜서 소주 한두 병 먹었다고 한다. 술이 약해서 얼마 못 먹었고.

돌아가신 사실은 남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방에서 끄꽂 대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셨다. 평소 계단 올라가는 것도 숨 차 보였다고 한다.

K 씨가 교회를 자주 다닌 것만 알고 계셨다. PC방에는 안 갔다고. 할 줄도 몰라서. 또 어느 교회에서 집사가 컴퓨터를 켜는데 방에만 두고 쓰지는 않은 듯하다. 교회 이름은 모르시고 김○○ 씨랑 같이 교회 나간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었다. 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전화하는 건 몇 번 봤다고.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한다고 한다.

4. 홍○○씨 인터뷰

다른 이웃 분들 얘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K 씨는 PC를 다룰 줄 몰라 PC방에는 잘 드나들지 않으셨다. 다만 홍○○ 씨가 아르바이트 했던 시기에만 들러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한 것 같다. 혹시 PC방 손님 중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 싶어 홍○○ 씨에게 당시 PC방 일 하실 적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있냐고 여쭙는데 K 씨를 기억할 만한 손님이 없을 거라고 답하셨다.

그리고 ○○복지관(○○복지관)에서 몇 번 식사하신 것도 기억하셨다. 함께 식사를 한 건 아니라고. 옆에 있던 이○○ 씨가 “○○복지관 옆에 나사로(?) 있잖아, 거기 자주 가더라고.” 말씀해주셔서 홍○○ 씨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주셨다. 용산○○상담소 건물 4층이며,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서 무료 진료를 해줘 등록돼 있을 거라고 하셨다. 자주 가셨던 시장과 식당이 어딘지 아시냐고 여쭙봤다. 시장은 주로 서울역 ○○슈퍼랑 ○○시장에 가는 것 같다고. 같이 가진 않고 거의 혼자 가셨다고 한다. 식당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감자탕 집. 거기서 배달을 주로 시켰다고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분들로부터 스치듯 들었던 ‘홍 선생님’이란 별명은 알고 보니 K 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홍○○ 씨를 부르는 말이었다.

5. 그 외 고시원 이웃 분들

다른 분들은 김○○ 씨, 이○○ 씨, 홍○○ 씨만큼 K 씨를 알고 있지 않았다. 그저 ‘저 쪽 방에서 돌아가신 분’으로만 기억하셨다. 이웃 중에 한 분은 K 씨에게 2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소주를 사겠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한다.

5. 용산○○상담소

고시원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상담소가 있다. 혹시나 싶어 찾아가 봤는데 해당 고시원이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에서야 그 쪽 고시원 분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들어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건지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홍○○ 씨가 알려주신 기독교 단체 나사로(?)가 있다는 4층에는 ‘○○배움터’가 있었다. ○○상담소 직원에 따르면 4층에서 의료 진료를 한 적이 없고, 컴퓨터 교육만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일요일마다

	<p>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p> <p>6. ○○복지관(○○복지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하는 복지관이 고시원 근처에 있다. 홍○○ 씨 말씀으로는 여기서 몇 번 식사를 하셨다고 했으니 확인이 필요했다. 자원봉사자 혹은 직원으로 보이는 분과 그 곳에서 식사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K 씨에 대해 여쭙보았으나 기억하시는 분은 없었다.</p> <p>7. 인근 슈퍼 주인, 감자탕집과 고기집 주인 K 씨가 그나마 자주 가셨다는 건물 1층 감자탕 집에 들어가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여쭙보았다. 그러나 이름을 대면 모른다고, 전혀 기억 못하셨다. 그 옆에 있는 고기집에서도 역시 모르고 계셨다. 인근 슈퍼에 들르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아서 주인 분께도 여쭙보았으나 역시 이름만 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없었다.</p> <p>8. 고시원 주인 고시원 주인 분은 고시원에 계시지 않고 후암동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 건물 앞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에 연락을 해봤다. 여자 분이셨는데, 최근에 방화 사건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p>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고인을 알고 계시는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혹 본인 얘기도 짧게 꺼내 신다. 그래서 가끔은 인터뷰이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기도 한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하셨다는 김○○ 씨. 죽은 동생, 친구들을 많이 본 경험 때문에 K 씨가 돌아가신 걸 한 번에 알았다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아팠다. 고아에 얼굴에 크게 난 흉터, 소학교 중퇴, 오랫동안 계속된 객지 생활, 몇 년 전에는 봉사하다 ○○일보에 크게 실리기도 했다는 짧은 이야기.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으면서 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하지 않나 싶다. 돌아가시면 듣지 못할 그 분만의 이야기를.</p> <p>K 씨에 대한 생각의 변화도 있었다. 김○○ 씨의 인터뷰 덕이다. 나는 K 씨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술을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했다.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서. 그런데 김○○ 씨와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오히려 평소에는 몸을 생각해서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었고, 드셔도 얼마 먹지 않았던 분이였다. 몸이 악화되고 술을 많이 먹은 건 통증 때문이었을 거라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암 말기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텐데, 왜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을까. 김○○ 씨 인터뷰로 K 씨를 더 이해하고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혼자 방에서 말 못하고 끙끙 앓았을 K 씨의 모습이 지난번 인터뷰 때보다 눈앞에 더 세세하게 그려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다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K 씨의 마음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됐다.</p>		
<p>3차 취재일</p>	<p>2014년 7월 18일</p>	<p>3차 취재장소</p>	<p>○○동 주민센터, 용산구 고시원, ○○복지관(○○복지관)</p>

<p>만남 사람 및 연락처</p>	<p>OO동 주민센터 직원 OO복지관 직원들 이OO 김OO 홍OO 정OO 씨 고시원 주인</p>
<p>3차 취재 내용</p>	<p>1. K 씨 기초생활수급 상담내역 조회 OO동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K 씨의 상담내역을 조회해봤다. 조회 결과,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자주 하셨던 기록이 있고, 미혼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번 홍OO 씨 인터뷰 때 K 씨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기억나서 이혼이 미혼으로 표시되기도 하냐고 직원 분께 여쭙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해 주셨다. 서류에는 가족이 없는 걸로 나왔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출하셔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한다. 고아원 이름은 알 수 없었다. 직원 분은 K 씨가 직접 말씀 하신 걸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전부 신뢰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셨다.</p> <p>2. OO복지관 재방문 지난번에 OO복지관에 가서 직원 한 분에게 여쭙봤지만, 다른 분들이 기억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방문했다. K 씨가 종종 이곳에서 식사하셨다는 얘기도 들어 확인해보고 싶었다. 직원 분들과 봉사자로 보이는 조끼를 입으신 분들에게 여쭙봤는데, 다 모른다고 답하셨다. OO복지관에는 하루 300명이 다녀가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시원에 오랫동안 사셨다는 최OO 씨는 기억하실지도 모른다고 한 분이 알려주셨다. 지난번 고시원 인터뷰 때는 듣지 못했던 성함이었다. 이 분은 우리가 OO복지관에 갔을 때 안 계셔서 다음에 찾아오기로 했다.</p> <p>3. K 씨랑 같이 교회 다녔던 분 있다 K 씨가 오랫동안 다니셨다는 교회 이름을 확실히 알고 싶었다. 홍OO 씨가 알려주신 '왕십리에서 서대문으로 이사 간 교회'라는 단서만으로 찾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거기다 그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다. 혹시 고시원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해주실지 몰라 다시 고시원에 찾아가봤다. 이OO 씨나 김OO 씨, 홍OO 씨 다 모른다고 되풀이 하셨는데, 홍OO 씨 옆방에 계시는 정OO 씨가 K 씨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번 K 씨 혼자 교회에 다니셨다는 인터뷰 내용과는 달랐다. 후에 정OO 씨가 방에 계실 때 찾아와서 여쭙보니 K 씨와는 안 지 6년 정도 됐다고 하셨다. 병원에서 같이 나오셔서 같은 시기에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교회 이름은 은평구에 있는 'OO교회'였다. 정OO 씨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음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p> <p>4. 집주인 분과 통화</p>

	<p>지난번 인터뷰를 거절하셨던 집주인 분과 어렵게 다시 전화 연결이 됐다. 집주인 분은 지방에 살고 가끔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며, K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셨다. 대신 K 씨 옆방에 사셨던 분(이 분은 현재 병원 입원 중이시다)이나 김○○ 씨가 친하게 지낸 것 같으니 그 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다. 집주인 분이 K 씨에 대해 기억하는 건 그 분이 집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것뿐이었다.</p>		
3차 취재 후 느낀 점	<p>K 씨의 오래 전 과거를 주민센터를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보육원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K 씨가 고아원에서 자라셨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 아팠다.</p> <p>어릴 때부터 경험하지 않아도 될 외로움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때도 홀로 돌아가신 K 씨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외롭지 않은 순간이 있긴 있었을까? 아들도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자와 자녀들과 함께 오순도순 가정을 꿈꿨을 텐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존재인 가족이 이 분에게는 참 어렵고 멀게 느껴졌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p>		
4차 취재일	2014년 7월 25일	4차 취재장소	○○교회, ○○복지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이○○집사님 : ○○교회 / ○○동 거주 신○○전도사님 : ○○교회 정○○ 씨 이○○ 장로님 : ○○복지재단 소속 ○○복지관 직원 및 봉사자들</p>		
4차 취재 내용	<p>1. ○○교회 이○○ 집사님</p> <p>며칠 전 정○○ 씨를 통해 알게 된 K 씨의 ○○교회를 찾아갔다. 교회는 서울○○병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주로 환자와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라고 한다.</p> <p>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 가자 한창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자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 씨가 나오셨다.</p> <p>이○○ 집사님은 K 씨를 기억하셨다. 그런데 돌아가신 소식은 모르고 계셨다. 작년 부터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가셨나 생각하셨다고. 집사님은 관리 집사다 보니 이곳의 환자는 웬만하면 안다고 하시며, K 씨와 친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인사 정도는 했다고 한다. K 씨 인상이나 성격 등에 대해 묻자 차분하고 키가 작고 얼굴이 빨강다고 설명하셨다.</p> <p>지난번 고시원에서 홍○○ 씨 등 인터뷰를 통해 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여쭙봤다. 집사님이 컴퓨터도 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적이 있냐 여쭙봤더니 아니라고 답하셨다. 아마 주민센터에서 주지 않았겠냐고 덧붙이셨다. 장애인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쭙봤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하셨다. ○○교회에는 목사가 없고 여전도사님 세 분과 장로님만 계신다고 한다. 알려주신 홍○○ 씨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다만 K 씨가 교회 후원을 받은 건 사실이었다. 장로님이 세운 '○○복지재단'이라는 복지재단에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교인들에 한해 후원해드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 퇴원해서도 이 교회에 나온다고.</p> <p>혹시 교회에서 행사를 했다면 사진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행사를 하기도 하냐고</p>		

여쭙봤다. 집사님은 이 교회에는 거의 노숙자들과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가고,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답하셨다. 그러나 교인들 사진은 갖고 계신다고 하셔서 K 씨 사진을 부탁드렸다.

2. ○○교회 신○○ 전도사님

전도사님 역시 K 씨를 기억하고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하셨다. 쪽방에 살고 계신 사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걸 우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지난번 같은 고시원 이○○ 씨의 인터뷰가 생각나서 여쭙봤다. “교회 안 나오시면 꾸준히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요?” “구제하는 교회기 때문에 후원금이 나오는데 교회에 안 나오고 연락이 안 되면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저 확인 차 연락을 드리는 것 같았다.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듯했다.

후원 신청은 주로 본인이 신청하기보다 교회에서 해준다고 한다. 특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후원해주는 식이라고 하셨다. 나중에 환자가 호전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K 씨는 중환자실에 계셨던 건 아니었다. 전도사님 옆에 있던 집사님은 K 씨가 빠릿빠릿하고 건강해보였다고 말씀하셨다.

교회에 나올 때 K 씨가 본인 얘기는 하지 않았냐고 여쭙보자 그런 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하셨다. 어떤 분이셨냐는 질문에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답하셨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은 걸로 알고 계셨다. K 씨와의 기억나는 대화는 없지만 신실했다고 반복하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K 씨 사진을 부탁드려서 K 씨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교회에서 일일이 교인들 사진을 찍어놓는다고 한다.

인터뷰 해주신 전도사님 외 두 분도 만나 보려고 했으나 두 분 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여쭙보지 않았다(한 분은 미리 전화통화에서 여쭙봤으나 모르고 계셨다).

3. 정○○ 씨 인터뷰 거절

예배가 끝나고 급하게 걸음을 옮기는 정○○ 씨에게 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다음에라도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냐고 여쭙봤으나 신경질을 내셔서 그만뒀다.

4. 이○○ 장로님은 기억 못해

교회 장로님이자 사회복지재단 ‘○○복지재단’ 회장님이신 이○○ 씨가 지나가시는 틈에 K 씨에 대해 여쭙봤다. 성함을 기억 못하셔서 사진을 보여드리자 “네, 알겠네요.” 하고 답하셨지만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계셨다.

5. ○○복지관(○○복지관) 재방문

지난번 ○○복지관 직원 분한테 추천받은 최○○ 씨를 찾아보러 ○○복지관에 다시

	<p>갔으나 자리에 안 계셨다. 대신 자리에 계신 다섯, 여섯 분한테 다시 K 씨에 대해 여쭙봤다. 이번에는 사진이 있으니 기억하실 것 같았다.</p> <p>그러나 사진을 보여드려도 모두 다른 분으로 헷갈리거나 기억하지 못하셨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다. 한 봉사자 분은 ○○PC방에서 홍○○ 씨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데 얼굴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다.</p>
4차 취재 후 느낀 점	<p>사실 고시원 분들이 말씀하시는 K 씨의 이야기는 비슷하거나 한정적이어서 교회에 가면 더 이전의 이야기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래서 홍○○ 씨가 첫 인터뷰에서 알려주신 교회 단서(왕십리에서 서대문으로 이사했다는)만으로 구글링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돌리기도 하며 교회 찾는 데 필사적이었다.</p> <p>그런데 막상 찾아간 교회에서 K 씨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러웠다. 고시원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교회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K 씨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저 수많은 교인들 중 한 분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참 허무했다.</p> <p>설상가상 K 씨와 같은 교회를 다니셨다는 정○○ 씨는 인터뷰를 너무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눈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p> <p>K 씨가 사셨던 용산구에서 교회가 있는 은평구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인데, K 씨는 매주 3일씩 교회를 오가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위안을 받으셨을까? K 씨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p>

(10) 안 해본 일 없는 성실한 택시기사

- 시체처리구: 경상남도
- 성별: 男
- 출생년도: 1959
-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 주소지: 경상남도
- 혼인사항: 미혼
- 연고자: -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자택
- 주거형태: 단독 (월세)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친구
- 안치장소: 화장장 (공원묘지)
- 사망원인: 급성심폐부전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간이 좋지 않았고, 택시기사 일을 했었음.)

1차 취재일	2014.07.18.	1차 취재장소	-사망지 동네 주변(세탁소)
--------	-------------	---------	-----------------

			-등록기준지(OO 재활원) -OO동 동사무소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동네 세탁소 2. 등록기준지(OO 재활원) 직원 3. OO동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1차 취재 내용	<p>-잘 모르겠는데요.</p> <p>사망지 동네의 주변은 OO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 조용하며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편이었다. 고인의 생전 주소지를 찾아 그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생활을 하셨을지 상상해보았다. 갑작스런 비로 인해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대문이 열려있는 집은 많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p> <p>근처 세탁소를 방문해 "혹시 작년 이 동네에 사시던 D씨에 대해 아세요?"라고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p> <p>-등록기준지는 OO재활원, 혹시 이 곳 출신일까?</p> <p>지도를 검색한 결과 주소지와 등록기준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곧바로 등록기준지로 찾아갔더니, 그 곳에는 일반 주택이 아닌 'OO 재활원'이 위치해 있었다. '그렇다면故 D씨는 이 곳 재활원 출신인 걸까? 혹시 장애가 있으셨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활원을 방문하여 직원 분께 물어보니 "이 곳은 보시다시피 재활원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찾는 분의 나이를 보니 이곳과는 상관없으신 분 같은데..."라고 하셨다. "그럼 혹시 이곳은 언제 생겼나요?" "59년에 생겼어요." 고 D씨가 59년생인데, 59년에 생긴 곳이라니... '주소지가 잘못 기재된 것일까?'는 의문만 남긴 채 우리는 재활원을 나와야만 했다.</p> <p>-그 분 OO의 집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p> <p>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을 고려해 근처 OO동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고 D씨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현재 육아휴직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다행히 고 D씨에 대해 기억하던 다른 공무원을 통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소에 술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었고 저쪽에 위치한 'OO의 집'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등록기준지가 왜 OO재활원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OO의 집 출신이라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취재방향이 잡히는 듯했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취재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씨를 사람들이 만나기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서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이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로 인해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다 멈추기를 반복해야했고, 이야기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았다.</p> <p>그러던 와중에 밝혀진 고 D씨가 'OO의 집' 출신이라는 하나의 흔적은 다소 막막했던 우리에게 한 줄기의 OO으로 다가왔다. '그 곳에 가면 그 분을 기억하는 원장님이 계시지는 않을까?' '혹시 같은 시기에 들어와 지내던 다른 지인을 만날 수는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p>		
2차 취재일	2014.07.20	2차 취재장소	-OO의 집 -사망지 동네 주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OO의 집 직원 2. 사망지 동네 이웃주민		
2차 취재 내용	<p>-평일에 다시 와주시겠어요? 주소지에서 도보로 5-8분 정도 거리에 있는 'OO의 집'으로 향했다. 큰 건물 2개로 이루어진 곳이었고, 어렵게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다행히 관계자분을 만났지만 휴일에는 업무가 쉬는 날이니, 평일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다.</p> <p>-그 사람? 말 한번 나눠본 적 없었어. 갑작스런 소나기가 지나가고 맑아진 날씨 덕분에 집 앞에 놓인 화분들을 정리하는 동네 아저씨가 보였다. 조심스레 다가가 "혹시 뒷골목에 사시던 D씨에 대해 아세요?"라고 묻자 "이름은 모르겠는데...작년에 죽은 사람 얘기하나보네?"며 그 분에 대해 기억하시는 것들을 말해주셨다. "나도 얼굴만 알았지, 인사를 나눠보거나 말한 적은 없었어. 내가 알기로는 아침인가? 점심인가? 친구가 와서 아침 먹으러 가자 할렀다가 발견했다는 것 같던데... 이웃과의 교류도 없었고... 유품 정리도 친구가 와서 다 했다는 것 같던데 아마? 옆집이 생기기 전에 공터였을 때 그곳에 버렸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주셨다.</p>		
2차 취재 후 느낀 점	<p>오늘도 비슷한 시간에 만나 시작한 취재. 항상 우리가 맡은 10명의 고인 분들을 생각하고, 이 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저 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담으면 더 나올지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보니 어느새 7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연결고리가 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아쉬워하기도 하고, 물어보며 돌아다닌 것에 비해 눈에 보이게 잡히는 게 없다보니 힘이 빠지는 날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팀에겐 7월이 항상 평일이었던 적이 많았다. 더딘 진행속도에 조급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면서.</p> <p>이 날은 휴일이라 OO의 집을 찾아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할 순 없었다. 하지만 덕분에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었던 날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으로 외면당하기 쉬웠던 마음가짐도 재정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 될 수는 없겠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은 날도 열심히 걸어야겠다.</p>		
3차 취재일	2014.07.21	3차 취재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의 집 -사망지 동네 주변 -OOO 상회 -故 D씨 친구 자택 -OO교회 -OO교통
만남 사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 OO의 집 직원 -사망지 동네 청소 아주머니 -사망지 동네 이웃주민(할머니 2명) -사망지 동네 이웃주민(아저씨 1명) -사망지 동네 슈퍼주민 		

	<p>-근처 동네 슈퍼주인 부부 -故 D씨 친구 -OO교회 관계자 -OO교통 관계자</p>
<p>3차 취재 내용</p>	<p><u>-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시는 분이 없네요.</u> 평일에 다시 찾아간 OO의 집. 고인에 대한 물음에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 알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현재 이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대부분이 10년 이내인 경우가 많고, 예전 원장님이 56년 생이셨으니 원장님이 계신다고 해도 59년생이던 D씨를 기억할 수가 없죠. 생년월일로 보아 전쟁고아이셨던 것 같은데, 그 때와 지금과는 시설의 규모나 운영방식 조건 등도 많이 달라 그 분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OO의 집에 가면 고인을 기억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는 너무나 허무하게 없어져버렸다. “혹시 현재는 OO의 집에 있는 학생들의 퇴소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보통 20살을 전후로 퇴소를 많이 하지만 대학졸업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독립할 때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의 우리나라는 여건 상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독립지원 같은 것이 있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p> <p><u>-술을 자주 마시는 무리가 있었지 아마?</u> 다시 사망지 동네로 돌아와 좀 더 다양한 주변이웃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근처 골목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시던 청소 아주머니께 고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침도 안 먹고 술을 자주 먹었다. 친구도 있었다지 아마? 저 쪽 길 건너에 있는 리어카 보이시? 저 리어카를 모는 할아버지와도 자주 마셨을 거야 아마. 친하게 지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주위에 살긴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를거야.”</p> <p><u>-잘 몰라.</u> “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잘 몰라.” 라고 말하시던 할머니는 바로 옆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를 권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크게 말하기를 원하셨고 던진 질문에 대해 “그 사람 죽었다이가? 자세한 그런건 나는 모른다. 술 먹고 간이 나빠가지고 죽었다는데, 친구가 누가 있는지 그런거 잘 몰라.” 라고 짧게 대답하셨다.</p> <p><u>-그런 사람이 있었어? 통장 한번 찾아가보지 그래?</u> 무더운 날씨에 근처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쉬고 있나보네? 난 지금 일하러 간다.” 너무나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주시던 아저씨가 고마웠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질문을 드렸다. “혹시 저 윗 골목에 사시던 D씨라고 아세요?” “D씨? 처음 듣는데... 통장이 알라나? 잠시 있어봐라.”라고 말하시고는 다른 분께 물어보고 다시 오셨지만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것은 없었다. 자신은 잘 모르겠고, 동네를 관리하는 통장을 한번 찾아가보라며 직접 통장 집까지 길을 안내해주셨다. “우리 옆에도 그렇고, 술 마시는 사람들 많아. 아침에도 마시고, 오후쯤에도 마시고. 여기 슈퍼 갔다가 저기 슈퍼 갔다가 그러</p>

	<p>지. 내 아는 사람도 원래 일을 착실하게 했던 사람인데 요즘 너무 술을 많이 마셔.”라며 이런저런 동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 통장 집까지 직접 데려다주시며 “저기 가서 직접 한번 물어봐.”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셨다.</p> <p><u>-혈색이 안 좋으니까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다녔어.</u> “술을 많이 마셨지. 간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수급자 되면서 돈이 나오니까 술을 자주 마시는 것 같더라. 이 동네에는 오래 살았고, 평소에 간이 안 좋아서인지 혈색이 안 좋았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다녔어. 사람은 참 좋았다. 다른 사람들 애도 안 먹고. 택시기사 일 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고. 작년 추석 날 앞에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가 갔다가 발견했다는 걸로 안다. 저 위쪽 편의점에서 가끔 마시고 옆으로 가면 000 상회도 자주 갔었으니까 거기 함 가봐라.”</p> <p><u>-사람은 참 좋았다, 배려심도 깊었고.</u> 000 상회는 마을의 작은 슈퍼였다. D씨에 대해 묻자 주인 부부로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상세히 얘기해주셨다. “그 사람 참 좋았다. 술을 많이 마신 게 문제였지. 추석 날 같이 밥 먹자고 친구가 찾아갔다가 발견했다지. 그 친구도 이 근처에 산다. 그 아내는 재활원에서 일하고 있고. 재활원에 있다가 00의 집 갔고, 퇴소하면서 독립했지. 친구? 잠시 있어봐라. 집에 있는지 함 보자.” 지금껏 물었던 이웃들 중에서 고인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아시는 분들 같았다. 어디론가 연락을 하고는 직접 친구 집에 데려다주시겠다고 하며 길을 안내해주셨다.</p> <p><u>-전 날까지도 술을 마셨었지.</u> 다소 경계하시던 눈빛과 말투는 같이 동행해주신 할아버지 덕분에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답변은 하시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하며 답변하시는 걸로 보아 고인을 발견하셨던 친구 분이 맞는 듯 했다. 고인의 평소 성격이나 발견했을 당시의 모습, 사후 유품 정리까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화장을 한 뒤 현재는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셨다. 택시 일을 하던 ‘00교통’이라는 구체적인 회사 이름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p> <p><u>-말려도 마시고, 안됐어.</u> 길을 안내해주셨던 할아버지와 다시 돌아가는 길. “마시지 말라고 해도 안됐어. 밥을 안먹으니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한잔씩 한잔씩 마셨지.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술 먹지 말고 밥 먹어라 해도 안 돼. 보는데서 안 먹어도 안보는 곳에서 먹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한잔씩 하고. 저쪽에 00교회도 다녔었어.”고 말을 더하며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셨다.</p> <p><u>-00교회, 00교통</u> 월요일이라 교회는 쉬는 날이었고, 00교통은 6시가 넘은 시간이라 회사에 상주하는 노조분들이 퇴근한 뒤였다. 평일에 다시 방문해야할 것 같다.</p>
3차 취재 후	기대했던 00의 집에서 아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는

느낀 점	<p>마음으로 사망지 근처로 찾아갔다. 무더운 날씨라 그런지 생각보다 집 밖에 나와 계시는 주민 분들이 많았다. 먼저 말을 걸어주시며 다가오시는 분들 덕분에 고맙게도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서 작은 단서를 찾았고, 새롭게 알아낸 장소와 지인을 수소문해가며 끊어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갑작스런 방문과 질문에도 상세하게 얘기 해주시고, 직접 길을 안내까지 해주시는 모습에서 더위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도 다시 힘과 용기가 생겨났다. 갑작스럽게 연달아 진행된 인터뷰로 인해 미리 준비했던 배터리와 메모리가 소진되는 순간도 있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던 날이었다.</p>		
4차 취재일	2014.07.23	4차 취재장소	-00교회 -00교통 -00택시 -00병원
만남 사람 및 연락처	-00교회 관계자 -00교통 관계자 -00택시 관계자 1(홍 부장) -00택시 관계자 2(김00) -00병원 관계자(원무과 직원)		
4차 취재 내용	<p>교회에 찾아가 '고 D씨'씨에 대해 물었지만 아시는 분은 없었고, 바로 다음 취재장소로 이동했다.</p> <p>-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그런 사람 없었어.</p> <p>다행히 오늘은 00교통 직원들이 있었고, 사정을 얘기하며 '고 D씨'씨에 대해 물어보았다. "D씨? 처음 듣는데..." "여기서 택시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다는 직원분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조차 없었다고 말하셨다. 보유택시와 기사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 규정상 택시기사로 일했다면 당연히 기록도 남아있을 것이라며 한 번 더 찾아봐주셨지만 D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다른 택시회사일지도 모르니 미리 택시회사에 물어보고 방문해볼 것을 권해주셨다.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정말 감사하게도 한 직원분이 다른 택시회사에 대신 연락해 알아봐주셨고, 고인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다녔던 택시회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은 '00택시'였다.</p> <p>-D씨는 있었는데...63년생이야.</p> <p>00교통에서 연결해주신 00택시의 'O 부장'님을 찾아갔다. 고인에 대한 여러 물음에 친절히 답해주셨고, 고 D씨가 지냈던 동네주민들과 친구에게서 들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있었던 D씨는 63년생인데?"라며 보여주신 직원 관리 기록에는 정확히 '63년생 D씨'로 적혀있었다. 분명 D씨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생전 모습이나 성격 등이 이전에 사망지 근처에서 취재하며 알아냈던 것들과 일치한데, 어떻게 생년월일이 다른 거지? 갑작스런 문제에 당황했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사람은 참 좋았지, 택시 일 하기 전에 배도 탔던 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게 일도 잘했어. 술도 많이 마셨었고. 키는 좀 작</p>		

왔고, 수수한 모습이었어. 고아였던 걸로 아는데? **BBS(구두 닦는 분을 지칭하는 뜻함)** 출신이야. 구두 닦는 거 말이야. 택시 일 하기 전에 뭐 배도 타고 구두도 닦고 이것저것 많이 했을 거야.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택시 일 그만두기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던 걸로 기억해. 회사에서는 자기 일만 하고 갔지, 사적인 얘기나 그런 건 표현하는 적이 없었어. 일을 꾸준히 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어.”

인터뷰가 끝난 뒤 OO택시를 나왔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O 부장님이 다시 우리를 불렀고, 되돌아간 사무실 안에는 D씨와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택시 일을 시작할 때 직접 제출한 이력서가 있었고, 서류를 통해 출신 학교와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내가 그 사람 집에도 몇 번 놀러가고 했었는데? 특히 여자 앞에서 내성적이었어.
O 부장님과 얘기 도중 유난히 D씨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시는 분이 함께 있었고, 그 분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고 D씨의 집에도 몇 번 찾아갔었다는 그 분에게서 이전에는 듣지 못한 D씨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면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알게 된 지는 20년 정도 됐지? 사람은 좋았는데, 끈기가 없었어. 게을렀지.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말이야. 구두도 닦고 배도 타고. **고데고리(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배를 나타내는 뜻함)**도 했지. 피조개 잡는 배 탔었을 걸? 술을 좋아해서 막걸리를 얼마나 많이 마셨었는데. 사람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 주위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많았어. 그 동네 가면 OOO 상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 마시고, 산에 가서 술 마시고. 거의 술 마시면서 생활했었지. 회사에서도 **해룡파**였어. 술 좋아하는 사람들 7-8명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일안하지. 그 중에서 벌써 2명은 세상 떠났고. 그 당시에 수급자로 받던 돈 못 받을까봐 택시회사에서도 견습생으로 있었어. 정직원이 아니다보니까 비노조로 있었고. 노조에 가입 했었으면 그래도 이래저래 더 챙겨줬을텐데 말이야. 결혼할 시기도 놓치고, 술도 좋아하고 이제 주위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생활이 지속됐을 거야. 젊었을 때는 결혼하려고도 했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었으니 쉽지 않았겠지. 거기다 여자들 앞에서는 내성적이었어 사람이.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위원장 O씨를 통해 생전 주소지 근처 이웃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D씨의 성격과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안 좋았던 몸으로 인해 몇 번 입원했다는 병원 관련자 분과 직접 연결해주셔서 우리는 병원으로 곧바로 찾아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다.

-순한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입원은 했었지만 하루 이틀 한 적도 많구요.

“입원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2009년부터 2013년 작년까지 9번 정도 되는데, 거의 짧게 입원했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사진이 있으면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날텐데 기록만 보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기록상으로 보면 수액을 집어 던지고, 싸우고 욕함. 간호사들이랑도 다툼. 음.. 순한 환자는 아니었네요. 간이 안 좋으셨

	던 분이라 구토, 구역질, 소화가 안 되거나 코피가 나서 왔다는 식으로 기록되어있네요.”		
4차 취재 후 느낀 점	기대했던 교회에서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곧바로 이전직장이었던 택시회사로 향했다. 찾았던 택시회사가 이전직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면서 일이 조금 꼬이는 듯 했지만 친절하신 관계자 분들 덕분에 쉽게 이전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년월일로 기록되어 있는 무연고자 공고문과 등본.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아 아무래도 주변을 더 찬찬히 살펴보며 취재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 이 날만큼은 취재를 진행했던 수많은 날 중에서 가장 든든했던 날이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모습에서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날의 취재를 마무리했다.		
5차 취재일	2014.07.28	5차 취재장소	-OO중학교 -OO OO수산/기업(현재 없어짐) -OO OO화물/택배(현재 없어짐)
만남 사람 및 연락처	-OO중학교 행정실 직원들 -OO구청 무연고자 담당자 -OO중고등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OO화물/택배 관계자 (OO 지점, OO/OO/OO 지점(형제가 운영), 현재 없어진 OO 지점)		
5차 취재 내용	<p><u>-졸업앨범은 어디에...?</u></p> <p>이전 직장에서 보았던 고인의 이력서에는 OO중학교 졸업 이후 3개의 직장을 다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록을 토대로 혹시 학교에 보관중인 졸업앨범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OO중학교를 찾아갔다. 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물었더니 아쉽게도 그 당시의 졸업앨범은 보관되어있는 게 없다고 하셨다. 혹시 학교 도서실에도 없냐고 물었지만 오래된 자료라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학교를 나와 졸업앨범에 대해 수소문하던 끝에 'OO중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보관되어 있는 명부에는 고인의 이름도 없을뿐더러 졸업앨범과 같은 자료는 없으니 학교에 문의해보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 수 있었다.</p> <p><u>-59년생과 63년생. 어떤 것이 진실일까?</u></p> <p>일단 졸업앨범에 대한 조사는 잠시 미뤄두고 생년월일이 다른 이유에 대해 다시 추적해보기로 했다. 혹시나 어떤 사연이 있어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록된 것인지, 아님 단순 실수로 잘못 기록된 것인지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몇 번의 검색을 통해 OO구청 무연고자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고, 확인결과 무연고자 공고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담당자가 공고를 처음 작성하고 게시할 때는 분명 63년생이었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기록이 변경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지... 그래도 그동안 조사했던 것들이 고 D씨에 대한 확실한 정보라는 점에서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p>		

	<p>-모두 없어져버린 이전 직장들(OO수산, OO화물)</p> <p>생전 마지막 직장이었던 OO택시 이전에도 많은 직장을 거치신 고인. 근무하셨던 때는 거의 20년 전이지만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당시 일했던 동료들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로 수소문 해보기 시작했다.</p> <p>OO수산은 OO에 위치한 곳으로 생전 배도 탔었다는 지인들의 말과 일치하는 부분이였다.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직접 주소지로 찾아가보았다. 하지만 주소지에는 텅 빈 사무실과 다른 회사만 있었고, OO수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p> <p>그렇다면 또 다른 직장이었던 'OO화물'에 대해 다시 추적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찾아가기 이전에 미리 검색해본 결과 OO에 총 5개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남OO, OO, 동OO, OO) 남OO 지점은 전화가 되지 않았고, OO은 영업소를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고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주소지는 동일했던 동OO 지점과 OO 지점. 동OO 지점에 전화를 시도해 물어보았지만 영업소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서OO 지점 또한 친형이 운영하는 곳으로 그 곳 역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OO 지점이 40년 넘게 운영한 곳이고, 최근에 없어진 곳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셨다. 아무래도 오래 운영했던 남OO 지점이 고인이 일했을 곳이라 추정되었고, 그 주소로 찾아가보았다. 근처 주민들에 의하면 OO화물 남OO 지점은 20일전에 없어졌다고 했다. 현재 그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 방문해 이전 영업소를 운영하던 분의 연락처를 얻어 전화를 걸었다. "그곳에서 OO화물을 운영했던 것은 맞지만 그렇게 오래전의 기록은 남아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모두 없어져버린 고인의 이전 직장들. 사회인으로 활동했을 시절의 고인의 흔적을 찾기란 어려워졌다.</p>		
5차 취재 후 느낀 점	<p>생년월일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훨씬 마음이 편했다. 택시회사에서 얻은 정보(이력서, 등본)를 통해 또 다른 직장에서 사회인으로 활동했을 고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이전 직장들은 모두 없어진 뒤였다. 지도를 통해 검색했을 때만해도 주소지가 남아있어 찾아가면 또 다른 흔적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몸이 아프기 이전, 직장에서 일하며 생활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젊었을 땐 어떤 미래를 상상하며 생활했을까. 그 분 역시 따뜻한 가정을 계획하고 꿈꾸며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을까?' 한창 꿈이 많았을 젊은 시절의 고인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렇게 멈춰버린 추적이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었다.</p>		
6차 취재일	2014.07.29	6차 취재장소	-OO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OO OO화물</p> <p>-OO 중학교 행정실 직원</p> <p>-OO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관련자</p> <p>-OO 중학교 졸업생</p>		
6차 취재 내용	<p>-혹시나 했지만...</p> <p>지도에는 없었지만 OO화물 영업소에는 따로 표기되어 있던 OO영업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았지만 역시나 고인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없었다. "영업소는 이곳에 오래 있었지만 5년 전에 주인이 바뀌어 그렇게 오래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p>		

	<p><u>-몇 회 졸업생인가요?</u> 79년 2월에 OO중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우선 몇 회 졸업생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어제 방문했던 OO중학교 행정실로 다시 문의해 본 결과 20회 졸업생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p> <p><u>-20회 졸업 동창을 찾는다면...</u>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으로 OO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라 특정 기수 졸업생을 관리하는 사무실 관계자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중학교 20회? 가만있어 보자... 이 책이 졸업생들 전부가 담겨있는 책인데... 중학교는 23회 졸업생까지만 자료가 있어. 그 이후부터는 추첨제로 신입생 선발을 해서 자료가 없지. 20회 졸업이면 고등학교는 OO회 졸업했겠네?" "그런데 저희가 찾는 분은 중학교만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는 안 가셨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OO회 졸업생 분들이 대부분 중학교 20회 졸업하신 분들이겠네요?" "그렇지, 바로 진학했다면 중학교 20회 졸업생이 고등학교 33회 졸업생이겠지? 4회씩 차이나거든. 그럼 고등학교 OO회 졸업생 회장이라 총무 연락처를 알려줄게.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아래층 사무실 찾아와서 한번 물어봐." 그 분들이 OO중학교 20회 졸업생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OO고등학교 OO회 졸업생 2분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p> <p><u>-OO중학교 20회 졸업생 맞으신가요?</u> OO회 졸업생 회장과 총무, 2분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회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다행히 총무와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OO고 OO회 졸업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OO중 OO회 졸업생 맞으세요? 79년 2월에 졸업하신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희가 같은 해 중학교를 졸업하신 D씨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죄송하지만 혹시 OO회 졸업앨범이나 관련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오래 전 일이라 찾아봐야 할거고.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같은 해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은 맞았지만 아쉽게도 고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닌 듯 했다. 관련 자료나 졸업앨범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p>		
6차 취재 후 느낀 점	<p>같은 해 졸업했던 동창생만 찾는다면 풀릴 것 같았던 것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자 며칠간의 취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중학교 시절의 흔적과 졸업앨범.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아쉬운 마음만 더욱 더 커져갔다. 초반에 집중했던 고인의 모습이 중년층의 삶이었다면, 이전 직장들을 조사하며 찾고자 했던 건 고인이 청년이었을 때의 삶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꿈을 꾸고, 활발하게 생활했을 그런 시기. 그 때 고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한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야 했던 고인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p> <p>현재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그 때의 모습이 더 궁금하고 그래서 더 집요하게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p>		
7차 취재일	2014.07.30	7차 취재장소	-OO 시립공원

<p>만남 사람 및 연락처</p>	<p>-시립공원 관계자 -OO공원묘원 관계자</p>
<p>7차 취재 내용&느낀 점</p>	<p>오늘은 그 동안의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립공원'에 안치 되어 있으신 고 OO씨와 'OO납골당'에 안치되신 고 D씨를 찾아뵙기로 했다.</p> <p><u>-고인분과 어떤 관계죠?</u> 공단에서도 훨씬 더 안쪽에 위치한 시립공원은 화장 시설도 같이 있는 곳이라 보통 시민들의 거주지와는 상당히 먼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평일 오후, 봉안당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몇몇의 가족단위만 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봉안당까지. 죽음이후 거쳐야 할 시설들이 한 곳에 마련된 이곳이야말로 죽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p> <p>관계자에게 '고 O'씨가 안치된 곳을 묻자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라는 물음이 되돌아왔다. 그 동안 취재를 이어가며 우리가 수없이 던져야 했던 그 질문을 반대로 받게 되니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그와 동시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왜 고인을 찾는지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그 때가 슬프게 다가왔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안히 계시는 고인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p> <p>관계자가 알려주신 봉안담(옥외에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장소) 위치를 기억하며 찾아간 그 곳에는 번호만이 또렷이 적혀있었다. 고 OO씨의 이름조차 찾을 수 없는 유골함. 그 동안 조사했던 무연고자 라는 단어가 가장 절실히 와 닿는 순간이었다. '그 동안 취재를 하면서 혹시나 언짢았던 일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취재했던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사회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p> <p><u>-결국 납골당에서 고인의 사진을 발견하다</u> OO 납골당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입구에서 미리 꽃 한 송이를 사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공원묘원과 같이 있는 곳이라 무척이나 넓은 규모였다. 내리쬐는 햇빛에 공원묘원에 놓여있는 여러 색의 조화들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었다.</p> <p>사무실로 찾아가 '고 D씨'씨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 물어보았고, 몇 분 뒤 고인명과 안치되어 있는 곳의 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네주셨다. 직원분이 안내해주신 그 곳에는 화려한 색깔의 조화들이 한가득 꽂혀있는 반대편 유골함과는 달리 웅한 분위기의 유골함으로 가득했다. 아무래도 무연고자 분들의 유골함만 따로 모셔놓은 공간이라 그런 듯 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여러 송이의 꽃과 사진이 함께 있는 유골함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 바로 우리가 찾던 고 D씨의 유골함이었다. 이전에 방문했던 시립공원과는 달리 유골함에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지인이 다녀갔는지 몇 개의 조화와 고인의 사진이 함께 있었다.</p> <p>이전 직장에서부터 중학교 졸업동창까지. 그 동안 수없이 찾아 헤맸던 고인의 모습을 결국 납골당에 찾아와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런 분이셨구나. 그래도 이 분은 이렇게 고인을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 동안 흔적을</p>

찾아다니며, 고인과 관계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어떤 분이셨을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인의 사진을 직접 갖다 놓아주신 분이 고맙게 느껴졌다. 몇 분간의 기도와 참배를 드린 후 손에 있던 꽃 한 송이를 앞에 내려놓았다.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무례하게 느껴졌던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한다 말할 수도 없겠지만 외로웠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짧은 한 마디였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며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영상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죄송했지만, 부디 이 길고 길었던 기록이 뜻 깊은 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 달간의 촬영을 마무리했다.

(11) 알코올중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남자

- 시체처리구: 춘천시
- 성별: 男
- 출생년도: 1964
- 등록기준지: 춘천시
- 주소지: 춘천시
- 혼인사항: 미혼으로 추정
- 연고자: 無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자택
- 주거형태: 임대
- 발견일시: 사망 후 일주일 정도 뒤에 발견
- 발견자: 지인
- 안치장소: 시립납골당
- 사망원인: 간경화
- 기타: -

1차 취재일	2014.06.21	1차 취재장소	강원도 춘천시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관리사무소 당직 아저씨 2. 슈퍼 아주머니		
1차 취재 내용	1. 관리사무소 당직 아저씨 처음 관리사무소를 찾아 M씨의 행방을 물었을 때, "왜 자꾸 그 사람을 찾냐"고 말씀하시며 매우 언짢아 하셨다. 돌아가시고 난 뒤로 많은 분들이 관리사무소로 와 M씨를 찾았는데, 택시 기사 분들이었다고 하셨다. 당직하시는 분이 기억하는 M씨의 모습은 슈퍼에서 술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M씨는 이웃과 교류가 많지 않았다. 어렵사리 부탁한 결과 M씨가 입주하던 당시 작성했던 입주자관리카드를 볼 수 있었다. 원래 호적등본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었으나 M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관리카드에는 고인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그리		

	<p>고 M씨의 직업, 택시기사만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사항 칸은 비어있었다.</p> <p>M씨는 사망 당시, 이부자리에 피를 토한 채로 쓰러져 계셨다고 한다. 아마도 사망 원인은 술로 인한 지병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p> <p>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M씨의 가족 관련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혼인사항에 기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당직 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고인의 주거형태가 임대여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연고자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인의 보증금은 국가로 환수되었다고 한다.</p> <p>2. M씨가 술을 자주 샀던 아파트 단지 내 슈퍼 아주머니</p> <p>아주머니는 M씨를 기억하고 계셨다. 이미 망자가 된 사람에 대해 무슨 말을 더 하겠냐며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셨다. 사람은 좋은데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M씨가 잘 살던 때 친구에게 백지카드를 선물했는데, 카드를 받은 친구가 상당한 양의 돈을 지출하고 돌연 잠적했다고 한다.</p> <p>그 후 M씨의 삶은 힘들어졌다. 지인과의 교류가 끊겼고, 몸에 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한명의 친구만이 힘들어진 M씨의 곁에 남았다. 친구분이 정말 사람됨이 좋아 아주머니는 M씨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둔 당신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친구 분이 M씨 사망의 최초 목격자였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퇴근 후 슈퍼에서 막걸리 두어병을 사들고 항상 M씨의 집을 찾았다. 어느 날 외근을 나가 한동안 오지 못했는데, 돌아왔을 때엔 M씨는 이미 고인이 되셨다.</p> <p>아주머니는 매번 술을 사는 M씨를 말리기도 했지만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술을 사 돌아갔다고 한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과격한 주사 하나 없었다. 하지만 M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하셨다. 외상이 밀려 전화를 해 보면 술병이 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했다. 술병으로 병원에 자주 갔고, 언젠가는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다고도 한다.</p> <p>가족 간의 관계는 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M 씨가 술을 많이 드셔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M 씨가 결혼을 했었다고 하셨다. 결혼을 했다가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취재 2일차이다. 못해먹겠다.</p> <p>처음 뵙는 분께 고인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다들 왜 이제 와서 찾느냐고 말씀하신다. 고인이 살아계실 적에 누군가 관심을 보였다면 외롭게 가시진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또한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게 된다.</p> <p>오늘 만나 뵈는 두 분도 고인이 되신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다. 다음에 다시 찾아가 연락처와 성함을 묻고, 조심스럽게 촬영 의뢰를 해 볼 생각이 다. 또 M씨의 지인분과 M씨가 근무하던 택시회사를 수소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친구 분이 M씨의 상황, 그분이 느꼈던 감정들까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같이 택시 하시던 분들은 아마 M씨의 빛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p>		
2차 취재일	2014.07.14~16	2차 취재장소	춘천시 일대
만난 사람 및	1. OO마트 사장님 : 춘천시		

연락처	<p>2. M 씨 사망 최초 발견자 : 춘천시</p> <p>2. M 씨 중학교 동창 : 춘천시</p>
2차 취재 내용	<p>약 한달 만에 ○○아파트를 찾았다. 관리사무소 당직 분과 슈퍼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촬영을 요청할 생각이었다.</p> <p>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을까, 1차 취재 때 보였던 분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다.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고인도 이 아파트에 살고 계셨던 입주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 없다며 대화를 거절하셨다. 슈퍼 사장님께서서는 촬영에 응해 주셨지만, 1차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p> <p>1차 취재 때 슈퍼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친구 분을 찾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 결과만 이야기 하자면 최초 발견자 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분이 포탈에서 발견자분의 성함을 입력해 봤는데 아무런 검색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M 씨의 20년 지기 친구인 것은 맞았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 친구 분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 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 담당 형사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역시나 개인정보와 협조 요청 공문의 벽에 부딪혔다.</p> <p>그 다음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최초 발견자 분을 뵈 수 있었다.</p> <p>1. M 씨 사망 최초 발견자 유계정 씨 M 씨와는 96년쯤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사회친구다.</p> <p>1) M 씨의 대략적인 삶 어릴 적부터 이일 저일 했는데, 간판 일을 오래 했다. 간판 일을 관두고 나서는 택시 일을 잠깐 했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뒤에는 ○○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p> <p>2) 가족 아버지가 이북에서 홀로 남한으로 오셨다. 어머니는 남한에 오셔서 만났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중학생 때 폐렴으로 먼저 떠났다. ○○동 어딘가에 묻혔다고 하는데, M 씨가 죽기 전에 형의 묘를 찾고 싶어 했다.</p> <p>3) '최프로' M 씨가 볼링을 잘 쳐서, 볼링클럽 사람들은 M 씨를 최프로 라고 불렀다고 한다. 볼링도 잘 쳤고, 손재주가 정말 좋았다. 사교성도 있어서 볼링클럽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p> <p>외출하시려는 찰나에 우리가 찾아간 터라 시간이 없어 많은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갑작스런 방문에 많이 놀라신 듯 했다. 성함과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기를 꺼려하셨다. 살</p>

짜 떨어지는 손이나 불안정한 시선이 많이 보였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 드리고 서둘러 나왔다.

M 씨와 광고 일을 오래 한 분이 계신다고 발견자 분께서 알려주신 OO광고사를 찾아갔다.

2. M 씨 중학교 동창 정OO 씨

M 씨와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광고 일을 한동안 같이 했다. M 씨가 광고 판을 떠나고 난 뒤에는 예전처럼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저녁을 같이 먹곤 했다.

1) M 씨의 대략적인 삶

M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광고기사 일을 시작했고, 42~3세부터 택시기사를 하다가 다시 광고판에서 일당을 받아가며 일했다. 그 후로 다시 택시를 하다가 완전히 관두고 술에 의존한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다.

2) 가족

새어머니, 이복동생이 있었다. 그러나 이혼하고 난 뒤로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 새어머니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복동생은 정말 예뻐했다. 아버지를 엄청 챙겼던 효자였다. 아버지께서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월급을 타면 맛있는 것을 많이 사다 드렸다. M 씨는 아버지와 둘이서 오래 살았다. M 씨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동거는 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이 취조하듯 여자에 관해 물어봐도 잘 대답하지 않았다. 거의 일평생을 혼자 지내다시피 했다.

3) M 씨의 마지막

아는 형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듣고 알았다. 군자리에 있는 공설묘원에서 그 형에게 연락이 왔다. 그 후로 M 씨가 돌아가셨단 사실을 알았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다고 들었다.

4) M 씨의 성격

내성적이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안으로 곱씹는 편.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주변 친구들에게조차 연락을 돌리지 않았다.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연락도 안하냐."라고 나무라기도 했다. 어렸을 때 새어머니와 살면서 자립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착했고 남을 잘 배려했다. 착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당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스스로 무너졌던 것 같다.

5) M 씨를 힘들게 했던 택시 일

택시 기사 일을 하면서, 기사 분들과 어울리면서 M 씨가 급격히 힘들어졌다. (사람이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 보수를 제대로 못 받기도 했고 술도 많이 마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쉴 때 새벽부터 아침까지 술을 계속 마셨다. 노조에 이용을 당했던가, 노조 관련해서 크게 데이고 난 후 택시를 완전히 관두고 술을 많

	<p>이 마셔서 몸이 망가졌다.</p> <p>6) 사교적이었던 사람 볼링 카페에도 가입했었다. ○○볼링장에서 클럽 회원들과 볼링을 잘 쳤다. 볼링 말고도 조기축구도 나갔다. 술로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는 대인관계가 원만했음. 주변인들에게 호감 상이었다.</p> <p>7)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음 술을 원래 좋아했다. 술에 본격적으로 의존하고 나서는 한 번 술을 시작하면 1주일은 내내 술에 절어 살았다. ○○리 ○○아파트로 이사 간 뒤에는 옆집 젊은 부부가 매일 싸우는 바람에 잠을 못자겠다며 밤마다 잠에 들려고 더 술을 마셨다고 한다. M 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친구들끼리는 이미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 얼굴도 눈에 띄게 검어지고, 몸이 망가진 것이 눈에 보였다. 가장 최근에 진단 받았던 것이 간경화 3~4기였다. 처음에는 본인도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긴 했다.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하고 본인이 힘들면 알콜 치료병원에 직접 입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인생이 부질없다 느꼈는지 1~2달 뒤에 다시 퇴원해서 술을 마셨다.</p> <p>※ 이후에 찾아갈 분들 · 박OO 씨 : M 씨가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다시 광고 일을 할 때 M 씨를 많이 챙겼던 광고기사형.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서 밥도 먹이고 했다. · 최OO 씨 : M 씨의 광고기사 후배.</p> <p>이 외에도 볼링클럽 회원, 광고기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M 씨 이름을 대면 모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최초 발견자 분께서 말씀하셨다.</p>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일단 발견자 분께 죄송하다.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왔냐고 물어보셨을 때, 주변 분들께 물어 물어 오게 되었다고 대답은 드렸으나 정말 너무 죄송했다.</p> <p>발견자 분께서 M 씨와 친했던 분들을 알려주시면서 “춘천에서 M 씨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M 대면 모르는 사람 없을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유명하셨던 분이 왜 마지막은 홀로 외로이 가셨는지 모르겠다.</p> <p>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도대체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속해있는 가족, 내가 꾸릴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를 생각해보려 했다.</p> <p>우리가 취재한 분들에 대해 주변 분들은 항상 ‘사람은 착했어.’, ‘내성적이어서 힘든 일을 티내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홀로 마지막을 보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분들의 성향 탓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p> <p>우리가 이분들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 자체가 흐려 지려고 한다.</p>

3차 취재일	2014.07.17~18	3차 취재장소	춘천시 ○○동 춘천시 ○○리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초등학교 행정실장님 : 춘천시 ○○동 2.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님 : 춘천시 ○○면		
3차 취재 내용	<p>※ 2차 취재 때 잘못된 정보 정○○ 씨 - M 씨의 ○○초등학교 동창 → 2차 취재 때 인터뷰 해주셨던 <u>중학교 동창</u> 분의 성함이 정○○</p> <p>1. ○○초등학교 M 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보다 오히려 옛 친구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동창 분들을 찾기 위해 M 씨의 모교인 ○○초등학교를 찾았다.</p> <p>1) ○○초등학교 20회 졸업생, “좋은 건 없네요.” M 씨는 ○○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이고, 졸업 당시 6학년 0반이었다. 행정실장님께서 M 씨의 생활기록부를 쪽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건넨 말은 “좋은 건 없네요.”였다. 아버지는 노동일을 하셨고, 형이 있었다. 가정형편이 좋지 못했으며 이 때 문인지 결석도 많았다. 성적은 나빴다.</p> <p>2) 친했던 친구 교감선생님께서 20회 동창회에 그 당시 M 씨를 기억하는 분 혹은 최근까지 연락하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주시기로 했다. 우리는 다음 날 다시 연락드리기로 했다. 다음 날 다시 연락을 드린 결과, 많은 분들이 이름만 알 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친했던 친구 분은 있었다. 박○○ 씨는 M 씨가 초등학교 재학 당시 친했던 사이였다. 서○○장에서 장사를 하다 경상도로 이사 간 뒤 동창생들 사이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한다.</p> <p>2. ○○면사무소 1) 사망원인은 간경화가 확실 담당 사회복지사님께서 당시 기록을 확인하신 결과 사망원인으로 간경화가 확실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병원입원기록이 상당히 많았다.</p> <p>2)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혜택 많지 않았다. 일단 사회복지사님도 M 씨에 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상담한 기록도 전혀 없었다. 그저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물품들을 받고, 병원비를 적게 낸 것이 다였다.</p> <p>3. 지인 분들과의 연락, 계속되는 거절 지난 2차 취재 때 중학교 동창 정○○ 씨께서 주신 연락처로 다른 지인 분들에게 연</p>		

	<p>락을 시도했다.</p> <p>박○○ 씨와 M 씨 모두 일이 바빠서서 다음 날 다시 통화해야 했다. M 씨에 대해 전 화상으로 말하기엔 너무 길다고 하신 것으로 볼 때 취재에 응해주실 것 같았다. 그런데 박○○ 씨는 다음 날 태도가 바뀌었다. 고인에 대해 좋은 기억도 없고, 잘 모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M 씨는 이주는 일단 일이 너무 많으니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다른 지인 분의 연락처를 주셨다.</p> <p>M 씨가 주신 연락처는 알고 보니 우리가 맨 처음 찾아갔던 최초 발견자 유○○ 씨의 연락처였다. 2차 취재 때 그분이 외출 직전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연락드렸다. 그러나 그분의 엄청난 노여움을 사고야 말았다.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갑자기 떠올리게 한 데에다, 우리의 취재 의도와 목적도 오해하셨다. 우리의 미숙한 행동으로 화가 많이 나신듯 했다.</p>		
3차 취재 후 느낀 점	<p>유○○ 씨께 너무 죄송해서 일요일 밤에 우리의 잘못을 사과드리고 취재 목적에 대해 설명한 편지를 써서 댁 앞에 놓고 나왔다. 다음 주에 연락을 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 취재에 응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진심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p>		
4차 취재일	2014.07.21	4차 취재장소	<p>춘천시 ○○동 춘천시 ○○길 춘천시 ○○동 춘천시 ○○동 춘천시 ○○동</p>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1. ○○프로젝트 사장님 : 춘천시 ○○동 2. M 씨 : 춘천시 ○○동 3. ○○볼링장 부장님 : 춘천시 ○○동</p>		
4차 취재 내용	<p>1. 없어진 중학교의 흔적을 찾아서</p> <p>M 씨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지금 없어졌다. 학교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근처에 있었던 ○○교회를 찾았다. 중학교와 이름이 같아서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다.</p> <p>○○중학교는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였다. 월요일이라 교회 관계자 분들이 안 계셔서 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쭙볼 수 없었다. 나중에 다시 교회를 찾아 그 당시 M 씨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p> <p>2. 사라진 편지</p> <p>○○교회가 최초 발견자이신 유○○ 씨 댁 근처였다. 유계정 씨가 어젯밤에 넣은 편지를 읽으셨을까 궁금해서 유계정 씨 댁 앞을 갔다 왔다. 편지봉투는 사라져있었다. 과연 읽으셨을까..... 화요일 동해 취재를 마치고 와서 다시 연락드려볼 생각이다.</p> <p>3. M 씨가 근무했던 ○○프로젝트 사장님</p> <p>M 씨와는 광고기사 선후배 사이이다. 알고 지낸지 25년 정도 되었다.</p> <p>1) ○○프로젝트에서의 M 씨</p> <p>○○프로젝트에서 10년 정도 근무했다. 간판제작을 주로 했다. ○○은행의 간판을 담</p>		

당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돌아다녔다. 직원은 열 명 정도였는데 모든 직원과 사이가 좋았다. 매사 술선수범했다.

IMF 당시 ○○프로젝트도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그 때 M 씨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그 후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오래 일했다.

일용직도 그만 두고 택시기사 일을 할 때 택시를 하면서도 간혹 간판제작에 일손이 필요하면 와서 도왔다.

2) 택시기사 일

택시는 2년 정도 했다. "3년 무사고 하면 회사를 나와 개인택시로 영업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해라."라고 당부했지만 얼마 안가 사고를 냈고 그만두게 되었다.

3) 성격

외유내강.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집념도 강했고 고집도 션다. 내성적이었다. 잔정이 많았다. 무너지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성실했다.

4) 술

술을 정말 좋아했다. 술자리 분위기메이커였다. 주량이 5병 정도였다. ○○시장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자주 마셨다. 나중에는 간경화로 매우 힘들어 했다. 그러나 술을 끊지 못했다. 아마 외로워서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간에 좋다는 다슬기 액기스도 쥐 보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면서까지 ○○병원으로 입원시켜보려고 노력도 했다. 그러나 결국 포기했다.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배에 복수도 찾고, 황달과 열꽃도 매우 심했다.

5) M 씨가 죽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

기초 1급 수급자였다. 죽기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 매우 비참했다. 늘 비몽사몽이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잠을 못잡니다."라고 말하면서 불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늘 사무실에 자전거를 타고 올 때면 취해있었다. 술에 취해서는 간신히 자전거를 끌고 다녔다. 일을 하는데 여든은 족히 넘은 노인이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때 '아 이 사람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느꼈다.

6) M 씨의 사망소식을 접했을 때

돌아가신지 보름 지나서 그 사실을 알았다. 많이 안타까웠고 아내가 많이 울었다. 지금도 가끔 아내와 M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7) 기억에 남는 순간

① 직원회식 때 집 근처에 차를 두고 왔었는데 M 씨가 가지고 오겠다고 집으로 갔다. 한참이 지나도 M 씨는 오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오지를 않아서 아내와 함께 엄청 걱정하고 있었다. 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았더니 M 씨였다.

그 때 당시는 몰랐는데 M 씨는 면허정지 상태였다. 차를 가지러 갔다가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 날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즈음이라

사면되었다. 아내는 울기까지 했다.

② 25~6년 전 이야기다. 순돌이라는 강아지를 3년 정도 키웠는데, 순돌이가 M 씨만 보면 이상하게 짖었다. 어느 날 M 씨가 순돌이를 바깥으로 몰다가 갑자기 오는 차에 순돌이가 치여 죽었다. 엄청 놀라던 M 씨의 모습이 기억이 났다.

4. M 씨의 광고기사 후배 M 씨

92~3년도에 처음 만났다. 둘 다 간판 일을 하고 볼링도 쳐서 계속 마주치면서 알게 되었다.

1) M 씨의 황금기, 볼링클럽

30대 초중반이 M 씨가 가장 행복했을 때다. 나이도 젊어서 이 때 당시까지만 해도 M 씨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었다. M 씨는 ○○클럽이라는 볼링클럽에서 활동했다. 광고업계는 술친구들만 가득했다. 볼링클럽에서는 운동(볼링)도 하고 같이 모여서 놀러가기도 했다. 좋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볼링클럽에서는 좋은 오빠, 좋은 형이었다. 화 안내는 사람, 화 낼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얼굴에 웃음은 항상 잃지 않았다.

볼링을 매우 잘 쳤다. average 190정도였다. 각종 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했고, 춘천시 대표보다 더 잘 쳤다. 대회 상금은 그날 술값으로 모두 나갔다. ○○ 잔디밭에서 해가 뜰 때까지 클럽 회원들과 술을 마셨다. 해가 뜨면 해장국을 먹고 일터로 출근했다.

2) 성격

차분하다. 급한 것이 없다.

사람이 착해서—M 씨는 착하다기보다 돈 관련해서 너무 개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M 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변에서 참 많이 꼬드겼다. 술이나 한잔 하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100만원 어치 술사는 것은 예삿일도 아니었다. 카드로 돈 떼이는 것도 여러 번 있었다.

3) 일터에서의 M 씨

M 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간판 제작 기술도 그 분에게 배웠고 춘천에서 자리 잡는 데 도움도 많이 받았다.

간판 일을 할 때는 '쟁이'였다. M 씨는 춘천시내에서 손꼽히는 기술자였다. 일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거북이처럼 느렸던 사람이 갑자기 토끼로 돌변했다.

4) 뺑소니 사고, 그리고 교도소

M 씨가 40대에 들어섰을 때, ○○동의 쪽방에 살 때 일이다. M 씨는 ○○(지금은 없어진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때도 서로 만나서 술을 자주 마셨다. 아는 선배가 하는 조개구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회사차를 몰던 M 씨가 ○○병원 앞에서 청소부를 쳤다. 사고 과정에서 백미러가 나갔었다.

아침에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M 씨가 백미러를 고치면서 출근길에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되어 교도소에서 1년 좀 넘게 형을 살았다.

사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사람은 더 좋아졌다. 교도소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지 못했기

	<p>때문이다. 퇴소 후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부도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M 씨에게 줬다. 그런데 어느 순간 M 씨가 오토바이를 몰지 않았다. 없어졌다고 했다. 결국 오토바이가 없어진 뒤에도 밀린 할부금을 지불했다.</p> <p>교도소 퇴소 후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다.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봉급도 매번 밀리고 직원 대우가 좋지 않았다. —앞서 우리가 만났던 사장님이 하신 말씀과 달랐다—</p> <p>5) 주변의 도움</p> <p>‘세탁 4인방’, ○○중학교를 근처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4명의 형님들이 있다. 그분들이 M 씨를 잘 챙겨줬다. 술이 먹고 싶을 때 찾아가면 술도 주고 재워서 보냈다. M 씨가 아플 때 클럽사람들의 도움으로 약도 지어주고 해서 몇 번 살려놓았다. 그러나 술을 끊지 못해 또 건강이 악화되었다.</p> <p>○○포장마차 ‘그날 밤’에 참 자주 갔었다. 아주머니가 M 씨를 많이 좋아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돈은 내가 낼 테니 M 씨가 가면 술 2병을 공짜로 주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 이상은 몸에 좋지 않으니 딱 두 병만. 그 곳에서 못 마시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많이 마셔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머니께 부탁한 적이 있다.</p> <p>6) M 씨의 마지막 모습</p> <p>2~3년 전 광고 일을 하며 오다가다 마주쳐서 커피 한 잔 한 것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p> <p>7) M 씨의 사망소식을 접했을 때</p> <p>장례가 끝난 뒤에야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동안 멍해있었다. “무슨 소리야”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p> <p>독립해서 일을 할 때 데려다 놓고 같이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제의를 몇 번 했었지만 본인이 원치 않았다. 이곳저곳에서 부르기도 했을 뿐더러 매여 있는 것을 싫어했다.</p> <p>5. 흩어진 ○○클럽 회원 분들</p> <p>지금 ○○클럽은 해체되었고, 그 때 회원 분들은 각기 다른 클럽으로 흩어지거나 아예 볼링을 치지 않는다고 M 씨가 말씀하셨다. 과거 ○○클럽 회원 몇 분이 활동하신다는 ○○볼링장에 찾아갔다. 볼링장 부장님은 연락처를 직접 알려줄 수는 없고 회원이셨던 분들에게 우리의 취재 의도와 목적을 전달해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7월 이내로 그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p>
4차 취재 후 느낀 점	<p>· ○○○</p> <p>○○프로젝트 사장님의 말은 어딘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른 분들과 달리 주저함 없이 선뜻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것도,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뭔가 포장된 느낌까지도. 어딘가 이상하다. M 씨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 M 씨께서 말씀하셨던 M 씨를 이용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어딘지 모르게 이야기, 말투, 행동,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p>

	<p>○○프로젝트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울컥하는 감정을 카메라 앞에서 토해냈다. 말을 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는데, 기숙사에 돌아와서 엄청 후회하고 있다. 괜히 말한 것 같다. 만약에 내 모습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정말 머리를 땅에 묻고 싶을 것 같다.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내 이야기를 남들이 알게 된다는 것도 싫고.. 그냥 많이 창피하다.</p> <p>그리고 우리가 목적의식이 많이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고민하게 된다.</p> <p>· ○○○</p> <p>우선 술 만든 사람을 때려잡아야 할 것 같다. 몇날 며칠 취재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다. 어찌면 담배보다 술이 더 백해무익할지도 모른다. 술에 대한 원망, 술을 끊지 못했던 고인에 대한 생각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답답함이 먼저 올라오기도 했었다.</p> <p>하지만 술에 의존하는 고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삶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다. 아마 고인의 가장 좋은 벗은 술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받은 남성 사례자들 중에 술과 관련되지 않은 분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속 터놓고 하는 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삶의 무게를 술에 의지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이 '힘들다'라는 말조차 쉽게 못하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 혼자 끙끙 앓게 하는 것일까? 안타까움, 답답함이 혼재되는 취재이다.</p>		
5차 취재일	2014.07.26	5차 취재장소	춘천시 ○○길 춘천시 ○○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1. 정○○ 씨 : 춘천시 ○○길</p> <p>2. 이○ 씨 : 춘천시 ○○가</p>		
5차 취재 내용	<p>1. M 씨의 ○○중학교 동창 정○○ 씨</p> <p>1) M 씨의 중학생 시절</p> <p>학교 다닐 적에는 M 씨와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말 없고, 수줍음 많은 성격이었다. 공부는 정말 잘 했다. 상위권이었다. 그 때 당시에도 형편이 어려웠다. 아버지께 고기를 사 드려야 한다고 해서 집 근처까지 가 본적은 있다. 집을 잘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p> <p>2) 중학교 동창회</p> <p>나이가 들어 동창회를 시작하고 단 한 번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동창들이 안부를 물으면 대신 이야기 해줬다. 깊은 사정은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해줬다. 특히 그 때 당시 친했고, 같은 동네 살았던 이○○ 씨가 많이 걱정했다.</p> <p>3) 같이 근무했던 직장 ○○기획</p> <p>파트가 달라서 잘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다. M 씨는 공장에서 실제 간판을 제작하는 일을 했다. ○○기획 이후에도 그렇고, 같이 간판을 만드는 사람들 보다 볼링클럽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간판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M 씨가 처했던 상황을 누구보다</p>		

잘 알아서 깊은 상황은 잘 모르는 불링클럽 사람들과 자주 만났다.

“난 못 가봤지. (중략) 난 어딘지도 몰라 ○○ 요원이. 한 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 아직도 못 갔지.”

“혼자 해결하려는데 잘 안되니까 좌절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신하고 몸이 망가져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 얘기도 많이 했어. 그 당시에만 알았다고 그러고 사는 모습은 그게 안 되니까.(중략)”

“죽기 전에 아내랑 밥도 먹었어. ○○동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자주 들렀지.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다 놀랐지 뭐. 놀랐다가 보다 속이 상하지. 그렇게 죽었다는데.”

“얼굴이 완전 시커매져서 오는 거야. 몸도 비쩍 말라가지고. (중략) 속으로 그랬어. 재저러다 죽는데... 죽는데... (중략)”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근처에 산대. 근처에 있어. —정말 자기 이야기를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몸이 안 좋으면서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오픈을 안 해. 자존심이 세서 이야길 잘 안했어. 이야길 하면 찾아가보기라도 할 텐데. (중략)”

“주변에서도 안 도와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중략) 그러다가 죽은 것 같아.”

정○○ 씨께서 사진 두 장을 보여주셨다. 중학생 때 소풍 가서 찍은 단체사진과 청년이 된 후에 정○○ 씨와 M 씨 두 분이서 찍은 사진이었다.

갖고 계셨던 사진을 통해 드디어 M 씨를 뵈 수 있었다.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이라 지인 분들이 설명해 주시던 마지막 모습이 상상이 되질 않았다. 사진 속의 M 씨는 씩씩한 마지막을 맞을 분이 아니었다.

2. ○○에서 M 씨와 일했던 이○ 씨, ○○(?) 씨

1) M 씨의 ○○근무 시절

· 이○ 씨

M 씨는 동네 이웃이자 광고기사 선배인 이○○ 씨를 통해 ○○에 왔다. M 씨에게 기술을 알려주곤 했다. 기술을 배우고 나서 꼼꼼하게 잘 했다. 외부에서 간판 다는 일을 주로 했다. M 씨는 ○○를 1년 남짓 다녔다.

· ○○ 씨

같이 외부에서 간판 다는 일을 했다. M 씨는 덜렁거리는 면도 있어서 위험하겠다 싶은 일은 다칠까봐 시키지 않았다. M 씨는 일이 끝나고 술을 자주 마셨다. M 씨는 ○○시장을 지나 ○○교 쪽에 살았다. 아침에 늦게 출근하는 날도 있어 직접 집으로 데리러 갔었다. 술을 자주 마셨기 때문에 집을 찾아가면 늘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이였다. 늦으면 빨리 나가야하는 데 아예 회사에 안 나갈 기세로 집에 있었다. 출근하기를 포기한 듯 했다.

2) 가족, 알고 지내던 지인

· 이○○ 씨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와 헤어졌다고 알고 있었음. 사실 확인 필요.—
그 외의 가족들과는 왕래가 거의 없었다. M 씨의 사촌 형과 우리 형이 친구사이다. 그러나 사촌 형도 나에게 와서 M 씨의 안부를 물어볼 정도였다.

같은 동네 살던 이○○ 씨가 M 씨와 많이 알고 지냈다. 그래서 예전에 M 씨의 안부를 물었는데, 다시는 그 XX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며 역정을 낸 이후로 M 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3) 성격

· ○○ 씨

늘 표정에 어두움을 지니고 있었다. 불만을 술로 풀었다. 완전 내성적이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볼링클럽에서 활동할 때는 활달했다. 먼저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애교도 부릴 줄 알았다.

4) ○○클럽 시절

볼링클럽을 다닐 때는 훨씬 나았다. 오히려 많이 봤다. 지나가다 들리기도 잘 했다. 얼굴도 밝았다. 목표가 있었다.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볼링 외에도 운동신경이 좋아서 다 잘했다.

5) M 씨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

· 이○ 씨

① 돌아가시기 1년 전, 컴퓨터가 필요한데 중고로 하나 없냐고 연락이 왔었다. 컴퓨터를 설치하러 두어 번 ○○리 ○○아파트에 갔었다. 방에 들어가면 늘 항상 술병과 약봉지가 있었다. 그 때 당시 이미 간경화는 진행 중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주 어렵게 되었다. 관리비가 많이 밀려서 재계약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다. 초창기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왔다.

② 그로부터 4개월 뒤,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료비가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서 개울가 쪽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다쳤다고 했다.

· ○○ 씨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프로젝트에서 봤었다. M 씨는 일이 없을 때, ○○프로젝트에 놀러왔었다.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 놀러와서 앉아있다 직원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먹곤 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이야기했다. 한번은 그를 잘 챙겨주던 박기연 씨가 크게 화를 냈었다. M 씨가 술을 사달라고 했는데, 밥은 사줄 수 있지만 술 사달라고 할 거면 아예 이곳으로 오지 말라고 크게 욕을 하고 화를 냈다. ○○프로젝트 사람들은 M 씨의 건강상태를 알고 술을 잘 사주지 않았다. 밥을 사 먹으라고 돈은 줬었는데, 아마 술값으로 나갔을 것이다.

“해골바가지 같았어. 그놈이. 밥도 제대로 안 먹지. 술만 먹지. 그러니 뭐가 되겠어?”

	<p>“—옆에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만. 나중에는 말해도 안 들으니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거야.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사실.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보면 또 혼내기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p> <p>“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슬러 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까진 안됐을 것 같아. 낙이 없으니깐 고독사를 하는 거야. 결국. 뭔가 목표가 있고 낙이 있으면 그 길을 향해 가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하는데. (중략)”</p> <p>“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힘들고.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 쫓아가지 않는 한 뼈뚫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진짜 특별한 걸 머릿속에 넣지 않는 한 똑바로 살 수가 없어. (중략)”</p>		
느낀 점	<p>· 정○○</p> <p>취재를 하면서 느꼈는데 M 씨의 지인 분들은 ‘아버지 같은 친구’, ‘어머니 같은 친구’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간판 일을 하는 분들은 주로 M 씨가 술 드시는 것을 말렸다. M 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직언을 했다. 볼링클럽에서 만났던 분들은 M 씨와 술을 마셨다.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친했던 분들은 같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M 씨를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싶다.</p> <p>M 씨와 같이 술을 드셨던 분들을 뵙고 싶다. M 씨와 술을 마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술을 사다 주는 것으로, 같이 마셔 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던 그분들의 M 씨에 대한 감정이다.</p>		
6차 취재일	2014.07.29	6차 취재장소	춘천시 ○○동 춘천시 ○○동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고○○ 씨 : 춘천시 ○○동 2. 장○○ 씨 : 춘천시 ○○동		
6차 취재 내용	<p>○○중학교 근처의 세탁소들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세탁 4인방’ 중 한 분이신 고○○ 씨를 뵈 수 있었다. 다른 동네에서 옷 수선을 하고 계셨다.</p> <p>우리가 M 씨에 대해 취재한 지 근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래서인지 M 씨의 지인 분들 사이에 우리의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고○○ 씨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 M 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알고 찾아왔냐고 말씀하시는 얼굴에서 씩씩한 표정을 읽었다.</p> <p>1. ‘세탁 4인방’ 중 한 분이신 고○○ 씨 87년, M 씨가 30대 초중반일 때 볼링장에서 처음 인사하며 알게 되었다.</p> <p>1) M 씨가 가장 행복했었던 ○클럽 시절 M 씨는 정석 자세로 볼링을 쳤다. 클럽회원들의 롤모델이었다. ‘최프로’라는 별명이 있었다. 국가대표선수들과도 어울려서 볼링을 칠 정도로 실력이 굉장했다. ‘토요일볼링’이라고 강원도민들 간에 볼링대회가 있었는데 줄곧 대표로 나가기도 했다.</p> <p>볼링클럽에서 활동할 때는 M 씨와 형·동생 하며 잘 어울렸다. 1년에 300일 정도는 만났다. ○○에서 술을 밤 새 마시고 6시에 볼링장이 문을 열면 또 볼링을 친 적도 있었다.</p>		

중간에 7~8년 정도 볼링을 치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볼링을 치러 나왔을 때 M 씨가 이전과 다르게 좀 변해있었다.

2) 기억에 남는 순간

다른 지역으로도 볼링을 치러 자주 다녔다. ○○으로 금반지 내기를 하러 볼링을 치러 가는 길에 자동차가 발길에 빠져 전복될 뻔한 적이 있었다. 시간을 맞춰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 앞바퀴가 빠졌었다.

3) 성격

성실했다. 화를 낼 줄 몰랐다. 웬만해선 화를 안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잘 했다. 간판업계에서 선후배관계도 좋았다.

4) M 씨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

죽기 보름 전에 ○○볼링장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볼링을 치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근황을 이야기했다. M 씨는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도 간혹 연습을 하러 볼링장에 나타나곤 했다. 주로 중국집에서 볼링 연습이 끝나고 만나 식사를 했다.

5) M 씨의 사망소식을 접했을 때

사망 소식을 접하고, 처음엔 어이가 없었다.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어 장례절차를 알아보다 시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갈 사람이 없어서 볼링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냈던 유○○ 씨, 유○○ 씨와 함께 셋이 갔다. 염을 하고 화장하는 것 까지 지켜봤다. 나중에 간판하는 후배들이 납골당에 찾아가기도 했다.

6) 나머지 '세탁 4인방' 분들과의 관계는

지금은 모두 세탁소를 하지 않는다. 나는 수선을 하고, 한 명은 화천에서 명찰가게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보일러 일을 하고, 마지막 한 명은 버스운전을 하고 있다. 춘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주 보곤 하지만 화천에 가 있는 친구와는 자주 만나질 못해 소원해졌다.

“사람이 변함이 없어서 좋았던 거야. 자기 일에 자부심 가졌던 친구고.”

“외로움이 술을 먹었지.”

“남자들의 문화가 술이 없으면 친구가 안 되잖아. 여자들처럼 서너 시간 수다를 떨지는 못해. 남자들은 술을 밤 새 먹으면서 떠들 수는 있어. 술을 먹어야 또 친해져. 속내를 이야기하고 실수도 받아주고. (중략) 남자들은 할 게 없어. 늘 나이 먹어서 일을 놓음 뭐하고 사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할 게 없더라고. (중략)”

“친구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살면서 친한 친구는, 외로울 때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갖고 있어야 우울증 같은 것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 혼자서 위험해 사실.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도 외로우면 강하지가 못해. 딴 짓을 하게 되어 있어.”

“—지금도 지인 분들과 M 씨 이야기를 하시나요?— 보내고 나서는 안한다고 봐야지. 왜냐면 나도 잊어먹고 싶으니까. 그 생생한 모습이. 누워 있는 모습, 얼굴 뭐 이런 것들이 생생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누가 ○○ 얘기하면 ‘그만해라.’ 그러면서 빠지고.

왜냐면은 한참 혼났거든. 보내면서의 존재가 좀 있잖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 이름을 들으면 그 영상이 나오잖아. 병원에서부터의 쪽 그 영상이 오니까.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그래.

좋은 기억은 아니야. 어른이 되어서 잘 살다가 갔으면 그런 기억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몸이 안 좋은데다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얼굴색도 몸 색도 정상이 아니잖아. 그런 거지.

누군가는 (이야기를) 못해주겠다. (인터뷰)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모습을 안 본 사람들은 살아생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되잖아. 나 같은 경우나 (인터뷰를 거부한 유계정 씨) 그런 경우는 그 영상이 떠오를 거야. 그래서 하기 싫을 거야. 말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든다. 가슴이 아픈게....”

“듣는 것과 보내는 것의 차이는 커. 자꾸 그 영상이 올라와서 몸이 저릿저릿하지... 오늘도 술을 한 잔해야 되겠네.”

2. ○○클럽 회원이었던 장경진 씨

M 씨와 알고 지낸지 15~6년 되었다. 볼링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볼링을 치면서 가까워졌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같이 다녔다.

1) M 씨가 가장 외로워했던 순간

추석과 설날과 같은 명절에 많이 외로워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절에 식당도 문을 닫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M 씨는 집에 형제들이와 있어서 오려고 하지 않았다. 민폐 끼치기를 싫어했다. 그래도 불러서 밥을 먹였다.

2) 광고기사에서 택시기사로

3년 정도를 ○○ ○○동에 있는 모텔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았다. 하지만 일이 없어 결국 쫓겨났다. 간판일이 녹록치 않아 택시 일을 해보겠다고 했었다. 택시를 하면서 임대주택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그 무렵에 ○○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지금으로부터 3~4년 전)

택시 일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M 씨가 옳은 소리를 했었다. 그로 인해 노조 측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 노조로 인해 회사에서 내쳐졌다. 다른 택시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노조위원장과 상무가 다른 회사에 안 좋은 이야기를 넣은 듯 했다. 다른 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간판일도 마땅치가 않았다. 정 힘들면 여기 점심시간에 와서 배달일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p>3) 기초생활수급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생활고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제의했다. 수급자가 되고 나서 돈을 받아 생활하는 데 그 돈만으로는 부족했다. 일을 하지 못해서 아예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다.</p> <p>4)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사람을 알고 지냈지만 자신을 챙겨줬던 사람들에게는 몸이 안 좋아 지고 나서도 자주 찾아왔었다. 아내에게도 'OO'라고 부르면서 잘 했다. 아내도 많이 챙겨줬다. 중식집을 하니 돈이 없을 때 식사를 제공했다. M 씨가 "누나 밥 좀 줘." 하고 자주 왔었다. 옛날에 밥 먹던 느낌이 난다고 좋아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사망 이후 간판업계 후배들이 찾아와 M 씨가 안치된 납골당을 묻기도 했다. 지금도 M 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p> <p>5) 4차 취재 때 들었던 교도소 이야기의 연장선? 어느 날 하도 안보이기에, 병원에 있나 해서 병원을 다 뒤져봤는데 병원에도 없었다. 어떤 일로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간판 하는 후배들이 돈을 모아서 보름을 남기고 돈을 내고 교도소를 나왔다.</p> <p>6) 신용불량자 IMF 이후 시기의 일이다. 1차 때 들었던 카드 사건(친구가 M 씨 카드로 상당한 양의 돈을 지출했던)으로 인해 M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자기 앞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못했다.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면 월급이 차압당하기 때문에 일당 형태의 일을 했다. 취재 말미에 장○○ 씨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다. 2007년에 속초로 놀러가서 M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난 번 보았던 젊은 날의 M 씨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에 주름도 많아졌고, 안색도 좋지 않았다. 깊은 외로움, 고된 삶과 싸워온 40대의 M 씨가 있었다.</p>
6차 취재 후 느낀점	<p>·OOO 취재 영상을 돌려보면 어색하거나 올라오는 감정을 못 견딜 때 짓는 웃음이 계속 보인다. 고치려고 하는 데 잘 되질 않는다. 정말이지 못된 버릇이다. 마지막 취재까지 이틀이 남았다.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담아 고독사에 의도치 않은 오해가 담길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고독사가 사람 성향에 기인하는 것 같은 인식으로 비취질까봐 많이 고민했다.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고독사라는 주제 속에서 주목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다. 나는 가족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계속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이런 한 질문으로 그 분의 삶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건 주제넘은 짓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고독</p>

	<p>사에 대한 나의 질문은 내 깊은 공감에서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이 질문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p> <p>그래서 우리 청춘이 고독사에 대해 단지 연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생각도 안 해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고독사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묶지만, 그것도 정황들의 공통점일 뿐 진짜 원인, 실제적 이유들을 하나의 명확한 답으로 내리는 건 불가능 한 것 같다. 우리 청춘이 고독사를 통해 생각해볼 것은 그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1차원적 시각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p>		
7차 취재일	2014.07.30	7차 취재장소	춘천시 ○○면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정○○ 씨 : 춘천시 ○○면		
7차 취재 내용	<p>※ 6차 취재 때 잘못된 정보 장○○ 씨 - ○○클럽 회원 → ○○클럽 회원</p> <p>1. M 씨의 지인 정○○ 씨</p> <p>1) M 씨가 활동하던 또 다른 볼링클럽, ○○클럽 M 씨는 96년에 ○○클럽을 나와 ○○클럽에 가입했다. 4~5년 정도 활동했다. 어제 만났던 고○○, 장○○ 씨도 ○○클럽에서 친해진 사람들이다. 볼링 치는 날은 무조건 회식을 했고 많이 마시는 날은 한두 짝 정도 마셨다. 회원들끼리 등산도 자주 다녔다. 춘천 말고도 전국 각지로 다니곤 했다.</p> <p>정○○ 씨께서 04년도에 등산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다. 어제 봤던 07년도 사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 사진 속 M 씨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 M 씨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표정이 밝았다. 정○○ 씨는 이 시기가 그나마 행복했을 시기라고 말씀하셨다.</p> <p>2) 1차 취재 때 들었던 카드빚 이야기의 연장선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간판 일을 하면서 만났던 것 같았다. M 씨가 카드를 만들게 해서 그 카드를 친구가 수령하여 계속 사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카드빚을 갚기 위해 M 씨의 차도 그 친구가 팔아넘겼다. 이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당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M 씨는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춘천에 있다고 한다.</p> <p>3) 택시 일을 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택시는 04년 이후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택시를 하면서 몸도 급격히 망가졌다. 이 시기에 병원 다니면서 입원도 많이 했다. 쓰러져서 실려 간 적이 몇 번 있었다. 나중에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 사설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빼 달라고 M 씨가 요청을 해서 내가 돈을 내고 빼오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제대로 걸지도 못했다. 아장아장 걸었다.</p>		

	장례 치를 때도 있었고, 삼우제도 지내주었다. 아내가 음식을 마련해서 유○○씨와 같이 갔었다.		
7차 취재 후 느낀 점	<p>M 씨에 대한 취재를 하는 동안 많은 지인 분들을 만났다. 그 많은 분들을 만나는 동안 유○○ 씨를 만나보라는 말 역시 계속 들었다. 유○○ 씨는 정말 M 씨와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다. 오늘 만났던 정명환 씨도 유○○ 씨가 M 씨와 친한 사이였고, M 씨의 가족 이야기와 속 이야기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p> <p>어제 정○○ 씨는 유○○ 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한다. 유○○ 씨께서 우리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 이곳 카센터로 올 지도 모르니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가 취재하는 동안 유○○ 씨도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는지 알고 계셨을 것 같다. 보름 동안 우리가 그분을 계속 괴롭힌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되었다.</p>		
8차 취재일	2014.07.31	8차 취재 장소	춘천시 ○○면
만남 사람 및 연락처	-		
8차 취재 내용	<p>한 달 조금 넘게 진행되었던 취재를 마무리하고자 추모공원을 다시 찾았다. 지난달에 납골당에 왔을 때는 ○○에 있던 추모공원이 이곳 ○○로 옮겨오면서 유골을 다시 안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무연고사망자 분들의 유골도 아직 다 안치되지 않은 상태였다.</p> <p>한 달이 지난 지금은 모든 작업이 끝나있었다. 납골당은 조용했다. ○○호실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러 다녔던 분들이 모두 계셨다. M 씨, 진○○ 씨, 박○○ 씨. 황○○ 씨는 지인 분들이 찾아가신 건지 발견 못했다.</p> <p>고인이 되신 분들을 애도하기 위해 잠시 묵념을 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그 곳에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이 분들의 죽음을 다시 많은 분들께 상기시켜야 했던 우리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했다.</p> <p>묵념을 하고 내려와 추모의 뜨락에 글을 남겼다. 취재 첫 날 이곳에 적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애뜻한 글을 보고 우리가 취재하는 분들은 이런 편지를 받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글을 남기는 것으로 취재를 마무리 했다.</p> <p>더 이상 가슴 아픈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했던 지난 한 달의 시간이 우리가 이곳에 잠들어 계신 분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시간이었기를 바란다.</p> <p>- 시기별로 정리해 본 M 씨의 삶 -</p> <p>1964년 출생</p> <p>197x년 ○○국민학교 입학</p> <p>197x년 ○○국민학교 20회 졸업, ○○중학교 입학</p> <p> 형이 폐렴으로 사망</p> <p>198x년 ○○중학교 졸업</p> <p> 중학교 졸업 이후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것으로 추정.</p>		

	198x년	군 복무, 제대 후 ○○에서 본격적으로 간판 일을 배우기 시작 ○○, ○○기획, ○○프로젝트 등에서 광고기사 일을 했음
	1987년쯤	취미로 볼링을 치기 시작, ○○클럽에 가입
	1996년쯤	○○클럽을 나와 ○○클럽에서 활동
	1997년	○○프로젝트에서 해고, 이후 간판 관련 일용직을 했을 것으로 추정.
	2000년대 초반	교통사고 사건, 카드빚 문제 발생
	2000년대 후반	택시기사 일로 전환 2년여 정도 택시기사 일을 했음
	201x년	○○ ○○아파트 입주, 기초생활수급자
	2013년	사망
8차 취재 후 느낀 점		

(12) 실패한 사업가에서 노숙인으로 생을 마감한 교사

- 시체처리구: 부산광역시 ○○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1948
-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 주소지: 부산광역시
- 혼인사항: 기혼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병원
- 주거형태: 노숙자쉼터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의 집 관계자
- 안치장소: ○○병원
- 사망원인: 병사
- 기타: -

1차 취재일	2014년 7월 2일	1차 취재장소	○○의 집, ○○1동 주민센터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의 집 행정 담당자 2. ○○1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1차 취재 내용	취재 계획 - ○○의 집 방문하여 8.0 님을 비롯, 노상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권○○, 6.0 님의 거주 여부 확인		

	<p>취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의 집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 님의 OO의 집 거주 당시 담당자가 퇴사함 -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공공시설 규정상 어떤 정보도 유출할 수 없다고 함 - 권OO, 이OO 님이 OO의 집에 거주했던 흔적 찾을 수 없음 - OO1동 주민센터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자쉼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센터에는 관련 정보가 없음 - 근처 노숙자들이 모일만한 장소가 있냐고 물었으나 모르겠다고 함 		
1차 취재 후 느낀 점	<p>관청도 언젠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p>		
2차 취재일	2014.07.16.	2차 취재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등대 - OO관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OO 팀장 : OO종합지원센터 2. OO관 담당자 (출연 거부) 		
2차 취재 내용	<p>취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의 집의 취재 거부 이후, 노숙인 자활센터 방문 <p>취재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OOO 상담내용 : 과거 O님께서 박OO 팀장님과 상담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관에서 5~6개월 정도 이용하였으나 2달전(12.10)에 나왔다고 함 - 당뇨로 인하여 병원진료도 받았으며, 여인숙에서 지냈으나 월세를 내지 못하여 나왔음 - 다른 노숙자 쉼터를 이용하고자 함 - 휴대폰은 아직 가지고 있으며 친형제가 요금을 내주고 있다고 함 - 술은 마시지 않으며 담배만 태운다고 함 <p>소견) 쉼터 이용은 무리 없이 지낼듯함.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며 주차관리나 경비 일을 알아본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의집으로 연계함 - 경남출생 - 69년도에 정교사로 1년간 일하다가 그만두고 개인사업 시작 - 개인사업 도중 월남전 참전 (국가 유공자) - 귀국하여 개인사업 하다가 아내와 이혼 - 다시 재혼하여 개인사업 하며 살았지만 07년도에 암으로 사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박OO 팀장님 인터뷰 		

- 01년도에 정교사 시험을 쳐서 합격
- 02년부터 정년까지 경북 OO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 퇴직금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다 사라짐
- 하나있는 형제가 도움을 주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방값을 못내 쫓겨남2
- 주위 노숙인들에게 연락을 받고 센터로 전화, 방문
- OOOO에서 OO관(자활시설)으로 연결
- 자활시설 내 규율을
- 당뇨가 있었음
- 9개월 동안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함
- 자활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음
- 조리 있게 말을 잘 하심, 의사가 뚜렷함, 생각이 많으심
- 첫 번째 아내 사이에 자녀가 있음 (연락 못함). 두 번째 아내와는 사별
- 행려로 지낸 기간이 짧음(4개월)
- 퇴직금이 일시불로 나오는 바람에 사업자금으로 한방에 탕진
-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함
- 일반 노숙인보다 이야기가 잘 통함

[O님의 생애]

48년 : 출생

69년 : 교사로 재직

70년 : 교사 퇴직 후 개인사업 시작

70년대 초 : 월남전 참전

73년 : 귀국 후 개인사업 시작

87년 : 첫 번째 부인과 이혼. 슬하 3자녀.

87년 : 두 번째 부인과 재혼 후 개인사업

01년 : 정교사 시험 합격 후 경북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 재직

07년 : 두 번째 부인의 암으로 사별

11년 7월 : 정년퇴임(퇴직금 일시불로 받음)이후 퇴직금을 사기 당해 가족 간 불화

11년 8~12월 : 형제 도움으로 OO고시원 생활

12년 1월 : 형제의 지원이 한계에 이르자, 근처 노숙인들의 소개로 OOOO 첫방문, OO관 입소(OOOO에서 연결)

12년 2월 : 지병(당뇨 추정) 때문에 치료차 OO관 퇴소 후 재입소

12년 9월 : OO관 퇴소 후 혼자 거주 (4개월간)

13년 1월 : OOOO 재방문

13년 1월 : OO의집 입소

* OO의 집이 구직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OOOO에서 추천

13년 12월 : 사망

* 보훈 혜택이 있는 보훈 병원이 아닌 OO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보아 급사를 당한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6개월 만에 ○○○○를 찾아오신 점,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보통의 노숙자들과 달리 자활센터(○○의집)에 재입소 하신 점으로 보아 구직이나 자활에 대한 열정이 대단 하신 것으로 보임 - 당뇨를 원래 앓고 계셨으나 술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담배는 하루 반갑 정도. - 교사직에 있었던 분답게 글씨가 예쁘고 침착한 성격 - 담당자는 특히 고학력자로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는 점, 조리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눈리정연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심 - 평소 수중에 돈이 있거나 하면 피씨방, 오락실을 다님 <p>3. ○○관 담당자 인터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서 취재한 내용 외에 특별한 추가사항 없었음 - 구체적인 날짜 정도만 확보함
<p>2차 취재 후 느낀 점</p>	<p>○○ : 고인의 사진을 두 장 보았다.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사진과 노숙인 쉼터에 등록된 사진. 적지 않은 시간동안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얼굴을 본 건 거의 처음이다. 놀라웠다. 헬썩한 얼굴, 쾡한 두 눈, 쳐진 어깨. 두 번째 사진은 그가 겪은 삶의 역경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 퇴직금을 사기 당한 노숙자.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인생은 정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을 연신 내뱉었다. 그래도 끝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셨단다. 직업을 구하고자 하셨고, 자활을 위해 센터를 적극 이용하셨다고. 복지사개선 일이 무너져도 가족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으나, 가족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셨다. 그 말이 여실이 느껴지는 인생을 사셨다. 우리가 취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했다.</p> <p>○○ : 모두가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꿈꾸는 것은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교직에서 내려온 이후지만 그 안정성이 무너져 버린 삶을 보았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아버지의 퇴직, 그 이후를 너무 밝게만 보았던 것일까.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아버지의 미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싫다는 사람에게 끝까지 '이야기'라는 선물을 받으려는 우리와 달리, 싫다는 사람에게 끝까지 '혜택'이라는 선물을 주려는 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또 취재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어렵פות이 더듬는 기억이 아니라 돌아가신 고인이 직접 털어놓은 본인의 삶이었기에 더욱 마치 고인이 말하는 걸 직접 듣는 느낌이 들었다.</p> <p>○○ :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가족은 이러한 인간에게는 최고의 울타리이자 안식처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이 무너진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힘듦을 이겨내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 또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p>

3차 취재일	2014.07.21.	3차 취재장소	○○구 무료급식소 ○○역 무료급식소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 ○○구 무료급식소 앞 동네 어르신들 2. ○○역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 3. 등록기준지 마을 어르신들		
3차 취재 내용	<p>취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를 소개해준 노숙인 혹은 지인을 찾기 위해 ○○로 향함 - 등록기준지에서 ○님의 유년시절을 기억하는 마을 어르신 인터뷰 <p>취재 내용</p> <p>1. ○○구 무료급식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담당자에 의하면 ○○를 자주 방문하셨음 - 고인의 이동 경로 친구 ○○(점심) ~ ○○구 무료급식소(저녁)로 추정 - 친구 ○○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구 무료급식소로 향함 - ○○구 무료급식소 ○○경로당을 방문했으나, ○○인 무료급식소가 아니었음 - ○○역 앞 노숙자 대상 무료급식소 소재 파악 <p>2. ○○역 무료급식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노숙자 분들이 식사중 - 오래 근무하신 봉사자 인터뷰 - 대부분의 노숙자가 관계를 가지지 않음 - 봉사자분은 안면은 있으나 기억이 희미해 보임 <p>3. 등록기준지(○○동 ○○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는 경북 ○○인데 부산에 내려온 경위에 대한 의문이 생김 - 등록기준지(부산 ○○구 ○○동)가 고향이 아닐까 하여 방문 - 마을에서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심 		
3차 취재 후 느낀 점	<p>○○ : 수십 번을 반복한 이야기지만, 왜냐는 질문을 받으면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를 못하겠다. 고독사 취재에 임하는 나름대로의 정의가 서질 않아서 그런가, 아직 고인에 대한 애정이 들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주어진 과제나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가.</p> <p>고독사 사례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다수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개인의 삶은 파헤쳐져도 되는 것일까. 내가 그에게 애정을 가진다고 한들, 이를 보는 시청자들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대중들도 애정이 들게 하려면 당최 어떻게 찍어야 하는 걸까. 하면 할수록 의문이다.</p> <p>두 달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분당 최대 너 다섯 번 정도 취재를 나갔다.</p>		

	살아 만난 사람도 열 번으로는 그의 삶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어찌 죽은 이의 삶을 되돌아볼 거라며, 건너건너 사람들 말로만 그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은 “술 좀 적당히 드시지.. 건강도 좀 챙기시고”, “안타깝다, 그렇게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보시지, 가족도 좀 챙기시고” 정도의 마음뿐이다. 행동보단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취재일	2014.07.25.	4차 취재장소	○○대학교 ○○실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교육지원청 ○○실무원 2. ○○초등학교 행정실 3. ○○초등학교		
4차 취재 내용	취재계획 - ○님이 ○○에서 재직하셨던 초등학교 파악 취재 내용 1. ○○교육지원청 ○○실무원 임○○ 장학사 - ○님께서 근무했던 학교를 문의하기 위해 연락 - 공문 요청이 있었으나 잠시 보류 2. ○○초등학교 ○○실 - 공문 발송에 앞서 모든 초등학교에 전화를 직접 돌려보기로 함 - ○님이 정년퇴직 직전 마지막에 근무하셨던 학교로 확인됨 - 동년배 선생님들은 대부분 퇴직하셨다고 하심 - ○님이 거쳤던 다른 학교를 더 알아보기로 하고 통화 종료 3. ○○초등학교 임○○ 교감선생님 - 짧은 기억이라도 있는 분을 찾기 위해 다시 문의 - 전화를 받은 교감선생님께서 ○님과 친목회 활동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으심 - ○○초등학교 부임 전, ○○초등학교에서 함께 재직하심 - ○님께서 어린시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람 - 순수하고, 이해타산을 가리지 않음 - 반대로 생활력과 경제관념이 떨어짐 - 남의 말을 잘 들음. 의심이 없는 성격 - 친목회를 가졌던 선생님들과 퇴근 후 술도 곧잘 잡수심 - 퇴직 후, 사별한 두 번째 부인의 형제와 사업을 시작함 - 동업한 부인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함 - 첫 번째 부인 사이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음 -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함 *임○○ 교감선생님께서 친분이 있으셨던 동료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4차 취재 후 느낀 점	<p>○○ : 취재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조원은 함께 이때까지 취재해온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지만, 역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조심성에서 오는 심적 고통은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 정도인데, 그 분들은 얼마나 아팠을까.</p> <p>○○ : 처음엔 취재라는 거창한 말에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고독사라는 어려운 말에 뭔가 배울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 매일 느낀 점을 쓸 때마다 느낀 점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다. 다른 팀원들은 작은 일 하나에도 고인과 무연사에 대해 배워가는 나날들인데, 나만 냉혈한이 된 듯 자책감도 들었다. 하다보면 고인에게 정도 들고, 느끼는 점도 있을 거란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이제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팀원들이 내게 건넨 위로 아닌 위로, 고작 두 달로 죽음이라는 큰 주제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p>		
5차 취재일	2014.07.28.	5차 취재장소	배○○의 자취방 ○○역 무료급식소 중구 ○○동 ○○산 공원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엄○○ 교감선생님 2. 진○○ 선생님 3. 남○○ 선생님 4. 김○○ 선생님 5. ○○역 무료급식소 주변 노숙인 및 관계자 6. ○○공원 주변 어르신 		
5차 취재 내용	<p>취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감 엄○○ 선생님과 추천해주신 선생님들 섭외 연락 - ○○역 무료급식소 벽보 제거 - ○님의 노숙 생활 당시 흔적을 찾기 위해 수소문 <p>취재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엄○○ 교감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 교감선생님을 포함, 재직 시절 ○님과 친분이 있으셨던 진○○, 남○○, 김○○ 선생님 연락처를 받음 2. ○○초등학교 재직 시절 동료 진○○ 선생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과 함께 퇴직하셨음 -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대충 들으신 바는 있으나 사망 소식은 처음 접함 - 자택에 계시므로 편한 시간에 찾아오라고 하심 		

	<p>3. ○○초등학교 재직 시절 동료 남○○ 선생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라는 주제로 ○님을 취재한다고 말씀드렸을 땐 덩달아 기분 좋아 하심 - 고인의 사망 소식을 처음 접함 - 고독사라는 주제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림 - 기분이 언짢아지셨는지, 가족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알겠냐며 대뜸 전화를 끊으심 -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다시금 방송 취지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냄 <p>4. ○○초등학교 재직 시절 동료 김○○ 선생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대충 들으신 바는 있으나 사망 소식은 처음 접함 - ○님은 본인과 같은 후배들을 아껴주시는 선배 - 항상 감사하고 재밌었던 기억 - ○님께서 사모님과도 잘 지내셨다고 하심 - 엄○○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함 - 취재 방문일(7월 30일 수요일) 14시 경에 도착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17시에 마치는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응해주신다고 함 - 집에 단체 사진, 주고받은 물건 등을 가져와 주시기로 함 - ○님의 사망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심 <p>5. ○○역 무료급식소 주변 노숙인 및 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채류시절의 모습을 알 길이 없어, 일단 사진만 들고 무작정 찾아보기로 함 - 안면이 있는 것 같단 분도 계셨으나, 지인은 찾지 못함 <p>6. ○○공원 주변 어르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내 주요 노숙인 채류 지역인 ○○역, ○○ 공원 등을 둘러보기로 함 - 저녁시간이라 노숙인보다 일반인이 많고, 아시는 분을 찾지 못함
5차 취재 후 느낀 점	<p>○○ :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저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취재에 응해주시는 모든 분께 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고독사자가 아닌, 우리네 이웃으로서 고인의 삶이 잊혀지지 않고 제대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다.</p> <p>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보를 전했다. 중학생 시절 담임선생님, 함께 교직에 몸담았던 동료 선생님, 고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후배, 나란히 퇴임을 맞이한 동료 분 까지. 우리는 그분들에게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과연.</p> <p>저희가 만나온 대부분의 지인 분들은 나름의 자책과 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역정을 내기도 하시고, 인터뷰 내내 마음 불편해 하셨습니다.</p> <p>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시선을 위해, 고인의 삶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고인의 지인분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미처 뵈지</p>

	<p>못한, 고인을 기억하시는 또 다른 분들이 받으실 상처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연으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분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p> <p>OO : 오늘은 O님이 생전에 다니셨던 학교측과 주로 연락을 취했다. 그 분들은 선생님 O님을 더 많이 아시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O님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고 O님께서 생전에 주변 분에게도 좋은 분이셨던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더욱 O님의 돌아가시기 전의 삶이 안타깝게 다가온다.</p> <p>OO : 죽음을 이해하기엔 아직 모자란 것 같지만 확실한 건 이제 죽음앞에 놓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우리는 네 분에게 지인의 사망소식을 알려야 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정이었다. 그 중 한 분께서 지인의 죽음 앞에서 충격 때문인지 대뜸 전화를 끊으셨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전화를 끊으면 어쩌냐며 눈앞에 없다고 버럭 화를 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팀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되게 죄송스럽다고, 마음이 무겁다고.</p>
--	--

(13) 동거남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한 40대 여인

- 시체처리구: 부산광역시 OO구
- 성별: 女
- 출생년도: 1973
-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 주소지: 부산광역시 OO구
- 혼인사항: 미혼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2013
- 사망지: 부산광역시 OO구
- 주거형태: 주택
- 발견일시: 2013
- 발견자: OOO
- 안치장소: 부산시립공원묘지 ㅁ
- 사망원인: -
- 기타: -

1차 취재일	2014년 06월 11일	1차 취재장소	전화 인터뷰 (OO구청, OO동 주민센터, OO교회)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OO : OO구청 OO담당 2. OO동 주민센터 관계자		

	3. ○○교회		
1차 취재 내용	<p>1. ○○구청 황현일 C씨님은 재건 ○○교회에 정기적으로 밥을 얻어먹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발길이 끊기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발견자가 C씨를 찾아갔고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p> <p>2. ○○동 주민센터 관계자 EBS에서 받은 종이에 적힌 C씨의 주소지는 ○○동이 맞지만 주민센터에서 검색한 결과 C씨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고 나왔다. 수급자가 아니어서 주민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p> <p>3. ○○교회 연락이 되지 않았다.</p> <p>*취재계획</p> <p>1. ○○교회 방문 취재 C씨의 생전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발견자가 교인이기에 그 정보를 얻어서 발견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p> <p>2. 주소지 방문 취재 C씨를 기억하는 주변인들을 취재하고 고인이 평소에 갈 만한 가게에 들러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p>		
1차 취재 후 느낀 점	<p>- C씨는 사망한 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 되었다. 고독사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고인을 처음 발견한 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C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p> <p>- 오늘은 C씨, 서○○님이 살고 계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로 직접 찾아가보았다. 동네로 가는 길은 꽤 복잡했다.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려 비탈진 골목을 걷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동이 빈민촌이라는 ○○구청 공무원의 말이 언뜻 떠올랐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그분들 역시 걸었을 것이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드셨을 텐데. 그 분들을 어떤 생각을 하며 이 길을 걸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생활하셨을까.</p>		
2차 취재일	2014년 06월 12일	2차 취재장소	<p>1. ○○교회 목사님 사택</p> <p>2.C씨 거주지 및 주변</p> <p>3. ○○동 주민센터</p>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1. ○○ : ○○교회 사모</p> <p>2. C씨 주변 거주자, 슈퍼 주인, 세탁소 주인</p> <p>3. C씨 : ○○동 주민센터 ○○담당자</p>		
2차 취재 내용	<p>1. ○○교회 사모 ○○님(C씨님 최초 발견자) ○○의 증언에 따르면 C씨는 몸이 좋지 않았다. 허리가 거의 기억자로 척추가 휘어</p>		

있었다. 안면인식 장애가 있었다. 바깥외출이 없어서 얼굴이 매우 하얗다. 같이 사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도 오갈 데 없는 사람으로 부부라기보다는 오누이처럼 지냈다. 교회에서 음식을 조금씩 챙겨 드리곤 했다. 가족은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형제가 한 명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술집을 하셔서 꽤 넉넉한 형편에서 사셨는데 중학교 시절 가출을 해서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지냈다고 한다. 현재 오누이처럼 함께 사는 분은 몸이 아파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술을 자주 드셨다. 자주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한번 씩 오셨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셨을 때 식사를 대접했는데 몸이 많이 좋지 않다며 먹은 식사를 다 토하셨다. 그 후 2-3주를 못봤다. 토요일이면 차를 나눠드리며 교회 주변 집에 전도를 했는데 C씨네 집에 둔 차는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릇을 찾으러 갔을 때도 먹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고독사를 의심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5월 5일 어린이날 교회에서 소고기국을 끓여서 집집마다 나눠드렸는데 이전에 C씨가 몸이 안 좋은 것을 기억하고 그 집으로 소고기국을 들고 찾아갔다고 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C씨는 이미 나체로 엎드려서 사망해 있었다고 한다. 입에서는 벌써 물이 나오고 허리 옆으로는 시뻘건 피가 흥건했고 그 속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했다. 몸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자주빛으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체 옆에 오누이처럼 함께 지내던 남자분이 초점 없이 멍하게 넋을 놓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분도 따라 죽음 심정인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정신이 반은 나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옆에 가만히 있었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꾸도 못한 채 앉아만 계셨다고 한다. 남자분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C씨와 함께 산 지는 3-4년이 되었다고 한다. 남자분은 공사장에서 주로 건설 일을 하셨고 정기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돈이 떨어지면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남자분의 성품은 착하고 좋으신데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한다. 남자분은 어릴 적 어머니가 재가를 하셔서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남자분의 나이는 C씨보다 대략 3-4살은 많아 보였다고 한다. 두 분이 함께 살 때는 깔끔하게 집을 잘 정돈하고 사셨다고 한다. C씨는 자존심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한다. 직업은 없었고 남에게 도움을 잘 청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한다. 외출은 거의 없었지만 시장은 한 번씩 갔다고 한다. 현재 남자 분은 집에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 C씨 장례 후 남자 분을 119가 와서 신고 갔다고 한다. 병원에 다녀와서도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의 말에 따르면 ○○ 님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분도 C씨와 함께 곧 사망하셨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자 분의 가족인 어머니는 요양 병원에 계셨는데 남자 분이 어머니를 일전에 찾아가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EBS에서 준 C씨의 주소에 C씨가 거주하지 않다는 주민센터 검색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 주소지는 남자 분이 사는 곳이었고 C씨는 그 남자 분에 얹혀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두 분이 살았던 흔적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한다. 집 주인은 3층에 사는 총각인 남자라고 한다. 집주인에게 협조를 얻으면 C씨가 살았던 흔적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C씨는 원래부터 척추가 굽은 장애인이 아니었다고 한다. 어린시절 태권도도 했지만 가출한 이후 술 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칼슘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나

	<p>빠진 것을 추정된다고 한다. 이전에도 ○○동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하기도 했고 통원하며 치료 받기도 했다고 한다. 개를 매우 좋아해서 개 2마리를 키웠는데 마지막으로 교회에 왔을 때 개 2마리가 다 집을 나갔다고 씩씩해 했다고 한다. 더 많은 정보는 ○○경찰서가 수사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2.C씨 주소지 및 그 주변(집, 슈퍼, 세탁소) 교회에서 30초 거리에 C씨의 집이 있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혹시나 창문은 열렸나 싶어서 슬쩍 열어보았더니 열렸다. 조금 두려운 마음에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지만 대신 카메라로 조금 촬영 해두었다. C씨 주변에 있는 집, 슈퍼, 세탁소의 사람들에게 C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는 질문을 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p> <p>3. ○○동 주민센터 ○○담당자 C씨 마음 같아서는 C씨와 오누이처럼 지냈다는 남자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C씨의 집주인의 연락처도 얻고 싶었다. 정보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대신 '일반건축물대장'은 연고가 없어도 주소만 알면 땔 수 있다고 해서 땀다. C씨의 집주인 정보를 조금 알 수 있었다. C씨의 집 주인은 ○○(성별: 남)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면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건이 된다면 공문을 받아서 ○○님과 접촉해서 C씨가 사셨던 집을 촬영하고 싶고 오누이 같이 함께 지냈던 C씨의 남자분에 대한 정보도 얻어서 인터뷰해보고 싶다.</p>		
2차 취재 후 느낀 점	<p>이번 인터뷰를 하고 나서 깨달았다. '내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그것도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다. 발견자 ○○님은 당시 이야기를 꺼내며 많이 힘들어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인터뷰 내용을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충격적이었다.</p> <p>'어째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옆의 남자분은 더욱이 그렇게 계셔야만 했을까? 어째서. 어째서.' 두 명이 함께 살더라도 고독하게 죽을 수 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냈던 내 삶이 매우 부끄러웠다. 그리고 죄송했다.</p> <p>취재를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 아마 주변에 친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은 고독사라는 말을 더욱 실감케 했다. 그나마 오늘 취재한 C씨는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관계자로부터 그 분의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타인의 입을 통해 들은 그 분의 흔적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었고 돌아오는 길 내내 '매일의 삶이 얼마나 힘들셨을까'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p>		
3차 취재일	2014년 06월 26일	3차 취재장소	1.C씨 거주지 및 주변 2. ○○교회
만난 사람 및	1. C씨 님 윗집 이웃		

연락처	<p>2. C씨 님 주변 이웃 3. ○○ : ○○교회 목사</p>
3차 취재 내용	<p>1. C씨 님 윗집 이웃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다. 인터뷰 해주신 윗집 이웃 자체도 잘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없다. 강아지하고 신랑 셋이서 사는 건 안다. 가끔 말다툼 하는 소리는 들렸다. 2층에 살면서도 잘 모른다. 남편 이름이 ○○인가? (자꾸 ○○규님 앞으로 오는 고지서를 챙겨서 C씨의 집 안으로 넣어두신다고 했음. 인터뷰 하는 당시에도 고지서를 넣어두려던 참이셨음.) C씨 집 안에 문이 열린다고 함. 주인집 전화번호는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함. 주인 분은 만나기 어려움.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주인은 나쁜 사람은 아님. C씨도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화해본 적이 없음 .C씨는 한 1년 전에 이사 왔다고 함. 주인집(3층)에 연락처 대신 전해준다고 함.</p> <p>2. C씨 님 주변 이웃 술만 먹고 나오지도 않았음. C씨를 알 만한 분 없음. 한 2년 살았음. 이사 오는 날 보고 누가 와서 문 열어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열어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음. 죽었을 때 이미 부패 되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함. 교회 사모님이 발견했다고 함. 신랑은 몇 일 있다가 간 곳도 없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지금 저 집에는 아무도 없다. 결혼도 안 하고 살았다. 사실 남남이었다. 한 번씩 어쩌다가 보면 남자가 일하러 가는 것을 봄. 남편은 잘 생겼음. 그 집일은 아무도 모른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남의 집만 망쳐놨다. 이제 이사 오는 사람도 없다.</p> <p>3. ○○ (C씨 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 다른 곳에 살다가 이사오셨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다.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계셨다. 교회도 오면 허리가 아프니까 바로 가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남자 분은 주로 공사하는 일 한 마디로 노가다일을 하셨음. C씨의 성격은 차분한 성격이었다. 인사 정도만 하며 지냈다. 기르는 애완견 하고 많이 지내는 모습을 봤다. 바로 교회 앞에 사시니까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하거나 예배드리러 오심.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음.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감. 오시면 주로 뒤에 앉아 있었다.</p>
3차 취재 후 느낀 점	<p>1. ○○ C씨 집 대문을 열어 보았다. 열렸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지 문에는 거미줄이 쳐져있고 언제부터 쌓인 고지서인지 입구에 수북했다. 내가 이 취재를 지금 왜 하고 있는 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지. 그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취재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몰랐을 뿐 우리 사회에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다. 방송을 통해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리고 함께 고민하자는 거다.' 이 분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취재해야겠다. 더욱 잘.</p> <p>2. 이웃 분들을 다시 한 번 취재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2층 집 아주머니를</p>

	만났지만 고인에 대해 잘 모르며 고인과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누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단절된 현대인의 삶이 와 닿는 순간이었다.		
4차 취재일	2014년 06월 30일	4차 취재장소	1. ○○대학교 ○○회관 안 2. ○○대학교 ○○회관 안 우체국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C씨 님 집 주인) : 부산광역시 ○○구		
4차 취재 내용	1. ○○(C씨 님 집 주인) ○○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번 정도 C씨 댁에 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주변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일 하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 이웃들조차도 언제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에 방문했을 때는 메모도 남겼었는데 답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지를 썼다. 다시 답장이 오기를 기다려야겠다.		
4차 취재 후 느낀 점	1. ○○이가 자신이 예전에 설문조사 할 때 편지 13통을 쓰면서 부탁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답장이 왔다고 했다. 그래, 기대하진 않는다. 무엇이 유쾌한 일이라고 답장까지 애써서 보내시겠는가. ○○이가 덧붙여 말하기를 편지를 쓰는 것은 답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걸로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답장이 올 때 까지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쓸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집 앞에서 집주인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이에게 답장을 해줬던 그 한 사람이 집주인이 될 수는 없을까. 으악. 2. 고인이 살았던 집의 주인님께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고 안면이 전혀 없는 분께 편지를 쓰는 것이라 어떻게 써야할 지 한참을 고민했다. 서툰 글이지만 편지를 받으시는 분이 편지 속에 있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5차 취재일	2014년 07월 12일	5차 취재장소	C씨 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구)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C씨 거주지 윗층 이웃 2.C씨 집주인(○○) 전화 인터뷰		
5차 취재 내용	1.C씨 윗층 이웃 집 주인이 아직도 집에 안 왔다고 함. 설득 끝에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심. 2.C씨 집주인 먼 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날이 일정하지 않다고 함. C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함. C씨가 거주하셨던 곳 촬영은 허락해주심. 3.C씨 집 내부		

	<p>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 된 것 같다. 현관 입구에는 거미줄과 고지서들이 빼곡했다. 고지서 대부분은 신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어디서 돈을 많이 벌리셨나보다'라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납부하지 않은 요금 고지서들이 쌓여있었다.</p> <p>주방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뭔가 먹을 것을 만들어 먹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쌀도 반 정도는 남아 있었다. 냉장고에도 몇 가지 음식은 있었다. 달력은 C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4월 이후로 넘어가 있지 않았다.</p> <p>안방은 C씨님이 사망한 장소인데 담배꽂초와 소주병들로 가득했다. 상 위에는 식판이 하나 있었고 썩은 음식이 남겨져 있었다. TV위에 C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 액자로 되어 있었다. 서랍장을 살펴보니 사진앨범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C씨님은 말괄량이였고 유쾌한 소녀로 보였다. 가수 심신을 좋아했던 것 같다. 심신 엽서가 많았다.</p> <p>바깥 부엌에는 언제부터 걸려있는 지 모르는 빨래가 걸려있었고 신발이 많았다.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뒀는데 정리를 잘하는 C씨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p> <p>작은 방은 옷 방인 것 같은데 역시 깔끔하게 옷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p>		
5차 취재 후 느낀 점	<p>1.</p> <p>C씨는 젊은 시절 나보다 더 재미나게 보내셨구나. 친구도 참 많으셨구나. 그런데 그 마지막을 아는 나로서는 참 씁쓸하고 무서웠다.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낸다고 하더라도 내 마지막이 고독사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한 관계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끝까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p> <p>2.</p> <p>집주인과의 통화 끝에 고인이 계셨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돌아가신 분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하고, 고인에게 실례가 되는 일은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들어가기전에 기도도 하고 짧게나마 고인에게 한 마디를 남기고 들어갔다. 고인의 집은 고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인의 앨범이었다. 앨범에는 딱 지금 내 나이 때의 고인의 모습이 가득했다. 그 시절 고인은 지금의 나처럼 생기발랄한 모습이었다. 고인의 20대를 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인이지만 애정이 느껴졌다. 나의 20대에 대해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하루였다.</p>		
6차 취재일	2014년 07월 14일	6차 취재장소	○○초등학교
만남 사람 및 연락처	<p>1. ○○초등학교 선생님</p> <p>2. ○○초등학교 교감선생님</p> <p>3. ○○초등학교 학생들</p>		
6차 취재 내용	<p>1. ○○초등학교 선생님 개인정보법에 따라 졸업앨범을 공개할 수 없다.</p> <p>2.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공문을 가지고 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p> <p>3. ○○초등학교 학생들</p>		

	아이들이 노는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미래의 꿈에 대해서 물어봤다. 남학생들이라서 그런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주로 말했다.		
6차 취재 후 느낀 점	<p>1. C씨가 활기차게 뛰어노셨을 초등학교에 가봤다. 몇 십년 전C씨가 이 곳에서 어떻게 지내셨을지 상상을 해봤다. 아마 누구 못지 않게 활기차게 지내셨을 것 같다. 아쉽게도 개인정보법의 문제로 졸업앨범을 열람하지 못했다. 무척 속상했다. 누가 도대체 개인정보를 나쁘게 사용했길래, 서로서로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내자는 의도의 개인정보조차 통용될 수 없는 지 답답했다.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으려고 졸업앨범을 보러가도 개인정보법이라고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법인지 참 답답했다.</p> <p>2. C씨께서 다니셨던 ○○초등학교에 가서 졸업앨범을 보고 싶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다. 까다로워진 절차를 보며 요즘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다.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C씨의 초등학교 시절을 상상해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p>		
7차 취재일	2014년 08월 02일	7차 취재장소	C씨 주소지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C씨 주소지 2.C씨 이웃		
7차 취재 내용	<p>1.C씨 주소지 집안 정리가 되어 있었다. 여러 개의 쓰레기 봉지 안에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다. 우리에게 집 구경을 허락했던, 집주인이 이후에 돌아와서 치우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C씨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C씨의 힘들었던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런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 C씨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했다. 1973년도가 출생년도가 맞았다. 그런데 돌사진은 1975년에 찍으셨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을 1986년에 다녀오셨고 중학교 1학년대가 1987년이였다. 사진에 적힌 년도로 출생년도를 따져보면 C씨는 1974년도 생이셔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1973년도라고 되어 있다. '왜 1년이 차이날까? 주민등록을 잘못된 것일까? 잘 모르겠다.' C씨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강아지 사진과 술 사진이 있었고 OO이라는 분과 나눈 메시지가 들어있었고 '보고 싶은 엄마'라는 메모가 남겨져있었다.</p> <p>2.C씨 이웃 C씨의 사진을 들고가서 보여드리니 짧은 커트 머리의 여자분이 C씨가 맞다고 했다. 평소C씨는 집에서 잘 안 나오셨다고 한다. 개 3마리를 길렀고 C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무렵 개 3마리 모두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C씨와 함께 사셨던 남자 분이 술을 사러 자주 왔다고 했는데 올 때마다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났다고 한다. 아마C씨가 돌아가시고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남성분이 시신과 함께 머물던 시기에 술을 사</p>		

	러 다니신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7차 취재 후 느낀 점	<p>1.</p> <p>C씨의 집에 두 번째 방문했다. 그런데 처음 모습의 집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짐정리를 다 한 상태였다. 쓰레기 봉지 안에서 C씨의 일기장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사는 게 힘들다', '아무도 못 믿겠다', '내가 태어났을 때 축복했을까.' 등이 적혀있었다. C씨와 관련된 주변만 계속해서 추적하다가 C씨 본인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와 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의 끝이 결국 고독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더 슬펐다. C씨 말고는 누구도 몰랐을 한 사람의 마음을 타인인 나와 ○○이와 ○○이가 알게 되었다. C씨를 실제적으로 도와드리진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시고 누군가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가지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p> <p>2.</p> <p>C씨의 휴대폰에서 C씨의 형제로 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았다. 언제 오냐, 밥 먹었냐와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그 문자를 보며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형제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와 형제도 그런 식의 짧은 문자를 주고 받곤 한다. 나의 형제가 떠올라서 그런지 C씨 휴대폰에 있던 '밥 먹었냐, 언제 오냐'는 그 짧은 문자 속에는 걱정과 다정함이 담겨 있다는 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대학생이 되고 타지에 와서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형제에 대한 생각, 집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무더지고 있는데, 어릴 때 집에서 형제와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던 그 때가 너무 그리워졌다. 어릴 때와는 달리 전화를 걸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자주 하지 않게 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p> <p>3.</p> <p>C씨의 집은 견디기 어려웠다. 아마 돌아가신 분의 집은 처음이어서 일 것이다. 어제 자기 직전에도 그 분의 집과 그 집에서 봤던 사진들이 떠올라 잠을 자기가 힘들었다. 왜C씨는 가출을 하신 것일까? 왜 가족들을 떠나갈 결심을 하신 것일까? 너무나 행복해보이던 과거와 일기장에 써있던 극도로 힘들었던 순간이 다른 사람의 삶처럼 극명하게 다르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p>		
9차 취재일	2014년 08월 04일	9차 취재장소	○○대학교
만남 사람 및 연락처	1.C씨 지인 전화하기		
9차 취재 내용	1.C씨 이웃 대부분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형제로 추정되는 C씨라는 분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형제가 아닌 것 같았다.		
9차 취재 후 느낀 점	고독사라는 주제가 가벼운 주제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척 거부감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		

	<p>게 되었다. C씨라는 분에게 연락을 했다. C씨의 형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 받은 분이였다. 전화를 걸었다. 인력사무소라는 안내 연결음이 나왔다. 그래도 전화를 계속 했다. 통화 연결된 분은 C씨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신 분을 자주 문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다. 우리의 신상을 물으시고 '너 내일 나랑 만나자.'라고 하셨다. 그리고 통화내용을 다 녹음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다. 너무 무서웠다. 다시 내 번호로 전화가 올까봐 두려웠다. 모르는 전화 번호가 뜨기만 해도 심장이 오그라지는 느낌이 든다. 아 참 방송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구나. 고독사 참 무거운 주제구나. 어떻게든 마음을 추슬러서C씨 취재를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p>		
10차 취재일	2014년 08월 08일	10차 취재장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씨 고향 집 (부산광역시 ○○동) 2. ○○초등학교 동창회(부산광역시 ○○동) 3. ○○중학교
만난 사람 및 연락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사장님(C씨 집 맞은편 가게) 2. ○○중학교 선생님 		
10차 취재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장님 10년 전에 이곳에 살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그 집 식구들은 이사를 갔다고 한다. 할아버지(C씨 아버지)의 종교가 SGI가 아닌가 싶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날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란다. 할머니(C씨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풍채가 좋으셨다고 한다.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를 짧게 컷하고 남자처럼 별나게 하고 다녔다고 한다. 어린 시절 가출을 했다고 한다. *총동창회는 없는 건물이었음. 2. ○○중학교 C씨의 체육복을 보고 ○○중학교를 다닌 것이 맞다고 확인하셨음. 더 많은 정보는 공문이 필요하다며 더 말씀해주지 않음. 		
10차 취재 후 느낀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씨의 본가를 가보니까 또 ○○동 집과는 느낌이 또 달랐다. 이 곳에서 C씨는 어떤 분이셨을까. 무지 말괄량이셨을 것 같은데... 이 곳에서의 추억도 많으실 것 같다. 이번에는 유년시절C씨의 발자취를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살던 동네 등을 가봤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C씨도 있었을텐데... 안타까움도 있었다. 취재를 하면서 솔직히 무서웠다. C씨가 만나고 살았던 환경도 무서웠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두려웠다. 다음에 내가 또 누군가를 취재하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이들었다. 급급하게 취재하면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취재하는 지 모르겠고 어떤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게 되는 것 같다. 취재는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2. 마지막 취재이다 보니 취재를 하면서 그동안의 취재에 대해 돌이켜보게 되었다. 이 		

	<p>번 취재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을 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결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취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발걸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집, 학교 정해진 길로 좁은 울타리에서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두 눈으로 두 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세상을 느끼기 위한 더 많은 시도들이 있을 테고 그 때마다 이번 취재를 되새겨보게 될 것 같다. 나의 취재가 부디 좋은 영상에 담기길 기대한다.</p>
--	--

(14) 가족 친지 사이에서 입양인으로 평생 외로웠던 선박전문가

- 시체처리구: 부산광역시 OO구
- 성별: 男
- 출생년도: 52세
-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OO구
- 주소지: 부산광역시 OO구
- 혼인사항: 미혼
- 연고자: 有
- 사망년도: 발견일로부터 2년 전 추정
- 사망지: 자택
- 주거형태: 연립주택
- 발견일시: -
- 발견자: 형제
- 안치장소: -
- 사망원인: -
- 기타: 큰아버지댁의 양자로 입양. 부모 사망 후 홀로 생활. 1년 전부터 연락 안 됨. 현관문 앞에 2011년 4월부터 전기요금 체납서 쌓여있음. 백골상태로 누워있는 채로 발견. 독거기간 420개월(55년).

1차 취재일	14.07.07	1차 취재장소	F씨 자택부근 자택 앞 큰길가 슈퍼, 골목 고인과 의남매 맺은 여성분 며느리
만난 사람 및 연락처	1. 이웃집 아주머니 1 : 부산 OO동 거주 2. 옆 집 아저씨 : 부산 OO동 거주 3. 앞집 아주머니 : 부산 OO동 거주 4. 옆 집 아저씨 : 부산 OO동 거주 5. 도로길 슈퍼 아주머니 : 부산 OO동 거주 6. 도로길 80대 할아버지 : 부산 OO동 거주 7. F씨와 살아생전 의남매를 맺은 아주머니 : 부산 OO동 거주 8. 의남매 아줌마 며느리 : 부산 OO동 거주		
1차 취재 내용	자택은 문이 잠겨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빗물에 녹아내린 F씨의 체납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문 위로 뚫려있는 창문으로 방 안의 좋지 않은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잠겨져있는 문 옆방에는 건물내부가 다 헐어져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F씨의 생전에 사용하셨던 것으로 추정된 다이어리, 신발, 술병, 담배통, 각종 고지서 등이 있었다. 고인이 어느 방을 사용하신지는 모르지만, 자택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방에도 F씨의 흔적이 녹아져있었다.

다이어리를 열어 확인해본 결과 그는 (주)○○상무를 지냈다. 의외였다. 각종 관련자들의 명함이 약 50장 정도 꼽혀있었고, 본인의 명함도 다이어리에 같이 있었다. 다이어리 속지에 적힌 내용들, 접혀져있는 서류들을 얼핏만 봐도 제품 수입, 수출에 관련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기 관련 도면들이 그려져 있었다. 전문 인력인데다가 자택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분은 왜? 언제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을까? 궁금했다.

고인이 살던 집 부근 좁은 골목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월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지나가지 않았다. 빈 집을 둘러보고 한참을 지나 골목에 한 아주머니께서 지나가셨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인에 대해 조심스레 여쭙봤다.

A. "한 50살쯤 됐던 것 같던데.. 혼자 살다 죽었지 아마. 형이랑 사촌들이 와서 초상다 치러줬다. 우리들이랑은 뭐 별로 왕래가 없었지."

우리는 할 수 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려보기로 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처음 두드린 F씨의 옆집에서 어릴 때부터 그를 보았다던 한 중년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우리가 밖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 여쭙는걸 보더니 집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다.

A.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았어. 아마 입양이 됐지. 자기 양부모가 두 분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혼자 살았어. 근데 여기 계속 산 게 아니라 몇 달은 밖에 있다가 또 어느 날 들어와 있고 또 나가 살고이랬어. 그 놈이 음악을 좋아했는지.. 새벽만 되면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동네주민들이랑 많이 싸웠지..(고인의 유품 중에 좋아하는 음악으로 추정되는 곡명과 가수이름을 적은 종이 있었음) 또, 한 날은 집 앞에 시끄러워 나가보니 쓰레기 때문에 그놈(F씨)이랑 남자 몇이랑 막 싸우기도 하고...좀 유별났지. 또 어느 날은 경찰들이 왔다갔다 하길래 보니, 자기 집에 노트북이 없어졌다 이거야. 자기가 집 문을 똑바로 안 잠가서 그랬겠지 싶었는지.. 검사관까지 와서 붓으로 지문 채취도 하고 난리를 피웠지.. 이런 것만 봐도 보통사람은 아니었지. 요 앞집에 친척이 사는데 평소에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더라고. 거기 한번 가봐"

하늘 색 옥상의 친척택은.. 안에 분명 인기척이 있었던것 같은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F씨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했기에 다음을 기약하고 다른 집 문을 두드렸다.

F씨의 앞 집문을 두드렸고,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다. F씨에 대해 물었다.

A. "한 몇 년 됐지.. 요 앞에 살았잖아. 근데 그 사람 평소에 우리랑 별로 관계도 없었고, 우리 사이에서 좀 평이 안 좋았어. 몇 달에 한번씩 들어오고, 뭐 또 없어지고. 요 앞집에 아저씨랑도 싸우고 그랬다가. 우리는 뭐 아는게 없어. 형제가 있었다 카데"

아저씨를 찾으러 갔다. 계단을 한참 올라 초인종을 눌렀다. 아저씨가 아닌 할아버지가 나왔다. 할아버지였다. 어디서 왔냐고 꽤 방어적으로 물으셨다. 취재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 집 밖을 나오셔서 설명해주셨다.

Q. "혹시 이 앞집에 사시다가 몇 년전 쯤에 홀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아세요?"

A. "F이? 알지. 이 앞에 살았다아이가. 벌써 죽은지 오래됐지. 그 집이 여기 바로 밑 집이다. 따라 와봐라.(지붕 옥상으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심)여기 살았지. 이놈이 어렸을 때 큰 아버지택으로 양자로 왔다. 꽤 커가지고 왔다 하더라. 근데 여기 큰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여기 혼자 살았나보데. 근데 여기 계속 산계 아니라 들어보니까 자기 형 집에도 붙어 살다가.. 시형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오래 못있었나 보더라. 이 놈이 일도 하다가 어느날 실업자가 됐어. 그때부터 뭐 그래됐겠지... 이 앞집에 친척들이 사는데 한번 가보지.

Q. 할아버지, 들어보니까 F씨랑 살아생전에 몇 번 다투셨다던데..

A. "싸웠지. 그놈이 여기 우리집 앞에 텃밭 사용하는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거라 (텃밭은 F씨의 형제 소유)그래서 내가 벌금 10만원 물었다아이가. 그래서 싸웠지 뭐"

산동네를 내려와 큰 도로길 슈퍼에 들렀다. F씨에 대한 얘기를 아시냐고 물었더니, 알지만 고인에게 피해가 되는 일인 것 같아 얘기하기 싫다며 거부하셨다. 이곳에서 음식도 많이 사가셨겠네요? 라는 질문에 먹을거리는 안사고 주로 술을 사가셨다고만 대답해주셨다. 통장님택을 물어봤더니 버스정류장 건너편 집이라고 가르쳐주셨다. 정류장 앞에는 80대 할아버지 두분이 서계셨다. 통장님택을 물었더니, 가르쳐주시며 지금은 일을 하러 가서 없다고 하셨다. 4시 이후에 오라고 하시기에.. 혹시나 싶어 F씨에 대해 물어봤더니,

A."그 젊은 사람이 죽었잖아.. 백골로 발견됐다하데. 젊은 사람들도 일 없이 힘들고 한데.. 우리는 오죽하겠나 하하하 그 앞집에 아마 친척이 살긴데 가봤는가? 우리는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통장이 잘 알지 않겠나. 나는 여기 6.25 피란 이후부터 살아가지고 동네에 일어나는 일은 다 안다. 여기 힘든 사람 많이 산다. 선거때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만 하고 선거 끝나면 아무 약속도 안 지키는게.. 그게 사기꾼이지.. 보소 젊은사람들.. 나중에 그런 국회의원 절대 돼지 마소.." 힘겹게 삶을 이어가시는 노인분들의 통탄을 들으니 마음이 아련해졌다. 얘기 중간 중간에 한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사실 월세방을 찾으려는 듯 지팡이로 자꾸 전봇대의 월세방 광고지를 들춰보셨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취재는 이까지만 하자고 생각했다. 우리는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옆에 서있었던 여자분이 누구인지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냇을 놓고 황망히 앉아있는데..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

“뭘 하러 왔는 가보지?”

“아.. 저희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음..”

“뭘 설문조사 같은건가보지?”

“아.. 그런건 아니구요 사실 취재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해본 말)혹시 저기 뒷동네에 홀로 사시다가 3년쯤에 돌아가신 남자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 사람 내랑 의남매 맺은 사람인데”

“(헐.....)네? 의남매요? 아주머니랑요? 어.. 어떻게요?”

“마을에서 그 사람 외롭다고.. 내랑 의남매 하라 해서 하게 됐지. 사무실도 같이 쓰고 그랬지..”

“아 진짜요? 저희가 그 분의 삶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통 혼자 돌아가신 분들은 생전에 사람들과 관계가 참 많이 없던데, 이 분은 참 특이하네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는데...” 까지 하는데 버스가 와버렸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하시며 버스를 타시고 사라지셨다. 아.....이럴수가. 오빠와 나는 서로 쳐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이대로는 갈 수 없었다. 의남매라니!!! 좀 전에 만나봤던 할아버지를 다시 찾았다. 옆에 계셨다.

“할아버지, 잠전에 우리 얘기할때요. 계단으로 올라오신 아주머니 잘 아세요? 그 분이 F씨랑 의남매를 맺은 사이래요.”

“아, 그래 맞다 맞다 마을에서 의남매 맺어줬다 하데. 그 집이 저기 저 지붕에 의자있는 집 있제 거기다. 요 밑으로 쪽 가면 된다”

할아버지 말씀만 듣고 우리는 무턱대고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 여자가 받았다. 취재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올라오라고 하셨다. 본인을 의남매 맺은 아주머니의 며느리라고 소개하신 여자분이 우리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F씨를 ‘○○삼촌’이라고 하시는 며느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하 요약)

A."몇년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의남매를 맺으셨어요. 성씨가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랬나봐요. ○○삼촌은 원래 선박수리를 하셨어요. ○○제철에 잠시 계셨고, 저희 아버님(시아버지)밑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전기 쪽 일을 하셨던것 같은데... 평소에 어머니랑은 자주 만나시고 저희가족이랑도 몇 번 식사 했어요. 이 집에도 몇 번씩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저희 집 전구 고장 났을 때, 여기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평소에 ○○삼촌은 밥보다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안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많이 바뀌셨어요. 사람하고도 잘 못 지내구요. 형제가 ○분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결혼상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미국에 가게 돼서 결혼을 못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삼촌한테 한번은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되서 무슨 안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데요. 본인이 연락하는건 좀 아닌 것 같아 수소문해서 형제를 찾았고, 형제가 돌아가신 걸 발견했나봐요."

<p>1차 취재 후 느낀 점</p>	<p>F씨는 전문인력이었다. 상무까지 하던 분이 어떻게 하다가 실직을 하고 홀로 칩거생활을 하셨을까. 양자로 올 수 밖에 없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의남매를 맺었을 그 때는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의 삶이 궁금해졌다. ○○동 산동네는 거의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웃들과 교류가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양자로 오게된 사연도 궁금했다. 다음번에 친척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 그래도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걸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 싶다. 취재하기에 앞서 늘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p> <p>가파르게 솟아오른 계단과 안개 낀 날씨는 취재하러 가는 길이라기보다 등산하는 길 같았다. 고인이 살던 곳은 정상 근처에 있었는데, 그의 집 문은 잠겨있었고, 현관문 틈 사이에는 고지서가 문드러져 있었다. 그의 집을 치워 둔듯한 상자 속에는 빈 담배통과 술병들이 수북했다. 남겨놓은 흔적들과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인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술을 자주 드시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홀로 사는 50 중년의 남성. 취재 중인 여러 케이스들이 마치 한 사람의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닮아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의 삶이 높은 곳,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이 따라왔다.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p>		
<p>2차 취재일</p>	<p>14.07.11</p>	<p>2차 취재장소</p>	<p>F씨 자택부근 ○○ 세탁소 의남매 아주머니택 부산 경찰서</p>
<p>만난 사람 및 연락처</p>	<p>앞집(무속인)주민 세탁소 아저씨 의남매 아주머니 며느리 부산 형사님</p>		
<p>2차 취재 내용</p>	<p>오늘은 F씨와 의남매를 맺으신 아주머니가 평소에 댁에 계신다는 금요일이다. 고인과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했을 아주머니를 만나러 ○○동으로 다시 가봤다. 며칠 사이에 날씨는 찜질방을 방불케 했고, 우리는 쿨토시에 위안 얻으며 2차 촬영에 임했다. 고인의 집 앞은 며칠사이 풀이 무성해졌다. 햇빛이 짹짹한 여름이 되어서 그 런지.. 고인의집 문 위로 작게 나있는 창문사이로 시취가 풍겼다.</p> <p>우리는 그 창문 안에 집이 어떻게 되어있을까... 서로 얘기하다가 오빠가 팔을 뻗어 집안이 촬영가능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 손을 뻗으니 카 메라 렌즈가 간신히 집안을 찍을 수 있었다. 비교적 깨끗한 집 내부 모습에 고인이 돌아가셨다던 침대가 보였고, 어지러운 부엌을 볼 수 있었다.</p> <p>우리는 고인의 앞에 사신다던 친척님 댁을 다시 한번 찾아가봤다.</p>		

"계세요? 말씀 좀 물을까요~"

"....."

"실례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

"거기 아무도 없어요!!"(여기서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뻔)

친척님 댁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셨다. 이 시간에 할머니가 집에서 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곧장 고인에 대해서 물으니, 퍽 많이 아는 눈치였다.

그러곤 본인보다 본인 어머니가 더 많이 안다며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지난 번 취재 때 갔던 앞집 아주머니셨다. 두 분은 모녀관계였던 것이다.

또 왔냐고 싫은 소리 할까봐 살짝 겁이 났지만, 그런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사람이 마을에서는 거의 투명 인간같이 살았어요. 애들말로 왕따 수준이었지. 맨날 술 마시고 고함치고 싸우고, 심지어 우리 애들한테까지 뭐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랑도 많이 싸우고.. 동네사람들한테는 평이 엄청 안 좋았지.. 한동안 밖에 있다가 집에 잘 안 들어오길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객사했는가보다 했는데.. 죽은거 보니까 2년 동안이나 집에 들어있었다데요"

"혹시 F씨가 의남매 맺으신 건 아세요?"

"아 알죠. 그거는 저 밀동네에 사는 여자분인데. 여기도 들락날락 하고 하더라구요. 그 여자집에 이 밑에 지금 세탁소 하는데에서 슈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가게도 좀 봐주고 그랬나보더라구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로에 있었던 세탁소를 가보았다.

57세 정도 되보이는 작고 마른 아저씨가 옷을 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취재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고, 고인에 대해 여쭙보니 고인의 성함까지 잘 알고 계셨다.

A. "그 사람이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술도 많이 마시고.. 여기 세탁소가 원래 슈퍼였는데, 그 슈퍼 아줌마랑 의남매 같이 맺어가지고 지냈었지. 가게도 봐주고 그랬다. 아가씨 보니까 그 아저씨랑 좀 닮았네..(헉.....) 키도 쪼그만하고 마르고.. 살아있으면 내랑 나이가 동갑이다."

Q. "평소에 같이 술도 드시고 그랬으면.. 혹시 가족이야기라든지 자기 얘기를 하던가요?"

A. "뭐 가족얘기는 지 입으로는 안하지. 양자로 입양된건 우리가 소문으로 알았지. 저기 자식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양자로 들어왔다는걸. 가족얘기 이런건 안하고, 자기가 옛날에 기획회사? 이런데서 잘나갔다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지. 술을 많이 마셨어 암튼. 우리는 한동안 안 보이길래.. 이 사람이 새우잡이 배 이런거에 잡혀갔나 왜 안 보이지했지.. 안 보여도 몇 달에 한번은 보였었거든.."

Q. "그 아저씨 돌아가셨다는거 들으셨을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래도 평소에 술도 드시고 하던 사인데.. "

A."뭐..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나이에 일도 못하고, 직장생활은 하기 싫고.. 자존

	<p>심이 썩거든.. 얼마나 외로웠겠노 싶지. 외로움이다 외로움"(영상있음)</p> <p>우리는 의남매 아주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향했다. "아..지금 어머님 안계시는데. 약속있으셔서 한시간 전에 나갔어요" "아.... 금요일에 댁에 계신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물 좀 마시고 가면 안될까요(물은 핑계였다)?" 집위로 올라갔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집으로 들어오란 말씀을 안하셔서 입구에서 짧게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번에 어머님께 말씀드려봤는데.. 안 좋아하시더라구요. 살아생전에도 좀 힘들게 했었는데.. 죽어서도 힘들게 하냐고 하시더라구요.. 아 그런데 저희 어머님 말고 ○○삼촌이랑 예전에 같이 사셨던 분이 있어요. 분명 같이 사셨다고 들었는데.. ○사장이라고 약세사리 이런일을 하시고 일본에도 왔다갔다 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동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분이 ○○삼촌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더 자세히 알지 않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그 분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p> <p>○사장.. 연락이 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싶었다. 의남매를 맺으셨던 어머님도 슈퍼가 문을 닫고 꽤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고인과 관련된 좋지 않은 사연이 있는 눈치였다. 그분의 심경을 이해하면, 더 이상의 취재는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했다.</p> <p>나오는 길 입구에 작은 설비사무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아저씨를 만나봤다. 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다. 하시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우리같이 뜨내기인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랑 깊이 관계도 못해요.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주위에서 물 한잔 하이소. 하는 사람도 없다아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집 얘기에 관심 가져요? 세상이 희한해져가.. 내 사는거에만 바쁜거라" 씀썰했다.</p> <p>우리는 F씨의 사망원인이 불상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나왔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었다. 확신을 가지고 경찰서로 갔다. 우리는 잘못된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히 형사팀을 찾아갔다. F씨 사건을 맡으신 형사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부장님께로 가보라고 했다. 당직을 맡으신 부장님은 조금 피곤해 하셨다. 우리의 이야기로는 고인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듯 했으나, 사건기록을 검색하시고 양자로 입양되었던 고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시더니 기억나신다고 하셨다.</p> <p>형사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고인에 대한 가족사를 들으려면 앞집에 사시는 친척할머니를 찾아가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했다.</p>
2차 취재 후 느낀 점	<p>친척과 의남매 아주머니. 두 분다 오늘 만나지 못했다. 상무까지 지냈던 F씨의 기구한 삶이 궁금하다. 양자로 입양되고, 사업을 하다가 한동안 옥살이? 유치소 생활?도 하셨다고 했다. 자존심이 싸고 평소 주민들과</p>

	싸우기도 많이 싸우신 분. 다음주 월요일 7시에 다시 한번 찾아가보기로 했다. 단순히 이분의 기구한 삶이 궁금해서 취재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3차 취재일	14.07.14	3차 취재장소	F씨 자택 (주)○○ 이전주소
만남 사람 및 연락처	(주)○○ 사장님 전화인터뷰 ○○로 주민 할머니 세 분 세탁소 아저씨 통장 이○○ 아저씨 의남매 F 어머니 F씨 O촌조카 F 학생 F씨 친척 이○○ 할머니		
3차 취재 내용	<p>지난번 취재 때 만나뵙지 못한 통장님, 의남매 아주머니, 친척할머니를 만나뵙기 위해 오늘은 저녁에 ○○동을 찾았다. 먼저 F씨의 명함에 적혀있던 (주)○○ 주소를 찾아가봤으나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었다. 사무실 번호로 전화 할 때마다 사장님과 통화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직접 받으셨다. F씨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고인과 30년 정도 같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셨다. 수요일 6시쯤 ○○동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하셨다.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었지만, 취재 일정상 참고 기다려야했다.</p> <p>우리는 곧바로 통장님을 찾아뵙러 갔다.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의 ○○동은 이전의 느낌과 사뭇 달랐다. 시원한 바람을 쐬로 밖으로 나온 할머니 세분께 F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지난번 만나뵙던 세탁소 아저씨에게 물어 통장님의 댁을 찾을 수 있었다. 늘 닫혀있었던 통장님 댁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p> <p>세 식구가 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고, 우리는 잠시 뒤 통장님을 만나 뵙 수 있었다. F씨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생전에 술도 자주 마시는 사이라고 하셨다. 다른 주민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셨고,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p> <p>통장님은 의남매 아주머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 곧바로 그분께 전화를 걸어 우리와 한번 만나보라고 권해주셨다. 아주머니는 우리와 만나기 싫다고 하셨지만, 끝끝내 허락을 해주셨고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주머니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F씨는 F 아주머니의 슈퍼를 봐주며 같이 일을 한 사이였다. 고인 생전에 먹을 것도 사드리고, 집에 쌀도 가져가 드리고 많은 도움을 줬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큰 상처를 받으신 나머지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다. 특히 아주머니도 외동딸이어서 F씨와 각별한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더 컸다고 하셨다.</p> <p>취재를 끝내고 나오니 해가 다 졌다. 친척 할머니댁을 가보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서 할머니댁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주무시는 것이라 확인하고 반대편 딸이 살고있다는 집으로 갔다. 불이 환하게 켜져있었지만, 우리의 인기척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우리는 오늘</p>		

	<p>취재를 마무리 하자며 계단 위를 올라오는데 문이 열렸다. 중학생정도의 소녀가 우리를 맞았다. 친척할머니의 손녀였다. 엄마는 안 계신다며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 약간 얼떨떨해했다. 우리는 취재 목적을 설명하고, F씨에 대한 기억을 물었다.</p> <p>○○학생의 아버지와 F씨가 평소에 많이 다녔다고 한다. 우리는 조심스레 ○○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오늘 취재를 여기서 마무리 할 것인지, 실례지만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는가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 ... 우리는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할머니가 받으셨다. 집으로 찾아간다고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대문 입구에서 만나봤다. 친척할머니는 F씨 발견이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까지 쓰신 80대 였지만 정정하셨다. F씨와는 평소에 별 교류가 없었고, 형제가 잘 안다고 했다. 며칠 전에도 형과 형수가 왔다 갔다고 전해주셨다. 다음번에 오면 번호를 받아놓겠다고 하셨다.(4차 취재때 고인의 자택입구를 보니 풀이 많이 베어져 있었다. 형이 다녀갔다고 확신했다)</p> <p>다음번에 낮에 할머니 댁에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의 취재를 마쳤다.</p>		
3차 취재 후 느낀 점	<p>취재를 하면서 저녁에 가보기로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우선 해가 없어서 너무 좋았고, 저녁이 되어 다시 찾은 해돋이로가 너무 예뻐다. 고인도 저녁 어스름해질 때 즈음이면 슈퍼나 인근 어귀에서 술 한잔씩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p> <p>오늘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통장님, 의남매 아주머니, 친척할머니를 다 만나 볼 수 있었다. 정말이지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여서 그런지.. 얼떨떨했다. 오늘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것은 통장님과 의남매아주머니, 친척할머니끼리 서로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옆집에 사시는 것도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쩌면 F씨도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서 더불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살아생전에 고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고인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술을 의지하여 방에 계신 계기가 언제부터 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고인이 안보이기 시작한게 2년쯤인가.. 하는 비교적 정확한 증언들로 보서는 마을 사람들 모두 그 분의 삶에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p> <p>다음 취재 때는 그분이 다니셨다는 ○○초등학교, ○○ 사장님을 만나 봐야겠다.</p>		
4차 취재일	14.07.15	4차 취재장소	○○ 초등학교 F씨 자택 이웃 주민 ○○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
만난 사람 및 연락처	○○초등학교 ○○ 교장선생님 이웃 주민(○○ F 할아버지) 세탁소 아저씨 ○○중학교 & ○○중학교 행정직원(전화인터뷰)		
4차 취재 내용	제작진과 함께 F씨가 다녔던 ○○ 초등학교를 향했다. ○○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늘 우리가 내렸던 정류장. F씨가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취재를 하다보니 우리의 시각이 계속 좁아진다는 반성을 하며 학교에 들어갔다.		

	<p>촬영하는 전날 저녁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미리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 않았다. 경비실을 순조롭게 지나 학교를 들어가려는데, 행정실 직원에게서 막혔다. 2층에 교무실에만 한번 들어가서 여쭙보고 나오겠다고 하고 올라갔다. 우리팀은 기왕 간거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교장실이 있길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 교장선생님은 대학생 취재단이라고 설명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p> <p>우리의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F씨에 대해 말씀드리니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주셨다. 그리고 행정실 직원에게 물어 F씨가 ○○초등학교 ○○회 졸업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어떤 중학교로 진학했는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며 미안해 하셨다. 그것에도 만족했다. 우리는 총동창회 쪽으로 연결해서 F씨에 대해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했다.</p> <p>그 후 고인의 자택으로 다시 올라가 지난번 미처 찍지못했던 영상들을 찍고,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에게 ○○초등학교 동창회사무실 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p> <p>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찾아간 사무실은 문이 잠겨있었다. 인적이 드문 상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연락이 오길 기다리며 쪽지를 남기고 나왔다.</p>		
4차 취재 후 느낀 점	<p>희망을 갖고 찾아갔던 총동창회 사무실 문도 굳게 닫혀있었다. 어떤 진학교로 진학했는지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엄청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는 것같아 힘이 빠졌다. 그래도 아직 지치기엔 해야할 것들이 많다고 느꼈다.</p>		
5차 취재일	14.07.22	5차 취재장소	○○동 지하식당 ○○타운
만난 사람 및 연락처	<p>F 아주머니(F씨 친척누님) ○○ 관리사무소 직원 ○○타운 관리사무소 직원</p>		
5차 취재 내용	<p>○○ 사장님(○○전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F씨의 누님을 찾아보러 버스의 종점이 있는 ○○동으로 향했다. 버스에 내려 조금 올라가니 지하식당이 보였다. 친 누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했다. 마침 식당 문이 열려있었고, 한 어머니께서 나오셨다.</p> <p>조심스럽게 F씨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한참을 들으시더니 본인은 F씨의 누나가 아니라 친척누나라고 했다. 친누나는 ○○에 산다고 하시며, 자신은 F씨에 대해서는 입양된 사실 밖에 모른다고 했다.</p> <p>고인이 살아생전에 ○○사장님과 함께 와서 전기를 갈아주고 했던 기억 밖에 없다고 하셨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 아파트로 향했다.</p> <p>친 누님이 아파트 총무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우리는 버스를 환승하고 환승해 ○○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는 친누님의 성함인 F or F씨의 존재는 없다고 했다. 작은 실마리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논리적이진 않았지만 딱히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 아파트에 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도대체 어디서 꼬인거지...? 더운 여름에 돌아다녀서 그런지 체력이 더 빨리 고갈되었다. 이제</p>		

	<p>방법은 F씨 최초발견자이신 형제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다. 전화번호는 고인의 변사사건 수사를 했던 ○○ 형사님께서 갖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갔다. 형사님이 계신 ○○팀은 문이 닫혀있었다. 우리는 정처없이 10분 동안 벤치에 앉아 있다가 오늘 취재는 그까지 하는 걸로 인터뷰 소감을 찍고 마쳤다.</p>
<p>5차 취재 후 느낀 점</p>	<p>잡힐 듯 말듯 참 애매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됐다.</p> <p>그리고 또 내가 이 분의 삶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되었다. 이 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는 뭐지..? 계속 생각했다. 만약 형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얘기를 묻고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머릿속이 성명해지지 않는다.</p> <p>이제 취재가 얼마 남지 않았다. F씨 케이스의 경우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형과 연락이 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된다.</p>

3. 무연고 사망자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상세 현황자료와 무연고 사망자 사례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자살자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고독사의 경우, 자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고, 무연고사의 경우 자살과 타살을 구분하지 않으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한 시체를 무연고사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사망 후 장시간이 흘러서 발견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자살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백골 형태로 발견되어 성별 불상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자택이나 병원이 아닌 야산에서 백골 형태로 발견된 경우도 간혹 있어 타살 추정도 의심되지만, 단순 무연고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2011년-2013년 3년간 무연고 사망자 2,279명 중 성별조차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59명으로 2.6%에 이른다.

셋째, 고독사는 노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2013년도 서울시 255건의 무연고사 연령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26%에 불과하여 노인 아닌 사람이 전체 68%에 이르렀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51세에서 60세 사이였다. 따라서 고독사 사업을 노인사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고독사 유품정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장사법」은 무연고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자 유품과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취재 사례에도 알 수 있듯이,

사망당시 무연고 사망자의 통장이 사후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유품처리 민간회사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비용으로 유품을 정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섯째,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비 미지급으로 인한 무연고사 처리 및 시체포기각서가 이루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가입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특히 해당 병원에 진료비가 과다한 경우, 병원이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시체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시신들은 의대생들을 위한 해부용 시신이나 인체기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추정될 뿐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IV. 나가며

고독사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유사한 개념인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82명에서 2013년 8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사례 분석에 따르면 미혼, 이혼 등 가족의 해체와 질병, 알코올 중독과 사회복지서비스 단절 등으로 인하여 고독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언론이 고독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아직 국민과 정책당국자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다. 복지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지향한다면 무연고자의 시체처리에 앞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2008년 ‘고독사 제로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따라서 고독사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과 사업을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고독사에 대한 정의 정립이 시급하다. 고독사에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시체’, 경찰청·해양경찰청의 ‘변사자’, 그리고 ‘자살자’를 포함할지 말지는 정의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연고자가 있어도 혼자 사망한 경우, 해당 연고자가 시체를 인수하면 무연고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독사에는 해당한다. 이처럼 무연고 시체의 경우 가족 등 연고자 유무가 중요한 만큼, 통상적 관념의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다른 개념이다. 고독사는 변사자와도 구분된다. 변사자는 타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개월 혹은 수년 이후에 발견된 부패 시신의 경우 자살 혹은 타살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둘째, 고독사에 대한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은 무연고사에 대한 국가통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무연고 시체 처리업무는 지방사업의 업무로 지자체에서 관리할 뿐이었다.

셋째,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대상에 대한 위험요인(장애, 만성질환, 이혼, 가족해체, 장기 무직,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부족 등)과 지역별 취약지역을 확인하여,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들(노숙인 서비스 관계자, 종교인, 인력시장 등)에게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가령 ‘고독사 취약지도’ 작성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고독사는 노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사의 조짐은 사회적 은퇴시점부터 발견된다. 2007년 일본 동경도내 변사자 가운데 55-64세 남성이

44%로 가장 많은 것이 한 가지 사례이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범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독거노인 u-Care서비스, 서울시의 사랑의 안심폰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고독사 유품정리에 대한 지침과 유산 정리가 필요하다.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민간에서 유품정리해주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고독사의 생활용품 정리에 불과하며, 고독사한 사람의 통장, 재산관계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현재 고독사한 사람의 통장, 재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은 기존의 대상별 복지욕구별 복지서비스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대상별로 노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족은 해체되어 가족복지서비스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가족이 있으나 오랫동안 가족과 단절하고 살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추정되고 있다.